

제13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사막같은 오아시스



행정안전부

제13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시부문

금 상 | 매화 _ 정성수

시조부문

금 상 | 겨울 우시장에서 _ 노희석

수필부문

금 상 | 옥이언니 별 _ 정명애

소설부문

금 상 | 사막 _ 황인용

동시부문

금 상 | 내 통장 _ 심금섭

동화부문

금 상 | 할머니의 초상 _ 이윤정

리뷰부문

대 상 | 사막같은 오아시스 _ 김수형

2010年

제13회 공무원문예대전

사막같은 오아시스

제13회 공무원문예대전수상작품집

초판인쇄 | 2010년 10월

초판발행 | 2010년 10월

발행 | 행정안전부

발행처 |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Tel. 02-2100-4257 / Fax. 02-2100-4369

펴낸곳 | 두리design, 02-2269-5624

*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010年

제13회 공무원문예대전



아름다운 감성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따뜻하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형성

올해 ‘제13회 공무원문예대전’에서 탁월한 문학적 소질을 발휘하여
입상하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뛰어난 수상작품
들을 엮어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현직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로 열세번째를 맞이하는
공무원문예대전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문예창작
활동으로 키운 아름다운 감성으로 따뜻한 대민서비스를 펼쳐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수필·동화·희곡 등 7개부문에 걸쳐 총 4,600여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문학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심과 열정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입상작에는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꿈을 잃지않는 가족이야기
가 있는가 하면, 이웃간, 세대간 벽을 넘어 사람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작품도 있었고, 작은 것에서 큰 뜻과 마음을 읽는 통찰력이 뛰어난
작품도 있었습니다.

공직자들의 관심이 사회전반에 걸쳐 보다 넓고 깊게 퍼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언어를 표현매체로 하는 문학은 문화 예술의 기본으로 사람과 사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깊은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사회의 인간다운 삶을 진작시키는 등불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문학활동을 통해 다듬어진 아름다운 감성과 풍부한 상상력은 국민을 진실하게 섬기고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문화창조력이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좌우하는 『문화의 시대』라 할 것이기에 여러분의 창의력이 공직사회 내외에 두루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13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발간을 축하하며 문학을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년 10월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문화를 일깨워 문명과 조화를 이루는 길이 문학의 르네상스입니다

한 인간은 육신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육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정신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존재의 양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육체는 단순히 함께 한다고 해서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병이 생깁니다. 정신만이 강하고 육체가 약하다면 현실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육체만이 강하고 정신이 약하다면 그릇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신과 육체를 함께 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양자를 상호 조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양자의 상생과 조화를 추구하고,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기울여야 합니다. 행복한 삶, 참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이란 모두 정신과 육체가 이상적인 결합을 이루는데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인간의 삶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인 동물인 까닭에 각각의 인간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인간 공동체 즉 사회도 문화와 문명이 상호 조화, 상호 보완하는 질서 속에 그 이상을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편의상 인간의 이 사회적 삶을 인류라고 할 때 인류의 정신이란 문화, 인류의 육체란 문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가 이끌지 못한 문명은 야만적이며 문명이 이끌지 못한 문화는 원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전자의 예를 십구세기의 서구 제국주의에서, 후자의 예를 유럽의 중세 암흑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중세 카톨릭시즘의 종교재판 혹은 마녀사냥은 그 극단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15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대두한 휴머니즘과 이성 중심적 세계관은 인류로 하여금 문명이 문화를 압도하는 세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류의 선사나 역사상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미증유의 자연과학적 세계관을 지향하게 만들었으므로 문화를 문명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불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혹은 인간이 소외된 삶, 혹은 물신을 숭배하는 삶이라고도 합니다. 그 결과 오늘의 인류는 모두 물질과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문화를 일깨워 문명과 조화를 시키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일깨우는 첫 번째의 작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문정신의 부활이요 그 부활을 이끄는 문학의 르네상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간다움은 문화에 있고 문화의 꽃은 바로 언어의 사용에 있는데 그 언어의 꽃이 문학이요 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이처럼 문예 작품을 공모하여 문예대상을 수여하는 행사를 매년 시행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쯏록 행정안전부에서 비화된 이 문예부흥 운동이 단순히 공무원사회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온 나라, 온 국민 나아가서 인류의 인간다운 삶을 진작시키는 희망의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무원 문예대상 심사위원장

오 세 영



시부문

금 상

03 | 매화 _ 정성수 · 전) 전주송북초

은 상

05 | 대나무 _ 강문석 · 제주사대부설중

07 | 의자의 슬픔 _ 곽향련 · 경남 은광학교

09 | 죽변, 아침바다 _ 김춘기 · 경기 현산중

11 | 청초한 신맛 _ 박종영 · 전) 목포경찰서

동 상

13 | 동백 _ 박병준 · 경남 거제옥포고

15 | 저 부추전처럼 _ 강하주 · 경남 진주시청

17 | 금강 하구둑 _ 심은석 · 충남 지방경찰청

19 | 양화대교 _ 전재필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1 | 부산역에서 _ 정태교 · 부산광역시청

23 | 3월 _ 진서윤 · 부산세관

25 | 재개발구역 _ 홍만희 · 서울 노원구청



시조부문

금 상

29 | 겨울 우시장에서 _ 노희석 · 영등포구치소

은 상

31 | 숲 _ 강옥숙 · 경북 청도군청

동 상

33 | 올레길 _ 김덕남 · 부산대

35 | 가을비 _ 신복녀 · 경북 김천 양천초

37 | 멈춰버린 기차 _ 신의숙 · 포항 북구 중앙동주민센터

39 | 청자압형연적 _ 이우식 · 전) 강원 평창군청

41 | 지하도 풍경 _ 전갑성 ·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수필부문

금 상

45 | 옥이언니 별 _ 정명애 · 포항 대이초

은 상

51 | 누룽지 _ 손달호 · 경북 안강중

55 | 아내! 한복입고 외출하다 _ 최호열 · 경찰청 경무국

동 상

63 | 선택 _ 강별모 · 코레일 구로승무사업소

69 | 어머니의 초상 _ 김종석 · 전) 철도청

73 | 돌아온 엄마 _ 박선애 · 경북 경산 정평초

79 | 황룡사에서 _ 손병순 · 부산시 서구청

85 | 아버지의 뒷모습 _ 이동수 · 대전시 교육청

91 | 예상치 못한 눈빛과 미소 _ 홍성호 · 법원도서관



소설부문

금 상

103 | 사막 _ 황인용 · 전) 서울지방경찰청

은 상

125 | 천년의 영광 _ 신유복 · 전) 김천시 남면사무소

163 | 아내의 유언 _ 이수배 · 한국우진학교

동 상

189 | 맑음 그리고 한때 비 _ 신기남 · 동두천유양초

215 | 독도 _ 공관식 · 충남교육청

257 | 뱀뱀이와 아퀴나스 _ 기은영 · 경기 가좌초



동시우문

금 상

301 | 내 통장 _ 심금섭 · 포항 남부초

은 상

303 | 할아버지 나라 _ 민홍규 · 전) 서울 우편집중국

305 | 빨간 우체통 _ 최만호 · 청주교도소

동 상

307 | 내 짝 _ 박선애 · 경북 경산 정평초

309 | 배추 _ 임동학 · 포항 효자초

311 | 살구꽃 _ 정재학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313 | 만들고 싶어요 _ 조숙현 · 충북 동광초



동화우문

금 상

317 | 할머니의 초상 _ 이윤정 · 경기 대원여자중

은 상

329 | 눈꽃 할아버지 _ 윤현진 · 경주 황성동주민센터

동 상

343 | 반항아 수달의 친구만들기 _ 강화성 · 서울시 교육청

355 | 요술주머니와 도깨비 _ 김진우 · 천안교도소

367 | 엄마 단풍나무의 새 눈 _ 박재광 · 수원 오목초

377 | 느림보 도서관 _ 이성희 · 전주 양지초



회곡부문

대 상

391 | 사막같은 오아시스 _ 김수형 · 상주 중앙초

은 상

421 | 큰고니, 우비집사 _ 이완호 · 부산광역시의회

동 상

447 | 동학농민혁명 3걸 _ 은종민 · 전북 정읍시청



심사평

심사위원 명단 /

시 · 시조 · 수필 · 소설 · 동시 · 동화 · 회곡부문



시 부 문

금 상

매화 _ 정성수

은 상

대나무 _ 강문석

의자의 슬픔 _ 곽향련

죽변, 아침바다 _ 김춘기

청초한 신맛 _ 박종영

동 상

동백 _ 박병준

저 부추전처럼 _ 강하주

금강 하구둑 _ 심은석

양화대교 _ 전재필

부산역에서 _ 정태교

3월 _ 진서윤

재개발구역 _ 홍만희



매 화



전) 전주 송복초

정 성 수

통도사 영각 앞, 삼백오십년된 늙은 매화나무가
튀밥 같은 매화를 활짝 활짝 피워내는 것은
밥값을 하기 위해서라는데
노전암을 찾는 중생들에게 내놓는 점심 공양상은
반찬이 스무가지도 넘어서
허기를 채운 어떤 중생은 시죽돈이라며 봉투를 내밀기도 한데
웬 밥값?
부처님께 절 삼배면 충분하다고
주지스님 껄껄껄 웃으신다
공밥을 얻어먹은 매화가 꽃잎을 날려
극락전 옆 돌화수조에 새겨진 작은 돌거북에게 합장을 하고
대웅전 꽃문살에 제 모습을 비쳐보며
작은 것들에게서 뜻을 보고 마음을 읽는다
‘일로향각 一爐香閣’
한 마음을 화로에 넣고 담금질해서 향기를 만든다는
추사의 예서 중, 백미를 가슴에 담은 매화나무
추위가 다 물러가기 전에 남은 꽃망울을 터뜨려야 한다고
온몸에 힘을 준다
매화나무가 절집 처마선과 이마를 마주하는 동안
여기에 발자국을 찍은 중생들은 모두 옆드려
밥값을 해야 한다고
매화 같은 부처님 말씀 영각 앞마당에 그득하다

※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영취산에 있는 절.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임에 틀림없다. 더군다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칭찬에 칭찬을 받는 일일 것이다.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겠는가. 칭찬 방법 중의 하나가 시상이다. 물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야 시상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야 수상이다.

제13회 공무원 문예 대전 시부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생각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을 시에 매달려 오면서 내가 쓰는 시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 조금은 풀린 것 같다. 물론 신춘문예에 당선 되었을 때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이번 기회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어서 기쁜 마음이 크다.

오래 전에 친구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부럽다는 표정을 보였다. 이에 친구는 '박사 학위라는 것은 스승이 없어도 혼자서 학문을 해도 좋다'는 정도의 인증서라고 말했다. 그 말이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친구의 말 한 쪽 끝은 지금의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다.'고 스스로 위안한다. 문학교실이나 평생교육원 등에 적을 두지 않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시를 써도 좋다는 말 쯤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물론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유명시인이 되고 명시를 쓰는 것도 좋겠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를 써야 할 것이다.

요즈음 시가 너무 난해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 독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괜한 말로 어렵게 쓰고, 시인 양 으스스대 "저 무간지옥으로 던져질까 두려워하라!"는 구상 시인의 말이 오늘 새삼스럽다. 결국 좋은 시란 운문으로서의 운율적 요소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이미지와 새로운 인식 내용을 보여주는 작품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사랑받는 시가 어떤 시인지 오래토록 생각해야겠다. '수상의 한 쪽은 영광이요, 다른 한 쪽은 채찍이다.'라는 말을, 시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에 새겨야 할 대목이다.

오늘 밤은 나와 어깨를 결고 한 세상을 가고 싶다는 친구를 불러내어, 술잔의 깊이를 재보고 싶다. 밤하늘 종종 별들이 긴 하품을 할 때까지…….

대 나무



제주사대부설중
강 문 석

비에 젖어
파르르 떨어서
마디 하나를 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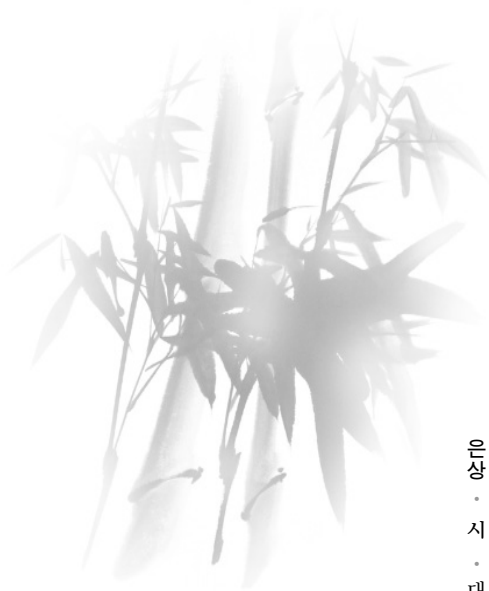
하늘 향하여
한 뼘을 내디디며
지나간 날에 매듭을 짓는다

마디 사이로 대나무는
파란 바람 소리를 내는데

마디 사이로 대나무는
여린 잎 새를 피우는데

우리는
하늘 향하여
몇 번의 마디를 새기었는가

세상 향하여
파란 바람 소리를
어디 낸 적이 있었던가



가슴에 무엇인가 와 닿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속병 앓으면서 남들이 지은 시를 읽으며 많이도 부러워했지요. 시를 쓴다는 것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먼 동경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주변의 사물을 살피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가 되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편하게 글을 쓰고 정리하게 되었지요.

막연했던 감정을 짧은 시로 엮어낸다는 것은 그냥 기쁨이고 환희이지요. 어쩔 때는 하늘 끝까지 날아갈 듯 하고, 어쩔 때는 묘한 감정에 젖어 마냥 빛속을 걸어보기도 하지요.

그런 기분에 젖어서 쓰고 또 쓰게 된 시를 모아 어쩌다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감히 입상은 꿈꾸지도 않았는데, 졸작을 뽑아주셔서 너무나 얼떨떨하고 그저 기쁘고 심사하신 분들께 깊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열심히 글을 쓰라는 격려라 생각하여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아내에게 “그동안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집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두 딸에게도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자의 슬픔



경남 은광학교
곽 향 린

의자가 기울어진다
앉았던 내가 일어서면 중심이 스르르 풀리며
뒷모습을 보이는 의자
어디가 잘못됐지?
다리를 잡고 고장 난 흔적을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는다
언젠가 내게서 등을 돌린 반점 같은 희미한 기억이 있지
그때, 내 등의 서늘함을 껴안느라 며칠 밤을 설쳤다
의자가 네 개의 다리로 앉아 있다는 것은 나의 착각
그것은 제 슬픔을 몸속으로 웅크린 모습일지도 모른다
언제나 내 서늘한 등을 껴안아 준 의자
등과 머리를 받쳐 주면서도 고통을 참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
이제는 낡은 제 등을 한 번 보라고 내 등을 떠민다
온 종일 내 몸을 그에게 맡기고 앉아
밥을 먹고
휴식을 하는 동안
그는 늘 서서 일해야 하는
한낱 도구일 수밖에 없는 슬픔, 그 안에서
나는 늙어가고 있었다
그는 늘 나를 위해 뼈격뼈격 울었다



시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고뇌로운 작업으로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본다.

그러한 나에게 시가 내게로 와서 삶이 기쁘다.
삶이 즐겁다.

이제는 문학의 텃밭에서 시의 꽃을 피우라고 부족하지만 씨방을 터트려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수상하게 된 작품인 '의자의 슬픔'의 소재를 주신 우리학교 홍종선
교장선생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죽변, 아침 바다



경기 현산중
김 춘 기

바다가 출산중이다
어둠의 주름을 열며 에밀레종처럼 머리를 내미는 해
붉은 양수가 비릿하다
태줄을 끊고도 바다는 쉽 없이 팔약근을 조이고 푼다
물의 부드러운 근육을 겹겹 쌓아올린 산맥이
바람을 앞세우며, 달려온다
파도가 볼륨을 낮추자
선장의 늙은 심박동이 빨라진다
어부의 투박한 손이 일제히 그물코에서
가지처럼 곧은 게의 다리를 풀어낸다
붉은 해도 함께 줄줄이 건져 올린다
만선의 깃발이 오르자, 바다는 다시 숨이 가쁘다

파도를 한 장씩 끌고 온 배들이
항구에 가슴을 내려놓는다, 스티로폼 상자가 하얗게 쌓인다
붉은 피부를 접고 펴는 게들의 몸짓
그 광경을 서로 응시하는 깨알 눈빛
태양을 숭배하던 울진대게
다리의 마디마다 힘을 압축한 집게로
허공의 뒤꿈치를 물고 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씩 높아진다
갈 길이 정해진 게들이 트럭에 실린다
제 몸을 공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그 모습이 숙연하다
바다는 하늘을 몇 만평씩 끌어내려 다시 물밭을 경작한다
파도의 등성이마다 물꽃이 만개하는 바다
물밭의 깊은 골마다 어부의 숨소리가 가득하다

여름 바다에 다녀왔다. 해풍을 따라 울레길을 걷고, 갈매기와 함께 섬도 밟았다. 드넓은 바다와 만나면 다들 가슴이 트인다고지만, 나는 어머니의 가슴처럼 푸근함을 느낀다. 아마 그것은 바다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푸른 바다는 늘 내게 에너지를 충전해준다. 몇 년 전에 들었던 죽변의 아침바다는 붉디붉은 빛이었다. 울진 대게의 꿈은 아침마다 해를 출산하는 바다의 빛깔이다.

나는 자주 등산을 한다. 바다에 간다. 자연 그 자체가 바로 詩라고 생각한다. 눈앞에 와 닿는 사물들을 늘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다. 나무는 왜 한자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생명을 끝내는가? 새는 끝없이 날아야만 하는가?

30년 이상의 교직생활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고락을 같이 했다. 지금도 제자들이 나를 보면, 반갑게 눈빛을 보낸다. 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와 텔레파시가 이어진다.

제자들과 손잡고 산과 바다로 가고 싶다. 현산중학교 동료 선생님들과 즐거운 학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나와 함께 詩를 쓰고, 교직의 길을 걷는 아내와 이 기쁨을 특별히 나누고 싶다.

청초한 신맛



전) 목포경찰서

박 종 영

매실나무 꽃 진 후 아흐레쯤 지나
숨털 보송보송 야무진 씨방,
철딱서니 없는 3월의
심술부린 눈발로 오돌오돌 추위 탄 어린 열매,
그런 줄도 모르고
선묘 옆 묵발에 외로움 달래려 심은 청매실 열 그루,
오늘, 낮설게 찾아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아도 예년 같이
콩알보다 더 컸을 열매 보이지 않는다
찬찬히 살피니 가지 뒤에 숨어 두려운 눈치다
그도 그럴 것이 씨방 몽구리던 날,
된 눈 맞아 눈시울 얼었으니 몸을 사리는 것이다
안쓰러워 몇 개 안 열린
어린것들 만지려니 웬걸, 날 가시가 콕콕 달려든다
이게 자식 키우는 어미의 본능인가?
손아귀로 가슬한 밀동에 힘을 주니
그제야 경계를 풀고 대견스레 안기는 푹푹한 웃음,
빙그르르 입안에 고이는
청초한 신맛!

칠십에 능참봉이 되니 한 달에 스물아홉 번 거동한다더니 꼭 나를 빗대어 하는 말 같다.
고래(古來)에 접어 뒤늦게 찾아온, 기쁘고 좋은 일로 여겨 우쭐대고 싶다.
입상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벅찬 기쁨이 큰 물살처럼 출렁이며 잠시 시아가 흐렸다.

다소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조금은 허둥거리면서 자랑할 상대를 고르는 시간의 즐거움도
오직 추억의 한 자락이 될 수 있었다. 돌이켜 보니 시에 발목 잡히고 허우적거리며 청춘을
탕진한 지 40여 년! 문학과 일상, 그리고 공무의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나는 무엇을 꿈꾸며 어눌한 시대에 혼탁한 세상을 나무라며 공복의 수행안에서 시를 버리지
못했을까?

살아오면서 스스로 뿌린대로 돌려받고 갚음해야 되는것도 모두 갈망하는 문학의 틀에서
성찰되었던것이 아닌가? 자위한다.

오랜 시련과 둔필의 시간을 딛고, 문학의 굴레로 나를 다시 오게한 공무원예대전의
큰 모태의 사랑과, 그간 함께한 여러 문우들의 격려와 가끔 아름다운 편지로 해조(諧調)의 기
법을 알려준 살가운 문우들에게도 즐거운 소식 전하며,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미안함과
감사를 보낸다.

그리고 존경하는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올곧은 시 정신으로 거듭나고 싶다.

동 백(冬柏)



경남 거제옥포고

박 병 준

동백꽃 송이 하나
또,
땡그렁
햇살에 베어
떼구르르 자지리지다

한 목숨이
한 목숨을 이끌고
이제 막 지상의 마지막 계단을 내려설 때
잡을 수 없어
잡을 수 없어
새파랗게 울며 떠는 나무가지들,
진양조의 바람은 중모리로 흐르고
꽃들의 산조(散調)
땡그렁 땡그렁
그여 눈부시게 누운 바다로만 떨어지고

이대로 보낼 순 없어
이대로 보낼 순 없어
뿌리까지 흔들며
중중모리로
자진모리로
떨고 울부짖고 소스라치는
저 동백의 멍든 몸뚱아리들

거제도 해금강,
국도 14호선의 눈부신 오후 한 나절



평화로운 여름날의 오후,
 잔잔한 바람에 온몸을 실어 나뭇잎, 풀잎,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와 더불어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 팔베개하고 누워 느낄 때의
 그 편안한 기억들처럼
 해어름 저녁노을 구름들이 중얼중얼 물려들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도덕적 경쟁심에서 자청했던 고난과 희생,
 나의 자기부정, 그리고……. 폐허,
 허무와 광기, 어쭙잡은 시를 붙들고 문학,
 목매달고 죽어도 좋을 나무라 여기며
 또, 몇몇 선배와 후배,
 어둠의 시절에 함께 떠나 보낸 그들의 이름자들을
 그리운 불빛 속에 호명하며 마냥 취기로 버텨겨내던 시절,
 한 편의 시는 내게 구원이었습니다.

……날려 보내기 위해 새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윽고 나는 선생님이 되었고, 몇 해의 봄이 흘렀습니다.
 한 시인은 '첫마음'을 잃지 말자고 했더랬지만,
 교실 한 구석, 밀알같이 흩뿌려진 아이들의 흔적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기껏, 그 시절의 추억어린 시로라도 늘어진 나를 깨웁니다.
 정작 놓치고 있었던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대한 진지한 시선과,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 하나까지 돌아볼 수 있게 해준 아이들,
 '당신'이라는 무수한 이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 부추전 처럼



경남 진주시청
강 하 주

부추전을 부친다
부추, 당근, 양파, 홍합, 땡초
서로 서로 섞이며
노릇노릇 익어간다
맛과 맛이 어우러져
향과 향이 어우러져
하나의 모습을 이루는 부추전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저 부추전처럼 한데 어우러져
천천히 익어가는 것
나의 일상도
둥글둥글 잘 어우러지고 있는 것일까
노릇노릇 맛깔 나게 익어가고 있는 것일까
서로의 맛이 되고 서로의 향이 되어
서두르지 않고 어깨 나란히 나아갈 때
부추꽃 향기 푸르게 깨어나리
속 깊어지고 마음 더 여유로워 지리



수상소식을 접하면서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저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어쩐지 쑥스럽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뜻깊은 상을 안겨준 심사위원님들께 먼저 고마움을 전하며,
내가 사랑하고 나를 또한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시를 쓰면서 저는 가끔 문학의 진정성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그 진정성의 밑바탕이 되는 바르고 참된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말로만 문학의 진정성을
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보다 더 성실한 공직생활과 더불어 시 작업에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직은 많이 미숙하지만 저의 수상 소식을 접하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열심히 시를 읽고 쓰는 길만이 그분들께
보답하는 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금강 하구 독



충남지방경찰청
심 은 석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며
낮과 밤을 만드는 경계선에
강물과 바닷물이 넘나들면서
민물고기 바닷고기 은색비늘 드러낼 때
물새와 바닷새의 날개 짓이 부딪치는 곳

해마다 봄이 되면
거친 심해(深海)에 길을 만든 농어 떼
장대비 여름엔
땅위에서 흘러온 플랑크톤은 생명의 근원
계절이 바뀌는 가을이면
해와 달을 벗어나 수만리 하늘 길 만든 철새 떼
시린 눈보라 겨울엔
강 얼음 깨치는 빙어 떼
서로의 간절함이 요동치는 곳

하지만,
태초에는 짜디짠 황해(黃海) 내륙까지 밀려와
고달픈 벼농사 망친 농(農)꾼들이
강나루 외로운 나룻배에 슬픔 실어 보기도 전에
서러운 장맛비는 싹누런 탁류(濁流)로 활귀고
민초(民草)의 꿈 쓸어버리던 금강(錦江)
반만년 한(恨)서린 충청, 호남양안(兩岸)이
이제는 6차선 제방도로 뿔 뚫려 하나 되었고
군장(群張) 산업단지로 비약(飛躍)하는데
본래 인간이 소망하여 만들었지만
자연생태가 다시 만든 금강 하구 독

이다지도
세상의 온갖 생명들이 팔딱대는
이곳은
해상(海上) 이며 지상(地上),
그리고 사람 사는 하늘아래
낙원(樂園)이리라.

※ 금강 하구 독은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금강하류를 막아 1990년에 8년 만에 완공한 총길이 1,841m 저수량 1억 3천 8백만 톤의 인공호로 금강연안의 홍수조절과 생활용수를 제공하고 독 위에는 두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관통도로가 개설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며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는 담대한 소망으로 경찰관이 된지 26년 세월이다.

내 언젠가 돌아갈 대지(大地)위의 묘비(墓碑)에 “내 어영부영 살다 이럴 줄 알았다” 고 묘비명에 쓴 버나드 쇼우 처럼 “이건 아닌데, 이렇게 쫓기며 살아야 하나” 하면서, 40대 중반이 지나는데 내 삶속에서 뭔가 인생을 돌아보고 즐거운 생각을 많이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틈틈이 짧은 생각과 감정들을 메모했다.

시가 뭔지 잘 모르지만 진솔한 생각과 이미지와 감정과 사물의 느낌과 아름다운 자연을 자연스럽게 한글이라는 언어로 엮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가 감동을 주는 것은 삶에 뿌리 박고 삶속에 있어야 하는 솔직한 경험이기 때문임을 믿는다.

보잘 것 없는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내 고장 서천에 있는 금강 하구 독에 꼭 한번 오시라고 권하고 싶다.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을 가르는 금강변에는 하구 독이 만들어 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두고 온갖 철새와 물고기와 갈대가 밀물 때에는 부서지는 파도가 바닷물 속 생명들과 함께 들어오고, 밀려가는 썰물 때는 장장 400Km를 흘러온 플랑크톤 생명체가 녹아있는 금강물이 드나들고 봄, 가을 철새들이 만났다 헤어지며 자연생태가 요동치는 경계선이다.

1990년 금강 하구 독이 완공되기 전에는 바닷물이 역류하여 농사 질 수 없었고 매년 홍수에는 배수시설이 없어 물난리를 겪는 지역이며 양 기슭의 농어민들은 나룻배로 서로 교통(交通)하면서 힘들고 외롭게 살아 오셨다.

금강 하구 독은 두 지역을 군장(群張) 산업단지로 크게 발전시키고 두 지역을 하나가 되게 하며 온갖 새들과 어류가 몰려드는 생태계가 살아 있는 지역으로 변모시켰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지만 환경을 살리고 자연 생태계에 활력을 주는 시설인 것이다.

최근 4대강 건설 관련 환경 생태계를 파괴 시킨다고 반대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杞憂)일 것이며 보(淤)를 설치하고 강물을 막아 인공호수를 만든 금강 하구 독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인지는 현지를 돌아보면 바로 실상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일에 빛과 그림자가 있고, 이해가 상충 되겠지만 자연생태를 보존하면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책은 문명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금강 하구 독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자연생태의 낙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4대강의 보 설치와 인공호수 설치하는 것이 환경 파괴 행위가 될 수 없으며, 물 자원 관리가 중요시 되는 오늘날에 향후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도 환경보존과 물의 적절한 관리에 다함께 힘을 모아 가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해 본다.

양화대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전 재 필

여의도 봄꽃의 하얀 꽃빛이
양화진으로 훑날리던 봄날이었을 것이다
강물이 바다냄새를 품고
무겁게 푸른 물고기를 쏘아 올린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도
바다는 배부르지 않고
흐린 정오의 한켠에서
먹물같은 노래가 나에게로 역류해 온다
이 강물에 뛰어들면 죽을 수 있을까
모르고 몸을 던지면 모든 것은 바다로 갈 것이다
양화대교 위에서 보니 알 것 같다
모든 죽음이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고
이별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견디지 못할 사랑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음을
봄날에 용케 양화대교를 건너는 사람들은
배부르지 않는 바다와 친구였을까
바다냄새가 나는 강물속에는
모르고 사는 내가 푸른 물고기로 살고 있다

우연히 문예대전 공모를 보고나서 그동안의 몇몇 습작들을 골라
해외출장 직전에 직장동료에게 부탁하여 작품을 출품하였었다.
어떤 작품을 출품했는지조차 조금씩 잊혀져갈 즈음에
뜻밖의 수상소식을 들었다.
기뻐다.

학창시절부터 가끔씩 문예집에 글을 실어 보기는 했어도
한번도 상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더 기뻐는지 모른다.
글을 쓴다는 것은 고단한 삶을 얼마동안이라도 잊게 해주는
마약같은 것일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을 했다.

부족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부산역에서



부산광역시청
정 태 교

경부선 열차를 따라 내려온 눈들은
더러는 역 광장에 몸을 풀었다
발길에 채이고
들것에 실려 나가기도 하면서
고단한 몸 일으켜 세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나고
문경새재 험한 길 넘어온 몸이라고
허연 비늘 돌우는 눈들
바람에 쓸려 나가도
건물 귀퉁이에서 다시 스크럼을 짜고 있다
열차는 쉴 새 없이 눈들을 실어 나르고
분분한 눈발에 섞여 거리로 나서면
이 밤 다들 어디론가 총총히 걸음을 옮기고
불빛이 더없이 그리운 것인지
눈들은 가로등 아래서 서성이고 있다
어깨에 묻은 눈을 털면서
버스가 올라가는 산복도로를 몇 번이고 바라보다가
광장을 뒤돌아보면
희미한 포장마차의 불빛 너머로
눈들은 축복처럼 내리고 있다

수많은 사연과 이별의 노래와 애환이 묻어 있는 부산역...
플랫폼을 나서면서 바라보면 주변 풍경은 정겹기만 하다.
구봉산, 수정산이 성큼 다가서고
산의 굴곡을 따라 울망줄망 들어선 집들
버스가 지나가는 산 중턱 망양로를 바라보면서
눈들은 안도하고 몸을 풀었으리라.

그렇다. 날이 밝으면 자갈치시장을 찾을 것이고
국제시장을 둘러 용두산 공원의 계단들을 밟다보면
부산역은 내려오는 눈들에겐 종착점이지만
내린 눈들에게는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정이 지나자 열차는 숨결을 고르고
철썹철썹 파도소리 밀려드는 부산역

3월



부산 세관
진 서 윤

밤새 잔잔하게 비가 내렸는데요

흙 비린내에 취해 슬금슬금 달아오른 홍매화도

꽃가지가 붉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슬쩍 스커트만 들추다 말고

이월이 눈 흘기며 달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열린 창문으로 들어서는 바람에게서 청결한 향기가 납니다.
정말 오랜만에 촉수 낮은 불빛아래서
언어를 빌려 쓰는 동안 좀처럼 규정되지 않는 그는
뜬금없이 한바탕 소나기를 부려놓고 가기도 합니다.
어느새 여름은 절정입니다.

내게 있어 글쓰기란,
외면하고 싶었던 것을 포함해서 성장기의 한 시기에 겪었던 불균형에 대한
의문이 조심스럽게 데려다 준 길이었습니다.
다가오는 것에 대해,
잠시 머무는 것에 대해,
그리고 결핍으로 남겨진 것들까지 울림으로 걸려져
나이 들어도 맑은 눈빛으로 변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으로 다가와 준 문학, 두려우면서도 외면할 수 없는
그 외로운 시간이 늘 행복합니다.

재개발구역



서울 노원구청
홍 만 희

가벼워진 몸,
개망초 꽃망을 터뜨리고 있다
알토란같은 생애위로
소리 낮게 드러내며
아무도 훑쳐보지 않는 출구에서
몸을 숨기지 못한 채
발돋움하고 있다
어느 한곳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이웃의 얼굴들
변두리로 쫓겨
겹겹이 끼입은 세간살이
세상에 던졌을 부풀은 꿈들을
곹씹는다
아물지 않는 근심은 공복이 되어
생의 뒤편 바람이 지날 때마다
눈이 부시다
수많은 햇살 담그며
앞 뒤 가릴 것 없는 삶
마주 오는 바람조차
비켜서지 못하고
젖어들은 처마밑
누군가의 마음을 담아둔
햇살을 어루만지고 있다

희망제작소

항상 내 곁에 있는 느티나무가 어느새 몸 속 깊이 들어 왔다 나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느티나무처럼 자라고 있다
뿌리는 내 몸 구석구석 길을 내며 믿을 수 없는 곳까지 흠어져 나간다
뿌리 끝에 온몸이 아프다
하수구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끝내 물고 늘어진 채
숨어 버린 상처가 끓고 덧난 속덕거리는 소리, 들린다 달을 끌어 들인다
물레 비밀을 털며 어둠속에 녹아 들어간다
사방 출구에 들어찬 어둠이 내 망막 속에 걸려든다
노점상 활어가 펄떡인다
주인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아무진 손길 따라 바깥쪽으로 머리를 두고 나란히 누운 활어들,
소쿠리에 소복이 쌓여 있던 것을 기억한다
거짓말 할수록 나의 코가 빨갛다
가격홍정을 하며 글감을 담는다
늘어진 거드랑이 그네를 탄다
결코 쉽지 않던 시는 유명한다
활어가 머릿속에서 팔딱인다
오랜 생각 잠시 접어든 시어가 트집을 잡는다
벌써 "나의 시"가 내 머릿속에 올라 앉아있다

시가 뭔지 모르지만 기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의 시를 묵묵히 봐준 아내와 나의 버팀목인 되어준 큰 아들 기현,
기대 그리고 매형, 누님, 동생, 제수씨, 조카들에게 기쁨을 전한다.
문학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신
서울산업대학 문예창작학과 이사라, 신기상, 박정규, 김미도, 신영우, 최승호 교수님께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금봉어방 문우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리고 늘 곁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도 존경하는 마음을 보내 드린다.



시조 부문

금 상

겨울 우시장에서 _ 노희석

은 상

숫 _ 강옥숙

동 상

올레길 _ 김덕남

가을비 _ 신복녀

멈춰버린 기차 _ 신의숙

청자압형연적 _ 이우식

지하도 풍경 _ 전갑성



겨울 우시장에서



영등포구치소
노희석

사람 속 몇 길인가 헤아릴 수 없는 건가
화물칸 뒷자리에 네 발로 버텨 서서
어디로 실려 가는가, 목 메이게 묻는 황소

강물도 돌아눕는 서릿발 치는 들녘
목덜미 다독이던 그 손길 잊 이었나
누렁 소 붉은 울음이 바퀴마다 감긴다

우형기 눈금 위로 쌓여가는 한숨소리
목숨값 눈대중으로 줄줄이 매겨놓고
한 사발 해장국 속에 풀어놓던 저녁 노을



길을 나서다보면 풍경이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다.
 쓰리게 다가올 때가 있다.
 아리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래서 주위를 아랑곳 하지 않고 한참을 들여다보곤 한다.
 귀 기울려 들어보곤 한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 순간, 순간을 되새겨 돌아다보곤 한다.
 어느 겨울날 우시장에서 만난 소의 모습은 내 마음을 송두리 잡고 말았다.
 오랜 묵언정진 끝에, 아예 말문을 닫아버린 노스님 같은 모습이었을까.
 눈빛이 하도 형형하여 차마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끝없는 인간의 탐욕 앞에 순순히 코뚜레를 내어주고,
 이제는 그 고삐에 끌려나와 그저 멍하니 먼 하늘을 올려다보는
 소의 무구(無垢)한 마음 앞에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차라리 내가 그 앞에서 두 무릎을 꿇어야 할까보다.
 四顛五起의 먼 길이였다.
 시조를 가장 윗자리에 선택하여 주신 민병도 심사위원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영터리 농부는 열매를 보고 농사를 짓지만,
 현명한 농부는 과일나무를 보고 농사를 짓는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새기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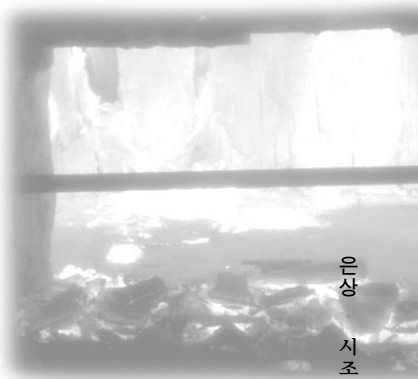


경북 청도군청
강 옥 숙

나에게로 가는 길은 하얀 속살 발라내어
화알 활 타오르는 꽃불 속에 사루고
그래도 남은 미련은 뺏속 깊이 삭히는 일

나에게로 가는 길은 돌아서서 다시 만 리
재로 남은 한평생 별빛아래 닦아두고
가만히 오는 시간을 모로 서서 기다리는 일

침묵을 도로 깨워 나에게로 가는 길은
마침내 고운 불씨, 생명의 혼 불려내고
뜨거운 숨결 고르며 박동 뛰게 하는 일



제 고향은 이호우 이영도 오누이 시조시인의 탄생지인 경북 청도인지라 근대 시조의 유명한 분이시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시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더랬습니다. 우연히 청도 공공도서관에서 “주부독서회” 문학특강으로 민병도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한다기에 청강생으로 참여한 계기가 되어, 우리 고유의 民族詩인 “시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조가 어렵다고만 여겨 도무지 시조쓰기에 엄두가 나지 않아, 6개월 동안 한편도 못 쓴 채 해가 바뀌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인생공부의 장이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에 부담없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가, “글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해주실 때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상시 맞벌이에다 세 아이 교육과 가정살림에 쫓기다 보니 “나만의 시간”이 부족했던터라, 새벽시간 주로 화장실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시조열락”에 빠져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함과 동시에 집중력이 높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염천에 시원한 소식이 날아 든 제 13회공무원 문예대전에서 시조부문 심사위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더 글공부에 정진 할 것 이리라 다짐 합니다.

근래 서울과 대구에서 “무위자연”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어 극찬을 받은 화가시면서 한국의 시조단의 큰 스승이신 민병도선생님께 다시 깊은 고마움을 드리고, 함께 공부 해온 “글발묵우회” 회원들과 이 기쁨의 상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올레길



부산대
김 덕 남

어둡살 헤치면서 새벽이 해를 친다
현무암 우렁이 길 깨어나는 돌밭 너머
왕소금 머리에 이고 길 나서는 어머니

자식들 콧물 닦고 허물 덮던 무명치마
풀 먹인 홀적삼은 갯바람에 선득해도
허리끈 질끈 동이어 힘주어 걷는 발길

절벽을 밀고 오는 용트림의 검은 파도
야수처럼 물려와 울부짖는 하얀 울음
생애는 세월의 더께 소금보다 더 짠 것을

허기 채운 짹짹한 땀 서둘러 오는 길목
길섶의 질경이 신발 소리 홀로 듣고
올레길 굽은 등 위로 초승달이 외롭다



희망이 솟는다. 공무원 정년을 앞두고 정년이 없는 일거리를 생각해봤다. 어릴 때부터 문학에
의 길을 동경해오다 다행히 2년 전부터 시조공부를 한 것이 오늘의 결실을 낳았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하늘도 푸르고 산도 푸르고 마음도 푸르다. 매미 유충이 허물을 벗어야
날고 노래할 수 있듯이 공무원이라는 허물을 벗고 시조를 위해 날갯짓을 할 것이다.

눈 감으면 밀려오는 동구 밖 까치소리, 장에 갔다 간고등어 한 손 들고 올레길로 들어서는
우리들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올레길을 착상했다. 좋은 일 곳은 일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그 길
이야말로 우리들의 조상이 걸어왔고 내가 걸어가고 그리고 후손이 걸어갈 길이 아니겠는가?

나에게 문학의 마중물 되어주신 이광수 교수님, 함축과 절제와 가락 속에 이야기를 넣어 세상을
비추는 시조의 멋을 가르쳐 주신 임종찬 교수님, 삶의 등대가 되어 준 속희 언니, 자연과 더불어
항상 글감이 되어준 가족, 특히 최초의 독자이자 비평가인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찬 하늘 속 나뭇가지 꼭대기에 마지막까지 남아 허기진 날짐승의 까치밥이 되는 흥시처럼
글로써 누군가의 까치밥이 되고 싶다.

가을비

가을비는 추수 끝난 들판에도 내리지만

때로는 고향생각 창밖에다 불러 놓고

해종일 청얼거리며 내 가슴을 적십니다.

빗발도 유리창에 빗금 치는 밤이 오면

이 생각 저 생각을 가로놓고 세로놓고,

세월도 흘러진 억새밭 잠이 오질 않습니다.



경북 김천 양천초
신 복 녀

남들이 다들 잠든 늦은 밤에 달맞이 꽃은 피어서 세상을 밝힌다.

달빛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세상을 더 은은하게 빛나게 하고, 새벽을 여는 사람들에게겐 싱그러운 이슬을 머금은채 희망과 힘을 주는 꽃. 은은한 꽃향기 담아서, 말없이 희망을 주는 달맞이꽃처럼, 요란하지는 않아도 인간이 사는 세상엔 없어서는 안 될 들판과 길가에 흔히 보이는 작은 풀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아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분명 편안함을 주는 '푸른빛'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틀림없는 존재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주는 풀향기처럼, 조용히 내 할 몫을 하면서 남에게 산소와 향기를 주어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며 살기를 위하여 대학시절 서예전을 앞두고, '초향'이라는 호를 절친한 친구로부터 받고, 맘에 들어했고, 그 뒤 스님께 '무진보'(보배로움이 무진, 무궁하게 숨어있다.)를 받았지만 부담스러워 잘 쓰지 못하고 풀향기처럼 살고자 노력하며 주어진 일에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훗날 어느 시인의 노래에 언급된 것처럼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조금이라도 후회가 적게 하기위하여 노력했다. 그러는 과정에 무엇이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비록 동상이지만 제3회 공무원문예대전때부터 참가를 희망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버려기만 하던 내겐, 김천을 제 2의 고향으로 살게 된 인연이 시조의 거장 '白水 정완영선생님을 만나는 행운을 주었다. 그 인연이 꼭 참여하고 싶은 이 대회에서 영광스럽게도 '입선'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것 같아 감사하다.

남들은 열매를 맺을 시기에 늦깎이로 출발하여 부족한 감도 많이 들지만 그럴수록 열심히 노력하여 나를 따르며 바른 길을 가는 나의 제자들과 보살핌이 적은 어미의 손길에 늘 미안해하는 마음을 알고 바르게 자라주는 세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남은 인생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글을 많이 써서 김천의 자량은 물론 나라와 세계의 거장이신 정완영선생님께도 보답하고 싶다.

6.25 고아로 당신은 힘들고 괴로웠으나 자식들만은 잘 살게 하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 공부를 시키신 어머니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 어머니 안게셨으면 나는 이 자리에 육체든 정신이든 존재하지도 않았을테니까....

그리고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성실히,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며 사는 공무원, 안정적인가, 특별한 낙이 없다고 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뜻깊은 기회를 주신 '행자부'에 감사를 드린다. 참가자도 늘고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훌륭한 자원을 더 발굴하고 배출하는, 더 빛나는 문예대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담당하는 모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멈춰버린 기차

- 어느 기초생활수급자의 죽음 -



포항 북구 중앙동주민센터

신 의 숙

빛바랜 바람벽과 다 낡은 이불 하나
두어 점 현 옷가지 검버섯처럼 걸린 빈 벽
아무도 찾지 않는 방엔 냉기마저 녹슬었다

고단한 평생을 덜컹거리며 달려온 기차
마지막 한 고비를 넘는 쇠잔한 등뼈엔
하얀 밤 갑아먹은 기침 가시처럼 박혀 있다

주인 잃은 맥박 소리 시계추에 걸터앉아
막다른 경계에서 한 생을 놓았는가
다음날 기적소리는 끝내 울리지 않았다



주민에게 보다 친근한 써비스를 위하여 현장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중 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 마음을 아리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멈춰버린 기차가 되어버린 소식을 접하면서 무엇인가 쓰지 않고는 안되겠다는 마음을 머릿속에서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된 것은 현장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진솔한 내용을 소재로 한 것이 심사위원님들께 좋은 의미로 봐 주시지 않았나 하고 조심스레 생각을 하면서 부족한 저의 작품을 선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상을 계기로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과 긍정을 주는 따뜻한 글을 쓰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조 공부를 해보라고 권해 주었던 친구인 수필가 박모니카와 포항시립 도서관 현대 시조 서숙희 강사님께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포항시청 공무원문학회 활동을 더욱 더 열심히 하여 우리 포항시의 슬로건인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창작 활동에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청자압형연적(靑磁鴨形硯滴)



전) 강원 평창군청

이 우 식

살풋 허공을 찢으며 고개를 든 청둥오리
싱싱한 탕줄 같은 연꽃대를 꼬아 물고
고려의 푸른 강줄기를 거슬러 오르고있다

비껴 내린 빗살무늬 뽀얀 햇살 한 점이
蓮 잎새 봉오릴 피운 깃털에 스치우면
푸드득 힘찬 날갯짓 하늘로 박차오를 듯

무릎을 꿇고싶은 부끄러운 지난날들이
네 말간 눈망울 속에 거울처럼 떠오른다
호숫가 외로운 쪽배 하나 바람에 일렁이고

거칠게 와 부딪치는 소용돌이 물살 앞에
의연히 마주한 자태 지그시 깨친 모습
마침내 세상을 훌쩍 건너 피안에 이르렀다



우리 민족 전래의 아름다운 글체인 시조를 배우고 써오면서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유시의 모태와 본향이 시조인데 그 뿌리를 외면하고 멀리한 채 어떻게 시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의구심이 그것입니다.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정형시인 시조는 언어의 희롱과 기만을 허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 엄격한 내재적 자율성에 기반을 둔 장르이므로 아무나 섣불리 근접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언어의 정수와 미학이 어떤 수준과 품격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조의 대중화라는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우선 시조시인들이 빼어난 작품을 많이 선보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의 아류에 머물러서는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갈고 닦아 격려에 보답하고자 하며 졸작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하도 풍경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전 갑 성

가파른 계단 바닥에 방을 들인 한 사내
절름발이 도심속에 등껍질이 두터워지고
세상에 손바닥 하나 넉죽 내놓고 있다

어찌다 제몫의 두 다리 다 삼켜버리고
몸통 하나로 내 딛는 반쪽짜리 인생
비릿한 목숨 한줄기로 바닥을 뭉개고 있다

초승달 동전 한뼘 두뇌 몸을 덧대는 초저녁
갈 길이 먼 거북이처럼 허름한 지하도에
온종일 발 목 뻗 하루가 무겁게 걷고 있다



지하도를 건다보면 사람이 사는 것 같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 우선 입구부터 리어카에 철철 넘치는 울긋불긋한 옷가지로 시작하여 보글보글 오뎅 국물이 끓어오르는 포장마차며 거동이 불편한 아저씨가 쥔 동전바구니에 철썩철썩 100원짜리 동전 떨어지는 소리도, 타박타박 여인들의 구두 굽 소리도 정겹다.

사실 시골에서 태어나 글 솜씨도 없었지만 중학교 시절 교내 백일장 때 담임선생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던져주신 칭찬 한 마디가 문학의 씨앗이 되었다 시는 가끔 써 왔지만 시조는 한 번도 써 본적이 없는데 이번에 용기를 내봤다.

모든 사물을 글로 묘사할 수 있다는 것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무형의 재산은 아닐런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탄광에서 목화 구름을 캐내 듯 늘 모티브를 찾아 헤매지만 언제나 제자리다 씨줄과 날줄도 없이 엮기 설기 거칠게 엮어진 제 작품에 입상이라는 낙점을 찍어주신 심사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수필부문

금 상

옥이언니 별 _ 정명애

은 상

누룽지 _ 손달호

아내! 한복입고 외출하다 _ 최호열

동 상

선택 _ 강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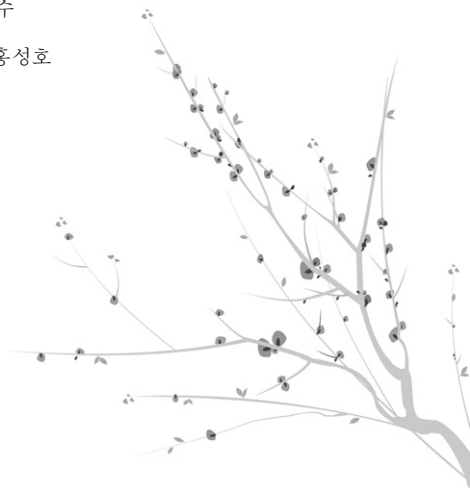
어머니의 초상 _ 김종석

돌아온 엄마 _ 박선애

황룡사지에서 _ 손병순

아버지의 뒷모습 _ 이동수

예상치 못한 눈빛과 미소 _ 홍성호





포항 대이초
정 명 애

옥이언니 별



아이들이 바깥놀이 하기에 좋은 여름날이다. 남편과 나는 맛별이를 한다. 낮 동안 큰 아들은 아파트 근처 어린이집에 맡기고, 작은 아들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맡겼다가 퇴근할 때 집으로 데리고 온다. 두 아이들과 함께 놀아 줄 시간이 부족한 우리 부부는 저녁 시간은 온전히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저녁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마냥 신나게 논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모래를 가지고 두꺼비 집을 만드는 것이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모래 속에 넣어 두고 모래를 야기 잠재우듯이 정성스레 툭툭 다독여서 적당한 때에 손을 빼면 저들 주먹만 한 크기의 예쁜 집이 지어지곤 한다. 집을 지을 때의 정성스런 두 손길엔 엄숙함마저 감돈다. 모래집을 짓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불현듯 이제는 얼굴조차 까마득하게 잊혀진 옥이언니 생각이 난다.

‘아 그렇지, 옥이언니도 저렇게 우리 아이들처럼 집을 지으며 놀곤 하였지…….’

내가 자랐던 어릴 적 집 뒤뜰 울타리는 싸리나무로 엮은 것이었다. 그 울타리 주위에는 소꿉장난을 하다만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그 당시 우리들이 주로 가지고 논 장난감은 납작한 돌멩이, 반들반들한 조개껍데기, 깨진 장독 뚜껑, 이가 빠진 사기그릇 같은 것들이다. 이것들을 가지고 주로 미래에 살고 싶은 우리들의 집을 만들었다. 집 주변을 돌담으로 든든하게 쌓았고 방안에는 몇 가지 튼튼한 가구를 들여 놓았다. 어떤 아이는 흙밥이나 모래 반찬을 만들어 근사한 식탁을 차리기도 했다. 이런 소꿉놀이를 하는 우리들 틈에 끼어 누구보다도 가장 멋지게 집을 짓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옥이언니였다. 나보다는 열 살 정도 많았다.

옥이언니는 소꿉놀이를 할 때 우리와는 달리 다른 것은 아예 하지 않았고 항상 흙으로 집만 열심히 만들었다. 우리들이 학교에 가고 혼자 울타리에 남아 있을 때면 집짓기에 더 정성을 쏟았고 때로는 납작한 돌로 세 칸의 방을 만들기도 했다. 학교를 마치고 울타리 근처로 가보면 언니의 얼굴에는 뽀얀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자기가

만든 집을 자랑하려는 입은 언제나 실룩거렸다. 언니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언니의 돌아간 입꼬리에 오랫동안 눈을 맞추고 귀를 쫓긋 세워야만 우리들은 겨우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손 동작 역시 어설프다.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싫은 기색 없이 오히려 입꼬리 사이로 허연 이를 더 크게 보이며 웃기만 하였다. 나는 그렇게 웃는 언니가 싫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집 울타리도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서 종일 죽치고 앉아 있는 언니가 더 싫었다. 게다가 나를 가만 두지 않고 내 손을 끌며 울타리 밑에서 같이 놀자고 졸라대는 것도 성가셨다. 그러나 언니는 내가 언니를 싫어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 집 울타리 밑으로 매일 같이 왔는데 그 이유는 우리 엄마 때문이었다. 엄마는 언니가 불쌍하다며 나보다 더 언니를 끔찍이도 위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언니가 우리 집 울타리로 오지 않았다. 언니가 짓다만 집이 비를 맞아 흙은 씻겨 가고 말간 돌탑만 남았는데도 언니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귀찮던 언니가 오지 않으니 웬일인지 나는 마음 한 쪽이 허전했다. 며칠 후 언니의 안부가 궁금하다며 언니네를 다녀온 엄마는 하염없이 우셨다. 이유를 묻는 내게 엄마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언니가 짓다 만 허물어진 집 앞에서 며칠을 우시기만 하셨다. 언니가 사라진 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언니가 갑자기 많이 아파서 죽었고 시신은 화장하여 뒷산에 묻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언니네 남은 식구들은 우리 마을을 떠났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또 하나의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 당시 옥이언니네는 고성이가 오가는 소리가 늘 끊이질 않았는데 그 소리의 중심에 항상

옥이언니가 있었다. 언니가 사라지기 전날도 옥이언니의 울케와 엄마가 크게 싸웠다. 고부간 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는 그 옆에서 천연덕스럽게 혼자서 중얼거리며 놀고 있는 언니 모습을 본 언니 엄마는 화가 났단다. 창고에 가서 작은 병을 들고 와서는 잠 잘 듣는 약이라며 언니를 속여 억지로 약을 먹였다. 결국 언니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어찌면 우리 엄마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아시고 며칠을 그렇게 슬프게 우셨던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도 나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른다.

우리 집 농토는 많지 않은 편인데다가 모두 척박하였다. 그중 유일한 채소밭은 언니가 화장되었다는 뒷산에 붙어 있었다. 나는 언니가 사라지고 난 뒤 한동안 그 채소밭을 갈 수가 없었다.

우리 마을을 떠난 언니네 식구들은 다들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 같다. 언니 아버지는 언니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 오빠는 술과 노름판을 전전하고, 언니 엄마는 당뇨를 앓다가 합병증으로 양다리까지 절단하였고 결국은 두 눈을 부릅뜬 채 세상을 떠났다.

간혹 언니 생각이 날 때면 지금도 나에게서는 언니의 죽음만큼이나 의문스런 것이 있다. 언니가 울타리 밑에서 지었던 집에는 항상 지붕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때 언니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벼열, 벼열?”

이라고 했던 것도 같다. 지금 생각해 보니 언니는 아마도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장애가 가족 간의 불협화음을 불러왔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던 언니는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우리 집 울타리 밑으로 출퇴근을 하였고 그곳에서 자신이 꿈꾸는 행복한 집을 만들어 다툼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가족상을 그려보지는 않았을까? 어떤 날은 언니가, “아아버버” 하며 중얼거리기도 했다. 이 말은 어쩌면 자기가 만든 집이 하늘로 향하는 길과 통해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게 언니의 마음을 전달한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에는 바보소리 듣지 않는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소원을 빌었을 것 같다. 밤하늘에 있는 아버지별을 항상 보기 위해 일부러 지붕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놀이터 뒷산에 별이 총총히 뜨기 시작한다. 산위의 별 중에서 나의 온갖 구박에도 허연 이 드러내며 웃던 옥이언니 별 하나가 반짝 반짝 빛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밤 우리 가족의 등지 속으로 그 별 하나 초대하고 싶다. 그리하여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으로 따뜻한 저녁상을 차리고 싶다. 그 별이 비록 우리 아이들보다 손가락질이 서툴더라도 놀리지 않고, 입안에서 밥알이 흘러 내려도 지저분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 현관문으로 들어서서는 내 등에 옥이언니 별이 업혀 있다.

며칠 전 엄마한테 다녀왔다. 어릴 적 친구들과 옥이언니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싸리 울타리는 어느덧 시멘트벽으로 변했다. 우리가 가지고 놀았던 소꿉놀이 장난감이 있던 곳은 농기구로 채워져 있다. 잿빛 벽에다 빵을 대고 그를 천천히 안아본다. 싸리나무 냄새가 난다. 그렇게 한참동안 서 있었다.

두 번의 장한어머니상과 효부상을 받은 우리 엄마, 한글 해독을 제대로 못하는 엄마 눈을 대신하여 내 목소리가 ‘옥이언니 별’을 읽는다. 유독 등이 굽은 엄마는 아예 고슴도치가 되려는 지 자꾸 자꾸 몸을 웅크리신다. 그 사이로 툭툭 눈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문장사이로 들린다. 엄마의 등 굽이에서 흐르는 저 바늘 눈물이 ‘옥이언니 별’을 그리게 했다는 생각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다.

수상소식이 알려지던 날 새벽에 꿈을 꾸었다. 그는 공무원문예대전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나의 작품이 주제와도 벗어났고 다른 경쟁작품이 한 편도 없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했다. 떨어진 사람에게도 전화를 다 주냐는 내 궁금증에 작품을 심사도 못해본 것이 너무 미안해서 특별히 전화를 했단다. 출근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생생한 꿈 때문에 나는 마음이 자꾸만 초조해졌다. 만약 꿈이 현실과 반대라고 한다면 ‘동상’ 정도는 받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2시 30분경 나의 전자우편함속에는 너무도 뜻밖의 결과가 도착해 있었다. 잠시 숨이 멈추었다가 침과 함께 목안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의 글쓰기와 삶의 방식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준 글쓰기 스승인 김살로메 선생님과 문우들, 남편의 환한 얼굴과 큰오빠의 따스한 미소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이 설레임을 가져다 준 것은 공무원문예대전이란 행사를 개최해 준 행안부와 내 글을 뽑아 주신 심사위원님을 덕분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글을 쓰라는 뜻이리라.

조만간 서울을 다녀 온 후 엄마와 함께 두 곳을 다녀올 예정이다. 먼저 뒷산에 갈 것이다. 옥이언니의 마지막이 가루로 흩날렸던 그곳에 가서 상금으로 마련한 따듯한 밥 한끼를 차려 줄 것이다. 언니의 흰가루가 내 몸에 달라 붙을까봐 무서워 35년 가까이 눈감고 비켜갔던 그곳에서 말이다. 그리고 뒷산과 마주한 달길재를 오를 것이다. 그곳에는 4년 전부터 봉분으로 거처를 옮긴 아버지가 계신다. “니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을 못 보내 준 것은 그놈의 가난 때문이지 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글 쓰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아버지의 무릎에 국무총리상을 얹혀 줄 것이다. 가만히 상을 어루만지실 아버지가 보인다.

이제 나의 가까이에 있었던 소중한 분들이 조금씩 별이 되어간다. 언젠가 나는 그 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난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가슴속에서 웅웅거리며 살아있는 그분들의 소중한고 따스한 이야기들을 더 열심히 펼쳐나 가리라 다짐해 본다.

지금 밤하늘에는 무드위를 잇게 하는 별들이 쏟아져 내린다.

누룽지



경북 안강중
손 달 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누룽지는 부녀자의 가정 살림 운용 능력을 재는 기본 재료이다. 시집온 새댁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심신을 매만지며 살림살이를 배운다. 어깨너머로 본, 시어머니가 누룽지를 처리하는 지혜도 빼놓을 수 없는 공부 감이다. 누룽지로 끓여 두었다가 아이들 일 시킬 때 강화물로 쓸 것인지, 군식구가 낄 때 끼니를 메울는지의 결정은 경험에서 반짝이는 나이테다. 누룽지는 이런저런 형편의 집안일에서 응용을 실험하는 도구가 된다. 저쪽 갈래로 전이할 줄 아는가를 가늠하게 한다. 누룽지 학습은 미래에 원만한 가정을 조정해 나갈 교과서 공부였다.



누룽지에서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풍긴다. 당구(鎗口) 속의 제일 낮은 곳, 뜨거운 맨바닥이 누룽지가 놓은 자리다. 솥 안에 켜켜이 놓인 낱알들이 속부터 폭 퍼지기까지 화기의 일선에서 누룽지로 눌었다. 밥을 포근히 안았던 안면은 어머니 품속 같고 화기에 치였던 거죽은 어머니 등 같다. 바닥에 놓은 누룽지에다 물을 붓고 문대면 눌은밥이 된다. 대가족 시대에 어머니는 누룽지를 굽다가 사립문 밖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얼른 물을 부어 솥바닥을 문지른다. 바가지에 굽었던 밥을 객식구에게 내주고는 부뚜막에 앉아 눌은밥을 훌훌 마시며 끼니를 속인다. 배속을 출렁이는 눌은밥이 위장에 편안했던 것처럼 어머니도 한없이 무른 이웃이었던 것 같다. 군식구가 끼면 언제나 낮은 곳에 있는 어머니의 끼가 탈이 나는 법이다.

훌훌하게 쏜 미음처럼 묽은 눌은밥은 입맛 없는 환자에게 허기를 다스린다. 힘들 때 곱기가 되어주는 눌은밥을 보면 문득 지난날이 떠오른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윈 우리 집은 일찍부터 어머니가 가정의 중심에 섰다. 한창 성장기에 있었던 우리들 때문에 어머니는 정신적인 공허감을 타할 겨를이 없었다.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런 어머니에게 늘 허기진 무엇이 있다면 무논같이처럼 장정이 해야 할 일이나 우리들 공납금 같은 굶직한 돈 모퉁이가 그것이다. 속이 빈 환자에게 곱기가 되어주는 뭉근한 눌은밥과 같은 것이 우리 집 마구간을 든든히 채워줬던 여섯 살배기 누렁이 암소였다. 귀가 유난히 큰 누렁이는 함께 들길을 걸으며 어머니의 애환을 다 들어주고는 검고 큰 눈망울에 축축한 윤기로 화답하곤 했다. 말귀를 경험으로 알아듣는 누렁이는 장정과도 손발이 척척 잘 맞아 마을의 큰

일꾼이었다.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일은 소가 상머슴과 품앗이를 하여 해결한다. 엉덩이가 병병하여 생산력이 쇠탈한 암소는 일 년에 한배씩 새끼를 낳아 목돈을 만들어 어머니의 갈증을 풀어 줬다. 어머니는 자주 천석꾼 살림에도 소가 반이라고 되뇌며 소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정당화하곤 했다. 아마 곁은 여물면서 속은 한없이 무른 누룽지와 닮은 소의 본성이 희생적인 느낌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리라. 누룽지 맛은 입에 달아 쉬 물리고 마는 말초적인 맛이 아니라 오랫동안 입에 기억되며 여운을 남기는 맛이다. 우리 집 암소도 당장 포켓에 돈을 넣어 주거나 살점을 툭 떼 주는 일시적인 맛이라기보다 노동과 든든한 경제력을 여백에 채워줘 오래도록 입에 기억되는 맛이다.

눌은밥은 본성이 메진 것 같다. 기운이 솟는 보약도 아니고 그저 보릿고개에 시장기를 속일 곡기쫄 되지만 이웃에게 다정한 웃음을 머금게 한다. 품위가 혜식어 중문으로 출입하기보다 주로 샛문이나 상아래로 거래될 때가 많다. 바가지나 양푼처럼 격식을 따지지 않는 그릇에 그냥 담긴다. 밥상을 지키는 기질은 되레 차진 먼도 있다. 석반 뒤에까지 조곤조곤 덕담 속을 오르내리며 고단한 하루를 다독이는 담소의 꽃이 필 때는 손닿는 곁에서 요갈을 돕는다.

누룽지는 아결한 은근함이 있다. 곁에 있는 이에게 슬쩍 쥐어 주면 순백한 미소가 되돌아온다. 누룽지를 수수하는 사이에는 호들갑을 떨거나 화려한 찬사 같은 것이 거래되지 않는다. 번뇌의 파장이 일지 않는 품성은 눌은밥 담은 그릇을 닦을 때도 알 수 있다. 화학 세계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양푼에 담긴 눌은밥을 보면 인생을 달관한 시인 같다. 흙에서 자라 문명을 경험하고 승냥이 되기까지 물질은 쇠잔해지고 담향만 은은

하게 남아 있다. 쌀 높은밥은 정서가 물속에서 순화된 지성의 형상이고, 둥글넓적하게 풀린 보리 알갱이는 지성을 정서화하는 기교의 시객이다. 양대 산맥으로 세상을 노래할 무르익은 음객이 양푼에 부풀어 있다.

나는 당구 밑바닥에 놀을 누룽지 꿈을 꾸다. 속이 빈 환자에게 곡기가 되어 주는 노릇한 누룽지로 여물고 싶다. 허약한 어머니에게 일과 돈을 내어 주는 우리 집 누렁이처럼 낮은 데를 우직하게 걸어가고 싶다. 그간 분주히 쫓았던 욕망의 기운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불쏘시개로 반성의 불씨를 다독여 재속에다 보듬고 싶다.

우리가 누룽지에서 고상함을 맛보는 것은 뜬 들이는 장인정신으로 본성을 가꾸가기 때문이라. 제 맛 외는 아무 것도 잡히지 않는 맛이 누룽지 맛이다. 최후의 곡기로 찾는 희픔은 높은밥은, 환자의 거룩한 버팀목인 누룽지는 진정 겸허한 희생이 아닐까? 허물어진 찌꺼기로 허약한 속을 다스리는 누룽지는 스스로를 다 내주는 환원으로 여겨진다. 화기의 최전선에 치여 늘어붙은 것, 당구의 맨바닥에 붙어 납작해진 누룽지 모습은 세속의 욕망을 초탈한 구도자로 보인다. 낮출수록 높아지는 사람의 명성 같다.

좋은 글로 당선되어 수상 소감을 쓰는 일은 글짓기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바라는 이상일 게다. 하지만 지금 '수상 소감'을 적는 일은 웬지 격에 안 맞는 것 같아 멋쩍게 느껴진다. 부족한 글로 소감을 남긴다는 것이 공연히 사치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문예대전에 응모했던 체험을 성찰하는 자세로 몇 자 적는다. 미숙한 문장, 절제 안 된 감정, 사유 없는 내용들, 이 모두는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고 불쑥 던져버린 나의 오만이었다. 당당해야 할 소감 앞에 자꾸만 작아지며 쑥스러워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답엔 좋은 수상 소감을 쓰고자 한다. 그 자리를 얻으려면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하겠지만, 심사위원님의 격려가 진짜 글다운 글을 보여라는 따끔한 충고로 들린다.

아내! 한복(韓服) 입고 외출하다



경찰청 경무국
최 호 열

“어때 괜찮아요? 하도 오랜만에 입어보는 것이라서 어색하네요.”

근 한 시간여를 거울 앞에서 보내고도 아내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묻는다. 주황색 바탕의 저고리에는 나비와 국화가 어우러지고 파란색 바탕의 치마에는 날렵한 난과 활짝 핀 매화가 자태를 뽐내고 있다. 길게 드리워진 자주색 고름은 기품이 넘치면서도 우아하다. 예로부터 아내 자량은 팔불출이라 했지만 한복을 입은 아내는 곱고도 곱다.



“대충 양장을 할 것 그랬나 봐요. 이렇게 빌려 입을 필요까지 없는데……” 말끝을 흐리는 아내에게 새삼 미안함이 솟구쳤다.

“우리 마나님 이렇게 예쁜 줄 알았으면 앙드레 김 작품으로 한복 한 벌 마련하는 건데……”

실없는 농담에도 아내는 정색을 한다.

“그런 소리 마세요. 자주 입을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 같은 행사가 자주 오겠어요? 어서 나가요.”

한복보다 더욱 고운 아내의 마음 씀씀이에 몽클한 가슴을 안고 밖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전화벨이 요란스레 울린다.

“애비구나. 아직 나서지 않았니? 일 마치는 데로 돌아와야겠다. 지금 혜진이 데리고 소풍 가고 있는데, 글썄 애가 엄마만 찾고 앙탈이 심하구나.”

무슨 일이에요? 쳐다보는 아내의 동그란 눈에 불안이 그렇그렇한다. 늑동이인 혜진에 대한 아내의 사랑은 유별을 넘어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아니, 별일은 아니고 날씨도 흐리고…… 예전에 한 번 다녀왔던 곳이기도 하고…… 아무튼 혜진에게 올해 소풍은 별론가 봐. 어머님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변명조의 말을 이어가던 나는, “괜히 어머님에게 혜진이를 맡겼나 봐요. 내가 데리고 갔어야 하는 건데……” 아내의 혼잣말에 벌컥 역정을 내고 만다.

“뭐가 괜히야? 오 계장의 결혼식장에 가는데, 그리고…… 혜진이 소풍은 해마다 있는 거잖아.”

“여보 괜찮을까요? 우리에게 청첩장도 보내지 않았는데.”

“당신은 걱정도 팔자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틀림없이 우리를

보면 매우 반가와 할 거야.”

나의 대답에는 손톱만큼의 의심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오 명호 계장이 어떤 사람인가? 오 계장은 내가 주사보일 때 만났다. 행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건만 엘리트 의식이 전혀 없던 젊은이, 모두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던 예절바른 후배로 9급에서 시작한 속칭 우리 재래종들의 칭찬이 자자했던 인물이었다. 직속 부하였던 나와는 친분이 더욱 돈독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업무상 경험과 지식을 그에게 송두리째 넘겨주었고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사귄성이 좋은 그는 집에도 자주 찾아와 아내에게 식사며 술이며 차를 잘도 우려내었다. 오 계장과 나의 관계는 그의 교통사고건-사기단들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협박-이후 더욱 공고해졌다. 즉각적인 나의 신고로 사기단들이 경찰서에 구속되던 날 그는 술을 나누면서 말했다. “선배님, 아니 형님! 철두철미한 책임의식, 원칙에 입각한 일처리, 신속한 판단, 그리고 친절한 가르침…… 모두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25년 후 그는 우리 조직의 최고 수장이 되었고 나는 중소도시를 담당하는 소장으로 퇴임을 준비하고 있다.

결혼식장 앞은 복새통이었다. 영국왕실의 근위대처럼 멋있는 도어맨들이 바빠 안내를 하는데도 호텔 앞은 고급차들로 얹히고설켰다. 택시를 타고 오길 백번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씹쓰레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택시를 탄 것은 복잡한 주차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10년 이상을 굴려 낡은, 그것도 중소형의 승용차를 고급호텔로 끌고 올 자신이 없었던 것이 주 이유였기

때문이다.

“세상에! 저 꽃들 좀 봐요. 마치 화원 같네요.”

고급 호텔, 고급 차, 고급 옷차림에 기가 죽어 있던 아내는 마침내 기다랗게 줄지어 서 있는 축하 화환의 위세에 촛티를 드러내며 소리를 내지르고 만다. 그러면서도 화환처럼 길게 늘어선 축하객 대열에 얼른 몸을 던지는 품이 으쓱하다. 감쪽같이 고급 군단의 일원이 되었다는 흐뭇함이 나도 싫지만은 않았다. 고분고분 하객들을 맞는 오계장의 모습이 크게 다가왔다. 그의 옆에서는 그만큼 품위 있는 아내가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대학 교수라고 했던가? 가을 햇빛은 풍성했고 모든 사람들은 여유로웠다. 결혼식장은 정말 축복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어떤 말로 축하를 할까? 오 처장님! 따님의……. 아냐 이것은 호칭부터가 너무 작위적이야. 나의 진심과 우리의 친근감을 제대로 전하려면 당시의 계장 호칭이 더욱 어울릴 거야.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새 어느덧 나는 그의 앞에 다다랐다.

“아이고 오 계장님!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뵙게 됨을 용서해주십시오. 항상 마음속에 담고는 있었습시다만 워낙 한적에 있다 보니…….”

나는 조금 뛰기까지 한 가슴을 진정시키며 준비한 말을 이어 가다가 당혹감에 휩싸인다.

“아이고 선배님!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자리가 워낙 조심스러운 자리라서…….”

당연히 반갑게 손을 잡고 정겨운 눈길을 주며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쓰악한 표정으로 우리 부부를 내려다 본다. 하긴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니 모를 수도 있을 거야.

“처장님! 접니다. 그 옛날의 채 영민 주사입니다.”

나는 급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때서야 그는 고맙습니다라고 겨우 아는 체를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싸늘하다. 쿵! 가슴에 낫익은 절망의 바위가 떨어진다. 어쩔 수 없이 가야했던 장소에서 가끔씩 접했던 형식과 교만의 산이 지금 이곳에서 나를 덮치고 있다. 우리 둘의 돈독한 친분관계도 예외 없이 까마득한 계급의 거리로 바뀌어져 있었다. 계급 이전의 그 많던 순수와 정은 다 어디로 갔을까? 참담함에 젖은 나는 도망치다시피 홀을 빠져나왔다. 뒤따라 나온 아내의 얼굴도 빨갛게 상기되어 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아내는 얼른 애둘러 말한다.

“손님들이 좀 많아요, 워낙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나는 아내의 저고리에 먼지라도 묻은 냥 터는 시늉을 하며 동조한다.

“그래, 하객들이 너무 많아. 경황이 없으시네. 그래서 초청장도 제한한 거겠지. 그나저나 어찌지? 긴장이 풀리니까 요의(尿意)가 느껴지는데…….”

“그럼시다. 사실은 저도 급했는데 한복에 일 보기가 어디 간단한가요.”

무참한 남편의 처지를 무안하지 않게 달래주는 아내가 눈물겹게 고맙다. 아내와 나는 손을 잡고 옆 건물로 들어갔다.

“아이고 선배님!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 오셨어요?”

두리번거리며 화장실을 찾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덱석 손을 잡는다. 수 적은 머리카락은 온통 하얀 데다 그나마 가운데가 없는 소위

속알머리 없는 대머리이고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하다. 그가 누구인가? 투박한 그의 손을 보니 돌연 생각이 났다. 김 서기보! 그 역시 25년 전에 나와 함께 근무했던 후배직원이었다. 사람은 좋은데 눈치가 없어 실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던 젊은이! 우직해서 곱으로 불렀던 부하였다. 지난해 사무관을 끝으로 명예퇴직 했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의 눈망울이 내 옆의 아내에게로 가더니 반가움으로 보름달처럼 커진다.

“아이고! 사모님까지 오셨어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그 한복 너무나 멋져요. 사모님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보! 뭐해요? 이리와 봐요. 우리 채 선배님이 오셨어요.”

그는 나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며 삼시간에 4만세기의 어색한 세월을 건너뛰었다. 당시 김 서기보는 일요일 일직이라도 서는 날이면 코흘리개를 꼭 달고 다녔는데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었다. 군대 제대 후 2년을 노랑진 학원가에서 보내더니 비로소 장가를 간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집안 내력이려니 하지요.”

김 주사보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내심 공시(公試)라 불리는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그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의 후배이기도 하기에 나도 가슴 한 쪽이 뿌듯해 움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이내 대비되는 두 풍경에 슬며시 다가오는 초겨울의 저녁처럼 어둡고 무거운 마음이 되었다. 30여년을 공직에서 성실하게 보낸 김서기보의 그 많던 선배며 후배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아까 오계장의 결혼식장은 처의 국장·본부장, 신문·방송에서나 봤던 사람들은 물론 갓 입직한 신출내기들까지

사람들로 넘쳐나지 않았던가?

“이 사람아! 기왕이면 현직에 있을 때 여의지 그랬나?”

적반하장격으로 심통을 부리는 나에게 오 주사보는 사람 좋게 말한다.

“어디 자식 일이 부모 맘대로 되는 건가요. 이렇게 결혼시키는 것만
도 너무 좋구만요.”

나는 접수대로 가서 봉투를 호기롭게 내놓았다. 원래는 오 계장에게 가야 할 거였다. 황망 간에 접수도 못하고 온 것이 잘 되었다 싶었다. 제대로 주인을 찾은 것 같아 기쁘기조차 했다. 나는 방명록에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채 영민 선배’라고 힘 있게 적고 난 후 그에게 당부했다.

“자식만은 자네처럼 사람 좋은 사람으로 기르지 말고 좀 독하게 처신하도록 가르치게. 그래서 꼭 처장 한 번 만들게나. 그리고 그 때 꼭 나를 불러주게.”

“잘 알겠습니다. 선배님도 저에게 약속 하나 하시죠. 막내인 혜진이 결혼시킬 때는 꼭 소식 주십시오. 혜진이 위의 두 조카들처럼 살짝 보내지 말고요.”

오랜만에 속 터놓고 세상이야기를 나누자며 강제로 붙잡는 김서기보를 선약이 있다며 어렵사리 뿌리치고 나오니, 기다렸다는 듯이 붉은 나뭇잎들이 고추잠자리 떼처럼 경쾌하게 날아든다. 가을 햇빛은 아까보다 더욱 풍성하다. 아내가 말한다.

“한복 빌리길 잘 했네요. 너무 너무 멋지다잖아요!”

‘형식을 중시하는 것은 미신이다. 그러나 무시하는 것은 교만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제가 정확히 31년 전인 대학시절에 가졌던 기준입니다. 기준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는 분명 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 할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지금 이 순간 저는 다시 한 번 저를 다잡아봅니다.

‘진실이 고단하고 귀찮고 슬플지라도 묵묵히 보듬고 가자. 다만 맹종(盲從)보다 훨씬 야비하고 비겁한 묵종(默從)은 영원히 저주할지니.’

제가 원하는 삶을 향해 늘 조금씩 다가설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모든 존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택



코레일 구로승무사업소

강 별 모



심야시간대, 서해안고속도로 홍성톨게이트를 빠져 나와 29번 도로를 타고 부여방면으로 삼사십 분쯤 운전했을까. 띄엄띄엄 인가(人家) 몇 채 보이는 시골마을을 지나 산모퉁이를 돌아가려는데,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들쳐 업고 손을 흔든다.

한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묘령의 여인을 보는 순간, 섬뜩한 느낌으로 다가와 그냥 지나쳐 버렸다. 이 여인에 대한 무섭증도 작용했지만 들녘에 나가셨던 아버지가 이상증세를 보여 입원했다는 큰형의 급보를 받고 내려가는 중이다. 아무리 급한 상황일지라도 인정머리 없이 그 여인을 나 몰라라 지나쳐 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잠시 갓길에 차를 세워 놓고 호흡을 고르며 생각해 보니 영 꺼림칙해 건딜 수가 없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대로변에 나와 차를 세울 때는 뭔가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다. 안되겠다 싶어 나는 차를 돌려 그 여인이 서있던 곳으로 천천히 운전해 갔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지나가는 차를 세우려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차를 세우자, 그녀는 “내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가까운 병원까지 태워 달라”며 사정하는 것이 아닌가. 축각을 다투는 이 순간, 나는 되돌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갔더라면 아기의 목숨이 위태로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긴 숨을 토해 냈다. 만약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기의 목숨이 잃게 되었다면 나를 얼마나 원망하며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예전의 우리네 부모님들은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살려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식을 두 눈뜨고 지켜보아야만 했다. 우리부모님도 두 명이나 되는 자식을 심한 홍역과 괴질로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으며 살아오셨다. 두 자식을 잃은

것이 모두가 당신들의 잘못인양 몇날 며칠을 통곡하며 잠 못 이루시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제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 잊을 법도 하건만, 해마다 자식 죽은 그날이 오면 가슴 쓸어내리며 눈시울 적시는 우리부모님이다. 이렇듯 자식을 먼저 보낸 그런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말 안 해도 다 아는 일 아닌가.

나는 비상 나이트를 켜고 응급실이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응급실에 도착해 곧바로 의사의 진료가 시작됐다. 진찰결과 어린아이가 경기를 일으켜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다행히 일찍 병원을 찾아와 아무걱정 말라는 의사의 말에 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한테는 위험한 고비가 몇 차례씩 찾아오기 때문에 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자식 키워보아 잘 알고 있다.

자식이 깨어나 한시름 놓았는지 여인은 아기 옆에 엎드려 눈을 붙이고 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라 옷가지에 신경 쓸 사이도 없이 아기를 들쳐 업고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머지 수술과 치료비를 대충 계산해주고 병원 문을 나섰다. 이 여인과 아이로 인해 아버지한테 가야한다는 생각을 잠시 망각했던 것이다.

서둘러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도착해 의사와 형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시간째 병명을 찾지 못하고 진정제 주사만 투여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진정제를 투여해도 고통을 참지 못하겠는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몸부림을 치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형님과 의사한테 큰 병원으로 옮겨야겠다며 수술을 밟아줄 것을 요청했다. 나는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곧바로 당직의사의 진료가 시작되었다. 진찰결과, 들쥐가 옮겨 발병되는 유행성출혈(일명 쓰쓰가무시)이라는 병명으로 밝혀져 치료가 쉽게 이뤄질 수 있어 다행이었다. 치료약이 개발되지 못했던 예전에는 이 병에 걸리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병실을 나와 정원의자에 앉아 긴 숨을 토하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면서 몸이 편안해진다.

서울 출발할 때부터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더니 하품이 나오면서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배우가 무대에 올라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하고 무사히 내려오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 생각해본다. 다급했던 어린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돌봐준 것이, 아버지의 병까지 낮게 해준 것이 아닌가 싶어 하느님께 감사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운전하고 내려오느라 몸은 피곤했어도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나는 코레일 기관사로 교번 근무하는 직장특성 때문에 평일에도 쉬는 날이 많아,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해결사 아닌 해결사 노릇을 맡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먼저 찾을 때가 많다. 연세가 많아도 무슨 일이든지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시던 아버지도 이제는 몸과 마음이 여러가고 있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제부터는 더 가까워서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 보살펴 드려야할 때가 된 것 같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신없이 달려왔던 간밤의 순간들이 그렇게 막을 내렸다.

간밤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조금만 도움이 되어 준다면 커다란 희망을 갖고 일어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몇 년 전 이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조카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본인이 헤쳐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먼저이지만, 주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도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칠 후, 그 여인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와 병원비를 부쳐주겠다는 전화가 왔다. 나는 차후에 아주머니의 아이가 잘 자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이자까지 합쳐 후하게 받을 것이니 아이나 훌륭하게 잘 키우라며 전화를 끊었다. 완쾌되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이 다 환해졌다. 지금쯤 그 여인은 죽음 일보직전까지 갔다 온 자식을 품에 안은 채, 단꿈에 젖어 있으리라.

지금도 어쩌다 24시간 불 켜진 병원응급실과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를 보면 지난 일들이 영상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 일로 인해 아버지를 놓쳤더라면 현재의 내 가슴속은 어찌 되었을까. 내 생애 잊을 수 없는 아찔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훑고 지나간다. 긴박했던 그 때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이처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잘못내린 판단으로 평생을 아쉬워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현명하게 내린 판단으로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나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후회했던 적이 한두 번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순간마다 옳은 선택만 골라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날 일은 현명하게 처리했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흔이 훨씬 넘은 연세임에도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그때의 그 아기도 훌륭하게 성장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출근해서 잠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담당자로부터 입선되었다는 축하의 전화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짜증스러웠는데 한줄기 소나기 같은 소식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2010년 저에게는 영원히 남을 추억의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봄에는 한국문인협회에서 발행되는 월간문학 신인문학상(시 부문) 당선 영광을 가져다주더니, 이번에는 전통과 권위를 꾸준히 높여가는 공무원문예대전에서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입선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창작하고 공부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잡자의 맨 둘쨰 반복되는 일상의 권태기에서 새로운 변화와 삶을 가져다주는 것이 문예창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물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물에 대해 생명력을 불어넣다 보면 인생과 연관되어지고 좋은 글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문학이 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 수필계 수필부분 신인문학상에 당선되고 공무원문예대전에서 입상했던 경험이 제 인생에 커다란 변화와 희망을 가져오는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꿈을 향해 더 좋은 글을 엮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작하느라 몇 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던 지난날들, 이제는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설계하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공무원문예대전이 그 어느 문학상 행사보다 더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초상



전) 철도청
김 종 석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분다. 어머니에게 가벼우면서도 두툼한 바람막이용 상의를 사다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워낙 체구가 작으시니 옷을 고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연노하신 대다 골다공증 증세로 등까지 굽어서 체구가 작아 지셨다.

몇 군데를 둘러보았으나 체형에 맞는 옷이 없다. 생각 끝에 어린이 옷가게를 찾았다. 매장 아가씨가 “아이가 몇 살이에요”하고 묻는다. “팔 학년 사반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점원은 웃으며 나를 쳐다 본다. 초등학교 3, 4학년이 입을 정도 크기의 노란 색상에 모자가 달린 재킷을 골랐다. 색상이 마음에 들었다. 곁들여 하얀 바탕에 빨간색 ‘프로스펙스’ 로고가 새겨진 운동화도 샀다. 옷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

어머니는 매우 흡족해 하시며 아침운동이나 나들이 가실 때마다 자랑삼아 꼭 입고 나가신다.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귀여운 병아리 같다.

주위에선 어머니를 가리켜 ‘코에 바람이 쏘여 큰일이다’ 라고 말들을 한다. 물론 나쁜 의미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팔십이 넘으신 노인이 하도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시샘하는 말들이다. 주중 내내 주말에 어디를 갈 것인가 궁리를 하시니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지난 일요일에도 경로당에 가실 시간인데, 그냥 소파에 앉아 계신다. 어디 데리고 나가지나 않나 하여 내 눈치를 보시는 것이다.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TV 채널을 돌려대시고 볼륨을 높이며 무언에 시위를 벌이셨다.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모습은 귀찮다 기 보다는 여행을 다닐 정도로 건강하시다는 표시이니 자식으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늙으면 마음은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질 않는가.

어머니는 글을 모르신다. 주소도 전화번호도 그때뿐 돌아서시면 잃어버리신다. 그때뿐이다. 그래도 춘천에서 수원이며, 안양, 부천, 청량리를 잘도 찾아 다니셨다. 지금도 APT 승강기를 타시면 정확하게 층 번호를 누르신다. 그 숫자가 몇 번인지도 모르시면서 말이다.

TV를 처음 사왔을 때 일이다. 한 텔런트가 극중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가 다른 연속극에서 멀쩡하게 또 나온 것이었다. 이를 본 어머니는 한동안 혼란에 빠지셨다. 어머니를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애를 먹었다. 지금도 노인 역할로 나왔던 탤런트가 다른 연속극에서 젊은이로 나올 때는 신기함 반, 부러움 반으로 종종 혼란에 빠지시곤 한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언젠가 TV에서 ‘모래성’이란 영화를 할 때의 일이다. 주인공들은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남자 주인공 ‘마이클’이 불치병으로 죽게 된다. 여자 주인공은 해변을 찾아 모래성을 쌓으며 남자 주인공을 애절하게 부르곤 했다. “오! 마이클, 오! 마이클”.

그때 직장에 갔던 동생이 돌아왔다. 어머니는 현관을 들어서서 동생을 보고 태연하게 “오! 마이클”하고 부르신다. 아마도 ‘응, 이제 오니,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영화에 너무 심취하신 나머지 그만 영화 대사를 따라 하신 것이다. 처음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던 가족들도 뒤늦게 어머니의 실수를 알고는 배꼽을 잡고 웃었다. 개그 코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이번 일요일엔 단풍으로 곱게 물든 백담사로 모시고 갈 예정이다. 서너 번 다녀왔어도 갈 때 마다 새삼스레 “여긴 어디야”고 새삼스러워 하신다. 벌써부터 옷은 어떤 것을 입고, 신발은 어떤 것을 신을 것인지 기대가 대단하시다.

팔십 평생을 10남매를 낳아 기르시며 약하실 대로 약해지신 어머니, 오늘도 TV를 보신 다며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계신다. 가끔씩

입을 오물오물 하시는가 하면 팔을 저으시기도 한다.

얼굴 가득 뺨이랑처럼 골진 주름살, 움푹 꺼진 눈자위, 심하게 굽은 등, 한없이 강하게만 보이시던 어머니도 세월의 무게는 이길 수가 없는 모양이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 주무세요”

“응! 나 안 잔다, 연속극 보잖니”. 하시며 얼른 눈을 뜨다가 이내 감으신다. 벌써 백담사 계곡을 오르시는지 잠꼬대를 하시며 손을 저으신다. 어머니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나들이 길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입상 소식은 생각지도 못하고 며칠 전 참여했던 시가에 문제가 일어난 줄 알았다.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면사무소에 들어가 흙 페이지를 열어 보았다.

뜻밖에도 ‘어머니의 초상’이 입상됐단다. 차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무슨 일이라고 물으신다.

“어머니 얼굴이 뽀뽀대요.” 팔학년 사반이던 어머니는 벌써 구학년 유치원생이 되었다. 왼쪽 다리를 못 쓰시니 나들이에 휠체어를 꼭 싣고 다닌다.

작년 가을의 일이다. 내장사를 거쳐 선운사를 돌아보던 길이었다. 쌀보리를 사가자는 말쑥에 무의식적으로 휠체어를 놓고 가판대 쪽으로 갔다.

아차하고 돌아서는 순간 어머니가 탄 휠체어는 가판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브레이크 잡는 것을 실념한 결과였다.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물건 값만 변상하고 돌아왔다. 차타고 여행하시는 것은 여전한데 요즘 부쩍 너무 오래 살았다고 말씀하신다. 그래도 연속극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남녀를 보면 민망할 정도로 욕을 하신다. 나도 덩달아 맞장구를 친다. 어머니 기를 북돋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오래 오래 사시면 좋겠다. 그래야 제2 제3의 어머니 얼굴을 그릴 것이 아닌가. 미진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도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여행 다니라는 격려로 주신 것 같다. 쇼파에서 잠이 드신 어머니 얼굴에 세월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덮어본다.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실건지 상상하기 어렵다.



경북 경산 정평초
박 선 애

돌아온 엄마

오늘은 학부모 공개수업 날이다.

프라이팬의 깨가 튀듯 분담던 아이들이 다행히 절여 논 배추같이 다소긋하다. 역시 요즘은 선생님보다 엄마가 더 무서운가보다. 엄마! 하면 금세 조용해진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집에 가서 혼난단다. 넌 왜 손을 안 들어? 왜 딴 짓하니? 네 그림은 왜 안 걸렸어?

공개수업이 끝나고 엄마들은 돌아왔다. 긴장을 풀고 한 숨 돌리려는데 댄 앞자리 지은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 낌새가 좀 이상하다.

“지은아, 왜?”

“엄마가 가버려서 …….”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지은아, 집에 가서 엄마 보면 되잖아?”

“엄마가 어디 가요.”

며칠 전 횡단보도에서 만난 지은이 엄마는 적당한 일자리가 생겼는데 지은이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결국 다니게 된 모양이다. 엄마하고 잘 지내다가 색다른 환경을 근근이 적응하던 지은이가 오늘 같은 날 꿈결같이 엄마가 왔다가 가버렸으니 또 다른 서러움이 어린 가슴을 아프게 하나보다.

마음이 짝하여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러자 덩달아 몇몇이 ‘나도 엄마 보고 싶다.’며 종알거린다.

그래, 지은이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 뒤늦게 동생이 생겨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엄마, 하여간 엄마와의 사랑은 아이들에게는 완전 일대일 대응이다. 그 사랑이 부족한지 내가 잠시만 풀어지면 나에게 조차 매달려 어리광을 부린다.

“애구, 그래 오늘 숙제는 엄마 실컷 보기 하자꾸나.”

모두 볼을 한 번씩 비벼주니 언제 그랬냐는 듯 제각기 공기와 볼링공을 가지고 재미있게 논다.

그 옛날, 내가 몇 살이었을까? 지금처럼 구조조정이란 것이 있었는지 병역미필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공직에서 물러나셨다. 다른 일 자리를 알아본다고 엄마와 아버지는 큰집 등 친척집을 다녀오시면서 먹을 것을 사오니 우리는 상황파악도 못하고 신나기만 했다. 그러나 요즘도 그렇겠지만 아버지가 다시 취업하기는 참 어려웠다. 의기소침한, 그래서 늘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 그런데 천우신조인지 엄마에게 직장이 덜컥 생겼다.

그 후 우리는 아버지가 싸 주시는 도시락을 들고 학교를 다니고 아버지의 김밥을 가지고 소풍도 갔다. 낙천적이고 감성적인 아버지는

비 오는 날이면 학교에 데리러 오시고 엄마가 늦은 날이면 우리를 나란히 눕혀놓고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런대로 그렇게 아빠 주부에 온가족이 익숙해지려는데 아버지께도 일자리가 생겨 서울로 떠나셨다. 그나마 아버지가 대신하던 엄마의 자리가 텅 비었다.

늘 조용하고 우리 집 밖에 모르던 엄마는 의외로 직장에서 잘 적응하셨다. 맡은 일도 많고 어쩌다 쉬는 날은 여기저기 대소사로 바뻐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엄마가 아쉬웠다.

동생들의 뒤치다꺼리는 내 차지가 되고 빈집이 싫어서 우리는 엄마가 올 때까지 골목에서 놀았다. 그래도 그 때는 이웃이 형제같이 지내던 좋은 시절이었다.

“너 엄마 오늘도 돈 별로 갔제? 이래 아이들만 놔두고.”

혀를 끌끌 차면서도 누구든지 우리에게 늦은 점심을 챙겨주셨다.

엄마가 시골 고모들이나 이종사촌언니들을 차례로 불러들여 우리를 돌보게 했다.

처음에는 얌전히 살림 잘하던 그녀들도 도시물을 먹고는 뒤늦게 향학 열에 불타 제 공부 한다고 가고, 또 엄마 옷을 이것저것 입고 들랑날랑 하더니 일찍 시집가버리고, 하여간에는 우리 형제끼리만 남았다.

일요일이면 모두 새벽같이 일어나 엄마 주위를 맴돌았다. 행여 그 사이 외출할까봐 조기청소는 물론이고 떡 준다고 동네 애들 다 가는 교회도 가지 않았다.

든든한 만이도 예쁜 막내도 아닌 나는 엄마 살을 유난히 밝혔다. 자는 엄마의 머리 몇 올을 잡아당기며 징징거리다가 혼나기도 하고

나들이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하면 먼저 나가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엄마를 놀라게 했다. 마음이 약해진 엄마를 따라간 모임에서 나는 팔쥬 엄마의 쿡쥬 끌이어서 엄마친구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엄마 출근 할 때 같이 가고 싶어서 이른 시간에 학교에 가서 추위에 벌벌 떨었다.

엄마가 장사를 하는 내 친구가 있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벌이로 먹고 사는 친구 집은 밤이나 낮이나 놀이터였다. 이불이 사시사철 깔려있고 아이들이 그 위에서 퍽퍽 뛰고 놀았다. 한쪽 구석에 보얀 머리를 쪽진 눈 먼 외할머니가 뭐라 뭐라 중얼거리시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집은 늘 포근했다.

내 친구 엄마는 하루 종일 지쳤을 텐데도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재 묻은 강아지 같이 시켜면 아이들을 끌어안고
 “아이고, 내 새끼들, 밥은 먹었나? 이 코 좀 보래이.”
 치마를 벌렁 들어 시퍼런 코를 닦아주고 얼굴을 부비고 그야말로 물고 빨았다.

우리 엄마에게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엄마가 저만치 보이면 달려가다가도 멈칫한다. 엄마의 새하얀 투피스에 달려들었다가 흙이라도 묻을까봐 지레 겁을 먹고 주춤했다. 그래놓고는 인사 안한다고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다.

나는 그런 편안한 엄마를 가진 내 친구가 너무 부러웠다.
 “니, 울 엄마 더럽다고 생각하제? 너거 엄마는 멋쟁이잖아. 빼딱구 두에 가라수 양말신고.”

“치, 나도 너거 엄마 치마에 코 한번 닦이 봤시마 소원이 없겠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너거 집에 태어나고 싶다.”

“미쳤다. 이 가시나가, 내사 너거 엄마같이 얼굴 하얗고 예쁜 멧쟁이가 좋다. 나는 우리 엄마 학교 오까바 겐나다.”

내가 결혼하고도 엄마는 직장을 계속 다녔다. 엄마가 산바라지 해줄 형편이 안 되어 귀신도 일어나 소꼴 벤다는 바쁜 농번기에, 들일 하느라 굴신도 힘든 시어머님께 마음 졸여가며 미역국을 받아먹었다.

정년퇴직을 하고 심장 수술을 받은 엄마는 급히 늙었다. 그 많던, 엄마가 애지중지했던 엄마의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났다. 늘그막에 남는 것은 돈도 친구도 아닌 자식뿐임을 깨닫고 이제야 우리 쪽으로 고개 돌린 엄마. 그런데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엄마가 온전히 내 것이 되어 좋아죽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는 엄마에게서 나는 뒷걸음질 처졌다.

서로 공유한 추억이 별로 없어 둘이 마주 앉아도 맨송맨송하니 이야기 거리가 없다. 어쩌다 친척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는 옆 방향으로 가서 외로웠던 지난 일을 되새겨 엄마 맘에 패대기를 쳤다.

이제 실컷 놀았는지 아이들이 또 내 옆으로 몰려든다. 공부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는 아이들, 코가 시큰하다.

요즘은 늦게까지 운영하는 유아원도 있단다. 하마나 엄마가 울까 두 귀 쫑긋 세우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참 안됐다. 엄마, 엄마, 하며 매달리고 베개를 들고 엄마 품으로 기어드는, 엄마가 우주인 어린 날도 길지가 않은데…….

그 날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그 의미 있는 날에는 선물로만 기억해야하는, 삼 만원은 주저 없이 주지만 하고 싶은 말을 뜯 들이는 삼십분을 못 기다려주는 바쁜 부모들.

나와 같이 불효한 딸을 만들지 않으려면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엄마들을 거실에 앉히고 싶다.

일요일이면 만사 껏히고 아이들과 텔레비전도 보고 만화책도 보며 폭 퍼져서 자장면 짬뽕 시켜먹고, 빈 그릇 늘어놓은 들 그 웃는 얼굴들이 뭐라 하랴?

아이들에게 엉겨 있는 그 시간이 먼 날 가장 값진 거름이라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하고 싶다.

새 학년이면 아버지는 지난 해 달력으로 책거품을 입혀주셨다.

나는 공부시간 책을 펼 때마다
입을 쫓긋하시면서 ‘국어’ 라고 정성껏 쓰시는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가 잘 때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다음 날 우리 반 친구들에게 동화가 되었다.
소박한 어릴 적 추억은 사람을 평생 행복하게 한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웃음을 잃지않게 하는 거름같다.

엄마, 댁니 흉터하나 없이 잘 키워주어 고마워. 엄마 사랑해.
참 어설픈 제 글 마음으로 뽐아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시 서구청
손 병 순

황룡사지에서

“역사는 우리의 미래다.”

경주를 지나가다가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해질 무렵 농촌 들녘의 한가로이 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가는 아름다운 풍경과 차가운 겨울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의 벌거벗은 모습들은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게 했다. 나도 저들처럼 한가로우며 또한 강인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황룡사지’ 라는 긴 표지판이 내 눈 안에 들어왔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차를 세웠다.

길가에 혼자 서 있는 ‘황룡사지’라는 표지판에 끌려 걸음은 자연스럽게 사지(寺地)를 가리키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곳이 그 유명한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었던 그 곳이 아니었던가? 신라의 3보중 하나 그 높이가 30층 건물과 비견될 정도로 웅장했던 황룡사 9층탑은 신라 진흥왕 14년 2월, 왕이 월성 동쪽에 새 궁궐을 짓게 하였는데, 그 터에서 황룡이 나타났다. 진흥왕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서 궁궐을 고쳐 절을 짓고, 황룡사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진흥왕 30년 사찰건물 배치를 완료하고, 선덕여왕 14년 9층 목탑을 완성하여 삼국통일로 승화된 신라 호국불토(護國佛土)의 불국사를 세우려 했던 것이다

탑이 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터에 앉았다. 그 기단과 주춧돌이 남아 아슬아슬한 창공에 구름을 손짓하던 장엄한 구층목탑의 우람한 자태를 그려보며 정치와 국경을 초월한 한 사나이의 고민과 그것을 뛰어넘는 신기(神技)에 가까운 건축기술을 상상해본다.

순간 팔월의 태양처럼 강렬한 빛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어느새 타 임머신을 타고 옛 시절로 가는 내 시야에 적의 노략질에 황룡사가 불타고 있다. 탑이 무너진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다. 산천초목이 화염으로 뒤덮이고 짙은 안개로 앞을 분간할 수 없다. 순간 몸이 움찔해진다. 국가의安危(安危)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다시 또 영화의 한 장면이 오버랩 되듯이 한 사나이가 연못 속에 자기모습을 비추고 있다.

그리운 고향 마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웃고 있다.



또 한 번 눈시울을 적신다. 백제 땅에서 온 이 사나이는 오랜 타향살이에 향수병이 걸릴 지경이다. 잠시 깜박 잠들었는데 자기 나라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불타고 있다. 순간적으로 놀라서 잠에서 깨어난다.

삼국통일의 꿈을 실은 황룡사지 터를 바라보면서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선덕여왕”이라는 TV 드라마가 생각이 났다. 대단한 시청률을 자랑한 이 프로그램은 천 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할까? 우연일까? 아니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신라 최초의 여왕이며 제27대 왕으로 즉위하여 내정에서는 선정을 베풀어 민생을 향상시켰고 구휼사업에 힘썼으며 불법 등 당나라의 문화를 수입했다. 첨성대와 백제의 아비지(阿非知)를 데려와 황룡사 구층탑(皇龍寺九層塔)을 건립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진흥왕이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았다면? 그녀는 태종무열왕이 삼국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과? 기틀을 다진 당찬 여왕으로 평가 받는다

그렇게 역사공부를 하고 나니 그분이 너무나 보고 싶었다. 새해아침에 해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한 나의 애정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선덕여왕 능에 갔었다. 시댁과 친정이 포항에 있어 자주 경주를 거쳐 가게 되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래서 큰마음을 먹고 그곳에 갔다.

겨울이라 바람이 많이 차가웠다. 입구에는 거북이가 목이 잘린 채 누워 있었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 세인의 관심 속에서 비켜난 그 긴 세월을 거북이는 묵묵히 가는 길목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여왕의 무덤가는 길을 밝혔을 것이다. 매스컴의 영향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 카메라를 들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 신라의 왕릉은 보통 시내나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데 산에 있는 것이 특이했고, 논밭을 가로질러 올라가다 보니 숨이 찼다. 그러나 내 마음을 저 푸르른 하늘에 매달아 멀리 멀리 날리고 싶었고,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는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온 들판을 울려 퍼졌다. 그 음률에 취해서 걷다보니 어느새 무덤가에 도착했다.

그 곳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스하고 아늑했다. 무덤가를 돌다가 문득 그분의 온기를 느꼈다. 마치 그분이 내 옆에서 나와 같이 걸어가는 것 같다. 여왕이 직접 경주 낭산에 묻어달라고 유언까지 한곳이라 생각하니 그녀의 깊은 혜안을 볼 수 있었다. 쓸쓸해 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그 당시는 삼국통일이 지상과제였지만 지금은 남북통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이 되었다.?

달빛 아래 그림자 드리워진 황룡사 터를 바라보면서 불교의 높은 덕으로 삼국통일을 이루려 했던 그분의 간절한 비원(悲願)이 현실이 되었듯이, 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절의 화려하고 웅장했던 황룡사 담이 다시 복원되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며 안타까움을 더한다.

먼 훗날 누군가가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고 오래된 미래를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른다.

처음 수상소식을 듣고 나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기뻐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의 좌절을 통해서 나에게도 재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마다 조선 중기 학자이며 시인인 백곡 김득신이 생각 났습니다. 한 번도 읽기 힘든 책을 만 번이나 읽은 이분은 그의 묘비명에도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룸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따름이다.” 저도 그 분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만큼 노력할 것입니다.

이글을 쓴 동기는 가끔씩 경주를 거쳐 지나가다가 도로변에 홀로 빈터만 있는 황룡사를 수없이 봤습니다. 저 큰절이 왜 다시 지어지지 않았을까? 의아해 할 때도 많았습니다. 다른 절은 다 복원을 하고 그래도 좀 흔적도 남아있는데, 유독 황룡사만 그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빈터만 홀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요즘은 제가 글을 쓴답시고 자주 황룡사 빈터에 들립니다. 누군가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진흥왕, 선덕여왕, 태종무열왕께서 내 주변을 감싸고돕니다. 마치 천 년 전 황룡사 금당벽화를 바라보면서 나란히 앉아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너무나 아련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변변찮은 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황룡사의 부처님이 내 뜻을 가욕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드러내지 않았던 황룡사의 복원을 감히 글로 썼습니다. 천 년 전 그분들처럼 나도 이제 아주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호국신앙이었던 불교의 힘을 통해서라도 삼국통일을 하고 싶었던 그분들처럼 저도 우리의 남북통일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의 아주 작은 시작으로 새로운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 글을 잘 봐주신 심사위원님과 말없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뒷모습



대전시 교육청
이 동 수



지난 추석의 일이었다. 시집간 막내 방에 짐을 풀고 보니 아버지 혼자 사시는 집이 덩그렇다. 준비해온 제수 음식을 정리하러 주방의 냉장고를 여니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싱크대 이곳저곳도 얼룩져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살림을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다. 부엌을 정리하면서 나와 아내는 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맛 별이를 핑계로 나이 드신 아버지를 혼자 사시게 하는 것이 못내 송구스럽기만 하다.

그런 우리에게 당신은 이제 습관이 되었으니 너희들이나 잘 살라고 하신다. 그게 다 나를 위하는 일이라면서. 아내와 나는 명절 차례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벽장에서 꺼낸 제기를 마른 행주로 훑었다. 저녁이 되어 미리 준비해온 몇 가지 음식으로 상을 차렸다. 오랜만에 3대가 모두 모인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제사상에 올릴 밤을 찼고 아버지는 손자의 재롱에 눈길을 주고 계셨다. 아버지와 대화 없이 서먹서먹하게 시간이 흘렀다. 여덟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핸드폰이 울렸다. 같이 자란 동네 친구들의 호출이었다. 다 늦어서 어딜 나가냐는 아내의 걱정과 핀잔을 뒤로하고 기다렸다는 듯 집을 나섰다.

친구들과의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자정이 넘어 있었다.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와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신 안방의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를 기다리신 것일까? 살짝 기척을 내고 방문을 열었다. 텔레비전의 화면이 을씨년스럽게 얼비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불도 덮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지나온 길이 새겨진다고 하던가, 잠드신 아버지 이마의 굵고 깊은 주름에서 당신의 외롭고 고단한 삶의 여정을 읽을 수 있었다. 엄지손가락 없이 힘겹게 주먹을 쥔 오른손과 거친 노동의 흔적이 단단히 웅이져있는 손마디를 보니 마음이 쓸쓸해졌다. 바로 눕지 않고 옆으로 돌아누운 뒷머리는 뿌리 쪽이 하얗게 새어있었다. 아직은 일을 그만둘 시기가 아니라면서 염색을 하시기 때문이었다. 나이 들어 보이면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티브이를 끄고 이불을 매만져드리고 밖으로 나왔다.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뒷모습 때문이었다.

그리고 보니 기억 속의 아버지도 늘 뒷모습이 먼저였다.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를 따라 걷고 있었다. 할아버지 댁에 가는 길이었다. 당신의 고향집은 면소재지에서 십리는 족히 걸어 들어가야 했다. 여러 시간을 완행버스에서 역한 기름 냄새와 차멀미에 시달리다 내린 곳은 간이 버스정거장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나는 한동안 어지럼증이 가라앉도록 가게 앞 평상에 앉았다. 그 동안 아버지는 매표소를 겸하는 점포에서 청주 한 병과 과일 몇 개를 고르고 응석을 부리며 앉아있던 나를 물끄러미 내려 보시곤 어서 일어나라고 하셨다.

아버지의 고향은 쇠전이 유명했다. 채 굳지 않은 큼큼한 냄새의 소배설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파리들이 자욱하게 날아다녔다. 소고뺨를 매어두는 말뚝이 서있는 장거리를 지나면 동구 밖이었다. 작은 성당 옆으로 소달구지 하나가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길을 따라가면 아버지의 고향마을이 나왔다. 나지막한 고개를 여러 개 넘고 좁은 논두렁과 밭두렁을 지나야 할아버지의 작은 초가지붕이 보였다.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나는 울상이었다. 아까 가게에서 보아두었던 장난감과 주전부리가 생각나서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울면서 보채는 응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분이셨다. 게다가 네댓 살짜리 꼬마에게 십 여리의 시골 길을 걷는 것은 참으로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초여름이던 할아버지의 생신잔치에 가는 길, 내려쬐는 햇살은 뜨거웠고 땀 없이 흐르는 땀방울에 땀띠가 났는지 겨드랑이가 쓰러려왔다.

몇 번인가 돌부리에 넘어져 무릎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저만큼 앞서가는 아버지는 결코 돌아보는 일이 없었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

걷는 산길 비탈에는 늘 뱀 딸기가 지천으로 피어있었다. 나는 그 선명하고 매혹적인 색감에 자주 발걸음을 멈춰 섰지만 머뭇거릴수록 아버지와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묵묵히 앞만 바라보고 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참으로 야속했다.

그러던 아버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변했다. 당당하던 어깨에 웬지 모를 주눅이 들어가고 대나무 같던 허리도 조금씩 구부정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실감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다. 당시 나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교 입학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정작 그 생활은 내가 꿈꿔오던 것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이러한 방향을 끝내게 된 계기도 우연히 지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게 되어서였다.

그날은 오후에 있는 수업에 대려고 느지막이 일어나 집을 나섰다. 우리 동네가 종점이라서 출발시간을 맞추기 위해 버스는 길게는 10여분 이상을 대기하곤 했었다. 나는 서있는 버스의 제일 뒷자리에 걸터앉았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갑자기 아버지가 버스에 오르시는 것이었다. 아침에 일찍 직장에 나가셨는데 무슨 일인지 이 시간에 버스에 타신 것이었다. 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셨는지 앞자리에 앉으셨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당시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 어렵게 보내던 시기였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그때 뚜렷한 직장 없이 막일을 하러 다니시는 중이었다. 아버지가 입고 계신 감색 잠바는 헤어져 군데군데 하얀 솜털이 빠져나와 있었다. 물끄러미 창밖을 보시는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었을까. 당연히 앞으로 가서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아무 말도 않고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무슨 마음에서였을까? 그런 분위기에 질려서

인지 아버지가 버스에서 내리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켜보았을 뿐이었다. 이일은 오래 동안 내게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다.

어렵게 생활하셨지만 아버지는 쉽게 감정을 보이는 분이 아니셨다. 그런 당신이 가장 흔들렸던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어머니는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시던 해에 치매 증세를 보이셨다. 몇 년을 어렵게 사시다 결국 집에서 한 참 떨어진 철교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 만딸의 결혼식을 정확하게 1주일 남겨두고서였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삼일장을 마치고 결혼식을 준비해야 했다. 결혼식장에 동생과 들어서신 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하였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동생은 연방 눈물을 닦아 냈지만 당신은 의연하게 식을 마쳤다.

그런 당신께서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 것은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세버스에서였다. 피로연 때 친구 분들과 나눠드신 몇 잔의 술기운을 빌어서인지 갑자기 하객들 앞에 나가 마이크를 잡으셨다. 아내의 장례식으로 폐를 끼쳤는데 여식의 결혼식 때까지 찾아주셔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감사의 말씀을 하였다. 그러고는 갑자기 어머니가 자주 부르던 노래라면서 노래를 시작하셨다. 갑작스런 일에 얼른 나가서 당신을 말려야 하는가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노래는 내 귀에도 낯익은 것이었다.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심해진 후에 늘 양지바른 곳에 앉아 중얼거리시던 바로 그 노래였다. 아니 몇 번이고 반복해서 되뇌시던 그 소절이었다.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별이 되어 영원히~’ 하는 노래가사가 버스 안에 울렸다. 노래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흥겨웠을 자리이지만 버스 안은 숙연하기만 하였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먼저 보낸 슬픔을 속으로 조용히 삭이셨던 것이다. 정작 무심해 보이는 모습에서

더 깊은 슬픔이 느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어떤 시인은 자신을 만든 팔 할이 바람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를 만든 팔 할은 무엇일까.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삶이 무엇이며 가족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당신은 말보다는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직접 몸으로 깨닫게 해 주셨다. 특히 어떤 가식을 보이거나 연기를 할 수 없는 뒷모습은 그 사람의 진정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직도 아버지의 뒷모습은 내가 걸어야 할 앞을 비추어주는 등대이다. 또한 내가 걸어온 길이 당신이 걸어갔던 길이며 오늘 내가 가는 길이 또 다른 누가 걸어야 할 길이 라고 생각한다.

입선 소식을 듣고 한 동안 머리 안이 텅 빈 것만 같았다. 여러 해 동안 문예대전의 문을 두드렸지만 좋은 소식이 없어 이번에도 내년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접었기 때문이다. 불현듯 얼마 전 직장예까지 찾아오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신의 장애등급이 올라갔다면 장애인 증명서를 들고 사무실까지 찾아오셨다. 작년 연말에 연말정산 서류에 당신의 장애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나의 말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네게 더 도움이 될까 싶어 가져왔다는” 말씀을 남기고 부리나케 교문을 나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이번 수상도 모두 당신의 덕분이다.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당신에게 지금껏 아무런 보탬이나 기댈 수 있는 무엇도 되지 못한 못난 아들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저 ‘아버지’와 같은 두 자식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당신에 대한 최소한의 효도가 될 것이라는 어쭙잡은 다짐으로 소감을 대신한다.

이글은 삼년 전 명절 전날 밤에 힘들게 주무시는 아버지를 본 소회를 글로 옮긴 것이다. 이미 여러 번 고치고 다들었다. 그러나 손을 대면 말수록 가슴이 답답하였는데 이번에 분에 넘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더욱 더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겠다. 그리고 나의 주위에 알게 모르게 문예대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먼저 아시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올해는 나이 사십에 생각도 않았던 둘째 딸아이가 태어난 기쁜 해이다. 더구나 이런 영광이 있으니 말해 무엇 하랴. 부족함이 많은 이글을 선택 해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문예대전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담당자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법원도서관
홍 성 호

예상치 못한 눈빛과 미소



3년 전 이맘때쯤 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재판 후 점심을 먹고 오후 재판 관련 서류들을 챙겨 법정에 들어섰다. 오후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 변호인, 방청객들로 법정이 꽉 찬 느낌이었다. 내 위치인 판사가 앉는 법대 바로 아래 자리로 앉은 후, 곧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 되었다.

오후 재판에는 유독 절도사건이 많았는데 유형도 여러 가지였다. 소매치기부터 빈집털이까지 각양각색의 절도사건 피고인들이 자신의 무죄를 다투거나,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궁박한 처지를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변론했다.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한 피고인이 재판 받기위해 교도관을 따라 법정에 들어왔다. 나이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살짝 쌍꺼풀이 진 눈에 열은 미소를 짓는 얼굴, 조금씩 탈모가 진행되는 듯한 빗질 안 된 머리, 그리고 평균보다는 작아 보이는 아담한 키.

그 피고인의 사건도 절도사건이었다. 사건 자체로는 특별히 관심이 갈만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웬지 모르게 그 피고인의 외모에 자꾸 눈길이 갔다.

‘특이한 외모도 아닌 그렇고 그런 외모인데 자꾸 눈길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피고인에게서 특이한 점을 찾다가 그의 눈에 내 시선이 고정되었다.

‘아! 엄청 반짝이는 맑은 눈이군.’

그 피고인이 평범한 신체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반짝이는 눈 때문이었다. 그의 눈을 계속 바라보니 반짝인다는 느낌뿐 아니라 선량하다는 느낌도 같이 받게 되었다. 우리는 보통 때 묻지 않은 동심을 가진 어린이들의 눈동자를 ‘초롱초롱’ 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이 이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것이었다.

그런 동심을 가진 어린이들의 반짝이는 눈. 웃고 있지 않아도 웃고 있는 것 같이 미소가 열게 배어있는 얼굴.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얼굴이었다. 간혹 피고인 중에 판사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려고 과하게 뒤틀린 표정을 짓거나, 어색하게 여유로운 표정을 짓기도 하지만 이 피고인의 맑은 눈과 미소를 머금은 얼굴은 일부러 만들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때 판사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 후, 검사의 기소요지 낭독으로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잠금장치로 잠겨져 있는 우체국, 주민자치센터에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책상과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했다는 사실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어 판사가 피고인에게 물었다.

“피고인. 검사가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피고인은 그 즉시, 짧게 대답했다.

“네. 모두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면 죄질은 상당히 나쁜 편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니 재판은 길게 진행되지 않았다. 바로 피고인신문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신문에서도 검사의 신문에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답을 하면서도 천진난만한 미소와 선한 눈은 그대로였다.

이어서 국선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을 모두 인정하였고, 동종 전과도 많고, 이번 사건도 교도소 출소 후 불과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오히려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의 피고인을 위해 변론할 것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피고인!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지금은 크게 반성하고 있죠?”

“네.”

“피고인은 어려서 고아가 되어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중학교 때 고아원 형들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고아원을 뛰쳐나와 혼자 생활했죠?”

“네.”

“피고인은 부모도 알지 못하고 학력도 중학교 중퇴라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으며 그로인해 매우 어려운 청년기를 보냈죠?”

“네.”

“그런 어려운 생활 때문에 처음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었죠?”

“네.”

변호인은 피고인의 불우한 유년과 청년시절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고인도 변호인도 피고인의 절도 전과가 한두번이 아니고, 출소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선처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절도로 인생의 반을 교도소에서 보낸 피고인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얼마의 형량을 받을지 이미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선생님처럼, 피고인은 학생처럼 잘도 묻고 잘도 대답하고 있었다.

이후 경찰,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와 현장 사진, 증거물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모두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여 재판은 종결되었다. 이제는 2주후에 판결선고만 남았다. 물론 피고인이 자백한 이상 유죄는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고 이제 형량의 다과만 정하면 되는 것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은 돌아가면서 판사와 검사에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초등학생처럼 꾸벅 인사를 하고 갔다. 그것도 내일 다시 등교할 것 같은 학생처럼 밝은 미소로.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불혹을 넘기면 그동안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으니 하는 말일 것이다. 재판을 참여해서 당사자들의 얼굴을 보거나 재판관계로 사무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아주 젊은 사람들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마흔줄을 넘긴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가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 신경질적이고 의심 많은 성격인지,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인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의 사건 기록을 보거나 실제 대화를 해보면 그런 짐작들이 거의 실제와 일치하는 경험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이 피고인의 때 묻지 않은 미소와 맑은 눈은 그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 눈과 그의 삶이 그렇게 불일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너무도 궁금해서 재판 후 그 사건의 기록을 자세히 읽어 보았다. 재판과정에서 나온 진술들처럼 피고인은 어려서 길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어 고아원 생활을 시작하여 중학교 때 무단으로 고아원을 나와 혼자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길에서 사귀 친구들과 절도를 시작하여 교도소 드나들기를 제집 드나들기처럼

하던 상습절도범이었다. 그 혼한 폭행이나 음주운전 전과도 없었다. 오로지 절도 전과만 있었다. 또한 특별히 보통사람보다 지능이 낮거나, 어떤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일생동안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 본 적이 거의 없었으며 수감과 출소를 반복하며 절도로 삶을 영위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어쩌면 절도가 그의 인생이고 그의 직업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뜻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기준으로는 보기에는 아주 불량하고 개선 불가능한 하급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형의 감경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판사를 향해 거짓 미소를 지은 것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특별히 빛나 보이는 왕방울만한 큰 눈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의 평소 얼굴인 것이었다. 학교앞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에게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달콤한 솜사탕을 팔 것 같은 그런 얼굴 말이다.

그는 60년대 초반에 태어났다. 그때는 한국전쟁 후 잿더미가 된 국토를 복구하고 겨우 끼니를 잇고 살던 가난한 시절이었다. 그 시절에는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다. 그가 고아원에서 자라던 유년시절은 한창 경제 개발이 시작되고 차츰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던 시절이었다. 또한 그가 한창 교도소를 출입할 시기인 80년대 중반 90년대 후반은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경제성장의 과실들을 향유하고 물질적 자유를 누리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재판받고 있던 때에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이 대량 양산되고 계층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던 시절이었다.

그가 고아가 되었을 때에는 모두가 배고파서 그에게 관심을 둘 수가 없었으며, 그의 유년시절에는 경제 개발이 최고의 관심사이며 목표였기 때문에 그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으며, 경제성장의 과실을 만끽할 때에는 그 과실을 따먹고 즐기는데 바빠서 그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IMF이후 비정규직?실업자들의 양산이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당장 우리의 앞가림을 위하여 그를 망각했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침체와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그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그에게 제대로 관심을 가져 준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못살 때에는 못사는대로, 잘살 때에는 잘사는대로. 그는 천덕꾸러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존재 자체도 없는 관심 밖의 외계인이었다. 단지 그를 체포하고, 조사하고, 재판하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국가가 그에게 보여준 유일한 관심이었다. 어쩌면 그는 몇 년 주기로 국가에서 만든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나도 이 나라의 국민임’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는 무한한 인간애(人間愛)에 기본을 둔 오래된 성경구절이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될 때까지 그에게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회 구성원의 무관심과 냉대 같은 책임도 있으니 죄를 지은 자를 선불리 비난하지 말고 포용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같은 길을 가지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정신병적인 본능에 휘둘려 죄의식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흉악범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배가 고파서’, ‘배운게 없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피고인을 보고 나는 맹자의 성선설을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나지만 선을 배양하지 못하고 확충하지 못해 그 본성을 잃게 된다는 것.

이 피고인은 평생을 직업도 없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사는 악한(惡漢)이 되었다. 맹자의 어머니처럼 교육을 위해 같이 이사를 다닐 부모님도 없었다. 어려울 때 조언과 힘을 보태주는 형제도 없었다. 배고플 때 밥 한술 권하는 이웃도 없었다.

그래도 이 피고인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동심의 눈빛과 천진무구한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 왔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 준적도 없는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보통사람보다 몇 배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았던 그가 동심의 눈빛과 천진무구한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았던 것은 그가 너무도 착한 사람이어서 일 것이다. 그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고마웠다. 척박한 환경에서 범죄의 길로 갈수 밖에 없었던 것을 막지 못했던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그런 환경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가 준 눈빛과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고마웠다.

2주일 후, 판결선고 날이었다.

그의 차례였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다. 예상대로 실형이었다. 판결선고는 바로 끝났고, 피고인은 2주전과 똑같이 꾸벅 인사를 하고 퇴정했다. 판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는 표정이었다.

피고인은 만기 출소 후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또 다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를 어디선가 다시 만난다면 소주를 기울이며 그의 인생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그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예상치 못한 눈빛과 미소이다.

올해 나이가 서른 여섯 살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떠들썩한 술집에서 친구나 직장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매주 하는 분리수거 얘기부터 단골 술안주인 정치 얘기까지. 들어주는 사람들과 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다른 사람들과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정작 내 자신과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본 적이 없음을 느꼈다. 이것도 작은 깨달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차츰 내 주위도 한번 둘러보게 되었다. 내 자신과의 대화를 위해 나와 주변을 응시하니 그간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 둘씩 눈으로, 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느낌과 사색들을 글로 적게 되었다.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올해고, 첫 글이 바로 이 글이다.

수필가 피천득은 '수필'이란 제목의 수필에서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서른 다섯 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라고 했다. 역시 수필의 대가는 안목이 다르다.

나같은 수필의 문외한이 갑자기 수필을 쓰게 된 시점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피천득 선생님이 말한 서른 다섯 즈음이라는 것이 신기하다. 아니, 경이롭다.

그런데 막상 수상까지 하니 기분이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밀가루 반죽이 말랑하게 뭉쳐있는 덩이 익은 파전을 손님들에게 내 놓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수필은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고, 나를 보여주는 창문이다. 그 거울과 창문이 더 반짝이도록 글과 생각을 다듬어서 더 맑고, 더 밝게 나와 세상을 바라보도록 노력하겠다.



조선부문

금 상

사막 _ 황인용

은 상

천년의 영광 _ 신유복

아내의 유언 _ 이수배

동 상

맑음 그리고 한때 비 _ 신기남

독도 _ 공관식

밴댕이와 아퀴나스 _ 기은영



사막



전) 서울지방경찰청

황 인 용

그곳은 과연 어느 나라쯤일까. 당신은 언젠가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 모래언덕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황량한 사막과 시뻘쭙게 달아오른 태양. 또 그 풍경을 가로지르는 낙타 한 마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채 마르지 않은 물감위에 붓 가는대로 쓱쓱 덧칠해 완성한 당신의 그림. 정교한 구도와 야단스러운 빛깔의 모사화들 틈에서 유난스럽게 밋밋했다.

그래서 나는 기억하고 있는지 모른다. 사막이 흙빛 안개처럼 그려진 그 몽환의 풍경을. 화실이 여전하다면 그 풍경 위엔 지금쯤 회썬 먼지가 더께더께 앉았을 것이다. 혹시 당신은 지금 그런 사막에 있지 않을까. 금방이라도 사나운 모래바람이 휘몰아쳐 올 것 같은 사막 한 가운데에 허깨비 같은 몸뚱이를 누이고 캔버스에 붓을 놀리는 당신의 괴기한 모습. 그것을 나는 지금 상상해 본다.

불가해한 당신을 헤아려 볼 틈도 없이 화실의 문은 굳게 닫혔고 당신은 사라졌다. 화실의 낡은 문고리가 반쯤 돌아가다 멈추고 창 너머 불 꺼진 화실 안에 당신이 그린 모사화들이 난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직감으로 당신의 실종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찾지 않았다. 결코 당신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당신의 실종은 어쩌면 예정된 것이었으니까.

스무 평 남짓한 지하 갤러리에 나는 있다. 라디오이터가 내뿜는 스템소리와 사방에 내걸린 그림들만 아니라면 이곳은 마치 어느 감옥의 독방과도 같은 분위기다. 서늘하고 습한 공기가 사람을 밀어 내기라도 하는지 관람객은 거의 오지 않는다. 나는 오롯이 홀로 있는 중이다. 탁상에 놓인 휴대용 라디오를 켜다.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제목의 화집을 집어 든다. 나는 프랑스 화가 장 레옹 제롬의 그림들을 습관처럼 펼쳐놓는다.

바깥의 음산한 날씨와 전혀 다른 어느 중동지방의 건조한 일상들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진다. 터번을 두른 사내들이 힘겹게 사막을 가로지르고 어느 시장에선 차도르에 얼굴을 감춘 아낙들이 물건을 두고 흥정을 하는 중이다. 사막의 모래만큼이나 일상적인 그림들이다. 혹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 메마른 풍경들은 놀랍게도 끈적끈적

한 유화의 질감으로 그려져 있다. 가감은 때론 절제되어 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실적이다. 그림들은 선뜻 눈에 박히지 않는다. 사실 이젠 심심하다 못해 지겨울 정도가 되지 않았던가. 나는 책장을 무심코 넘기다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라는 그림에서 시선이 멈춘다. 당신이 자주 모사했던 그림이다. 화실에 있는 이 모사화는 죽히 십여 점은 될 것이라 추측해본다. 물론 화실이 아직 그대로라는 전제에서 말이다. 그림의 어떤 포인트가 당신을 그토록 붙잡았을까. 전에도 그랬듯 나는 여전히 당신처럼 반복해서 그릴 만큼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무심히 그림을 들여다본다.

알만 한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을 피그말리온의 이야기가 한 폭의 캔버스에 옮겨져 있다. 제롬의 여타 그림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극적인 분위기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증오한 나머지 피그말리온 스스로 조각해 만든 오직 자신만의 히로인. 신화 속 주인공인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빚은 조각상의 허리춤을 왼손으로 감싸 안은 채 감격에 겨워한다. 희디흰 상아 조각상은 뜨거운 온기가 느껴지는 여성으로 변하고 있다. 둘은 점차 삼쌍둥이처럼 하나가 되어 가는 모양새다. 그림의 곳곳으로부터 둘의 걱정이 해일처럼 밀려온다. 내 입에서는 웬지 미세한 탄식이 흘러나온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나는 다시 습관처럼 화집을 덮었다.

요즘 들어 당신에 대한 해묵은 열병이 도진다. 당신과는 불과 1년여 정도 알고 지냈던 사이지만 나는 당신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아온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다. 이를테면 당신이 즐겨 그렸던 그림을 낚고 오래된 화집 속에서 마주치는 지금이 그러하다. 마치 고대의 화석 속에서 불현듯 당신을 발견한 느낌도 든다. 묘연히 행방

을 감춘 당신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나는 그저 당신이라면 캔버스를 밀천삼아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만 가져 볼 뿐이다. 당신에 대한 생각들은 늦은 점심을 느긋하게 챙겨먹고 춘곤증이 몸을 휘감는 이 시간쯤에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심장에서 분출된 나른함이 팔다리 구석구석까지 뻗어나 간다. 자울자울 고개가 까딱거린다. 화집 속 제롬의 피그말리온처럼 당신과 하나가 되는 꿈도 꾸다. 당신의 그 화실로부터 터무니없이 동떨어진 어느 지하 갤러리에서 요즘 나는 당신이 되는 그런 꿈마저 꾸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도서관의 비좁은 안내실에도 나는 있다. 안내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나를 당신이 목격한다면 당신의 얼굴에 뜨악한 표정이 뜰지 모른다. 당신은 분명 모사화만 그리기엔 아까운 손재주라며 나에게 은근히 환쟁이의 길을 독려한 적이 있었으니까. 사실 나는 도서관의 총무자리나 차지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던 것을 먼저 밝혀두고 싶다.

당신이 사라졌던 그날, 음습한 동굴 같은 화실 건물을 도망치듯 빠져나오며 내가 골몰한 것은 당신의 실종보다는 나의 실존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일말의 언짢도 없이 사라진 당신에게 분노할 겨를조차 없었다. 당신의 극적인 실종에 대한 놀라움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닥친 나의 현실이 더 놀라웠으니까. 모사화라도 그리며 그림을 계속 그리겠다는 내 소박한 계획이 당신의 느닷없는 실종으로 중단되었고 나는 일단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이랄도 해야만 했다.

두 달 전 막 가을이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당신이 사라지고 한 달 쯤 후였을 것이다. 나는 우연히 인터넷에 떠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이곳을 찾았다. 매달 열흘 가량 전시회를 여는 이 도서관에서 계약직 큐레이터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학 졸업 후 학예사 자격이라도 취득해 둔 것은 다행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썩 오래가지 못했으니 막상 이곳에 와보니 말만 큐레이터였지 내게 주어진 업무는 갤러리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관람객들에게 그림에 대한 가벼운 말상대를 해주는 문지기. 더구나 나는 여차한 이유로 도서관의 안내실에도 자리를 틀게 되면서 보다 틀림없이 문지기도 되지 않았는가. 그래도 당분간 먹고 사는 데 문제만 없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금세 결정해버렸던 터다. 또 만약 당신에게 나의 근황을 알려줄 일이 생긴다면 동종업계에서 이직했다고 둘러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도 내심 있었다.

어느 오래된 지하 창고 하나를 갤러리로 만든 것 같다. 갤러리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한 곳 한 가운데 서서 멀뚱멀뚱 주위를 둘러본다. 벽에 칠해진 푸른색 시멘트 칠은 여기저기 벗겨져있고 차디찬 대리석 바닥에는 작품과 관람객의 거리 유지를 위한 것인지 벽을 따라 노란 테이프가 붙여져 있다. 천장에는 삼류 호텔 객실에나 어울릴 법한 샹들리에 모양의 전등이 꺾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어색하게 매달려있다. 다행인지 먼지라도 수북이 쌓여서 그럭저럭 이 남루한 공간에 녹아들고 있는 중이다. 사실 이곳은 어떤 공간이라 소개해도 좋을 만큼 그냥 텅 비어있기만 하다. 창고라고 써 붙이면 창고인 곳이었고 갤러리라고 소개하면 또 웅당 갤러리였다.

나는 당신과 내가 그림을 찍어댔던 홍대의 지하 화실과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화실이 되기 전엔 어느 가난한 인디밴드의 연습실이었고 또 연습실이 되기 전엔 인근 대학교 학생들의 곰팡내 알싸한 자취방이던 그곳. 지하의 누렇게 변색된 벽지처럼 빛바랜 사람들의 일상이 스쳐지나가던 그곳. 그 화실처럼 스산한 공간에 나는 서 있다. 서른이 되도록 가진 것만큼 이룬 것도 없는 인생에는 제법 잘 어울릴지 모른다. 서울의 어느 지하에 살고 있고 또 지하에서 그림을 그렸으니 이곳도 그리 낯설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갤러리에서 얼마쯤 서 있으니 윗머리가 살짝 벗겨진 초로의 남자가 나타난다. 검색 정장의 매무새가 지나칠 정도로 단정하다. 어딘가 까다로운 구석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나는 바짝 긴장한다. 남자는 대뜸 악수를 청하며 나이부터 묻는다. 서른이라는 내 대답에 잠시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미간을 찌푸리며 쓴 웃음을 짓는다. 당신을 채용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군요. 남자는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서른이라는 나이가 간혹 씻을 수 없는 죄처럼 느껴질 때는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다. 남자는 나를 세워두고 잠시 무언가를 고민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두어 번 내 눈치를 살피며 누군가와 얘기를 주고받는다. 나의 고용여부에 대한 얘기가 스치듯 오고갔을 뿐 서로의 안부에 대한 얘기와 술 한 잔 하자는 얘기들이 사람 좋아 보이는 너털웃음과 함께 흘러나온다. 통화는 자못 길어진다. 나의 생계가 달린 대화는 목적을 잃고 아득히 삼천포로 빠지는 중이다. 곁에 서서 남자의 결정만을 하릴없이 기다리는 나는 무력한 청춘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됐다는

사실도 역시 잘 알고 있었다.

빠끔히 열려있던 지하 화실의 문을 열어젖힌다. 순간, 캔버스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던 당신과 눈이 똑똑히 마주친다. 화실 안의 당신과 문 밖의 나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쳐다본다. 당신은 뜻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현에 그리고 나는 당신의 모습에 말문이 막힌다. 그로테스크한 당신의 첫인상. 도저히 사람이라고 봐줄 수 없는 삭정이처럼 강파른 몸. 당장이라도 폭삭 부서져 내릴 것만 같은 푸석한 머리. 어느 곤충의 눈을 연상케 하는 크고 쾅한 눈. 고백하자면 당신은 마치 방사능이라도 쏘이고 어른 키만큼이나 커진 변종 귀뚜라미 같았다. 가을밤마다 지하방 어느 구석에서 줄기차게 외로운 울음소리를 들려주던 귀뚜라미. 그 귀뚜라미가 누더기 같은 옷을 기워 입고 이젤 앞에 보란 듯이 앉아 나를 훑어보고 있다.

낮선 사람인 나의 정체를 그제야 파악했는지 당신은 고개를 돌리고 발은기침을 몇 번 내뱉는다. 그러고는 의자에서 일어나 캔버스와 펜슬을 내 쪽의 데생용 이젤에 가져다 놓는다. 모방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 세계에서 모방은 그저 노동일수도 있어. 그리고 당장 내 일이라도 문 닫을 수 있는 곳이네. 그걸 감수할 수 있겠다면 먼저 밀그림 한번 그려보고 얘기하세. 앞 뒤 자르고 툭 던진 당신의 그 첫마디가 어떤 비수처럼 가슴팍에 꽂힌다. 순간 그 말은 내게 어떤 묵시록처럼 들렸던 것도 같다. 앞으로 닥쳐올 감당하기 힘든 미래에 대한 슬픈 묵시록. 하지만 나는 이렇다할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펜슬을 집어 든다. 그리고 당신이 늘어놓은 그 밀도 끝도 없는 이상한 엄포를 뒤흔게야 곰곰이 생각한다.

나는 당신의 그 말이 가난에 찌들린 영세한 화실의 불운한 종말 같은 것을 예고하는 줄로 믿었다. 그런 것이라면 이 바닥에선 이상할 것도 없는 일 아니냐며 마음속으로 반문해보면서.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실종에 대한 첫 번째 예고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건 아쉽게도 당신의 실종 후였다.

책 속에서나 보던 명화가 빠르면 서너 시간 만에도 똑딱 그려진다. 기계처럼 찍어댄다는 당신의 표현이 무색하지 않게 화실은 인쇄소를 방불케 한다. 다만, 이곳은 인쇄소의 잉크냄새가 아닌 테라핀 기름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다 쓴 테라핀 병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있다. 그림을 그릴 때 참고하는 듯 다 해진 화집들도 여러 권 있다. 호수별로 구분된 붓과 캔버스들 그리고 색상별로 분류된 물감들은 이곳이 화방인양 가득 쌓여있다. 젖소가 완전히 마른 캔버스들은 이젤에 올려져 다음 작업을 묵묵히 기다린다. 사실 나는 그때 암암리에 존재할지 모른다는 홍대 마약상의 아지트가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암흑가의 보스쯤이고 당신의 그림들과 화구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한 위장 같은 것이라는 헛헛한 상상. 화실 구석의 액자라도 뜯어내면 한 움큼쯤 되는 하얀 가루가 마구 쏟아질 것도 같았다.

당신의 주문에 무엇을 그려야하는지 망설이던 나는 마침 저편에 세워진 드가의 누드화를 발견한다. 과장을 좀 보태면 절묘한 위작이라 해도 수궁할 만큼 솜씨가 좋다. 채색이 아직 덜 되었는데도 누군가 작은 틈새로 여성의 알몸을 훑쳐보는 듯한 드가 특유의 기법이 살아 있다. 새삼 당신에게 놀란다. 나는 드가의 누드화를 스케치

하기로 한다. 여성의 알몸을 훑쳐보듯 화실 곳곳을 훑거리며 그림을 베껴나간다.

구석에는 작업이 끝난 듯한 네댓 점의 모사화들이 액자에 담겨져 차곡차곡 쌓여있다. 튜립과 풍차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아 모네의 그림이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이내 네댓 점의 그림이 모두 같은 그림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는다. 급기야 서글퍼진다. 감정 없이 그림을 베끼기까진 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젓소를 칠하고 있는 당신의 뒷모습과 당신의 귀밑머리에 내린 서리가 별안간 거룩해 보인다. 스케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쯤 당신은 고흐의 그림이 그래도 잘 팔리는 편이라며 혼잣말을 하듯 불쑥 말한다. 고흐가 없었다면 애당초 이 짓도 시작하지 못했어. 처음엔 아예 위작이라도 해 볼 판이었지. 입가를 찡글이며 건네던 당신의 자조 섞인 농담에 나는 펍 심란해졌다.

자넨 모작과 위작이 어떻게 다른 줄 아나? ……위작은 비겁한 거지만 모작은 비루하단 거야.…… 마땅히 갈 데가 없다면 잘 생각해 보게. 그림공부에는 또 모사만한 게 없다는 거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돌이켜보면 그 세계에 나를 들이쫓다는 당신의 결정에는 그곳까지 표류해 온 나에 대한 안쓰러움도 적잖이 한몫했을 것이다.

이거 어떡하죠. 월급도 꽤 적을 텐데. 미리 메일로 보내주신 경력에 비해선 사실 대단치 않은 일입니다. 여긴 알다시피 도서관이고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갤러리라고 구색이나 맞추다보니 만들어낸 임시직이라. 또 어린 친구들이나 올 거라 생각하고 광고를 올렸던 것이라서요-

통화를 끝낸 남자는 난감한 얼굴로 입을 연다. 한달에 열흘만 있는 업무인데다 월급이 기대에 못 미칠 거라며 애써 나를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적지 않은 나이가 결정적인 거부 사유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당신의 세계에 발을 내딛던 때처럼 이곳에서도 우왕좌왕하게 될 처지다.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진 나는 월급이 적어도 괜찮으니 혹시 도서관에 다른 일도 있다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버린다. 고용주인 남자를 타이르듯 설득한다. 남자는 나의 돌발적인 저자세가 뜻밖이라는 듯 놀라는 표정이다. 잠시 멈칫한다. 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한참을 누군가와 얘길 하다 작심한 듯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내게 총무직과 큐레이터를 겸임하며 근무하는 제안을 내놓는다. 이를테면 큐레이터 일을 하려거든 총무일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었다. 이래도 일을 해보겠느냐는 다소 고압적인 자세다. 미답지 않은 얼굴로 나를 보는 남자에게 나는 어색한 미소까지 지어보이며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인다. 도서관의 총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이 급했던 때였다. 엉뚱하게도 내가 총무 자리에 앉게 된 경위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진 환쟁이가 되는 길에서 틀어지지 않았다고 당신에게 미리 못박아두고자 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곳 혹은 이 근처라도 와 본 적이 있을까. 어두컴컴한

지하 화실에서 세상과 격리라도 된 사람처럼 그림만 그리던 당신이 이런 곳에 와봤을 리 만무하다. 아니, 이 지역에 대한 상투적인 광고를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셀 수 없이 봤을 테니 그래도 한번쯤은 다녀가지 않았을까. 혹시 어찌면 이곳에서 멀지 않은 화랑거리에서 화구들을 잔뜩 산 후 근처의 한옥 마을을 둘러보는 것이 내가 모르는 당신의 은밀한 취미일지는 또 모른다.

어찌됐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당신의 방문을 위해 이곳까지의 여정을 대략 간추려보면 이렇다. 지하철3호선을 타고 안국역에 내려 2번 출구로 나온다.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 대형 커피숍을 끼고 돌면 길게 이어진 일방통행로가 나타나는데 그 길을 곧장 따라 올라간다. 5분 정도 거리를 걷다 세 갈래 길이 펼쳐지면 좌측으로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있고 그 맞은편에 내가 있는 도서관이 있다. 혹시 그 앞에 시무룩한 표정으로 오열을 맞춰 서 있는 전경들이 있다면 펜스레 경계의 눈초리를 보낼 것은 없다. 주변에 외국대사관과 공관들이 많은 탓이다. 이제 도서관안으로 들어오면 공원이라 해도 훌륭할 만큼 아주 넓고 깔끔한 정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당신은 아마 이곳이 도서관이 맞느냐는 의심부터 할 것이다. 구획이 잘된 논밭처럼 누군가에 의해 잘 관리된 잔디밭이 한눈에 들어오고 길가에 가지런히 늘어선 침엽수들이 하늘을 향해 위태롭게 예각의 날을 세우고 있다. 도서관이라기엔 무언가 위엄이 서려 있는 모습에 당신은 또 한번 도서관이 맞는지 의심할지 모른다. 그러나 놀라기엔 이르다. 건물 전체가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이곳의 구조는 서늘하다. 학교같이 생긴 세 건물이 앞뒤로 나란히 서 있고 이 세 건물들은 가운데 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이어진다. 일제 강점의

엄혹한 시대에 나타난 건물이다. 그래서인지 더러 오싹하기까지 하다며 너스레를 떠는 청춘들도 있으나 구태여 이질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다. 속절없이 흐른 시간에 사람들은 온통 바뀌었으니까. 나는 숨 막히는 그 지하 화실을 빠져나와 이곳 어느 지하에서, 오지 않을 당신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

어느 사막에서 광인처럼 붓을 휘두르고 있을 당신을 상상해 본다. 그런 당신의 눈엔 이곳의 일상이 어떻게 비칠까. 그저 무료한 정물화가 아닐까. 열람실의 희멀건 콘크리트 벽에 뚱하게 걸려있는 조악한 해바라기 정물화처럼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 그저 그런 싸구려 그림. 자신의 칸막이에 고개를 쳐 박고 무언가에 열중하는 사람들뿐인 이곳. 정물화외엔 다른 그림을 떠올릴 수 없는 곳이 틀림없을지 모른다.

나는 미세기창 밖으로 오고가는 사람들을 향해 더듬이를 세우고 있다. 전시회 기간이 아니라면 꼼짝없이 이 좁아터진 공간을 사수하고 있어야 한다. 언제 누가 창문을 두드리며 의자가 부러졌다는지 열람실이 시끄럽다느니 하는 잡다한 불편 사항을 토로할지 모른다. 심지어는 옆 사람의 숨소리가 거슬린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다. 도서관이란 때론 숨쉬는 일 마저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하는 이상한 곳이다. 운이 나쁜 날이라면 도서관이 시끄럽다며 애먼 나에게 공무원 운운하며 욕설을 퍼붓는 연세 지긋한 군상들과도 부딪칠 수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이곳의 공무원이 아니라 이 나이에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불쌍한 청춘이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다. 물론 당신에게 나의 이런 시시껄렁한 일상은 아마 먼

나라 얘기처럼 따분하게 들릴 것이다.

도서관은 대체적으로 심상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소리를 내지 않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미덕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탁상에 놓인 시계를 본다. 도서관 열람위원이라고 쓰여 있는 배지를 오른쪽 가슴에 달아맨다.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검정 스니커즈를 주섬주섬 주워 신는다. 열람실이 있는 삼층으로 터벅터벅 올라간다. 녹색 카펫이 깔려 있는 열람실의 통로를 진중하게 걷는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소란을 진압하기 위한 이 업무는 두 시간 마다 틀림없이 반복한다.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라디에이터의 요란한 스팀 소리를 제외한다면 열람실은 여느 때처럼 쥐죽은 듯 고요하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 고개를 파묻고 있다. 나는 박제된 듯 멈춰있는 이런 정물화속을 유령처럼 배회하는 중이다.

나는 콜롬비아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을 떠올려 본다. 바람을 집어넣은 듯 한껏 부푼 몸매에 기형적으로 크고 둥글둥글한 무표정의 익살스러운 얼굴들. 초현실적인 보테로의 얼굴들이 실제로 뚱뚱 떠다닌다고 하면 당신은 내 얘기가 조금은 흥미로워질 수도 있다. 이곳에 근무하다보면 사람에게 표정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에 놀랄 때가 있다. 여기는 무기력증이라는 고질병이 유행처럼 번져있다. 사람들은 사그라져 있다. 흐르고만 있는 시간에 폭 찢들어 있다. 공기처럼 부유하는 허무를 깊이 들이마신다. 표백이라도 한 듯 얼굴에선 표정이 사라진다. 보테로의 무표정한 인물들이 유쾌하다면 이곳의 사람들은 인생에 기뻐할 일도 그렇다고 슬퍼할 일도 없다는 표정이다. 한눈에 보기에든 무거운 가방을 맨 무표정한 사람

들이 열람실을 개방하는 새벽부터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한다. 가방의 무게는 고스란히 자신들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일 것이다. 인생이란 어찌면 무거운 가방하나쯤을 버겁게 견뎌내는 것인지 모른다. 지정되다시피 한 자신들만의 칸막이 속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 흡사 유배라도 되어 온 죄인들 같다. 하지만 죄인들이 자유를 꿈꾸듯 그들도 이곳을 벗어나는 모종의 탈출을 꿈꾸긴 할 것이다. 마치 당신의 모사화처럼.

나는 당신의 모사화를 생각한다. 어느 거실 벽에 걸리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지하에 감금된 당신의 모사화. 그림 속 인물들에게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느껴지지 않는다. 영안실에 누워있는 시체처럼 액자 속 그림은 싸늘하다. 차가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급속냉각이라든가 된 듯 꽁꽁 얼어붙어 있다. 그러나 당신의 그림에 서는 분명코 예사롭지 않은 생명력이 꿈틀댄다. 해거름 즈음 지하 화실로 스며들어온 가냘픈 햇빛이 당신의 그림에 비치면 빛을 쬔인 그림들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기 시작한다. 드가의 발레리나가 춤을 춘다. 르누아르의 무도회에선 흥겨운 음악이 들려온다. 고흐의 붓끝이 들바람에 살랑거리며 마네의 여인은 수줍은 듯 몸을 가린다. 당신의 모사화가 깨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 모작과 진작의 경계 따윈 허물어진다. 그림들은 이제 온전히 당신만의 그림이 된다. 선이나 색 따위야 배길 수 있지만 인생까지 배껴낼 순 없는 노릇이다. 당신의 모사화엔 그림의 뒤편길을 걸어온 당신의 삶이 통째 담겨져 있다.

나는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퇴근 직전 으레 하는 일이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적고 그날 있었던 특기할만한 사항을 간략하게 메모한다. 하지만 기록까지 해야 할 특별한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나는 업무내용 칸을 공란으로 비워두기로 한다. 그렇다고 마냥 공란이 되는 날만 있으란 법은 없다. 고요한 사막에 모래폭풍이 불 듯 이곳에도 모래폭풍은 불어오기 마련이니까. 불과 사흘 전 이곳에서는 사건이라고 할만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언젠가 당신이 내게 한 말을 떠오르게 한다. 어느 때처럼 캔버스에 젯소를 칠하며 작업을 준비하던 당신은 늘그막에 신세한탄이라도 해볼 요량이었는지 난데없이 장탄식을 늘어놓는다.

인생이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네. 미술대전에 이름석자 올렸던 철없던 때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캔버스만 쥐고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아니었어. 오히려 에스컬레이터는 내려가더군. 보다시피 자꾸 내려와 땅 밑까지 오지 않았나. 딱 캔버스 크기만큼만 그리고 살았던 거야. 자네도 그 캔버스만 쳐다보지 말고 캔버스 밖을 볼 줄 알아야 할 걸세. 그림 아니, 인생이란 것도 그 종이쪼가리 밖에 있는 거니까-

어느 삼류 영화 속 삼류 배우처럼 당신은 인생에 대해 나름의 식견을 갈파한다. 선문답 같이 모호하기만 하던 당신의 말은 어쩌면 이젠 유효할지 모른다. 당신의 그 대사는 사흘 전 내 머리 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자리에 앉아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중

이었다. 어느 묘령의 여자가 창문을 다급히 두드리며 나를 찾는다. 싸움이 일어났다는 신고였는데 나는 일순간 여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싸움이라는 단어에 휘둥그레진다. 내게 싸움이란 말은 현란한 네온의 홍대 밤거리여나 어울리는 단어였으니까. 서둘러 삼층의 열람실에 올라가보니 오십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추레한 행색의 아저씨와 이십대 중반쯤의 건장한 청년이 서로의 멱살을 잡으며 대거리를 하고 있다. 아저씨의 입에 담기 힘든 욕지거리가 확성기를 튼 것처럼 넓디넓은 열람실에 찌렁찌렁 울려댄다. 청년도 그의 험한 입담에 놀리지 않으려는지 발악하며 악다구니를 쓴다. 열람실은 이미 책 따위를 볼 수 있는 지경이 아니다. 다들 도서관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되다니 하는 얼빠진 표정들이다. 철없는 고등학생 몇몇은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대며 구경하고 있고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열람실을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추서서 망을 보는 사막의 미어캣마냥 넋을 놓고 망연히 현장을 지켜볼 뿐이다.

나는 급히 뛰어가 둘을 떼어놓고 열람실 밖으로 데리고 나온다. 다행히도 두 사람 다 다친 곳은 없다. 경찰을 부를 정도는 아닌 상황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년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니 사건의 발단은 다름 아닌 아저씨의 코고는 소리 때문이었다. 아저씨는 공부 중이 아니라 수면 중이었던 것이다. 청년은 잠에 빠진 그를 흔들어 깨운다. 달콤한 잠을 타의로 깨게 된 아저씨의 눈에 청년은 아마 불의의 침입자로 보였을 것이다.

한참이나 청년의 얘기를 듣다보니 옆에 서서 씩씩거리던 아저씨는 어느 새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다. 스스로 쫓리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열람위원의 자격으로 경고를 주려다 그냥 수첩을 주머니에 넣는다. 교육받은 대로 하자면 반드시 경고를 주고 열람실 이용을 정지시켜야하지만 웬지 그럴 마음이 짝 가셨다. 열람실을 보니 상황도 대충 진정되었다. 분함이 채 가시지 않은 청년을 진정시켜 들여보내고 나는 텔레텔레 계단을 내려온다. 미처 작성하지 못한 업무일지를 마저 마무리하고 선반 위에 올려둔다. 퇴근을 하기 위해 가방을 챙기고 전등을 끈다.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아까 그 소란의 주인공인 오십대 아저씨를 다시 본다.

머리를 손으로 감싼 노인. 흑색 펜슬 특유의 무거움이 한껏 침전되어 있다. 매캐한 연기라도 풍겨올 것만 같다. 마일드 커피에서나 느낄 수 있는 스모키한 맛마저 혀에서 감돈다. 펜슬이 다녀간 자취는 쓸쓸하다. 일견 난잡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곡해할 수도 있는 궤적은 또 찾아보기 어렵다. 씨줄과 날줄이 엮이듯 직선과 곡선이 정교하게 얹혀 노인을 직조하고 있다. 나는 고희의 화집에서 봤던 어떤 명화와 덜컥 맞닥뜨린 기분도 든다. 전등이 꺼진 휴게실에 창을 통해 들어온 회색 달빛이 슬그머니 내려앉아 있다. 흑백의 대비가 눈이 부시듯 청명하다. 소란의 주인공인 아저씨가 꾸덕꾸덕 말라서 굳은 듯이 홀로 앉아 있다. 의자에 앉아 땅에 꺼질 듯이 고개를 푹 수그린 모습에 어찌할 수 없는 쇠락의 기운이 완연하다. 나는 불박인 듯 멈춰 서 그 장면을 바라본다. 어찌면 삶이란 어떻게든 쓸쓸히 스러져가는 것인지 모른다. 도심 곳곳에서 수없이 지나쳤을 그 장면이 새삼스레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단 당신의 그 대사 때문만은 아니었다. 다음날 도서관 직원에게 물으니 이곳 도서관은 겨울이

되면 오갈 데 없는 노숙자들이 허물없이 드나드는 아지트로 변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그 그림은 이곳에선 이제 관심조차 주지 않는 일상이었던 셈이다. 나는 이런 풍경에 성큼 들어와 있다.

강렬한 붉은색과 어두운 그레이 톤을 극명하게 대비시킨 배경은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시각적인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저기 흠뻑려져서 결코 면이 맞닿지 않는 검정 사각형들은 소외된 현대인들의 소통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구요.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면 인간의 음울한 내면을 고전적인 구성주의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나는 학창시절 흘러들은 알량한 지식까지 끄집어내며 그럴 듯한 설명들을 곧잘 지껄이고 있다. 앞에 걸린 도대체 알 수 없는 추상화를 멍뜨게 보던 관람객들은 내 설명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나서 나를 슬쩍 쳐다본다. 이런 그림을 보고 그런 속 깊은 설명이 나올 수 있느냐며 묻는 듯한 경이로운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면 무안한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한다. 어쨌든지 나는 그 비좁은 안내실로부터 떨어져 나와 얼마간의 일탈을 만끽하고 있다. 그림을 보러 오는 관람객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아마 도서관에 갤러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나는 아무래도 좋다. 건물 하나를 건너온 것 뿐인데 외판 나라로 휴가라도 온 기분까지 든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현대와 소통이다. 갤러리깨나 둘러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접했을 흔한 테마다. 추상화를 그리는 어느 일요

화가회의 특별할 것 없는 그룹전으로 아마추어 작가 여섯 명이 그린 작품 이십여 점이 차분하게 전시되어 있다. 한결같이 해석이 쉽지 않다. 추상화에 전혀 손방인 내 탓인지 아니면 그림을 여가 생활로 즐기는 아마추어들의 작품이라 그런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딱히 집어서 설명할만한 구도나 특별한 색감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지만 설명하는 내 입장에선 오히려 편한 그림들이다.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도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매번 설명이 달라지는 작품도 있다. 나는 아마 물감을 내키는 대로 흠뻑려 놓은 그림을 갖다놓아도 현대인의 고독 어찌고 하며 싱거운 소리를 해댔을 것이다. 당신이 내 옆에 서서 설명을 들었다면 갤러리에서 당장 뛰쳐나갔을지 모른다.

남의 그림을 시답지 않은 말로 둘러대고 있는 나는 모작을 그리던 때와 견주어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고자 시작한 그림이 엉망이 되는 것과 같이 삶 역시 뜻대로 그려지지 않는다. 캔버스에 스며든 물감처럼 어디로 번질지 알 수 없다. 온통 타인의 그림에 둘러싸인 나는 문득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다. 고독이 주제라는 사방의 추상화들은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탁상에 놓인 화집을 집어 들어 제롬의 그림들을 펼쳐놓는다. 다시금 모래알 같은 중동의 일상들이 눈앞에 닥쳐온다. 터번을 두른 어느 아랍인의 메마른 눈빛이 삶이란 이렇게 고되고 쓸쓸한 것이라고 내게 말하는 것 같다. 나는 당신이 했던 말을 떠올린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제롬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를 모사하고 있을 때였다. 욕정으로 물들어 있는 피그말리온의 왼손 언저리를 페인팅 나이프로 조심스레 문지르면서 당신은 평소답지 않은 무력한 톤으로 말한다.

피그말리온이 상아를 조각하기 시작한 건 너무 외로웠기 때문일 거야. 제롬은 그 혹독한 외로움에 공명해서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니었을까.……그림 베껴서 팔아치우는 이 짓도 이젠 넌더리가나.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 이제 하산해도 좋네. 당신은 마치 제자에게 결별을 고하는 어느 무협영화 속 비장한 도인 같다. 나는 당신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피식 웃고 넘긴다. 하지만 당신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이틀 후 화실의 문이 닫혔고 당신은 거기 없었다. 마치 애초부터 당신이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연한 듯 그렇게. 당신의 그 대사가 자신의 실종에 대한 마지막 예고였으리라곤 역시 그땐 알지 못했다. 제롬의 작품을 모사하던 당신은 그림 속 피그말리온처럼 외로웠을까. 말없이 그림만 그리던 당신의 모습에서 나는 당신의 부재를 도저히 감지할 수 없었다. 언젠가 당신이 그렸던 그 사막 어디선가 이젠 정말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있진 않을까. 휘황찬란한 모사화들 틈에 생경하게 끼어있던 당신의 꿈결 같던 사막이 어쩌면 실종의 또 다른 예고였을지 모른다. 나는 불현듯 그 사막에 당신이 가 있을 거라는 턱없는 확신이 든다.

서울에는 폭설이 내렸다고 한다. 새벽녘이라 사위는 아직 어둑어둑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상캐스터의 코멘트가 폭설 때문인지 수선스럽다. 휴대폰에는 어젯밤 도서관 측에서 보낸 메시지가 도착해 있다.

「28일자로 귀하와의 계약만료. 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함.」

나는 침대 위에 납작 웅크린 채 팔을 뻗어 반지하의 창문을 살짝 연다. 어젯밤부터 끄물끄물한 날씨가 뭐라도 쏟아질 것 같더니 굵은 눈송이들이 은밀히 침투해오는 공수부대의 낙하산처럼 사뿐사뿐 투하되고 있다. 방법들 사이로 무던히도 눈이 내린다. 하나 둘 낙하하는 눈송이처럼 도서관의 일상들도 눈앞으로 떨어져 내린다. 그곳에도 눈발이 흐드러지게 내리고 있겠지. 사막 같은 그곳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를 또박또박 견뎌낼 것이다. 나는 당신의 모사화들도 아른거린다. 수많은 집의 거실에 눈요기 감으로 벽 한자리 차지하고 있을 당신의 모사화. 그것들이 가슴에 사무쳐 온다. 문득 지하방 어디선가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설핏 들렸던 것도 같다. 더운 나라에 갔을지 모를 당신은 벌써 반 년째 부재중이다. 금방이라도 나타나 텅텅한 목소리로 그림 얘기를 꺼낼 것만 같다. 당신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터번을 두른 영락없는 아랍인이 되어 뜨거운 사막을 헤치고 있진 않을까. 나는 홀연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연다. 추위가 사정없이 가슴속까지 파고든다.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당신의 그림처럼 투명하다.

수상소감을 쓰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자 불현듯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글을 이제 막 깨우치기 시작하던 그 시절에 세상은 온통 새로운 단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던 거리의 글자들이 제게로 앞 다투어 달려듭니다. 새롭게 알게 된 단어들을 되새김질 하듯 몇 번씩이나 소리 내어 곱씹어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글자들이 분가루처럼 휘날리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운 말들이 어떤 씨앗이 되어 머릿속 어둑한 씨방을 뚫고나와 작은 나무라도 된 것 같습니다.

덜컥 상을 받게 되었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문학은 삶의 거울이라는데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해가 갈수록 삶은 알쏭달쏭 난해해지고 문학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 집니다. 좋은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 전에 좀 더 충실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글을 배웠다면 이제는 삶을 열심히 배워야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이 멋진 영광을 사랑하는 가족과 언제나 제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여자친구에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년의 영광



전) 김천시 남면사무소

신 유 복

퇴근을 하려고 사무실 문을 마악 나서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출입구의 전기스위치에 손을 대다 말고 김기남 면장은 다시 제자리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면장님. 장철굽니다. 주민들의 움직임이 심상찮은데요.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화기속에서 장철구가 숨가쁘게 말하고 있었다. 상모리 주민들의 동향을 간파한 모양이었다.

“어, 그래? 수고가 많네. 수고하는 김에 주민들이 모여 무슨 논의를 하는가 자세히 알아봐. 직접 알아보기가 곤란하면 동네 이장 통해서라도 알아갖고 연락해줘. 응, 수고해.” 짐작대로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상모리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기로 확정된 것은 작년 11월이었다. 벌써 석달전이었다. 지방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우여곡절 끝에 상모리로 결정되었는데 H시민들은 일제히 환영하였으나 유독 상모리 주민들은 예외였다. 3백만 제곱미터가 넘는 거대한 땅이 혁신도시로 편입되면 상모리 동네는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출근하자마자 장철구가 어젯밤의 일을 보고하였다. 장철구는 직원들 중에서도 가장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망도가 높았다. 마침 자신의 담당동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자 그는 주민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헤아려주어야 할 처지에 있었다. 혁신도시로 확정된 후로 주민들과의 관계가 웬지 서먹하게 변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기로 하고 단계별로 투쟁해 나가되 개인 행동은 일체 금지한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최대한의 보상과 권익을 추구해 나가며 정부와의 협상 창구는 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로 단일화한다. 주민대책 회의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저녁 여덟시에 마을회관에 모여 토의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단결에 달려있는만큼 주민대책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동을 통일하여 따르기로 한다. 기타 협의할 중요안건이 있을시에는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것 등이었다.

장철구는 덧붙여서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서도 이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안면이 있는 형사들이 마을의 움직임에 주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간밤에 늦게까지 수고한 장철구를 격려하여 내려보내고 김면장은 생각에 잠겼다.

K면의 면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벽찬 일감이 생긴

것이였다. 면부의 일이라는 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처럼 타면에 없는 생뚱한 일이 생기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였다. 면장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간파하고 있어야 한다. K면의 행정리동은 20개가 채 안되지만, 자연부락이 50개가 넘어 관내 각이동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였다. 직원이 20명이나 되지만 관내 동향을 파악하는 일은 직원 한두명이 고작인 치안센터에 늘 뒤져왔던 것이다. 면장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번 혁신도시건만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았다. 이것은 K면만의 일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어서 윗선에서 당연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민의 동향을 제때 파악못하여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은 뻔한 이치였다.

각 계장들을 불러 모아 간부회의를 열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각 계장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주민들이 매주 두 번씩 모임을 갖기로 되어 있으나 그 와중에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으므로 4명의 계장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수시로 상모리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주민 동향일지를 만들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면장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주민들이 단체행동의 조짐이 보일때는 지체없이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찰등 유관기관과의 연락과 직원들의 비상연락체제도 상시 점검토록 하였다.

상모리 주민대책회의의 두 번째날.

마을회관 입구에 사람들의 신발짝으로 꽉 메꾸어졌다.

평소 운동장처럼 넓어 보이던 회의실이 두겹 세겹으로 사람들이 둘러앉으니 금세 좁아졌다. 사전 조율이 되어 있었던지 새마을지도자 진병주가 임시 사회자를 자청하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의 살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시청에서는 벌써 혁신도시건설단을 설치하고 일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할줄로 압니다. 전번 회의때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마을 유지 몇분이 임시로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주십시오.”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유인물을 본 주민들은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날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사무국과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기로 하였다. 각 분과위원회는 토지, 건물, 과수, 축산, 특작, 기타시설 등으로 나누었고 사무국에는 총무를 두어 총괄적으로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다. 위원장에는 이장과 반장, 지도자를 두루 역임하였던 정상국이 추대되었다. 그의 강한 성격과 추진력 때문에 주민들의 박수로 통과되었다.

정상국위원장이 운을 떼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나아갈테니까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우리의 고향땅이 혁신도시라는 미명아래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조가 묻혀 있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함부로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일념하에 모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고향땅을 지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자면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각 가구별로 일정액을 각출하여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관철되고 성사될때까지 끝까지 힘을 합칩시다.”

이튿날부터 주민대책위원회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마을회관내 방한칸을 사무실로 쓰기로 하고 사무용 집기를 비치하였다. 컴퓨터, 팩스, 복사기, 칠판, 책꽂이, 관내 현황도 등 관공서의 한 부서처럼 꾸며졌다. 접대용 쟁반, 컵, 커피포트 등도 준비하였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출입시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고 내부분서가 밖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정상국위원장과 이용섭 총무가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두사람이 마을회관에 상주하다시피 하였다. 다행히 두사람은 농사가 많지 않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대외적으로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마을입구에 대형 선전탑을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마을 요소마다에 현수막도 게첨하기로 하였다.

마을의 일부 기술있는 사람을 차출하여 철골조로 탑모양을 만들고 상단에는 확성기를 달았다. 철탑의 곁에는 흰천을 두르고 붉은 글씨로 장식했다. 십미터 높이의 철탑이 세워지자 주민들이 환호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축조물이었고 주민들의 앞길을 인도해줄 든든한 이정표였다. 양 사방에 힘차게 써 갈긴 문구가 생동감을 주었다.

- 혁신도시 결사반대! 죽음으로써 고향땅을 지키자!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조상님이여 우리를 굶어 살피소서!

상단에 달린 확성기를 통한 시험 방송이 온 동네를 뒤흔들었다. 마을회관의 확성기 소리와 어울리면서 천지를 진동시키며 세상을 뒤집을 듯 하였다.

현수막도 광목과 페인트, 붓을 사서 자체 제작하였다.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50여개의 현수막을 만들어 마을회관, 마을입구, 도로변, 골목 어귀 등에 부착하였다. 붉은 색과 검은색 두 단색으로 글씨가 비뚤배뚤하였지만 살아 움직이는 듯 하였다. 문구도 가지각색이었다.

- 혁신도시 철폐하라! 대대로 살아온 땅 절대 빼앗길수 없다
- 뭉치자 주민들이여, 지키자 고향땅!
-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
- 죽을 나이가 되었는데 여기서 죽을란다
- 대통령은 각성하라! 시장은 할복하라!

상모리는 온통 현수막으로 도배를 한 모습이었다. 지나가는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면서 광고 문구로 어수선하게 뒤덮힌 마을의 광경을 보며 스쳐갔다. 마을의 동향은 수시로 관계기관에 보고되었다.

장철구는 사무실 일은 접어두고 상모리를 안방처럼 들락거렸다. 경찰쪽에서는 정보형사가 계속 돌아다녔다. 주민들의 과격한 표현에 자칫 돌출행동이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관에서는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고 주민들은 자신들을 건드리면 금방 달려들 기세였다. 도시주택공사에서는 이미 보상가격 감정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시청안에 주민보상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에 현지 상모리 주민대표가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정상국위원장은 참석을 거부하였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참석하는 것은 혁신도시건설을 인정하는 꼴이며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은 탓도 있었다.

밖에서 들리는 말은, 주민들이 버티는 것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었다.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그것도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상모리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사업이 성사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런 소문에 상모리 주민들은 울분을 금할 수 없었다. 인간 세상이 돈이 전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결사 투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수백년 살아온 고향의 터전을 그 어떤 명목으로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조상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남들은 모른다. 다수의 논리보다 약자의 가냘픈 외침을 경청해야 할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엇갈리는 소문들을 접할때마다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로 변했다. 그들은 회의가 끝날 때, 〈고향의 봄〉을 합창하면서 설움을 달래며 새로운 다짐을 하였다.

-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상모리는 획정된 둥근 원안에서 거칠게 노닥거리는 놀음의 형상이었다. 그 놀음이 원밖으로 튀어나올까봐 관련기관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셈이었다. 어찌면 그것은 예정된 각본대로 움직이는 재미없는 게임일지도 몰랐다. 이미 목표는 정해졌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푸닥거리로 비쳐지는 주민들의 처절한 몸부림 일지도 몰랐다. 정상국위원장은 그것이 못마땅하였다. 과연 우리가 획정된 테두리안에서 파닥이는 나비의 날개짓에 불과한 것인가. 메아리없는 목청만 높이는 것인가. 나는 허울뿐인 위원장에 불과한 것인가. 정위원장은 자칫 비애감에 빠질뻔한 유혹에 마음을 추스렸다. 주민들이 당초 <주민보상대책위원회>로 주장한 것을 <주민대책위원회>로 관철시킨 것은 바로 정위원장이었다. 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혁신도시로 개발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었다. 주민에 대한 보상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주민들은 뒤에 정위원장의 깊은 뜻을 헤아렸다.

시청에서 다시 주민보상위원 회의를 개최하는데 마을대표가 참석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마을대표야 당연히 정상국위원장이지만 시청에서 주관하는 주민보상위원 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것인가를 놓고 주민대책위에서 격론을 벌였다. 결론은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주민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하였다. 참석은 하되 시청의 허수아비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정부와의 마찰을 암시하는 의연한 태도였다. 주민들은 그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었다.

시에서 개최한 주민보상위원 회의는 예상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주 내용은 감정과 보상에 관한 문제였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한 3명이 감정한 것을 평균해서 감정가로 한다는 것과 보상시기는 감정결과를 통보하고 동의서를 받음과 동시에 한다는 것이었다. 정위원장은 들러리를 서는 것 같아 회의가 끝나는 등 마는 등 하고 그냥 나와버렸다. 주민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결과를 보고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주민들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하였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상모리 주민들을 발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 우리의 의연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금전적인 보상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주대책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다. 보상을 받고 그 돈으로 어디에서 땅을 살 수 있으며 살아가갈 곳이 막막하다. 살 집까지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에 대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자. 주민회의는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 대안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었다. 토의 끝에 여러가지 안이 나왔다.

보상가 감정을 정부에서 선정한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선정한 사람에게 맡기도록 할 것,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 대한 대책, 이주시 아파트 우선분양등 정착대책, 편입후 관련기관에 상모리 주민 우선채용권 부여, 축산폐업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양도소득세 특별감면, 분묘이전사업, 별목사업, 고철수집사업, 상모리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고향관 건립 등이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관철시키기로 하였다.

그런데 주민들의 대응태세보다 시청과 토지주택공사에서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이름없는 소도시에 혁신도시가 천신만고 끝에 결정되었는데, 현재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정권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차기 정권이 들어서서 공염불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때문이었다. 과거 대형 국책사업들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중앙의 실세 권력에 의해 다른 곳으로 변경되거나 호지부지된 사례가 있었던 탓이기도 했다.

집작대로 시에서 며칠뒤 동네앞 야산에 사람과 장비를 동원하여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동네 입구에 자리잡은 야산은 구릉지대로 옛날 토기와 기와조각이 더러 발견된 곳이었다. 시청 소유의 공유재산이어서 국가에서 뜻대로 하는 것은 뭐라 말할 것이 못되지만 그 일대는 고분군으로 추정되는 곳이었다. 시관계자의 설명이 있기는 하였다. 혁신도시 개발에 앞서 상모리 고분군을 발굴하여 귀중한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나 상모리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긴급 주민대책회의가 열렸다.

지난번 회의때 결의한 내용을 하루빨리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시청앞 광장에서 주민집회를 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내용을 전달하고 강력한 결의문을 낭독한다. 현재 진행중인 동네앞 유적 발굴 작업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집회일시는 3일후 오전 11시에 한다. 주민들이 타고 갈 차량은 각 분과위별로 화물차를 차출하고

차량에는 모두 〈단결, 투쟁〉 깃발을 달도록 한다. 머리띠도 준비하여 각자의 머리에 두른다. 차량에 탑승할 사람은 나이 많은 노인은 제외하고 만약의 불상사에 대비하여 구급약과 음료수, 간식거리도 준비한다. 동네 풍물단은 맨 선두에 서서 차량을 인도한다.

마을의 동향은 관계기관에 속속 전달되고 있었다. 면사무소의 마을담당 장철구가 자주 나타났고 다른 면직원들도 추가로 보였다. 경찰쪽은 말할 것도 없었다. 민관이 서로 축각을 곤두세우고 신경전을 벌이는 형국이었다. 관에서는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과격한 집단행동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다. 고향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이해하고 달래면서, 국가백년대계가 담긴 혁신도시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집회 당일날.

상모리 앞 도로는 때아닌 차들로 붐비었다.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차들이 한곳으로 모여드니 동네 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대규모 주차장을 방불케 하였다. 마을앞 삼거리 입구에 풍물단이 탄 차가 벌써 소리를 내고 있었다. 팽과리의 자지러지는 소리가 독기를 내뿜듯 매섭게 울어댔다. 풍물차 뒤로 수십대의 화물차들이 뺨꼬리처럼 늘어져있었다. 차에 꽂힌 깃발들이 눈보라에 휘날리는 눈꽃처럼 하얗게 펄럭였다. 맨 뒤쪽에는 임차한 대형버스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동원을 최대한 늘리고 이동시키기 위해서였다. 마을회관쪽 골목에도 차들이 시동을 걸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을 앰프방송이 흘러나왔다. 〈고향의 봄〉노래가 나오는가 싶더니 정위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었다.

“ 동민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살길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고향을 지키는 일은 우리 자신들이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터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뜻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당국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감정에 치우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동민 여러분은 저희 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사불란한 행동으로 우리의 단결을 과시하고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받을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행사가 시작되어 끝날때까지 조그마한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진행에 있어 저와 지도부의 지시에 잘 따라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

정각 오전 열시가 되어 선도 차량인 풍물차가 출발하였다. 대기하고 있던 화물차들이 뒤따랐다. 풍물차 앞에는 경찰차가 차량들을 통제하며 앞장서 갔다. 장철구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비상등을 깜박이며 차량 이동상황을 수시로 시청과 면에 보고하였다. 곳곳에 배치된 직원들과도 통화를 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시내 사람들과 차량들이 시위 행렬을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풍물단의 팽과리 소리가 도심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시민들은 귀를 세우고 시위 차량의 요란함에 눈을 멀뚱거렸다. 혁신도시가 들어선다고, 이제 뭔가 될 것 같다고 좋아했던 시민들은 난데없는 반대 시위에 의아해 하는 눈치였다.

시청앞에는 이미 경찰병력이 대기하여 입구에서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다. 중대병력의 인원으로 보였다. 정위원장과 주민대책위

지도부의 인솔하에 시청앞 도로변에 주민들이 집결하였다. 이백명은 죽히 넘는 인원이었다. 주변 도로의 교통은 일시 통제되었다.

정위원장은 시청안 진입 시도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경찰과의 충돌 우려도 있지만, 오늘 시위 목적은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시장을 면담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시장과의 면담 성사여부는 불투명하였다. 주민대표가 시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시장이 현장에 나오는 것 두가지의 경우를 저울질하였다. 주민들의 강경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면담을 거절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행사 예정시간 열한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다.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행사진행에 차질을 빚을지도 몰랐다. 주민대책위가 내심 초조한 기색을 감추면서 본행사를 진행하려할 즈음, 시장이 방금 행사장에 도착했다는 기별이 왔다.

시청쪽에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길이 트였다. 이상호시장이 상모리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주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다. 때문에 시간이 조금씩 더 지체되었다. 주민대책위 간부들을 보고는 부드러운 말투로 수고한다고 하였다. 시장은 손마이크를 잡고 주민들을 향해 말하였다.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곳까지 나와서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아픈 마음도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다 들어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중앙부처 예산관련기관과 연관되는 것은 조속히

건의를 해서 주민여러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고향을 잃는 마음이야 누가 뭐래도 치유할 수 없을만큼 깊고 아픈 상처일 것입니다. 그 깊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데 시장도 팔을 걷어부치고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보다 더 나은 시를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시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고향을 지키는데 희생하고 계시는 정상국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호시장은 선채로 주민들의 집회 광경을 지켜볼 요량이었다.

주민대책위는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계획안대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고향의 봄〉을 선창하고 국민의례, 호국영령과 상모리 선조들에 대한 묵념,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결의문을 낭독하고 다시 〈고향의 봄〉을 부르고 행사를 마쳤다. 시장은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민들과 또 일일이 악수를 하였다. 여러분의 뜻을 잘 알았으니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과 함께 특유의 눈웃음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하였다. 행사는 결국 경찰의 호위속에 시장의 부드러운 접견으로 마무리된 셈이었다. 대과없이 무사히 끝난 데 대하여 정상국위원장과 주민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하였다. 자신들의 요구조건과 결의를 대외적으로 강하게 전달하여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지고 있었다. 집회 당일날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참석치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안용기의원은

그날 국회에서 중요한 예산 심의가 있어 참석치 못했다고 뒤에 밝혔으나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상모리 주민들은 생각하였다. 또 들리는 얘기로는 상모리 주민들의 집회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내심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다시피 하였고, 이제 이의 실행을 위한 국책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작할 단계에 이르렀는데 일부 주민의 반대로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대의를 위해서 작은 부문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안의원의 처신에 대해 상모리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부의 편에 서서 고자세를 취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약자인 주민들의 마음을 쓰다듬을 줄은 모르는가. 국회의원 당선시 상모리에서 몰표가 나온 사실을 벌써 잊은 것 같다. 용변을 보기전후의 태도가 다르다고 했는데 안의원의 작태는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즉시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안의원은 주민들의 입방아에 찍혀 오르내렸다.

매주 두 번씩 개최기로 한 주민대책회의가 처음 시작할때와는 달리 분위기가 산만해지는 느낌이었다. 정위원장은 조바심이 생겼다. 강경투쟁보다는 보상을 많이 받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어차피 싸움의 결과는 드러나보인다. 그렇다면 실리를 챙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물론 그냥 곱게 물러서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다. 양탈을 부리며 실속을 챙기자. 주민들간에는 이런 공식이 묵계처럼 되어갔다. 고향을 지킨다는 순수한 투쟁심의 발로가 어느덧 발빠른 계산법에 의해 퇴색되어 가고 있었다.

정상국은 위원장으로서의 권위랄까, 명분이랄까 그런 것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하였다. 보상금에 눈이 어두워 투쟁의 순수성에 흠이 간다면 주민대책위의 위상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고향관 건립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다. 고향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박물관 형식으로 보존된다면 더없이 다행한 일일 것이었다. 상모리를 축소한 모습을 담은 고향관을 인근 마을에 세워 언제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다. 도시주택공사에서는 과외로 만만치 않게 들어갈 비용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었다.

동네 앞동산의 유적 발굴작업은 S대학교의 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아 지도교수와 작업인부들이 오늘도 움직이고 있었다. 구간을 정하여 줄표시를 하고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치며 조사하고 있었다. 동네 일로 바쁜 가운데서도 정상국은 그들의 작업을 주의깊게 보아왔다.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땅속에 묻힌 선조들의 잔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별다른 소득도 없이 그칠 것인가. 선조들은 오늘의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위원장은 주민들의 다음 대응단계에 대해 고민하였다. 다수 의견을 도출하여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실행에 한계가 있었고, 재정조달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농사는 뒷전으로 돌리고 마을회관에 상주하여 대응책을 짜내느라 신경을 곤두세웠다. 안용기의원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이었다. 지역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결국 머리를 숙이고 들어올 것이다. 그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다. 그러나 고향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자존심따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의 냇두리요 치졸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주민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가려는 행보에 방해가 될 뿐이다. 그의 약삭빠른 행동에 주민대책위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차기 선거시 낙선운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주민들의 심상찮은 낌새를 눈치를 챘는지 안의원이 며칠뒤에 지나가는 길이라면서 주민대책위 사무실을 깜짝 방문하였다. 마침 지도부 임원들이 대책안건을 놓고 논의중이었다.

“여러분을 자주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본의가 잘못 전달되었다면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보다 나은 도시를 건설해보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여러분의 감정을 섭섭하게 해드린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선후배들이 많은 상모리인데 제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용서해주시고 여러분의 권익을 찾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안의원의 말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 알 길이 없었으나 주민대책위는 일단 수용하기로 하였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힘있는 사람을 한사람이라도 끌어들여야 했다. 정부와 주민간의 줄다리기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언제 돌출 변수가 튀어나올지 몰랐다. 상모리 주민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였고, 정부는 그것을 바라보는 고양이였다. 강자의 여유로움이 아니라 약자를 보듬어주는 지혜가 필요했다.

주민간담회의 일정이 잡혔다. 다가오는 금요일 오후 두시. 장소는 K면의 회의실이었다. 정부측 참석자는 도청 부지사, 이상호시장,

도시개발단장 등이었고 상모리에서는 주민대책위의 임원들이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시의원도 포함되었다. 정부측에서는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려는 의도였고, 상모리 주민들은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기회의 장으로 여겼다.

간담회가 열리는 날.

면사무소 주변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찰병력이 주위에 배치되었다. 동네 주민들도 밖에서 관심어린 표정으로 대기하였다.

회의는 외국의 수범사례와 혁신도시의 미래상을 담은 홍보영화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10분간의 상영물이 끝나고 중앙부서의 실무자가 혁신도시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토성장의 중심거점으로 미래발전의 무한한 부가가치와 수만명의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라의 백년대계가 담긴 국책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다른 수십곳의 경쟁지역을 물리치고 이곳에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축복이요 행운이며 땅이 편입되는 지역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감정기관의 현지실사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부지사, 지역출신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민들의 고충은 이해한다면서도 대국적인 견지에서 협조해 달라고 하였다. 주민대책위의 의견개진이 있었다.

- 무조건 협조만 요구하면 우리 보고 죽어달란 얘기와 다를바가 무엇인가. 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쫓아야 할 것 아닌가. 적절한 보상

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 줄 것인가. 들리는 얘기로는 공시지가를 참고한다는 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현시세를 쳐준다 해도 부근에서 대토를 구입하기가 어렵다. 최대한의 보상과 이주대책까지 세워주어야 한다. 상모리 고향관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며 영세민들의 사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임대주택을 지어 그들에게 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선분양권을 주어야 한다. 상모리 주민들의 수익사업도 챙겨주어야 한다. 단지 금액만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달라. 여태까지의 불신을 해소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도시개발단장이 다소 무리한 요구는 검토를 하겠으며 가능한 것은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보상가액도 주변의 땅값을 고려하여 감정기관에서 적절하게 감정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미진한 답변에 정상국위원장과 주민대책위 임원들이 분을 삭였다. 원론적인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도대체 오늘 간담회를 하는 뜻이 무엇인가. 주민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모양새만 갖추려고 하는가. 주민대책위 임원들이 일어나 퇴장을 하려고 하였다. 급기야 부지사가 만류했다. 이대로 나가버리면 서로가 난처한 입장에 빠진다. 부지사가 출입구로 가서 정위원장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앉아서 얘기를 하자. 차근차근 얘기하면 좋은 방도가 나올 것이다. 단장의 얘기만 듣고 가는 것은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것이다. 내가 부지사로서 책임을 지고 여러분의 살 길을 찾아줄 것이다. 정위원장과 주민대책위 임원들이 다시 제자리에 앉았다. 제일 상급자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다.

보상 감정은 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것이며 보상가액도

시가에 맞게 책정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상모리 고향관은 시와 도 예산에서 반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시주택공사에서 부담하여 건립하기로 한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뒤 관련기관에 상모리 출신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영세민을 위해 주변 인근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어 주거안정과 생계대책을 지원한다. 이주자의 생활근거 마련을 위한 택지를 확보하고 개발에 따른 주민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상모리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기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주민의 입장에 서서 매사를 추진토록 한다.

부지사의 결단이 돋보이는 대목이었다. 실무진들의 표정이 당혹스러워 보였지만 부지사는 노련한 행정경험으로 과감한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정위원장과 주민대책위 임원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일의 실마리가 풀려가는 느낌이었다. 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바깥의 주민들이 함성을 질렀다. 정위원장과 주민대책위 임원들은 개선장군처럼 마을로 돌아왔다. 오늘 간담회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모처럼 주민들과 함께 소줏잔을 들이켰다. 그런데 과연 부지사의 말대로 실천이 될 것인가. 주민들을 무마시킬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발언은 아니었던가. 뒤에 가서 엉뚱한 말은 하지 않을 것인가. 허울좋은 이름으로 끝날 대책사업은 아닌가.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정위원장은 이럴때일수록 다음 단계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민대책위의 조직이 허술해보이면 정부에서도 그 틈을 노리고 조직을 와해시키려 할지도 모른다.

조직이 와해되면 약속받은 것들도 한낱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주민대책회의는 계획대로 매주 두 번 개최하고 회의내용은 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그것은 상모리 주민들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이었다.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며 싸웠다는 삶의 흔적이 될 것이었다.

그날 일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 ○월 ○일, 금요일, 날씨: 아침에 흐렸다가 오후에 맑음.

오늘은 기분좋은 날. 정부 관계자들과 투쟁하여 소기의 성과물을 얻었다.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획득하였다.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대열을 추슬러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에 빠져 자칫 앞으로의 행보가 느슨해지면 안된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어쨌거나 오늘은 기분이 좋다. 주민들의 표정이 밝으니 덩달아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 일지를 적는 이사람(이용섭)도 못하는 소주 한잔하였다.

마을앞 동산에서 발굴작업을 하던 요원들이 갑자기 부산하게 움직였다. 구름 낀 하늘에서 기다리던 단비가 흠뻑렸다. 바둑판 눈금 모양으로 구획한 중간 지역에서 작업을 지도하던 요원이 의미심장한 유물을 발견한 것이었다. 지표면에서 2미터 가량의 깊이에서 석곽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석곽의 겉면에 ‘大龜帝國王’이라는 글씨가 새겨져있었다. 글씨를 본 순간 발굴단원들이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흙을 털고 드러나는 석곽의 앞쪽에는 거북머리 형상의 조각이 숨이 차듯 머리를 내밀었다. 귀부(龜趺) 모양의 중간에 석곽이 얹혀있었다. 발굴단장과 지도교수들이 열리는 석곽을 숨을 죽이며 바라보고 있었다. 젖혀진 뚜껑 틈으로 드러난 것은 흰천으로 덮여진 미이라였다.

미이라의 모습을 보는 순간, 발굴단원들이 한결같이 아, 하는 탄성을

발하였다. 해골의 움푹 꺼진 동공이 암흑의 동굴을 연상시켰다. 검은 머리칼은 아직도 윤기가 나는 듯 하였다. 하얀 이빨은 바깥의 빛을 받아 광채를 발산하였다. 곽속의 한쪽에 길쭉한 목재함이 끼워져 있었다. 목재함 속에는 미이라의 신분에 관한 자료와 애장품으로 보이는 노리개 등이 담겨있었다. 미이라의 신분은 놀랍게도 거북나라의 왕이었다. 목재함의 맨아래에는 이상한 무늬가 수놓여진 천이 있었다. 천을 펼쳐보니 흰바탕에 한문으로 ‘千年龜國’이 쓰여져 있고 거북의 머리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천의 크기는 가로 1.5m, 세로 1m 정도였으며 테두리에는 금실로 다듬어져 있었다. 그것은 깃발이었다. 거북왕국의 깃발. 아니 거북제국의 깃발이었다. 발굴단원들이 소집되어 발굴된 유품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거북제국에 대한 사료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획기적인 성과임에 틀림없었다. 이 K면을 근거지로 한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책을 새로 써야할 만큼의 대발견이었다. K면은 옛날 신라의 모체가 된 사로국(斯盧國)의 변방지대에 속하였는데, 가야국(伽倻國)과 경계지역으로 아마도 양국 사이에서 독립의지를 불태운 것으로 보인다. 상모리 마을앞 동산은 얼핏보면 다른 동네산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군데군데 잠목이 우거진 것을 제외한 5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지형을 살펴본 결과 땅 모양이 마치 거북의 등을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쪽 끝부분에서 발견된 미이라의 위치가 동산의 머리부분에 해당되었다. 동산의 곳곳에 부수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토기와 도자기의 파편은 이 곳이 당시 중심지역으로 여기에서 생활했던 주민들의 흔적인 것으로 보였다. 발굴된 흔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국명은 대구제국(大龜帝國). 발견된 미이라는 대구제국의 2대 왕 용성(龍星)이었다. 대구제국의 건국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3세기 후반에서 4세기초로 짐작된다. 고을 수는 20여개로 인근의 사로국과 가야국 사이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대구제국이 터전을 잡은 상모리 앞 동산은 남향으로 동산 건너에는 넓은 들이 자리잡고 그 맞은편에는 해발 300미터의 덕로봉이 우뚝 솟아있다. 부왕의 뒤를 이은 용성왕대에 가장 활발한 시기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목재함 속의 깃발은 국기이며 제국의 변신을 꾀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엿보인다.

3-4세기경에는 무수한 크고 작은 고을들이 강자의 무력에 복속되어 명멸된 시기로 대구제국도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나라의 정체를 왕국이 아니라 제국으로 명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고 상모리 앞 동산을 제국의 궁궐터로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대책위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감격하였다. 매일 옆길로 바라보며 드나드는 앞동산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천년도 훨씬 넘어 이천년이 되도록 선조들의 원대한 뜻이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었다니. 전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했다.

정상국위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앰프 방송을 하였다.

“동민여러분! 오늘 저는 참으로 기쁘고 감격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앞 동산에서 놀라운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조가 바로 이 땅위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상모리가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선조들의 뜻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천년거북의 형상이 발견되었고, 천년왕국의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동민여러분! 우리의 혈맥 속에는 천년왕국을 꿈꾸었던 선조들의 혈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말려들지 말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만한 유적이 발견된 이상 정부도 우리의 뜻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천년 넘게 살아왔던 이 땅을 선조들의 원대한 뜻을 그대로 이어갈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위원장의 방송은 상모리 전체를 울리면서 퍼져나갔다. 천년 넘게 잠들어 있던 땅속의 소리가 되살아나 웅장하게 울리는 듯 했다. 상모리 주민들도 가슴 뚫듯하게 들리었다. 이 조그만 마을이 천년왕국, 아니 천년 제국을 꿈꾸었던 곳이라니. 왕의 미이리가 발견되고 그의 의지가 뚜렷이 각인된 것이었다.

방송 보도가 나가자 상모리가 언론매체의 중심이 되었다. 수십명의 기자들이 이곳을 취재하려고 들이닥쳐 상모리가 북적대었다. 앞동산의 유적을 집중 취재하였고, 마을 전체가 취재의 대상이 되었다. 상모리는 연일 TV 화면에 등장하였고 혁신도시 편입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마을의 안타까운 사정과, 주민대책위원회의 투쟁하는 모습도 소개되었다. 정상국위원장의 인터뷰도 주요 기사거리였다. 정위원장은 마치 대구제국 후예의 지도자처럼 비쳐졌다.

“상모리 마을의 실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실체가 밝혀진 이상 상모리 전체를 국가문화유산 지구로 지정을 해야 하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을 없애 버리려는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사를 새로이 정립해야 하고 특히 이 지역의 국가성립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의 가야국과 사로국, 나아가 신라와 백제와의 관계도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상모리 앞동산에 궁궐터를 잡고 자신의 보금자리로 삼아 누워있는 용성왕의 모습에서 한국인의 기개와 웅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디에도 제국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상모리만이 대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야망의 날개를 펼쳐보인 것입니다. 느린 듯 하면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북처럼 철갑으로 무장한 든든한 방호벽으로 그 어떤 외부의 침입도 거부하고 오로지 독자적인 거대한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상모리의 유적 발굴로 인하여 혁신도시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였다. 정부에서는 문화재청 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유적의 실태를 정밀 재조사하였다. 문화재의 가치를 알아보고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영향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상모리 일대를 조사하였는데 그들도 놀라워하였고 현지답사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 K면 상모리 고분군 조사 : 2007년 5월, 문화재청 발굴조사와

경북 H시 K면 상모리(尙慕里)에 위치한 앞동산 고분군 조사는 H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H시는 삼한시대를 전후한 가야국에 속하였으며 가야시대 대가야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장이다. 이곳에는 지석묘 등 청동기시대의 유물과 고분 등 많은 유적들이 있으며 특히 가야제국과 관련된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K면 상모리는 그동안 평범한 야산지대로 알고 있었으나 지방 S대학의 용역조사에

의해 귀중한 고분군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S대학 조사팀은 상모리 고분군에서 선대의 미이라와 생활용구 등을 발굴하였다.

상모리 고분군은 K면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외부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곳이었다. 그동안 상모리 고분군은 주민들에게 앞동산으로 불리어져 왔으며 친근한 주민들의 쉼터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S대학의 유적발굴 조사팀에 의해 대구제국(大龜帝國)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궁궐터와 왕의 미이라가 발견되었다. 이에 우리 문화재청 조사팀은 지표조사와 고분군분포도 작성 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상모리 앞동산 고분군이 당시 대구제국의 궁궐터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K면내 상모리 인근 부락 조사도 병행하였다.

하지만 상모리 앞동산은 오랫동안 방치된 탓으로 고분이 많이 허물어지고 일부만 고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궁궐터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거의 어려웠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가 대구제국의 실체에 한걸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조사목적 및 의의

K면의 상모리 앞동산으로 불리어진 상모리 고분군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일환으로 상모리와 주변 마을 일대를 조사하였다. 상모리는 서쪽으로 옛날 가야국의 변방지대를 경계로 하고 동쪽은 사로국의 유혹을 받으며 마을 건너편 남쪽의 덕로봉을 위안삼아 독자적인 영토를 꾸려온 것으로 보인다. 덕로봉의 수려한 산수와 더불어 덕로봉 밑을 흐르는 덕천 냇가 유역에는 선조들의 화려한 생활문화가 꽃피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에 관한 조사를 하여 차후 H시 지역의 역사를 복원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 조사결과

이 조사에서는 상모리 고분군과 인근 일대의 마을 10여곳을 조사하였다.

1. 동쪽의 옛 사로국 경계지역에서 흘러내리는 덕천의 상류는 물론이고 하류 유역에도 청동기시대부터 인간이 살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분묘의 분포와 무문토기의 산포지를 통해 덕천 유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취락분포와 유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 삼한시대 고분 분포를 통해 삼한시대 읍락과 자연취락의 형성에 대해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증거를 확보하였다.
3. 덕로봉이 사로국의 후신인 신라의 경주 남산에 남아있는 유적과 버금가는 문화 보고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H시 주변의 고고학적인 유적 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가야국 및 사로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후일 역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확보하였다.

대구제국(大龜帝國)의 초대왕은 진대왕(辰大王)이며 2대인 용성왕(龍星王)때 제국의 꿈을 펼친 것으로 보이나 아쉽게도 그 꿈이 용성왕대에 접은 것으로 추정된다. 용성왕 이후의 기록은 보이지 않아 추후 지속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용성왕의 미이라를 살펴볼 때 방부제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은 당시의 매장문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연구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용성왕은 부왕인 진대왕의 단점을 과감하게 고치려고 했던 것 같다. 용성왕의 유물중 허리띠에 혁파(革罷)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용성왕의 개혁정신은 뒤에 신라의 제도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성왕의 유지(有志)가 담긴 어록을 발견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 용성왕은 선대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대국의 웅지를 펼치려고 하였다. 좋은 것은 본받되 고쳐야 할 것은 새롭게 하여 후대의 귀감이 되고자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선사시대 이래 이 곳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려왔다. 우리의 땅을 탐하는 우리들이 사방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한치의 틈도 보이지 말 것이며 도적떼들을 쳐부수어야 한다. 순박한 우리 백성들을 알잡아 보고 그러한 즉 내실을 튼튼하게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적들을 격멸하라. 그 중심에 내가 있을 것이다. 나라의 대들보인 궁궐을 짓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우리를 위협하는 주변의 고을을 하나씩 복속시켜 우리의 영토로 만들 것이다.

강인한 의지를 갖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새세상을 볼 것이다. 거북은 우리의 상징이다. 느리고 미련한 듯한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강력하게 방어하고 끈기를 갖고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거북의 수명은 그 어느 짐승보다 가장 길다. 우리의 대구제국도 그렇게 영원히 번성할 것이다. 백성들이여, 갈 길은 멀지만 한발짝씩 옮기는 일에 모두 동참하라. 한사람의 발자국은 미미하지만 다함께 움직이는 것은 초인과 같은 힘을 발산하리라.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이니라. 제국의 꿈은 꿈이 아니라 머지 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용성왕의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 잘 나타나 있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준 제왕으로서의 품모가 돋보인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를 계승할 왕자와 그의 웅지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던지 그 뒤의 기록은 단절되어 있다. 그의 개혁의지가 단명으로 끝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아마도 용성왕의 사후에 곧바로 외부세력에 의해 대구제국이 정복당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또한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 조사후 의견

상모리 고분군은 대구제국의 궁궐터가 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인근 마을 골짜기마다 적지않은 유물이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덕로봉의 산자락을 감안할 때, 삼한시대와 대구제국과 관련된 유적을 밝혀내는 작업이 단시일에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 곳을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하여 상모리를 정점으로 K면, 나아가 H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 발굴조사팀의 보고서에 의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은 재검토하게 되었다. 건설부와 문화재청의 조율하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혁신도시지구를 일부 변경하기로 하였다. 미이라가 발견된 상모리 앞 고분군의 면적을 혁신도시 편입지역에서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업을 추진하되 주변의 발굴 조사는 병행하기로 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국립 중앙박물관에 임시로 보관하였다가

상모리 고향관이 건립되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그 곳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토지주택공사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상모리 주민대책위는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정부의 변경안을 받아 들이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난번 대선때의 공약사항인 국토균형발전 약속을 더 지연시키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다음 정권 창출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첫 삽질을 상모리에서 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혁신도시개발지역이 전국에 십여군데가 되지만, 가장 추진 속도가 빠른 곳이 K면의 상모리였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 주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건설부 산하 혁신도시개발사업단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거니와 상모리 주민들과의 타협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보상감정에 주민들이 대체로 동의를 하였고 보상지급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일주일사이에 보상금액의 반이 넘게 지급되었다. 보상금액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금융기관들이 달포전부터 예금유치작전을 벌여왔는데 홍보 현수막이 마을주변 곳곳에 걸려 주민대책위의 투쟁궐기 현수막과 어울려 대조를 이루었다.

H시에서는 혁신도시 기공식을 다른 곳보다 가장 먼저 하려고 행정력을 집중시켰다.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곳에 수백억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이유도 있었지만 첫 테이프를 끊는 것이 홍보 효과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H시의 의도가 중앙부서와 맞아

떨어진 것은 당연하였다.

기공식 장소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정부측에서는 K면의 진입로 입구인 Y도의 경계선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상모리 주민대책위는 마을앞 넓은데서 하자고 하였다. 정부측 입장은 Y도 경계선의 터가 넓어 기공식 장소로 적합할 뿐 아니라 타시도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주민대책위는 혁신도시의 기치를 상모리에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대구제국의 건국이념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모리 앞들에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의견 조율 끝에 기공식 장소는 상모리 마을앞들 중앙에 임시 광장을 만들기로 하였다. 문화재청 발굴조사팀의 보고서 내용대로 유적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다. 장소가 정해지자 곧바로 기공식 일정이 잡혔다. 2007년 ○월 ○일 오후 3시. 이십여일이 남아 있었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큰 행사여서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였다. 관련 건설부와 의전행사 부서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것이라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전문을 보내왔다. 중앙에서 실무자가 내려와 모든 준비사항을 챙기기 시작했다.

상모리 마을 앞들에 수십대의 트럭과 중장비가 들이닥쳤다.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 왔던 들판이 변모되기 시작했다. 낮은 전답을 높이기 위해 트럭들이 인근에서 싣고 온 흙을 쏟아부었다. 여러 종류의 중장비가 그 위를 지나며 땅을 고르게 다졌다. 모래와 자갈도 함께 배합되어 기반을 조성하였다. 여름철 강우에도 불구하고 1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이 며칠만에 만들어졌다. 축구장 몇 개가 될 성 싶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상모리 마을까지의 도로변도 새롭게

단장되었다. 임시 광장의 지면은 아스콘으로 산뜻하게 포장되었다. 혁신의 앞길은 날씨와 관계없이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곧이어 임시 광장에는 대형 가건물이 축조되었다. 2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건물이었다. 대통령의 안전과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여름철 피약별에 그대로 노출시켜서는 안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갑자기 쏟아질 소낙비에도 대비한 것이었다. 건물 바로 옆에는 기공식을 기념하는 삽질할 곳과 폭파 시연할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었다. 임시광장 한켠에는 기공식 기념 대형 애드벌룬이 공중에서 떠다녔고 건물 내외에는 각종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상모리 마을 주변은 물론 K면과 H시의 도로변 곳곳에는 기념 현수막이 나붙었고 배너기가 펄럭였다.

이 모든 것이 보름여만에 이루어졌다. 지방에서 작은 공사 하나 마무리하는데에도 온갖 장애가 발생하여 몇달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사에는 장애물은 아예 없어 보였다. 예산과 자재와 인력동원은 문제거리도 안되었다. 상모리 주민들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님의 힘이 참으로 대단함을 느꼈다. 또한 나라님인 대통령이 상모리에 온다는 것은 상모리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상모리가 생긴 이래 나라님이 왔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상모리의 경사중의 경사였다. 상모리가 사라지는 것은 보다 나은 국가건설을 하려는 대통령의 뜻임을 이해하려고 했다. 주민들은 너도나도 대통령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차있었다. 잘만 하면 대통령 손을 잡아보는 행운도 가질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상모리 주민의 극히 일부만이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에 모두들 실망하였다. 국가적인 행사인만큼 초청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끌고루 배정되어 행사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상모리에서 초청된 사람은 주민대책위의 정상국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5명과 동네 이장을 포함 10명 미만이었다. 그 밖에 타동네 사람 일부가 초청되었는데 초청자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어깨를 우쭐거렸고 초청받지 못한 일부 유지급 인사는 불만을 토로하며 술을 퍼마셨다.

드디어 행사 당일.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한여름의 햇살이 아침부터 따사롭게 내려앉았다. 행사장 주변과 길목에는 경찰병력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수일전부터 행사장을 중심으로 상모리 마을과 덕로봉등 고지대 주변 점검을 마친 상태였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철저한 점검을 받은 후 행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초청받지 못한 상모리 주민들은 먼발치서나마 대통령의 모습을 보려고 애를 태웠다. 대통령이 차로 올지 헬리콥터를 타고 올지 모른다는 얘기가 들렸으나 행사시작 10분전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상모리로 들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곧이어 검은 세단 자동차들이 행사장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세 번째 차에서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중나온 각급 기관장들이 행사장 입구에 도열하여 인사를 하였다. 인사를 마친 대통령은 마침 먼발치에서 주민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 상모리 주민들은 대통령이 자기들을 알아본 것을 알고 감격했다. 대통령은 곧바로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행사장 안에는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이 좌석을 꽉 메우고 있었다.

방송에서는 대통령의 움직임을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고 기타 언론매체들도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은 작심한 듯 원고를 보지 않고 연설하였다.

“오늘 제가 이 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당초에는 반반이었습니다. 국무총리를 대신 내보낼 수도 있었습시다만, 뒤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여기 상모리가 옛날에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유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두 번 놀랐습니다. 한번은 혁신도시를 서로 유치하겠다고 몇 년전부터 여러 지자체장들이 기를 쓰고 달려들었습니다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상모리가 결정되었을때 놀랐고, 두 번째는 이 상모리에서 천육백년전에 제국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하늘이 점지해 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 제국의 이름이 대구 제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거북의 형상을 바탕에 두고 주변의 영역을 넓혀가며 큰 나라를 이룩해 보겠다는 대구제국의 왕이 용성왕입니다. 아니 왕이 아니라 제왕이지요. 우리나라의 북방에 옛 고구려와 발해가 제국의 풍모를 가졌습니다만, 이 남쪽에서는 상모리가 유일하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된 후로 국민들이 항상 웅대한 뜻을 가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큰 뜻을 품은 자만이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혁신도시를 전국 곳곳에 세우고자 하는 것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뜻을 곡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옳다는 것이 뒤에 검증될 것입니다. 이 국책사업이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혁신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간다면 우리 스스로도 놀라운, 세계를 제패하는 혁신국가가 될 것입니다. 용성제왕이 꿈꾸었던 혁신대제국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옛 선인들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가져야 하며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해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흐르는 물은 항상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흐르는 물처럼 변화와 개혁을 반복해가며 스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선인들의 뜻을 기리는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것이 있습니다. 준비한 것 이리 가져 오세요.”

대통령의 말에 대기해 있던 비서진의 한사람이 가방을 들고 나왔다. 주민대책위의 정위원장이 사인을 받고 연단으로 올라갔다. 대통령이 정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미소를 띠었다. 비서가 가방을 열고 꺼낸 것은 놀랍게도 상모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깃발이었다. 대통령이 말했다.

“여러분, 이것이 대구제국의 깃발입니다.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국기였어요. 천육백년동안 땅속에 묻혀있다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모양을 한번 보세요. 천년거북의 우람한 모습하며, 등껍질을 수놓은 자수하며 제국의 드넓은 형상을 표현했어요. 아직도 색깔이 바래지 않고 새것처럼 산뜻해요. 용성왕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제국을 꿈꾸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더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 기공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선대 제국의 왕들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꿈꾸며 잠들어

있다가 이제 그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신 정 상국위원장도 감회가 남다를 것입니다. 주민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앞장서신 그 용기도 장하거니와 선대왕의 혈기를 받아 새로운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협조를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위원장과 제가 함께 이 깃발을 한번 흔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리 와서 같이 흔들어 봅시다.”

대통령과 정위원장이 깃대를 같이 잡고 깃발을 흔들었다. 깃발이 펄럭이며 춤을 추었다. 천육백년전의 제국의 꿈을 키우던 깃발이 되 살아나 꿈틀거렸다. 느린 거북이 아니라 깃발 속에서 재빠르고 힘차 게 움직이는 천년거북이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요란하게 나왔다. 환호성이 터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릇한 흥분을 느꼈다. TV를 보던 시청자도 마찬가지였다. 천년의 꿈을 깨워 일으키는 감동의 장면이었다. 천년을 뛰어 넘어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제국의 왕들과 교감하는 순간이었다.

기공식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대통령은 돌아가는 길에 상모리 고분군을 찾았다. 발굴단장의 안내로 현장을 둘러보고 격려를 아끼 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점의 유물이라도 더 찾아내야 할 것이며 유물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방문에 상모리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였다. 대통령은 주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다. 대통령의 손길은 상모리 주민들 에게 따뜻한 기운으로 남았다. 어쩌면 그것은 천육백년전 제국을 꿈 꾸며 잠들었던 용성왕이 부활하여 나온 것인지 몰랐다.

다음날 아침.

상모리 주민들이 마을회관 앞에 모여들었다. 좀 전에 정상국위원장의 방송을 듣고 떠나 없이 달려나왔다. 정위원장이 방송한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동민여러분! 오늘 아침에 마을회관에서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즉시 한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나와 보시면 압니다. 어제 우리 마을에서 큰 행사를 치르고 또 대통령이 다녀갔습니다만 저는 이 벅찬 감동을 주민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방송을 들으신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마을회관 앞으로 지금 즉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장 특유의 주민들을 끌어모으는 방송 멘트때문에 주민들은 빠질수가 없었다. 주민들이 다 모인 것을 보고 정위원장은 준비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마을회관 옥상에 미리 올라가 있던 주민대책위 총무 이용섭이 국기봉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펼쳤다. 그것은 다름아닌 어제 기공식 행사장에서 전국의 시청자를 향하여 흔들었던 바로 그 깃발이었다. 중앙 박물관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던 것을 당분간 상모리 마을에 두도록 대통령이 특별히 배려한 것이라고 정위원장이 말했다. 이용섭은 양복을 입은 단정한 차림이었다. 정위원장도 그랬고 주민대책위 임원들은 거의 다 말끔한 옷차림새였다. 일부 주민들은 들에서 일하다가 나와 무슨 일인가 빨리 끝내고 말지 하고 멀뚱거렸다.

깃발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깃발에 집중되었다. 대구제국(大龜帝國)의 글씨가 휘날렸다. 거북 무늬가 바람을

타고 숨바꼭질하였다. 주민들은 야릇한 흥분에 휩싸였다. 천육백년 전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르는 듯 했다. 마을회관이 궁궐이었고 회관 벽면의 여기저기 붙어있는 투쟁구호가 적힌 현수막들은 제국의 선포를 축하하는 장식물이었다. 이윽고 깃발이 끝까지 올라가 나부꼈다. 주민들은 감격에 젖었다. 뒤쪽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고분 발굴단원들이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 옛날 제국의 꿈을 키웠던 천년 거북이 기어나와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었다. 그때에도 이 땅위에 비추었을 태양아래 이제서야 수많은 알들이 부화되어 세상을 포용하는 것 같았다.

대구제국의 깃발, 그것은 곧 혁신제국의 깃발이었다. 그 옆의 태극 깃발이 제국의 깃발을 환영하는 듯 힘차게 펄럭였다. 만물의 생성 근원이며 우주의 본체를 의미하는 태극과 미래를 예언하며 신의 사자를 상징하는 거북의 형상이 한데 어우러져 휘날리는 모양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일으켰다.

정위원장의 눈가에 눈물인지 모를 알 수 없는 물기가 어른거렸다. 주민대책위의 임원들과 주민들도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고분 발굴단원들마저 가슴을 관통하는 전율을 느꼈다. 천육백년을 꿰뚫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화살촉같은 것이었다.

아, 이것이었었다. 용성왕의 혼령이 되살아나 지금 저 깃발을 흔들고 있구나. 천육백년간 잠들었던 무덤을 떨치고 일어나 이제야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제국의 깃발 아래, 상모리 주민들이 혁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서있구나.

하늘은 더없이 파랗고 끝간데가 없었다.

건너편 마을 들판에서 건설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장비들의 굉음이 더욱 요란하게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날 주민대책위의 투쟁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혔다.

- ○월 ○일, 목요일, 날씨 : 맑음

오늘 상모리 제국의 깃발을 달았다. 그 옛날 용성제왕의 꿈을 국기봉에 걸었다. 제왕의 영혼이 펴려였다. 제왕이여, 일어나 이 마을을 돌보소서. 혼불이 되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소서. 제왕이 군림했던 옛날과 관통하여 하나되게 하소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가련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제왕이 꿈꾸었던, 이룩하고자 했던 대제국을 건설하게 하소서. 혁신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국을 영원히 남게 하소서.

현직에 있을때의 체험담을 소재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써 본 것이 운 좋게 입상되었다. 꼭 10년 전에(2000년) 같은 부문으로 입상(장려상)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은상을 받았으니 한단계 상승했다고나 할까. 다음에는 어떤 소재로 도전해볼까.

퇴직후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었는데, '문예대전' 응모대상이 전현직공무원이어서 나도 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은 셈이라 고마울 따름이었다.

쓰고 싶은 것은 더러 있는데 게으른 습성 탓에 마음에 드는 작품이 생산될지 의문이다. 그러나 내 손가락의 움직임이 멈출때까지는 굵적거리 볼 것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 모든 방면에서 그것은 가슴 설레이는 작업일 것이다.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뭔가 새로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체화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의 역사는 조금씩 진전할 것이라 믿는다.

줄자를 뽑아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아내의 유언



한국우진학교
이 수 배



“줄리지 않아?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늘은 좀 쉬어야 하는데,
먼 길 오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 당신 옆에 태우고 얘기하면서 가니까 좋네. 어디 갈 때,
당신은 준영이랑 늘 뒷자리에 앉았잖아.”

“그래서 싫었어? 나도 당신 옆에 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잖아.”

“알아. 싫었다기보다도 옆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챙겨주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미안하네.”

“아니야, 준영이 돌보느라 그랬는데 뭘.”

“준영이 자면 나도 잤잖아. 운전하는 당신 혼자 두고.”

“그래, 그 점은 좀 섭섭했다.”

“줄리면 좀 쉬었다 가.”

“지난 석 달 동안 수도 없이 다녔던 길이야. 이제 반쯤 눈감고도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피곤할 텐데 눈 좀 붙여.”

“엇그제 같은데 우리 준영이가 향림원에 들어간 지도 벌써 세 달이 지났네.”

“당분간 준영이 못 보겠네. 녀석 잘 지내겠지?”

“우리 아들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두지 마.”

“당연하지.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만 해.”

“이 녀석 우리 올까 기다릴지도 몰라. 당신 혼자라도 다녀와.”

“혼자 가는 거 싫어. 수술 받고 회복될 때까지는 당신 옆에 있을 거야. 수술 덕분에 당신 만나서 30년 사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가까이 있겠네.”

“…….”

“수술 잘 받고 빨리 회복해서 준영이 데리고 오자. 당신 건강 좋아지면 준영이 데리고 와서 이제 좀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살고 싶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어. 사실 준영이 때문에 모은 재산이잖아. 그런데 이 재산 가지고 준영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우리 늙어 힘에 부치면 향림원에 재산 기부하고 우리 준영이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지 뭐.”

“…….”

“이제 준영이보다 당신을 더 많이 바라보며 살고 싶어. 결혼생활 30년 동안 당신 삶이란 없었잖아. 신혼 초 아이가 생기지 않아 6년 넘게 마음고생하고, 어렵게 얻은 자식이 건강하지 못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느라 고생하고…….”

“당신한테 건강한 자식 낳아주지 못해 미안해. 준영이가 건강했더

라면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쓸데없는 소린. 당신이 왜 나한테 미안해. 준영이 때문에 고생한 당신한테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준영이 낳고 당신 참 좋아했는데. 우리 준영이 예쁘기는 또 얼마나 예뻐어.”

“둘 무렵이었지?”

“둘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 당신이 아무리 얼러도 웃지 않았고, 뭔가를 골똘히 쳐다보고 있는듯하면서도 뭘 쳐다보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우린 서로에게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 늘 두렵고 불안했어. 아마 준영이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을 거야.”

“가슴 아픈데 지난 얘기는 하지말자.”

“둘이 지나고 하동에 사는 형님이 올라왔어. 저녁을 먹고 차 한 잔 마시자던 형님이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잖아. 아무리 얼러도 눈 맞추기가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며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했어. 그러면서도 ‘남자 아이들은 조금 늦되더라.’ 라고 말씀했지만, 그건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당신이 내게, 내가 당신께 수도 없이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러나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얘기를 형님이 꺼낸 거였어.”

“누님이 다녀간 이후로도 두세 달 넘도록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흘러 보냈지. 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지.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기 싫었고, 나의 운명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더해 갔어. 잠깐 본 누님조차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을

우리만 부정하고 있었으니까.”

“강하게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준영이의 사소한 행동들이 마음에 걸려 늘 불안했어. 당신은 그런 나의 마음을 읽고 친척 조카 이야기를 했어. 15개월이 되도록 말문이 트이지 않아 모두들 바보가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공부만 잘 하더라고. 성장기에는 아이들마다 발달 과정이 조금씩 다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켜보자고 했어. 나는 당신의 그 위로가 부적이 되어 우리를 지켜 줄 거라고 믿고 싶었어.”

“사실은 당신한테 그렇게 위로하면서, 나 역시 그 믿음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을 거야. 이미 우리는 준영이 행동에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먼저 준영이 데리고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 가끔 문을 잡고 의미 없이 밀었다 당겼다 하던 녀석이, 그 날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30분 넘게 그 짓을 했잖아. 당신이 장난감을 한 아름 던져주며, 제발 장난감 가지고 놀라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는데도 녀석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당신이 문을 닫아 버렸을 거야.”

“…….”

“녀석은 울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화를 낸 것이 미안했던지, 당신은 준영이를 꼭 안고 나오며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어.”

“…….”

“당신이 병원에 가자는 말을 꺼내자,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 마치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당신은 특진으로 병원 예약을 했고, 그 병원 비호 기과 과장으로 있던 당신 선배를 통해 빠른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도 하고…….”

“그랬었지.”

“자수를 하는 심정이었어. 오랜 도피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각오로 자수를 결심함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찾고 싶은 심정. 하지만 그 뒤에 따를 고통이 이렇게 클 거라고는 짐작 못했어.”

“여보, 저기 갈대밭 좀 봐. 이 길을 여러 차례 지나다니면서도 저렇게 멋진 갈대밭이 있는 줄 몰랐네.”

“너무 멋있다. 길가에 차 세우고 좀 쉬었다 갈까?”

“그러지 말고 가다가 차 한 잔 마시고 가자. 당신이랑 찻집에 앉아 여유 있게 차를 마셔본 일도 별로 없잖아.”

“왜 그렇게 여유를 찾지 못했지?”

“당신이 늘 준영이한테 묶여 있어야 했으니까.”

“아니. 준영이 때문만도 아니지. 준영이가 학교에서 캠프나 여행을 떠나고 우리 둘이 남았을 때도, 당신은 어디에 가는 것도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도 싫어했어. 마치 준영이 빈자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뭘 한다는 것을 미안해했어. 한번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볼 수 있었는데.”

“그랬어?”

“서울 78km. 꽤 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네.”

“준영이한테 갈 때는 마음이 조급해서 괜히 멀게 느껴지는 거지.”

“…….”

“우리 저 집으로 들어갈까? 황포돛배라. 찻집으로 어울리는 상호는 아니다. 주점이라면 모를까.”

“당신, 술 생각나는 모양인데 한 잔 해. 내가 조심해서 운전할게.”

“아니야, 당신 내일 입원해야 되는데 피곤하면 안 되지.”

“괜찮아, 그 정도 가지고 피곤하긴.”

“.....”

“저쪽에 앉아.”

“강바람이 차가울 텐데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야, 공기가 상큼해서 좋아.”

“.....”

“밤이 되니까 바람이 차갑다. 겨울 잠바를 갖다 주고 올걸 그랬어.
가평은 산골이라 아침저녁으로 추울 텐데.”

“아직은 괜찮아. 낮에는 더웠잖아. 당신 퇴원하고 가도 늦지 않으니
까 걱정하지마. 그리고 봄 잠바도 있잖아.”

“참, 준형이 옷 사 입힐 때, 몸에 딱 맞는 옷 사야해. 허리가 헐렁하
면 계속 만지작거려. 허리 맞추기 힘들면 차라리 고무줄 바지 사주
는 것도 괜찮아.”

“.....”

“웬웃도 가능하면 단추 있는 티셔츠는 사지마. 단추는 하나도 안 남
기고 꼭 끼워야 적성이 풀리는 녀석이라 목이 답답할 거야.”

“그만해. 당신 뭐 마실래?”

“커피.”

“이박사가 자극성 있는 음식 먹지 말라고 했잖아.”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당신이랑 마주 앉아서 커피 마시고 싶어. 신
혼 초에 겨울 설악산에서 마셨던 커피가 생각나. 대청봉에서 마신
커피는 맛도 맛있지만 그 향이 특별했는데.....”

“뭐 향이 특별했겠어. 겨울 산에 취해서 그런 거지.”

“당신 참 산 좋아했는데, 준영이 때문에 좋아하는 산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해서 미안해.”

“준영이 크고 셋이서 자주 갔잖아.”

“그거야 산행이라기보다는 산책 수준이었지. 당신 유독 지리산 좋아했는데…….”

“…….”

“참, 당신 알지? 우리 준영이 유자차 좋아하는 거.”

“산에 갈 때, 늘 당신이 준비했잖아.”

“유자향이 너무 진한 거 싫어하니까 액즙을 적당히 넣고 건더기는 빼주어야 해.”

“나도 유자차 건더기 싫은데.”

“그래, 어쩌면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아빠를 닮니.”

“…….”

“그리고 선식은 절대로 먹이면 안 돼. 그 녀석 땅콩 알레르기 있는 거 알지?”

“참 좋다. 이렇게 차 한 잔 놓고 당신과 마주 앉아있으니까. 뭐가 그리 바쁘다고 이런 소박한 여유조차 갖지 못했는지. 한평생 사는 거 별거 아닌 것을. 크게 숨 한 번 고르고 나니 벌써 이 자리에 오고 말았네.”

“지금에 와서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나날이었잖아. 처음 병원에 가면서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는데, 막상 ‘자폐’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자폐’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선생님의 이야기가 더 절망적이었으니까. 자폐는 질환이 아니니까 괜히

완치해보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며 기운 빠지 말라고 했지. 전문기관의 조기교육을 통해 상당 부분까지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병원에 예약을 하고 다니면서도 늘 죽음을 생각했어.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었어. 당신 기억나? 그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보냈는지. 정말 그건 사는 게 아니었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나는 당신이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났어.”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 오로지 준영이와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근 일주일 동안 내가 한 일이라고는 우리 준영이 굶겨 죽일 수는 없어 끼니때마다 챙겨 먹인 일밖에는. 그런데 어느 날 이유식을 먹이려는데 이유식이 떨어지고 없었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죽지 않으려거든 정신 차리자고 마음먹었어. 당신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 눈에 당신이 들어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당신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 늘 말쑥했던 당신은 며칠째 수염을 깎지 않았는지 수염이 덩수룩하게 자라있었고, 또 옷차림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당신도 참 힘들었을 텐데. 지금도 그때 당신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

“준영이를 안고 온갖 병원을 헤매고 다녔어. 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요법은 물론이고 좋다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매달린 것이 종교였어. 몇 년씩 믿어오던 내 신앙을 버리고 이상한 종교 모임에도 나가고, 어린 준영이를 안고 이상한 종교의 철야기도

회까지 갔었잖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도 되지만, 그 때는 내 목숨을 걸만큼 절박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은 지쳐갔고,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 한 가지씩 포기하고 체념할 때쯤 당신이 그랬잖아. 이제 제발 그만하자고. 사실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당신은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

“여보, 일어나자. 벌써 날이 저물려고 해.”

“날이 저물면 어때. 일찍 집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특별히 할 일은 없지만, 밤늦게 운전하면 당신 피곤할까봐 그러지. 내일 나 데리고 병원 가서 이것저것 수속하려면 힘들 텐데.”

“당신 피곤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준영이 데리고 다닐 때는 밤길 다녔던 적이 별로 없어서. 혹시 준영이 데리고 밤늦게 다니지 마. 이 녀석 가끔 유리창에 머리 박으며 자해도 하잖아.”

“정말 그 녀석 왜 그랬을까?”

“차타고 어디 가는 걸 좋아하는 녀석인데 유독 밤에 그러는 걸 보면, 차창으로 시커먼 나무들이 스쳐지나가는 것이 무서워 그런 게 아닐까? 아니면, 차창에 보이는 자기 모습에 놀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창밖 풍경을 보는 거 좋아하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그랬을 거야.”

“글쎄, 그 속을 누가 알겠어.”

“그리고 당신 머리 너무 짧게 자르지마. 준영이 녀석 내 머리카락 만지면서 자는 거 알지? 엄마가 제 옆에 있다는 걸 확인하며 안심하 나 봐. 나 없으면 당신 머리라도 만지게 해줘야지. 그래도 당신한테 긴 머리가 잘 어울리니까 다행이야.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해.”

“.....”

“쌀쌀한데 안으로 들어갈까?”

“아니, 여기가 좋아. 저녁이 되니까 저기 물안개 내리는 것 좀 봐. 우리 차나 한 잔 더 시킬까?”

“그렇게 하던지”

“곱게 쌍꺼풀 진 눈, 오뚝한 콧날, 잡티 하나 없는 피부, 조각을 한 다고 하더라도 것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거야. 지금도 잘 생겼지만, 어렸을 때는 참 예뻐했는데. 언어치료센터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이가 너무 예쁘다며 아는 체를 해왔어. 그러면 나는 얼른 아이를 데리고 내려 다음 열차로 갈아탔어. 한 두 번 말을 걸어보고 금세 아이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민망한 눈빛으로 쳐다보기 일쑤였지. 그나마 그 정도는 견딜 만 했어. 눈치 없는 아줌마나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아이가 이상하다며 참견을 했어. 그럴 때는 정말 참담했어.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 준영이를 키우다보면 이보다 더 큰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어야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다짐을 해보았지만 쉽지 않았어. 준영이가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리번거리게

되고 ……”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준영이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이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점이었을 거야. 사실 난 지금도 준영이를 데리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이 녀석 기차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어디 갈 때 지하철 보다는 자가용을 더 많이 이용했잖아.”

“그래?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쯤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줄 알았어. 어디를 가든지 늘 준영이 데리고 다녔잖아.”

“나도 당신처럼 무지 노력했는데, 준영이 녀석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당황스럽고 창피했어.”

“준영이 중얼거릴 때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봐.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중얼거리는데, 그 녀석 하는 말에 적당히 말대꾸 해주면 금세 그쳐. 준영이 하는 말하고 엉뚱한 말 하지 말고, 녀석이 하는 말 잘 들어보고, ‘어, 그랬어? ‘그래서 괜찮았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되물으면 대답이 궁색한지 중얼거리는 걸 멈춰.”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이 녀석 중얼거릴 때마다 내가 옆에서 말대꾸 하는 거 자주 봤잖아.”

“당신이 참 섬세하다고 생각했지. 그것 때문에 중얼거리는 걸 멈추는지는 몰랐지.”

“준영이 녀석 중얼거리면 당신도 말대꾸 해주었잖아.”

“당신 하는 거 보고 그냥 따라 한 거야. 중얼거리는 녀석을 혼자 두고 옆에 멍청이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흉내 낸 거지.”

“당신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사람들 많은데서 중얼대면 정말 창피했어. 그런데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녀석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잘못으로 부족한 자식 낳아 놓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도 못 견딜 일이었고. 내 자식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면 어느 누가 받아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처음 한동안은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왔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십자가를 져야하는 걸까?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들로 머리가 깨지는 것만 같았어. 그런데 참 이상하지? 준영이 없을 때는 주위에서 장애인을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준영이를 데리고 다니면서부터 어찌면 그렇게 장애인들이 눈에 많이 띄는지. 남의 아픔을 보면서 내 아픔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 세상에서 나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누구나 하나쯤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더 간사스러운 것은, 그래도 우리 준영이는 외모가 이상하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

“간사함 때문은 아니지. 준영이 낳고 내가 신앙적으로 가장 갈등했던 점이 뭔지 알아? 왜 요한복음에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함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셨다는 구절이 있지? 나는 그 성경 구절에 얼마나 강한 거부감을 가졌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내가 준영이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당신답다. 그런데 그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영광이란 게 뭐야?”

“정말 단순한 의미였어. 어느 작가가 신문 칼럼에 소개한 적이 있었

지.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통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위한 메시지였다면 인간은 정말로 감사하고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을 거야. 하느님은 그 안에 또 하나의 놀라운 장치를 해두었는데, 그것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것이었어. 그것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당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지. 하느님이 드러내 보이시고자 했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인간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왜 나왔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지.”

“그러게. 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될 것을, 왜 준영이를 내게 보낸 것일까? 준영이와 내가 만난 인연의 의미는 뭘까? 나는 또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매달렸지.”

“당신은 뭐든지 이성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잖아.”

“당신이 나하고 준영이하고 어쩌면 그렇게 궁합이 잘 맞냐고 했잖아. 궁합이 맞는다는 말이 정답일 거야. 준영이한테는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걸 느끼면서 준영이와 나의 인연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 갔던 거 같아.”

“당신은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지 않았어? 준영이를 안고 온 병원을 헤매고 다닐 때도, 준영이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죽을힘을 다해 버틸 때도, 당신은 마치 남의 일을 바라보듯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잖아.”

“사실 나는 당신의 방황보다 더 오랫동안 준영이를 자식으로 받아

들이지 못해 고민했어.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들어 줄 수 있었을까? 내가 만류한다고 해서 병원을 순례하던 일을 멈추었을까? 아니었을 거야. 그동안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나는 믿었어. 당신의 방황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나보다 빨리 준영이 옆으로 돌아올 거란 것도.”

“어쩌면 당신은 ……”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당신은 지혜롭게 잘 극복해주었어.”

“아마 준영이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였을 거야.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장애문제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는 게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 그런 만남 때문에 극복이 가능했을 거야.”

“그랬지. 그 동안 당신과 맺어왔던 그 많은 친구들과의 인연은 다 끊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 앉힌 친구들이니까.”

“준영이 취학통지서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어.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할 텐데, 취학통지서를 들고 특수학교에 입학전형을 하러 가는데 내 자신이 어쩌나 비참하던지. 입학이 결정되고 입학식을 하러 갔는데, 다른 아이들이 너무 심한거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준영이 보다 심한 아이들을 보니까 꼴 난 자존심에 괜히 우쭐한 마음까지 생겼어. 그런데 입학하고 매일 아침 준영이와 함께 등교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자식 때문에 한을 가지고 사는 엄마들. 나는 그 엄마들도 나처럼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고 있을 줄로만 알았는데, 다들 너무 표정이 밝았어.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마

음을 편하게 하는지. 처음으로 준영이 문제를 숨김없이 이야기 할 수 있었으니까.”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늘 힘들어 하던 당신이 다시 사람들과 만나고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마음이 놓였어.”

“준영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주는 것도 기뻐지만, 매일 아침 엄마들과 만나 차도 마시고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즐거웠어. 사실 준영이 태어나고 친구들 만나는 것이 두려웠거든. 고등학교 동기들이나 대학 친구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잖아. 아니 만날 수가 없었어.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닥친 이 불행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 여자들 모이면 남편 아니면 자식들 이야기가 전분데 나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야기도 못하는 것 같고, 무심결에 자식들 이야기를 꺼냈다가도 내 눈치 보며 말끝을 흐릴 때는 다른 핑계를 대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야 했어.”

“여보, 이젠 일어나야겠어. 바람이 너무 차.”

“저기 차 막히는 것 좀 봐. 갑자기 차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쉬지 말고 그냥 갈걸 그랬나? 단풍철이라 이길 막힌다는 걸 깜빡했어.”

“당신 배고프지 않아? 어차피 길도 막히는데 어디 가서 저녁이나 먹고 천천히 가지 뭐. 그러다 보면 정체가 풀리겠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풀리지 않을 거야. 일단 타 봐. 가다가 적당한 곳에 가서 저녁이나 먹고 가자. 참, 당신 갈비찜 먹고 싶다고 했잖아. 미사리 카페촌 뒤에 갈비찜 맛있게 하는 집 있어. 거기 가서 저녁 먹을까?”

“우리 준영이도 갈비 좋아하는데 ……”

“다음에 데리고 오면 되지 뭐.”

“준영이 고기 좋아한다고 너무 자주 먹이면 안 돼. 야채는 안 먹으려고 하고 고기만 너무 좋아해. 나는 녀석이 야채를 잘 먹지 않아서 볶음밥이나 비빔밥을 자주 해줬어.”

“야채 싫어하는 건 당신 닮았네. 당신도 감자랑 고추는 안 먹잖아.”

“아니야, 식성은 당신 닮았어. 밀가루 음식 싫어하면서도 잔치국수 좋아하지. 더 기막힌 건 당신 닮아 떡국 정말 싫어하잖아.”

“그리고 보니 별걸 다 닮았네.”

“고기 말고는 카레 좋아하고 자장밥도 좋아해. 이 녀석 김밥도 좋아하는데 단무지 빼주어야 해.”

“…….”

“준영이 갈비 먹을 때 꼭 된장 있어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양념갈비보다는 생갈비 좋아해. 너무 많이 굽지 말고 적당하게 구워서 된장에 찍어주면 2인분은 먹을 걸. 당신 입맛이랑 맞지 않더라도 준영이한테 맞춰줘. 야채는 먹지 않으니까 채거서 먹여야 하고, 콜라도 찾는데 컵으로 한 잔 정해 놓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해. 아마 더 먹겠다고 고집 부리지는 않을 거야. 이 녀석 당신 닮은 거 또 있네. 회 먹을 때도 꼭 양념된장에 찍어서 먹잖아. 회 먹을 때도 양념된장 채거 줘야 해.”

“그만 좀 해.”

“여보, 그 때 준영이 동생 낳았더라면, 당신 늙어서 의지할 자식 하나 없이 쓸쓸하지 않을 텐데. 그치?”

“오늘 당신 왜 이래?”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렇게 고생해서 준영이 낳았는데, 준영이 두 돌 지날 무렵 동생이 들어섰잖아. 당신한테 아이를 가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아마 며칠이 지났을 거야. 좀처럼 취하도록 마시는 법이 없던 당신이 만취가 되어 들어와서 아이를 지우자고 했어. 준영이 하나만 잘 키우자고. 동생 태어나면 혹시라도 준영이한테 소홀해지지 않을까 두렵다고. 나는 당신이 마음속으로는 좋으면서 준영이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너무 단호했어.”

“아마 지금 상황이라도 그랬을 거야. 그때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해본 적 없어.”

“사실은 나도 두려웠어. 당신이 두려워하던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였는데, 결혼 7년 만에 얻은 자식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들쭉날쭉을 낳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어.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당신 뜻에 따르기로 했어. 어찌면 당신 뜻에 따르기로 했던 것은 핑계였고, 내가 느끼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야.”

“나도 당신처럼 혹시 또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나면 어찌나 하는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자고 했던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준영이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그 어떤 장치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알아. 준영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준영이를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어. 그런 당신이 옆에 있었으니까 준영이를 키웠지. 당신, 고마워.”

“고맙긴. 내가 당신한테 고맙지. 당신이 잘 버텸주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인데.”

“제 자식 힘들다고 버리는 부모도 얼마나 많은데. 준영이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시설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많았어. 장애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준영이는 행복한 아이라는 걸 많이 생각했어.”

“버리고 싶어 버렸겠어. 먹고살기 힘들니까 그렇지. 더 정확히 말하면 제도적인 허점이 아이를 버리게끔 만들잖아. 가난 때문에 돌볼 형편이 못되거나, 가족 중에 자녀나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버려야지 어떡하겠어. 나머지 가족이라도 살아야 하잖아. 또, 아이가 보호시설로 들어가면 양육은 물론 의료보호 혜택까지 받지만, 가정에서 키우면 그 모든 짐을 오로지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니 어려운 형편에 어찌겠어.”

“그래. 아무리 장애아라고 하지만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을 버려야 했을까.”

“그래서 남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남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아. 그것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겠어? 무조건 비난만 할 수 없는 문제지.”

“당신이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였어. 부서 직원들 초청해서 집들이를 한다고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했을 때, 나는 먼저 당신 생각을 했어. 직원들이 와서 우리 준영이 보고 가면 당신 입장이 난처해질 게 뻔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겠어. 그래서 준영이를 형님한테 잠시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신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랬잖아. ‘오늘은 아빠 사무실 사람들이 우리집에 오니까 우리 준영이 예쁜 옷 입고 기다려야 돼.’ 라고. 아마 당신은

내가 준영이를 형님한테 부탁할 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미리 못 박아 둔 것 같아. 음식을 장만해야 하는데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 정말 준영이를 집에 두어도 괜찮은지. 오전 내내 안절부절하다가 결국은 당신한테 전화해서 준영이를 형님한테 잠시 맡기겠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은 한 동안 말이 없더니 그냥 두라고 했어. 당신이 괜찮으니까 사람들에게 편하게 보여주자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 오후는 왜 그렇게 불안하던지. 음식을 만들면서도 사람들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어.”

“사실 나도 고민 많이 했었어. 당신이 우려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게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손님들 오는 시간에 당신 말처럼 형수님한테 맡길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준영이를 놓고 고민하는 내 모습이 한심하더라고. 그래서 비록 자랑스러운 자식은 아니지만,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고 생각했지.”

“현관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준영이를 인사시키며, 우리 만상제라고 소개했어. 당황해하던 사람들 표정이 생각나. 준영이 한 번 쳐다보고 당신 한 번 쳐다보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분위기가 참 어색했어. 식사하기 전에 준영이를 정식으로 다시 인사시키고는, 당신한테 있어 준영이의 존재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분위기가 숙연해지기까지 했어. 그런데 식사하면서 준영이를 키우면서 꺾어야 했던 일화들을 당신이 너무도 편하게 이야기하자, 다들 준영이를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워졌어. 돌아갈 때는 준영이한테 악수를 청하기도 했잖아.”

“그랬지. 그동안 내가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홀가분했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준영이 존재를 숨기느냐 드러내느냐가 늘

고민이었잖아. 그런데 한 번 마음의 짐을 벗어 던지고 나니 그 후로는 감출 필요가 없어져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준영이를 모임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것도 아마 그 짐들이 이후부터였을 거야.”

“어쩌면 이렇게 막히지? 좀처럼 정체가 풀릴 기미가 안보여.”

“조급해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느긋하게 가자. 이렇게 밤길 가면서 당신이랑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고 좋은데 뭘 그래.”

“저기 보이는 곳이 팔당대교 아니야?”

“맞아. 거의 다 왔네.”

“멀리서 보니까 참 아름답다.”

“당신이랑 내가 걸어 온 길 같지? 순간순간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

“우리 준영이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지. 뭐.”

“준영이가 전부였어. 우리 삶을 바꾸어 놓았으니까.”

“여보, 내가 요즘 취미활동으로 시작한 십자수를 하면서 우리 가족이 함께 걸어온 지난 길들을 많이 되돌아보게 돼. 한 올 한 올 십자수를 놓아 만들어진 한 송이 꽃의 뒷면을 보면서, 앞면의 단아한 자세를 뽐내기 위해 뒷면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지금에서야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지만, 준영이 키우면서 어디 한 치 앞을 볼 수 있었어? 매일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또 얼마나 불안했는데. 뇌막염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더니, 여덟 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눈 위를 꿰매야 했고, 학교에 보내 놓았는데 슬며시 학교 밖으로 나가 지하철 타고 돌아다녀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잖아. 기억나? 어느 해 겨울에 학교에서 나갔는데

이틀 만에 찾은 거.”

“잊을 수가 없지. 엄마 아빠 숙 다 타게 만들고 제 발로 찾아 들어왔잖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잃어버렸잖아. 지하철 무임승차 하다가 직원에게 붙잡혀 팔찌의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이 와서 찾아오기도 하고,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녀석을 경찰이 연락을 해주기도 하고, 정말 전력이 화려하잖아. 그런데 그날은 12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었지. 녀석이 지하철 타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하철 끝길 때까지 찾아다녔잖아. 결국은 찾지 못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찾아 다녔지.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아이만 보면 우린 준영이가 아닌가 싶어 달려가 보곤 했어. 둘째 날도 밤이 깊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어.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어도 그 날이나 그 다음날에는 찾았는데, 하루가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지. 어디 무인가 장애인 시설로 넘겨진 것은 아닌지. 밤길 헤매고 다니다가 혹시 사고라도 당하지는 않았는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이틀 동안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마음 졸이고 있는데, 새벽에 현관 앞에서 인기척이 난다며 당신이 나갔을 때,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잖아. 얼굴하고 웃은 거지나 다름이 없었고,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발에는 물집이 잡혔었어. 이틀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했는지 들어오자마자 밥부터 찾았어. 밥을 먹이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었더니 끼니도 잊은 채 꼬박 하루 동안 잠을 잤잖아.”

“그렇게 한 번 고생을 하고 난 후로는 가끔씩 나가서 제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혼자서 집을 찾아 들어왔지. 호되게 대가를 치르고 공부

를 한 셈이지 뭐.”

“또 그때부터 지하철역 이름을 순서대로 쓰는 버릇이 생겼잖아. 그것도 꼭 고딕체로. 2호선은 순서가 틀리거나 역 이름이 빠지는 것도 없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썼어. 정말 알 수 없는 녀석이야.”

“녀석이 기차를 타는 것을 무척 좋아했잖아. 그래서 당신이랑 기차 여행도 많이 다녔어. 마치 연인처럼. 어떤 때는 소외감도 느꼈다니까.”

“그랬어? 준영이 때문에 당신한테 소홀한 게 많았지?”

“아니. 그냥 해본 소리야.”

“그래도 학교 다니고 있는 동안은 참 행복했어. 준영이도 학교생활을 무척 즐거워했고, 나 역시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시계를 12년 전으로 돌려놓은 듯 원점으로 돌아갔어. 나도 준영이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어. 아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가방 메고 학교 가던 녀석을 하루 종일 집에 붙잡아 놓으니 갑갑해 미치려고 했어. 그래서 다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넣었는데, 거기 있던 엄마들을 통해 향림원을 알게 되었어. 깨끗하고 좋은 시설이 있다고 가보자고 하기에 갔었는데, 인연이 닿으려고 그랬는지 첫 느낌이 너무 좋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잖아.”

“나도 처음 보는 순간부터 느낌이 좋았어. 우리 준영이를 위해 나도 언젠가 그런 시설 하나쯤 갖고 싶었는데.”

“당신, 참 대단하다. 준영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해?”

“녀석이랑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지면 우리 준영이 데려와서 20년쯤 더 행복하게 살다가,

나나 당신 중 한 사람 먼저 가면 향림원에 우리 준영이 아주 맡기자.
그리고 그 곳에 우리 재산 기부하면 되잖아.”

“.....”

“준영이 향림원에 가던 날 기억나? 당신 집에서 출발 할 때부터 울더니, 떼어놓고 집에 돌아 올 때까지 울었어. 자식 하나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버리고 왔다며 울더니, 준영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고 와야겠다며 밤 열 시가 넘었는데 다시 가평까지 갔잖아.”

“.....”

“어스름한 불빛 속에 준영이 자는 모습을 보고 돌아서면서 당신 또 얼마나 많이 울었어. 주말에는 집으로 데려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가서 같이 자고 올 수도 있었는데, 당신은 그 일주일을 참지 못하고 주중에 한두 번 꼭 준영이 보러 갔어. 당신은 참 지극정성이었어.”

“당신도 참 무던했어. 늦은 밤에도 준영이 보고 싶다고 하면 한 번도 잔소리 안하고 따라나서 주었잖아. 한번쯤 귀찮다고 짜증낼 법도 한데.”

“향림원에 잘 적응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던 두 달 동안, 준영이 보러 수십 번은 갔을 거야.”

“적응하지 못한 건 우리였어. 준영이는 너무 잘 생활해 주었는데. 당신이 준영이 데려오자고 해서 결국 두 달 만에 데리고 왔잖아.

이 녀석 집에 데리고 왔는데, 향림원에서 자기 물건 넣어왔던 배낭을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 가끔 배낭 메고 내 손을 잡아당기며 나가자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어. 그래서 다시 향림원으로 보냈잖아.”

“.....”

“여보, 팔당대교만 건너면 미사리지?”

“다 왔네. 당신 힘들지? 저녁 먹고 빨리 집에 가서 쉬자. 내일 입원하려면 아침 일찍 이것저것 준비해야할 것도 많을 텐데.”

“짐 다 꾸러놓고 왔어. 여유 있게 오전 중에 입원수속 하면 돼. 오늘은 당신이랑 저녁 맛있게 먹고, 분위기 있는 라이브 카페에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싶어.”

“차 마셨잖아. 살다보니 당신한테 이런 요구도 받아보네. 준영이가 건강했더라면 마땅히 누리고 살았어야 하는 것들 인데.”

“아니, 준형이가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얼마나 많았는데.”

“당신이야말로 준영이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나는 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

“여보, 당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 살면서 표현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천천히 다 얘기해. 시간 많잖아.”

“준영이 키우면서 육아일기처럼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글을 남겨 두었어. 당신도 알고 있는 일이지만, 준영이 습관이나 버릇,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 잘 적혀 있어. 아마 준형이 키우면서 많이 도움 될 거야. 중간 중간에 당신한테 쓴 편지도 있어. 당신께 고마운 마음을 적었는데, 힘들 때는 투정을 부리듯 당신을 비난하는 내용도 있을 거야. 섭섭해 하지 마.”

“당신 죽으러 가? 오늘 나한테 왜 이러는데. 뭐, 유언이라도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너무한다.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고 싶어? 당신 죽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 아직 초기라 종양 제거하고 치료 잘 받으면 아무 문제없다고 했어. 이박사 말 생각 안나?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한다고. 빨리 건강 되찾아서 당신도 우리 준영이도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당신 만난 건 큰 행운이었어. 당신이랑 준영이 만나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 실감해. 한 번도 당신이랑 준영이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저 두 사람이 있어 행복했어.”

“알아. 그러니까 그만해. 그냥 편안하게 수술 받자.”

“여보, 사랑해.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끝까지 들어 줘. 나 건강하게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

“준영이를 위한 일이라면 나는 늘 당신 생각에 따랐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런데 어떤 일도 당신이 내 옆에 있을 때 얘기야.”

“…….”

“준영이는 나한테 부탁했고, 나는 누구한테 부탁했어? 음식이야 파출부한테 부탁하면 되겠지만, 계절이 바뀌면 옷은 누가 챙기고, 각종 공과금은 누가 챙겨? 당신이 깨워주지 않으면 아직도 시간 맞춰 일어나는 것도 못하고, 당신 잔소리 없으면 저녁 때 씻는 것도 하지 않을 텐데. 왜? 도망치고 싶어? 당신 역할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신, 참 바보다. 예순이 가까운데 뭐하고 산거야?”

“당신이 옆에 있었으니까.”

“…….”

“당신, 준영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했잖아. 준영이는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나는?”

“…….”

“나를 당신한테 부탁할게.”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시설에 맡겨놓고, 어머니의 암 수술 전에 아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장애 자녀의 양육문제를 짚어 보았습니다. 양육의 주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아이의 행동특성, 식습관, 문제행동 시의 대처요령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부부의 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폐아의 행동 특성에 대해서도 비장애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부부의 대화 속에서 아이의 성장과정에 겪어야 했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 문제를 한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장애 문제를 사회적인 차원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소망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저에게 끊임없는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또 저에게 글쓰기의 소재를 제공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글의 모티브가 되어준 한 아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일은 참 행복합니다. 그 기다림의 설렘이 좋아 글을 응모했는데, 수상이라는 기쁜 소식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맑음 그리고 한때 비



동두천 유양초
신 기 남

며칠 전부터 찌는 무더위가 연일 기세를 떨친다. 전철역 입구에서 시간차 공격을 하듯 사람들이 간격을 두고 쏟아져 나온다.

아침부터 끄물끄물 대던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하다. 아무래도 비가 곧 쏟아질듯하다. 김군이 비설거지에 분주하다. 실내에 있는 관음죽과 팔손이 화분을 문밖으로 내놓는다. 한낮인데도 어두워지는 거리에 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부지런히 달려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를 달구던 후끈한 기운을 짙 눌러버릴 듯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후드득 떨어진다. 팔손이 잎사귀에 둥글게 빗소리가 찍힌다. 굵게 떨어지던 비꽃은 빗줄기가 되어 바닥에 곤두박질쳤다.

비는 시나브로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일손을 멈추고 커다란 통유리 밖을 내다본다. 전철역 입구를 나오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비에 처마 안에 멈춰 섰다. 몇몇은 뿌듯한 얼굴로 우산을 쓰고는 빗속을 가르며 유유히 사라진다. 비를 바라보며 서있는 사람들의 입이 궁싯거렸다.

“웬 비람”

“어휴, 쉽게 그칠 비가 아니군.”

어느새 투명비옷을 입은 재빠른 장사치가 우산꾸러미를 들고 역 입구에 나타났다. 비를 굶던 사람들이 하나 둘 우산을 샀다. 단색의 자동우산과 수동우산들이다. 갈 길이 급한 사람에게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당장 필요한 물건이다. 순식간 전철역 입구에 검정빛, 짙은 쪽빛, 줄무늬의 우산 꽃이 피어났다가 뿔뿔이 흩어져갔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친다. 동그란 물방울은 유리에 닿자마자 주르르 미끄러진다. 뒤이어 달려오는 자잘한 동그라미의 소묘. 그것은 희미한 아픔을 툭툭 건드리며 눈물짓고 있었다.

오래전 걸려온 정주의 전화는 가래뿔처럼 늘 목에 걸려있었다.

“언니, 나 이 땅에서 사는 것 그만 둘까봐?”

뜬금없이 뻗은 첫마디였다. 전화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예감했다. 아니 전화로 얘기하기엔 사연이 녹녹치 않을 것도 알았다.

“21세기에 나 혼자 조선시대 사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 해봐.”

“흐흥 그러게.”

“.....”

“나 이민 가.”

“뭐, 언제?”

“이민가면 한국 쪽으로 돌아놓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언니한테는 연락할게. 아참, 그리고 언니 말이 맞았어.”

“뭐가”

“언니가 그랬잖아. ‘효자가 네 인생을 더 괴롭게 할지도 몰라’ 그 말이 정말 딱 들어맞았어.”

전선이 오래도록 징징 울먹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정주다. 이민을 결정하고 난 뒤에 쏟아 놓은 이야기를 듣고 흥분한 것은 정주보다 나였다.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끝까지 뻗쳐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그렇게 화라도 내주는 것이 예의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지나치게 흥분하자 물끄러미 바라보던 정주가 한마디 툭 뱉었다.

“누가 보면 친언니인줄 알겠네.”

“애 봐라, 너는 지금 웃음이 나오니.”

“언니가 왜 더 흥분하고 난리야.”

“그럼 그 얘기 듣고 화가 안 나면 그게 사람이니.”

정주는 4살이 많은 나를 언니라고 부르며 무척 따랐다. 매사에 일처리가 야무지고 자존심도 강했기에 결혼을 하고도 잘 살 거라고 철썩같이 믿던 내게 정주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였다.

3년 전 동생인 용주의 결혼식장에서 만난 정주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핏색이 없는 얼굴에 큰 눈은 더욱 팽하고 통통한 볼 살이 쏘옥 빠져있

었다. 그저 단순히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라고 웃기만 하더니 아니었구나. 갑자기 혼자서 견디기 힘들었을 정주의 인내심이 미워졌다. 정주에게 연락을 받은 것은 98년 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수수꽃다리, 앵두꽃이 만발한 날 걸려왔던 전화 통화에 이어 연달아 날아든 청첩장이었다. 정주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용산의 한 예식장에 화사한 신부가 되어 서 있었다.

정주가 동수를 만난 것은 병원 다니는 것을 지겨워하던 무렵이었다. 결혼 전 정주에게 동수를 그만 만날 것을 권유한 적이 있다. 아니다. 정주와 동수의 만남을 적극 말렸던 것은 나였다. 어찌 보면 마마보이에 가깝던 사내와 함께하기에 정주가 감수해야할 몫이 너무 컸다.

젊은 앞서 간 선배의 말이 어떤 철학보다도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다. 정 헤어질 수 없다면 소개팅이라도 실킷해보라고 부추겼다. 마당발이었던 직장 선배가 다리를 놓아주었다. 사당동 전철역에서 멀지 않은 지하 경양식집이었다. 토요일 오후라 음식점에는 제법 손님들이 많았다.

칸막이 뒷자리에 젊은 남자와 파마머리를 한 여자가 앉아있었다. 남자는 언뜻 보기에 또렷한 이목구비에 영화배우 뺨치는 외모를 하고 있었다. ○대 법학과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남자는 큰 키에 모텔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한 눈에 호감이 가는 외모였다.

짧은 머리칼을 곱게 파마 한 옆자리의 여자가 자신을 누나라고 소개했다. 간단히 소개만 하고 나가려던 나는 뚫어질 듯 바라보는 여자의 표정에 엉거주춤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쯤으로 보이는 여자는 경상도 사람답게 거

추장스러운 너스레는 건어치우고 단도직입 본론부터 물어왔다.

“결혼해도 직장은 다닐 수 있나요?”

“예에”

“대학 다니는 시동생을 데리고 살 수 있나요?”

차 한 모금을 채 마시기도 전에 쏟아내는 질문에 우리 둘은 동시에 어안이 벙벙했다.

아마도 남자는 누나 집에 얹혀있는 듯했다. 여자의 표정은 남자보다도 초조해 보였다. 남편의 눈치보다도 두 동생의 뒷바라지에 피곤하고 지친모습이 얼굴과 말투에 역력하게 묻어나고 있었다.

우리를 바라보던 여자가 훌쩍 차를 마셨다. 잠시 찻잔을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동생은 우리 집 장남 이에요. 시골에 어머니 혼자 농사를 짓고 계세요. 나중에는 어머니도 모셔야 되는데 ……”

갈수록 산이다. 일방적으로 말을 하던 여자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정주의 얼굴을 살폈다. 직설적인 질문에 큰 눈이 조금 더 커져 있었을 뿐 정주의 얼굴빛은 담담해보이기까지 하였다.

거북한 이야기를 모두 쏟아놓았으니 서로의 의중은 파악한 셈이었다. 남은 것은 당사자들의 몫이었다.

“예에 …… . 그럼 본인들의 생각이 중요하니 우리는 먼저 일어나죠?”

여자가 멧쩍은 듯이 웃으며 따라 일어섰다.

한마디로 살림 잘하고 돈 잘 벌어 가게에 도움이 됨은 물론 시댁 뒷바라지 뼈 빠지게 해 줄 열녀를 원하고 있었다. 어차피 세상에서 내 몫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고 감나무에 잘 익은 감을 골라 따

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정주는 첫 선을 보고 씩씩해 했다.

“언니, 선이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래도 ……”.

“그 아줌마 경상도 사람답게 솔직하고 성질도 급하더라.”

“꼭 몸종 구하러 온 사람 같아.”

“그 총각 누나랑 같이 선보려 다니면 장가가기 힘들겠더라. 정이 들면 그 사람이 가진 배경도 이해하게 될 텐데 대뜸 고생할 이야기부터 하니 겁이 나서 누가 시집가겠니. 참나, 그래도 다른 사람 더 만나봐. 그래야 후회도 덜하지.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정주에게 몇 번 더 선보기를 강요했다. 아니 내 극성 때문에 두 번이나 더 끌려 다녀야했다.

선을 본다는 것은 감정보다 실리의 잣대를 먼저 들이대야 하기에 가끔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끼리 부딪치는 묘한 감정에 휩싸인다는 것을 선배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느끼는 거부감까지.

하기야 세상에 겪게 되는 일이 선이라는 것보다 더 고역스럽고 어려운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스스로의 미래를 타협하는 듯해서 마뜩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선을 보고 결혼 한 나 스스로도 느끼는 것이니 만나는 사람이 있는 정주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정 때문인지 사랑 때문인지 동수의 끈질긴 설득과 꼬달림에서 마음을 건어내지는 못했다.

가로우 앞이 다 떨어져 가지가 앙상하게 드러난 늦은 가을. 어영부영 하던 관계는 의외로 쉽게 끝이 났다.

백수를 전전하던 동수가 예고도 없이 정주의 집으로 찾아왔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앞세워 청혼을 하였고 2년을 끝낸 연애의 종지부를 찍었다.

구구절절 둘 사이의 일이야 알 수 없지만 그 날 정주의 얼굴은 밝게 핀 한 떨기 목련이었다. 멀리 양측 부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식당 안은 미묘한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큰 눈을 껌벅대는 정주와 대조되는 강마르고 싸늘한 표정의 시어머니. 마마보이에 가까운 사내. 살 한 점 없이 뻣뻣마른 손윗동서의 새침한 표정이 어우러진 예식장 안에는 불협화음이 연주되고 있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정주어머니가 넋지시 물어왔다. 큰 눈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동연아, 꼭 첫인상이 그 사람과 일치하지는 않겠지?”

“그럼요, 사람은 꺾어봐야 알지요.”

맛장구를 치면서도 시어머니와 손윗동서의 싸늘한 인상이 마음에 걸렸다. 정주어머니와 눈빛이 마주쳤다. 근심이 교차했다. 딸을 시집보내는 부모의 마음이야 사소한 것에도 걱정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 내 마음이 계름칙한데 오죽하랴. 그렇게 정주는 가정에 묻혔다.

정주를 처음 만난 것은 한여름이었다. 종강을 하고 며칠 집에서 머물 생각으로 가방을 챙겨 버스를 탔다.

우리 마을 뒤에는 넓은 대숲이 있었다. 대숲 때문이었는지 동네 이름도 대골 이었다. 바람이 불면 대숲은 쇠아아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은 자주 땃바람에 푸욱 잠겼고 조용한 아침에는 싸그락싸그락 땃잎 스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봄이면 죽순이 쑥쑥 정신없이 솟아났다. 새순으로 나물을 해 먹기도 하고 가끔씩 대나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라 파는 것을 보기도 했다. 이상하게도 그 때 어머니의 표정은 억수로 신이 나 있었다. 읍내 끝자락에 위치한 동네는 버스 정류장에서 멀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쬘었다. 가끔 부는 바람에 푸른 벼가 일렁이는 논들길을 따라 한참을 터덜터덜 걸었다. 도랑물 출출대는 소리가 들리고 길옆의 원추리 꽃이 고개를 빼고 몸을 살살 흔들었다. 멀리 대숲의 우듬지를 바람이 지나갔다.

저만큼 무거운 가방 때문에 몸이 약간 기울어진 단발머리 여고생이 보였다. 궁금했다. 밥공기만한 시골마을에 사람이 들고나는 것은 분명 큰 관심사였다.

양쪽 갈래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학생이 옆집으로 들어간다. 나는 후다닥 대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들어선다.

“어무이! 어무이!”

“아이구 이 이 숨 넘어 가는 소리는 뭐꼬?”

반가운 얼굴로 섬들을 내려오는 어머니한테 다짜고짜 묻는다.

“어무이, 우리 옆집에 이사 왔나?”

“이 시골에 우째 왔을까?”

“그 집 여교생도 안 있나?”

“아이고 가스나 하나씩 물어봐라. 서울에서 이사 왔다카더라.”

정주의 아버지는 검게 그을린 각진 얼굴에 작은 키였지만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다고 한다.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그만 가게 문을 닫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한때는 운전을 했다는 소문도 들었다.

반면 정주어머니는 유난히 흰 피부에 쌍꺼풀 진 큰 눈을 가진 그 나이 또래의 아줌마들에 비해 키가 크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과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해질 무렵 어두운 골목길에서 발을 매고 돌아오는 정주어머니는 부딪칠 때마다 인사를 해도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다. 그런 어머니를 정주는 꼬옥 닮아 있었다.

타지에 나가 대학을 다니던 티라 고작 방학 때 수박을 같이 먹은 것이 추억의 모두였다. 무더운 여름밤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뒷산 수박밭에 갔었다. 그 무리 속에 정주와 용주도 따라왔다. 원두막에 앉아서 수박을 나눠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하하 호호 떠들었다.

오랜 기억 속에 정주를 다시 만난 것은 서울에서였다. 잠시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고향에 내려왔다가 대학진학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가버려서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다.

서대문인근 광화문 근처의 대형서점에서 책을 뒤적이는데 아예 바닥에 자리를 잡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아가씨를 발견했다. 내가 가만히 바라보자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낯익은 얼굴이었다. 참 신기한 것은 순간 이름이 기막히게 떠올랐다는 것이다.

“정주 아니니?”

“어, 언니가 여기 어쩐 일이야?”

“책 사러 왔어. 너는?”

“응, 숙제하려고”

사람은 전생에 몇 겹의 연이 있어야 다시 만난다고 한다.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만났다면 아마도 정주와 나의 인연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나보다.

직장 동료의 사고 소식을 듣고 서초동 조달청 맞은편에 있는 대학 병원을 방문한 것이 서른을 막 넘어선 가을쯤이었다. 소나무가 서있는 네거리를 지나 봄비는 병원 정문 앞으로 들어서니 이미 밤이었다.

배에서는 꼬르륵대는 소리가 가야금 줄을 타듯 체면 없이 울렸다. 모르는 채 할 수도 없는 동료의 병문안을 마치고 잠시 복도를 지나 안내판이 붙은 환자 명을 꼼꼼히 살피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주다. 둘은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잃고 안타까워 하다가 만난 정주였다. 세 번째였다. 정주는 검정색이 한 줄 그어진 하얀 캡을 쓰고 차트를 들고 있었다.

“언니 맞지?”

“우와, 반갑다. 이병원에 있니?”

“7층 신경외과에”

“이야, 기가 막힌 우연이다.”

나는 정주가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에서 멀지 않은 작은 사무실에 다니고 있었다. 일은 한가하다가 꼭 한꺼번에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사무용품도 팔고 복사도 하고 문집이나 학생들의 원고를 편집하거나 가끔은 원고교정을 보기도 했다. 직원 3명이 모두인 사무실은 분주했다.

한여름 장맛비는 번개에 우레까지 우르르 거리며 울어댔다. 하늘이 자꾸 땅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빗줄기가 유리창에 부딪치며 동그라미를 그리고는 사그라졌다. 포장도로를 덮히던 후텁지근한 더위는 이미 찬물목욕을 하듯 폭 찾아들었다.

하늘을 가린 먹장구름 탓인지 저녁이라는 착각이 들만큼 침침하다. 어두워지는 거리를 지나는 차들은 여전히 미등을 켜고 엉금엉금 거린다. 시계 바늘이 늦은 4시를 가리킨다.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활자는 오후가 되면 눈이 아렸다.

“우리, 비도 오는데 차나 한잔 할까요?”

“저는 커피요.”

“음, 나도 커피로 하지 뭐.”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에 대답했다. 향기로운 커피 내음은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그윽하다. 찻잔 안에서 감빛 물이 빙그르르 돌았다.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씹새래한 커피 맛이 입안을 맴돌았다.

프랑스 대 문호인 발자크는 하루에 커피 50잔을 마시며 글을 썼다지. 바흐는 성악곡 '커피 칸타타'를 작곡할 정도였고, 베토벤과 브람스도 매우 좋아했다고 하던데 …… . 머릿속에 자질구레한 생각들이 떠돌았다.

비오는 날의 커피 한잔은 마음의 여유를 준다. 커피향이 실내를 감돌아 흐른다. 그 때 정적을 깨고 유리문이 휘익 열린다.

“이 문집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연락처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 쯤으로 보이는 남자손님의 옆머리가 희끗희끗하다.

왼쪽 어깨 흰 셔츠가 비에 젖어 후줄근했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풍겼다.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힌다. 눅눅한 비의 열기가 훅 몰려들어온다. 사람들이 던지는 객쩍은 소리까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다.

비는 여전히 굵게 가늘게 뒤섞이며 추적거렸다.

“따르르 따르르”

커피 향 가득한 공간을 가르며 전화기가 목청을 돋웠다. 순간 전화기 소리에 묻어나는 정주의 삶이 신음처럼 울려 퍼졌다. 좁은 거실에 전화신호음은 줄기차게 울렸다. 정주가 전화기를 들자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너 지금 와야겠다. 큰애가 왔다”

카랑한 목소리는 건너편에 앉아있는 나에게 까지 들렸다. 이런 전화를 받는 것이 처음도 아니었다.

정주의 시어머니는 순천에 사는 형님네가 올 때 마다 불러들여 밥상을 대령해야 하는 일이 지당한 일 인 듯이 호출을 해댔다.

시택은 가까이에 있었다. 정주네가 이사할 때 마다 근처로 집을 옮겼기 때문에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정주는 아이 둘을 데리고 시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아니 왜 이렇게 늦어”

성질 급한 시아버지가 한마디 내뱉는다. 대꾸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선다. 2층 쇠 선반위에 얹힌 접시와 밥공기, 수저의 숫자가 늘어나 있었다. 형님네를 향한 시어머니의 배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숙 입맛에 맞는 채소와 과일, 고기, 생선으로 부엌 조리대가 그득했다.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과 버섯을 볶아 잡채를 버무린다. 가스 불 위에는 청국장장이 끓고 있다. 얇게 저민 LA갈비를 철판 위에 올려놓는다. 고기 냄새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혼자 하는 일은 낯선

부엌에서 지지부진 속도가 나지 않는다.

“서둘러라. 큰애 올 때 다됐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거실로 우르르 달려 나왔다. 방긋방긋 재물을 부릴 때는 우리 아들 닮아서 잘생겼다고 너털웃음을 짓다가도 아이들의 우는 소리에 성질 급한 시아버지는 시끄럽다고 연속 짜증을 냈다.

다섯 살 수진이와 세 살배기 수혁이가 주르르 달려 나와 양쪽다리 에 매달린다. 고개를 젓히고 눈을 껌벅댄다. 두 녀석이 칭얼대기 시작했다. 저희들끼리 놀다가 지친 모양이다.

잠시 손을 멈추고 부치던 갈비 몇 조각과 잡채를 접시에 담아 울음을 막아 본다. 시어머니가 달갑지 않은 듯 혈کم 쳐다보긴 했지만 손자가 먹는 것은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린다. 보채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잠시 아이들 옆에 주저앉는다.

시숙이 서울 본사에 출장을 오거나 처갓집에 다니러오는 모양이었다. 하기야 물어봐도 시원치 않은 대답이 돌아오는 것을 알기에 시시콜콜 묻지도 않았다.

어둑발이 내리는 무렵이 되어서야 아이 둘과 함께 형님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까무러칠 듯 시어머니가 달려 나갔다.

“아이고 어서 와라”

“오랜만이네요”

“수고하네.”

동서는 한마디만 툭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주고받는 이야기는 물꼬가 터지고 흘러넘쳐 강이 되어 전국일주를 하는 모양이다. 간간히 들리는 웃음과 말소리가 수돗물소리에 묻혔다.

“얘야, 상 차려라. 이제 저녁 먹자.”

두리반을 펴고 밥과 잡채, 갈비, 생선, 김치, 깻잎과 상추, 멸치 볶음, 청국장을 올려놓는다. 그제야 시숙과 시아버지가 나와 상을 들고 들어간다. 급한 대로 아이들 밥을 챙겨 먹이고 나니 폭풍우가 지나간 듯하다. 맥이 빠졌다.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편은 직장에서 곧바로 시댁으로 퇴근했다. 아이들이 남편의 무릎 위로 엉겨 붙었다. 개수대에는 저녁 설거지가 산더미로 쌓여 있었다.

‘오늘도 설거지까지 내치지인가’

번번이 겪는 일이면서도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비릿함과 뒤틀림이 목젢을 울리고 있었다. 두 어 술 떠먹은 밥알이 곤두섰다.

동서는 설거지하는 동안 무엇인가를 찾는 듯 문 밖을 서너 번 들락거리더니 차 안에서 찾아온 선물꾸러미를 내밀었다. 아이들의 실내복 한 벌씩 내놓은 것으로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긴 이런 일이 처음인가. 다분히 고의가 느껴졌다.

추석 때는 물건 살 것이 있다면서 자신의 아이 둘을 떠맡긴 채 백화점으로 가버려서 본의 아니게 놀이방을 차리지 않았던가. 초등학교 입학도 하지 않은 아이 넷을 혼자 보살피면서 명절음식을 장만하려니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동서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남편이었다. 일에 떠밀려 밥술도 제대로 뜨지도 못했던만 도대체 마누라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엄마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하고 있었다.

“수진이 아빠, 도대체 나와 결혼한 목적이 뭐야. 난 마누라야. 이 집 종이야?”

“2년만 참고 봉사한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말할게. 해보지도 않았잖아.”

동수의 말에 2년간 아무 말 없이 꼬박꼬박 아이들을 데리고 반찬을 해 날랐고 호출을 할 때마다 땀별과 추위를 무릅쓰고 달려갔다. 그러나 애쓰는 노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식구들의 반응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만이인 형은 집안을 일으킬 기둥이니 하늘처럼 떠받드는 대신 작은 아들인 동수는 뒤치다꺼리만 늘어갔다. 멀리 살고 있던 형 대신 사소한 일은 모두 동수의 몫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댔다.

“오늘 퇴근하면서 들러라 눈썹이 눈을 찌르니 뽑아야겠다.”

“고장 난 문고리 좀 고쳐라.”

“너 본지 오래 됐으니 한번 다녀가라”

“세상에 어떻게 내 생일을 잊을 수 있냐”

“나 오늘 늦게 퇴근하니 와서 밥 좀 해 봐라”

정주는 아침저녁으로 시댁 일과 자기 일을 번갈아하다 지쳐갔다. 남편에게 대접받지 못한 것을 자식에게 그것도 동수에게 보상받고 싶어 했던 시어머니의 집요함은 끈질기게도 식을 줄을 몰랐다.

젊은 날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동수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 부도로 빚잔치를 하고 수입은 이불회사에 다니는 시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남의 밑에 있지 못하는 습성이 있나보다. 차라리 안팎의 역할을 바꿔 말아줬으면 좋으련만 시아버지는 수시로 사업을 한다며 사기를 당하는 통에 형편이 퍼질만하면 다시 주저앉곤 했다.

동수는 고생하며 애쓰는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부당한 요구에도 언제나 수긍하는 아들로 자랐다. 어머니 말이라면 팔로 메주

를 쏘대도 믿고 따르게 되었다.

동수는 대학을 다닐 때부터 과외로 학비조달은 물론 형의 용돈까지 줄 수 있었다. 심지어 재수를 하면서도 과외를 했고 자신의 학원비는 물론 형의 용돈까지 대주었다. 어이없게도 대학생 형은 재수생 동생이 주는 용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썼다고 한다.

총각시절에는 제 몸을 돌보지 않아 결핵성 늑막염을 앓으면서도 집안을 돌보았던 동수. 동생이 병으로 힘든데도 제 갈길만 갔던 형이었다. 아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식들을 길들여갔다.

“언니이.....”

추석 다음날인가 걸려온 전화 속 정주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있었다. 심상치 않았다. 짬을 내어 정주네 집에 들렀다. 문소리에 눈이 켜히게 쑥 들어간 정주가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렸다.

집안은 엉망이었다. 가까이 사는 시댁 수발에 지쳐서 물도 삼키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었다. 점심상은 치우지도 못한 채 그대로 놓여있고 두 아이는 아픈 엄마 옆에서 온갖 장난감을 쏟아놓고 놀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며 코끝이 시려왔다.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다.

흰 죽을 쑤어 간장과 함께 내놓으니 그것마저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큰 눈에 눈물이 어렸다. 일어나 앉은 정주는 몸이 훌쩍하게 말라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정상은 아니었다.

“다른 건 다 그만 두고 병원부터 가자”

아이들을 대강 챙겨 동네 내과에 갔다. 진단은 심각한 위염이었다. 하얀 물약을 잔뜩 받아 돌아왔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내 입에서

사나운 말들이 속사포처럼 터져 나왔다.

“아니 네 시어머니 사람 맞아. 아무리 시자 들어간 인간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언니, 나도 이제 못 참겠어.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어이구, 참긴 곰처럼 왜 참아 그러니까 병이 되지. 그냥 미우면 욕해 너도 살아야지.”

“언니, 이번엔 너무했어. 정말 너무했어.”

“뭘데?”

“아무리 이불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혼수로 해 온 이불을 내다버릴 수가 있어.”

“혼수이불을 버렸어?”

“손바느질하는 이불이라고 귀찮다고 남을 준건지 버린 건지 알 수가 없어. 이번에 시댁에 갔더니 한쪽에 보따리에 싸서 한참 처박아 뒀더니 보이질 않아.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지.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예단을 버려. 이건 우리 친정을 무시하는 거 아냐.”

“어휴”

한숨이 절로 나왔다. 세상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그 멍울이 지워진단 말인가. 평생 가슴에 한이 될 정주의 아픔을 어떤 잘난 말로 위로해야하는가. 가슴이 무두질하듯 아렸다. 답답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말이.

“그게 어디 잊어질 일이나 그래도 잊어라 잊어. 너만 마음 상한다.” 정주는 이불공장에 다니는 시어머니 덕에 품질 좋은 이불이 많았다. 혼수로 이불 예단은 필요 없다고 말리는데도 굳이 밀어 붙이는 정주

어머니의 고집은 말릴 수 없었다. 아마도 시어머니 첫인상에 시집살이라고 시킬까봐 바리바리 싸주신 것인지도 모른다. 정주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굴러 떨어졌다.

그 사건 이후로 정주는 시댁 들르는 일이 조금 뜸해졌다. 당장 시댁에서 동수를 호출 하였다.

“아니 수진 어미가 그럴 수 있니.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데.”

“엄마가 좀 공평하게 대하면 안 돼. 수진이 엄마도 할 만큼 했잖아”

“어이구 못난 놈. 마누라 편만 드는 못난 놈.”

시어머니는 아들의 대답에 머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를 고래 고래 지르고 우는 일이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와서야 미안해진 동수가 전화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엿친 데 덮친 격으로 일주일 뒤, 시어머니 생신날 정주는 오전 내내 누워 있다가 점심때가 되어 몸을 일으켜 시댁에 가서 상을 차렸다. 못마땅한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뿔루통해 있었다. 바로 다음날 손아래 시누가 찾아왔다.

“언니, 왜 우리엄마 생신에 늦게 왔어?”

“아가씨, 내가 몸이 좀 안 좋았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는지 알아. 머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시누이가 샷대질을 하며 막말을 해대는 일이 일어난 뒤 정주는 더 기막히고 허탈해 했다. 그래도 손위 동서가 얄밋다고 편을 들어주던 시누이였다. 작은 올케가 고생한다고 위로의 말도 가끔 해주던 시누이의 역습에 어처구니없고 기막혀했다. 자신은 시모생신이 귀찮아서 시댁에도 안 갔다는 얘기를 해대더니 자기 어머니 생신날 오후에 갔다고 길길이 뛰는 꼬락서니가 더 역겨웠나보다.

사람의 첫인상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인가 보다. 결혼식에서 보았던 키 작고 뺨뺨마르고 치켜진 눈이 풍기던 쌀쌀맞고 서늘한 인상은 결국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시부모와 동서, 시누이까지도 모두 한패가 되어 몰아붙이기만 했다. 그 많은 다툼에도 항상 동수는 시어머니의 말을 두둔하고 며느리가 잘했으면 그랬겠냐고 우기는 터에 그만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졌다고 한탄을 했다. 정주는 만날 때마다 “언니 나 그만 살까 봐”를 몇 번이나 뇌까렸다.

시댁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마음과 들끓어 오르는 화를 다스리려 바깥을 기웃거리다가 마침 미국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이민 수속을 밟고 있는 중이었다. 마침 동수가 미국연수를 다녀 온 뒤 이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둘의 생각이 맞아떨어졌던 모양이다.

정주는 30대 중반에 공부를 시작했다. 살림하랴, 두 아이 돌보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위염은 깊어져 위궤양으로 진행되었다.

그 무렵 정주는 시댁얘기만 나오면 극도의 치를 떨며 사소한 일들에도 지나친 반응을 보였다. 조금만 예민해지면 위경련이 일어나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극심한 속 쓰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신과에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었다.

이 땅에서 도저히 동수와 더는 살기 힘든 지경이었다. 시댁 이야기를 할 때면 커다란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던 순한 정주의 눈은 살벌한 고양이를 떠올릴 만큼 변해있었다. 초기에 남편과 어렵게 이룬 사랑에 대한 애착마저도 희미해진 듯 했고 오직 두 아이의 입장에서 배려한 아빠로서의 존재감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8시가 다되어서 불쑥 나를 찾아왔다.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싸우고 나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정주의 집은 버스로 여섯 정거장. 저녁 먹고 막 숨을 돌리던 차에 정주의 방문은 뜻밖이었다.

성실하고 꼼꼼한 정주의 성격에 아이들을 두고 쓸쓸한 가을 저녁 혼자 우리 집에 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가슴이 답답하며 자리에 누웠다. 정주는 그동안 엮매고 있는 것에서 잠시 벗어난 것으로만 해맑게 웃었다. 그러나 채 한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일어섰다. 여자가 결혼을 결심 할 때는 남자 하나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므로 나머지 것들도 감수하려고 시작하는 것이다. 결코 그 집에 종이 되거나 뒤치다꺼리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

속된 말로 지나친 효자는 피곤할 수도 있다. 적절히 완급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여자들이 유교의 심리적 압박을 벗어나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부딪치는 요즘 세태에 남자들의 대처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여자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가고 맞벌이를 원하는 남자들이 많아지는 요즘 옛날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언니, 인연이라는 것도 정든다는 것도 다 무섭더라”

쓸쓸하게 웃던 정주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비 오는 날은 어둠이 일찍 찾아온다. 커피를 연거푸 두 잔이나 마셨는데도 평소와 다르게 자꾸 어깨가 무거웠다. 의자에서 일어나 유리문 앞에 선다. 비는 여전하다. 퇴근이 자유로운 비는 그치지 않을 모양이다.

“사장님, 우산 가져오셨어요?”

“아니, 아침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지난번에 쓰고 넣어둔 우산을 기억해 냈다. 진열장 아래 정리함을 뒤적인다.

‘분명 여기에 넣어 두었는데’

질은 하늘빛의 긴 우산과 개나리빛 바탕에 파랑 동그라미가 그려진 자동접이 우산을 찾아내었다.

“이것 쓰고 가세요.”

“어, 우산이 있었구먼.”

삶에서도 피곤하고 힘들 때 피해 갈수 있는 우산이 있다면, 불행이 비처럼 마구 쏟아질 때 우산 아래 잠시 피할 수 있다면 우린 더 쉽게 행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난 안타깝게도 정주에게 우산이 되어주지 못했다.

요즘 건망증은 비오고 난 뒤의 돌아나는 잡풀보다 무성하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깜박깜박 잊는 통에 뻔히 보이는 곳에 놓아 둔 우산을 다시 확인했다. 정주도 그랬다. 이 땅을 떠난 지 6년이 되니 자꾸 가물거렸다.

정주가 떠나고 난 뒤 다시 만날 것을 대비해 짬짜미 영어회화 공부를 했다. 아침 6시에 교육방송의 English conversation을 열심히 시청했다 무려 2년을. 정주가 떠날 때만해도 곧 만나러 가리라 다짐했지만 미국이 옆집도 아니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고작 일 뿐 아마 정주를 다시 보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비는 쉽게 그치질 않는다. 호우주의보라고 호들갑스럽던 소식이 오늘 적중하려나보다.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아. 김 군.”

“그러게요”

“집엔 어떻게 갈 거야. 우산 없으면 같이 가 줄까?”

“하하하 매일 집에 갈 시간에 허둥대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철 역이 코앞인데 그런 걱정해 주는 걸보니 오늘 여유 있네요.”

“그러게 말이야. 나답지 않았나.”

결혼 후의 시간은 파도 같았다. 어찌나 정신없이 몰아치는지 아이가 둘이 되고 부터는 퇴근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다. 또 직장 생활에 곧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이 땅에서 아줌마로 산다는 것은 그것도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 직장에서 버티려면 얼굴에 철판을 아스팔트처럼 두텁게 깔아야한다는 걸 잘 안다.

한때 젊은 날 상대의 직업이나 조건을 따지는 친구들을 보면서 비웃었던 적이 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까닭을 이해하고 나니 그놈의 나이가 뭔지 나이는 언제 이렇게 홀러딩 먹어버렸는지 더는 조건을 따질 수 없는 나이를 닮하기도 했다.

철이 늦게 들었다고 할까. 세상을 보는 현실감이 없었다고 할까. 하여튼 둔감한 나는 늦게 결혼을 했다. 월세 방부터 시작해서 겨우 융자를 안고 집하나 장만했으니 아직도 생활전선에서 뿔 수밖에 없었다.

선이란 것이 연애하고는 다른 법이다. 어느 정도 조건을 따져보고 맞아야 서로를 마주하는 것이니 연애처럼 신데렐라 같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내가 조건을 갖추어야만 좋은 조건의 상대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 별 내세울 것 없는 내가 아무리 따져 봐도 좋은 상대

를 만나기는 애저녁에 글러버린 일이었다.

그에 비하면 연애는 사랑을 배경으로 추억까지 위여있으니 선에 비길 수야 있겠는가. 그런데도 정주가 선택한 삶이 그렇게 아플 줄 몰랐다.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달프다. 모두 평범하게 오늘을 어제처럼 살지만 하루가 그다지 편하지만은 않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며 겸손해지고 작은 것에 기뻐하는지 모른다. 직장을 얻은 사회 새내기가 처음에야 무엇이든 다 해낼 것 같은 자신감에 들뜨지만 사는 동안 터득한 만만치 않은 삶을 견디며 자신을 알아가고 다져가는 것이다.

정주도 그랬으리라 사랑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첫 발을 디뎠겠지. 남보다 무서운 것이 가까운 사람들인지 모른다. 가깝기에, 믿었기에 그들이 주는 상처는 더욱 깊고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집안에서 반가와 하지 않는 선택을 했으니 남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주의 몸부림 또한 처절했을 것이다.

영종도 가는 길에 아침안개가 피어올랐다.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안개는 더욱 자욱했다. 안개가 주춤주춤 물러나며 한세상이 나타났다가 뒤로 물러난다.

정주는 커다란 여행가방 만큼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대기실에서 있었다. 시들어가는 시금치처럼 축 처진 어깨와 앙다문 입술. 자주 눈물이 어리던 큰 눈만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아마도 강단이 있어 보이는 것은 물려받은 성격이나 외모 때문은 아니었다. 멀리 정주의 시어른들이 보였다. 떠나는 정주 가족과 몇 마디 주고받는데 답송하라는 안내방송이 들렸다. 줄곧 시선을 한곳에 쏘고 있던 정주가 뒤

도 돌아보지 않고 출입국 문을 빠져 나갔다.

여전히 열은 안개에 휩싸인 영종도 공항이 등 뒤로 물러갔다. 조금 전 왔던 길이건만 차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돌아서는 정주의 어색한 웃음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어른거렸다.

빗소리에 잠긴 사무실은 조용하기 그지없다. 컴퓨터 앞에 앉는다. 전자편지가 생각나 편지함을 접속했다. 광고편지 2통에 섞여 있는 정주의 편지가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열어 보았다.

'언니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몇 자 적어. 지난번에 살 던 곳은 산이 가까워서 노루가 내려오기도 했는데 지금 사는 곳은 도시라서 살기에는 편하지만 산짐승은 볼 수가 없어.

언니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어. 그리고 양로원이 아닌 병원에 취업했어. 이제는 덜 힘들어. 봉급도 정식 직원이라 많이 받아. 아이들도 공부 잘해서 수진이는 자기 학년의 Hi class에서 공부하고 수혁이는 수학 영재 반에 뽑혀서 잘 다니고 있어. 이번에도 둘 다 all A를 받아왔어.

이제 한국에서 살았던 일이 까마득해. 그런데도 가끔 옛날 생각이 나서 우울해질 때도 있어. 싫어서 떠났는데 언니가 보고 싶고 떠나기 전 살았던 동네에 가보고 싶어져. 떠나면 후련 할 줄 알았는데 다 잊을 줄 알았는데.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볼 수 없으니. 참 사는 것 우스워.

시간이 나면 운동화랑 여름옷 할인 할 때 사서 보내줘. 여긴 겨울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서 여름옷과 가을 옷 정도면 충분해. 아이들이 작아져서 못 입는 옷도 보내줘. 아이들이 쑥쑥 크는 때라서 옷이 떨

어지기도 전에 못 입게 돼.

아이들이 언니가 피자 사가지고 놀러왔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편지를 쓰는 지금 비행기로 10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참, 언니 곧 휴가를 얻어서 한국에 가려고 해. 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한국에 가면 꼭 연락할게. 그 때까지 잘 지내.

밤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둘러 전철역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거리는 한산했다. 조용한 거리가 비에 축축하게 젖었다. 포장도로가 일찍 켜 불빛에 젖어 반짝이며 빛났다. 8월의 늦은 빗줄기가 날 보란 듯이 유리에 후두두 부딪는다. 흠칫 돌아본다.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이 있듯 삶도 어찌 맑음만 있겠는가. 더러 바람이 불고 비도 오고 흐리고 눈 오는 날도 있겠지. 아롱이다롱이 꺾으며 지나가는 가는 삶도 퇴근시간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다르고 큰 우산 작은 우산 자동우산 수동우산 여러 기능의 우산만큼이나 다양하리라.

어느새 쏟아 붓던 작달비가 지쳤는지 가랑비로 변해있었다. 비 온 뒤 땅은 더욱 굳어진다. 비 갠 하늘은 비 오는 순간을 보상하듯 깨끗하고 드뭅다. 돌을 던지면 쟁. 쟁. 쟁 맑고 고운 소리가 울릴듯하다. 내일은 비가 갠 것이다. 비 갠 하늘에 맑게 씻긴 푸른 산은 더욱 또렷해지겠지. 산뜻하고 순한 공기가 맑은 아침을 열면 정주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우리의 삶은 한때 비 그러나 맑음.

아침부터 내리는 비는 그칠 줄 모른다. 우리의 삶에도 비는 자주 내린다. 비는 더위를 식혀주지만 일찍 어두워진 공간에 잊히기 싫어 안타까운 사람이 살고 있다. 그리운 사람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그 얼굴은 세상의 두려움을 피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춘 나는 아닐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가슴 아리고 서운했던 얼굴.

비가 찾아들면 더위도 기울어갈 것이다. 단풍잎을 닮은 저마다의 사연이 낙엽처럼 우우~우 쏟아져 내리면 맑게 갠 가을하늘이 펼쳐지리라. 난생 처음 쓴 소설. 글을 써놓고도 못마땅해서 몇 번이나 망설이던 눈빛이 창잔에 별이 되어 두 어 개 떨어져 내린다. 어설픈 걸음마를 격려 해주신 심사위원장님 참 고맙습니다.



獨 島



충남 교육청
공 관 식

“따릉 따릉 ……”.

전화소리에 잠결임에도 순간 나는 긴장했다. 3년 동안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비상핸드폰의 소리이다. 시계를 보았다. 새벽2시 반이다. 매일 충전기에 꽂아 놓으면서도 벨소리가 울리지 않기를 원했던 전화기였는데 …….

3년 전에 스승님의 또 다른 제자라면서 검은 양복의 말쑥한 신사가 내게 찾아와 휴대 전화를 전달하면서 항상 소지하고 충전상태로 가지고 다닐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여보세요”

긴장감에 나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스승님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소. 즉시 스승님이 전달한 문서를 개봉하여 후속조치를 취하기 바라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방법으로 연락이나 접촉이 있을 것ियो.”

나는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그러면서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나는 기계적으로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 두었던 서류봉투를 꺼내었다. 이것 또한 3년 동안 한 번도 개봉하지 않았었다. 단숨에 서류의 겉봉투를 찢어 개봉하였다.

“秘”

붉은 색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다시 밀봉한 서류를 개봉하니 순서인 듯이 ① ② ③이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다.

3년 전에 스승님은 나에게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봉투를 넘겨주었다.

“나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갑수 자네에게 연락이 갈 걸세. 그러면 이 봉투들을 개봉하여 행동을 취하면 될 것이야. 아무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자네 뿐 이라 맡기니 잘해 주길 바라네. 내가 한평생 연구해온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문서라네”

그러시면서 스승님의 눈가엔 이슬이 맺혀졌다.

잠시 회상에 잠기다가 후딱 정신이 차려졌다. 우선 ①번 봉투를 개봉하였다.

“나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연락이나 소식을 접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아파트로 와서 내 평생 연구한 자료를 받도록 하라. 받는 방법은 그 때 상황에 따라 정해질 것이니 절대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과 협의하지 말고 연락이 오는 대로만 따르기 바란다.”

간단한 내용이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집을 나와 빈 택시를 무조건 잡아탔다.

“한양 아파트로 빨리 가주세요.”

먼저 만 원 짜리 지폐 두 장을 운전기사에게 주었다. 스승님이 계시는 한양 아파트까지는 20여분 거리 정도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조급해져 오고 있었다. 차안에서 나머지 2건의 문건이 궁금하여 열어 보았다.

②에는 통장 2개와 도장이 있었다. 하나는 시중은행 통장에 잔고 10억 원이었다. 나머지 통장은 외환은행 통장으로 10만 불의 미 달러와 10만 유로화가 있었다. 그런데 예금주가 ‘이병호’로 되어 있었다. 의아했다. 이병호가 누구인가? 어디서 많이 들던 이름인데 …….

기억을 되살리는 동안에 어느새 아파트 근처에 택시가 도착하고 있었다.

“손님 아파트에 불이 난 모양입니다. 차량이 통제되어 이곳에서 내리셔야 되겠는데요.”

운전기사의 말에 깜짝 놀라 보던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스승님이 사시는 아파트 진입로에 소방차가 가득하다. 무엇인가 예감이 이상하여 택시 문을 급히 열고 뛰쳐나갔다.

아파트 정문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경비원들과 건장한 사내들이 출입자를 체크하고 있었다. 난 다행이 경비원들과 안면이 있어 복잡한 틈을 타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갈 수 있었다. 스승님이 계시는 110동 1라인 15층에 불빛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곳에 화재가 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뭔가 뇌리를 스치는 바가 있다. 이곳이 고급 아파트임과 특히 혼자 사시는 스승님이 사는 집에 불이 났다는 점과 어색한 소방대원들의 모습에서 수상한 점이 느껴졌다.

아파트 1라인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다섯 명의 소방대원과 함께 탔다.

“어디가 불난 것입니까?”

“이 통로의 15층입니다. 원인은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대답부터 자연스럽지 못하며 어쩐지 소방대원 같지 않다는 의심이 든다.

15층 올라가는데 평소 보다 몇 배나 더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스승님 집 현관에 도착하니 그 곳에도 건장한 사내들이 몇 명 있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내가 큰소리로 말하자 서로의 얼굴만 쳐다본다.

“내가 이곳 주인이요.”

내가 기선을 제압하자 머뭇거리며 비켜선다.

“15층 집안에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점을 따질 겨를이 없다.

보안키를 작동시켜 보았다. 반응이 없다. 역시 안에서 스승님의 신변에 커다란 일이 발생한 것이 틀림없다. 번호시스템과 보안 출입통제가 작동되면 이곳은 지문을 인식한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나의 오른손 엄지를 표시 창에 인식시키자 문이 ‘철걱’ 열렸다. 나는 황급히 들어가면서 뒤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다. 재빠르게 현관문을 닫으면서 보안 시스템을 재 가동시켰다. 이제는 아무도 들어 올 수 없다.

집안은 불이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유독 거실에 이불과 옷가지가 있으며 방화로 보이는 흐트러짐으로 인하여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집안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느껴진다. 스승님이 계신 서재 문을 황급히 열어 보았다. 책상아래에 피를 흘리신 채로 쓰러져 있었다. 피격을 당하시고 조금씩 움직인 흔적이 역력하다. 책상 위에 항상 있던 노트북 컴퓨터가 강제로 부서져 있었고 하드디스크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스승님은 뭔가를 남기시려는 했던 몸부림이 내 눈에 확 들어왔다.

문 밖에선 사람 숫자가 늘었는지 웅성거림이 더욱 심하다. 어디론가 급히 전화통화 하는 소리도 들린다.

“빨리 찾아야 하는데….

조바심이 난다. 이럴 때 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스승님이 말씀 하셨지… 스승님은 두 눈도 감지 못하시고 계셨다. 눈을 감겨 드리니 눈물이 왈칵 솟아올랐다.

자세히 살펴보니 오른손 집게손가락에 상처가 있었다. 이빨로 깨무신 것 같았다. 그렇다면 뭔가를 쓰시려고… 왼쪽 팔뚝에 핏자국으로 쓰여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요8-21”

이 글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되어 갔다.

‘그렇다. 스승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자주 성경을 읽으시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요한복음 8장21절일 것이다. 그 속에 답이

있을 것이다.’

황급히 성경을 찾았다. 서재에 성경을 항상 보관하는 곳을 나는 알고 있었다. 성경을 펼치니 편지 한통이 나왔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 우선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성경의 요한복음 8장21절을 읽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구절은 마치 스승님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켰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몇 번인가 읽어 보았다. 도대체 이해가 되자 않았다. 정체모를 괴한들에게 경고하는 말일까? 아니다. 무엇인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내가 꼭 스승님께 제일 먼저 올 것이라고 예견하셨을 것이다.

‘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하니 스승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하루는

“나의 제자 갑수야”

“예”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욥과 같은 삶을 가장 부러워한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지요?”

“성경의 욥기를 읽어 보거라”

그래서 성경의 ‘욥기’를 몇 번인가 정독한 적이 있었다. 욥기 42장 16절은 “그 후에 욥이 일백 사십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17절에는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적이 있었다.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듯하였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아닌 욥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자세히 보니

요8-21글자엔 희미하게 ‘웁’ 자로 보이는 듯 했다.

밖에서는 더욱 시끄러운 소리와 소방차의 고가 사다리가 올라오는 듯 굉음이 들려왔다.

나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되었으며, 손은 바쁘게 율기 8장21절을 찾았다.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성경을 읽으면서 스승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시 보니 스승님은 살해당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쨍그랑”

고가 사다리가 베란다에 닿으면서 몇 사람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오른손의 두 손가락을 스승님의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역시 스승님 다우셨다.’

스승님 입안에서 잡히는 것이 있었다. 작은 USB를 입안에 깊게 물고 계셨다. 빠르게 꺼내어 안주머니에 넣고 출입문으로 달려갔다. 동시에 창문을 부순 사람들이 거실에 무언가를 던졌다. 순간 연기가 자욱해진다.

‘연막탄이다’

나는 현관문의 잠금 해제 장치를 풀면서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연막탄이 터지면서 현관문을 열자 복도로 퍼져나갔다. 서로를 구분하기 힘들었다. 승강기를 탈 상황도 아니기에 나는 비상계단을 향해 힘껏 뛰었다. 그 속에서 무전으로 통화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라보 부라보 장물이 나왔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다.”

희미함 속에서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가 장물’ 이라고….

“타탕”

하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나의 어깨에 통증이 왔다. 그리곤 정신이 혼미해져왔다.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급히 뛰어 내려가다 연막탄 가스에 앞이 안보여 오른발을 헛 딛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위아래 울려 퍼지는 발자국 소리에 잠겨 버린다. 나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가스충인 듯했다. 총에 맞았고 발마저 심한 통증으로 이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소방대원들, 아니 그들은 소방대원을 가장한 스승님에게 해를 가한 같은 집단일 것이다. 여기서 잡히면 스승님의 뜻은 모두가 수포로 돌아갈 텐데….

절박함 속에 아픈 다리를 겨우 끌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통로의 현관문이 열리면서 어떤 손이 나를 휘감아 당겨 아파트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곧바로 의식을 잃어 버렸다.

아파트 광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계속되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특히 내가 내려오던 통로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소방차 출동에 놀라 주민들이 갑자기 몰려나오는 바람에 나를 잡고자 하였던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몇 시간이 지나서야 정신이 들었다. 가스충을 맞은 것이 회복되었고 오른쪽 다리는 누군가 뜨거운 찜질을 하여 주고 있는 느낌이 었다.

폭신한 침대였다. 그간의 피로감에 다시 잠속에 빠져 들었다. 꿈속에서 스승님을 만났다. 스승님을 만난 것은 대학시절 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사를 배울 때 가르치셨던 교수님 이

었다. 역사가 왜곡되었다고 부르짖던 스승님. 그리고 각종 증빙자료와 함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알리려고 하셨다. 그 때만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점이수에만 관심이 있었지 스승님의 진정한 뜻에 대하여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다만 나는 호기심에서 스승님의 강의를 관심 있게 접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복학하였을 때에 스승님은 학교에 계시질 않았다. 들리는 말로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하여 교육당국과 마찰이 있어 교단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 뿐이었다.

몸을 뒤척이다 침대 모서리에 오른쪽 다리가 부딪쳤다.

“아얏”

나도 모르게 신음 소리를 크게 질렀다.

“이제 정신이 드세요”

여자의 목소리에 두 눈을 떴다.

“이곳이 어디 입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곳은 한양아파트 502호이고 교수님이 계신 통로 5층이랍니다.”

“교수님이라고요?”

“네 15층 교수님요”

“그곳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나요?”

이 여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팔목을 들어 시계를 보니 아침 10시다. 한참을 잔 것이다. 침대에서 일어나 걸터앉았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잘 정리되어 있는 실내였고 스승님의 아파트에 익숙한 터라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서야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얼굴 윤곽이 또렷한

인상을 가진 미인이었다. 그녀는 잠시 후 차를 건네주면서

“저는 차경화라 합니다. 교수님과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 대학 다닐 적에 강의를 들은 적이 있죠”

“아 그러세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시더군요?”

궁금하였다. 차경화라는 여자에 대하여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에 경계하는 투로 말하였다.

“그렇게 의심스런 눈초리를 하지 마세요. 제가 아니면 그 쪽은 아마 주거침입에다 절도범 신세를 면치 못했을 테니까요”

내가 반문을 하려 하자 그녀는 일어나 TV를 켰다. 뉴스 전용 채널이었다. 한양아파트 화재사건을 방송하고 있었다. 15층에 도둑이 들어 집 주인을 살해하고 귀중품을 훔친 방화 절도 사건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여 수배령을 내려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 같았다. 방화에다 스승님의 소중한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훔쳐갔는데, 이렇게 조작하다니 화가 났다. 그보다도 스승님은 누군가 살해하였는데... 사건은 엉뚱하게도 진행되어가고 있었다. 난 차경화를 다시 바라보았다.

“안심하세요. 이곳은 안전하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집집마다 탐문수색을 하였으니까요. 우리 집도 벨을 누르기에 잠옷 바람에다 졸린 눈으로 맞이하였더니 몇가지 질문만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휴”

일단 안심이 되었다.

“내 옷 그리고 가방”

영갑결에 소리 질렀다.

“여기 잘 보관하고 있어요.”

차경화가 옷장에서 가방과 옷을 갖다 주었다. 우선 윗옷 안주머니의 스승님이 입안에 물고 계시던 USB를 확인하고 가방을 열어 보았다. 서류 봉투가 그대로 있었다.

차경화가 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여기엔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어요. 그리고 부탁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당분간 당신은 쉽게 외출하기도 곤란하니깐요. 참 이름이 뭐죠”

“아! 예 정갑수 라고 합니다.”

손을 내밀며 정식으로 인사를 나눴다.

“정갑수씨. 교수님이 가끔 말씀하셨죠. 아주 조금 밖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렇게 만날 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마치 예정된 만남 같았다. 그러나 이렇게 한가하게 만남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빨리 이 상황을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았다.

“차경화씨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마치 준비된 답변 같았다.

또 다른 방에 안내되니 서재였다. 주위엔 수많은 책들로 싸여 있었다. 전원을 넣고 컴퓨터를 부팅 시켜주는 친절을 베풀고는 방을 나갔다. 컴퓨터에서 우선 뉴스 검색을 통하여 좀 전에 보았던 뉴스의 전말을 다시 보았다. 별로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기사가 비슷비슷

하였다. 보도 자료에 의해 나가는 듯 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럴 때가 아니지’

난 스승님으로 물려받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비밀번호 입력’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스승님답게 보안장치를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성경의 ‘옴기’를 쳤다.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너무 믿음이 있었기에 당황했다. 성경, 요한복음, 내 이름인 정갑수, 한국사, 한양아파트, 보안 …. 생각나는 모든 단어들을 입력하였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이마에 땀이 났다. 긴 시간동안 내가 아는 모든 문구를 동원하였지만 컴퓨터는 움직일 줄 몰랐다.

“따릉 따릉…”

구세주 같은 벨 소리다.

“정갑수씨”

“네”

“오늘 새벽엔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들이 움직임을 보아 정갑수씨가 스승님의 뜻대로 잘 처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은 위성을 통하여 24시간 감시 당하셨습니다. 역사왜곡에 대한 진실과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저들이 최첨단 장비를 통하여 감시와 자료를 입수하려 하였지만 스승님이 예견 하셨던 사항이십니다. 지금이 오후3시입니다. 지금부터 두 시간 후 5시에 삼성그룹 이병호 회장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후로 이 전화기는 없애 버리시오. 연락할 일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소. 오늘 오후 5시입니다. 그럼 건투를 빕니다.”

두 번째 전화도 일방적이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표시되었다.

난감하였다. 두 시간 후 삼송그룹이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데 회장이 나를 만나 줄 것인지도 의문이었고 다리가 불편한 내가 감시를 뚫고 나가는 것도 문제였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차경화씨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다. 내가 갈 곳을 말하고 방법을 구하였더니

“내 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으니 지하로 통하여 나가면 남의 눈에 띄지도 않고 내차는 검문도 못해요. 대사관에 근무하여 외교관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잠깐 만요 외출준비를 해야 하니 기다리세요”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여 준다. 기다리는 동안 스승님이 남겨준 세 번째 봉투가 궁금하였다. ?이라고 쓰인 봉투를 여니 여권이 2개 나왔다. 한개는 일반 여권이고 한 개는 외교관용 여권이다. 미국 비자도 10년임을 감안하면 7년이나 남았고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이니 5년이나 남아 있었다. 그런데 모두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외국으로 나갈 일도 있는 모양이구나’ 외교관 여권까지 있는 것을 보면 국가적인 일인 것 같다는 추측이 든다.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 깊숙이 여권을 넣어 두었다.

“나가기 전에 밖의 상황을 살펴 보겠어요.”

차경화의 조심성이 보였다. 아파트 정문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나가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었다. 경찰도 아닌 것 같고 사복차림 복장이었다.

“자 이제 나가요”

경화가 현관 앞을 볼 수 있도록 인터폰 버튼을 눌러본다. 화면 속에는 몇 사람의 남자가 두리번거리며 있었다. 잠시 기다리니 비상계단을 통하여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다.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밖을

쳐다보더니 손짓으로 나오라는 신호를 한다. 살며시 문을 닫았다. 그리고 손을 입에 대고 비상계단을 통하여 위로 가자고 손을 잡아준다. 난 영문도 모르고 경화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한 층을 올라간 후 6층에서 버턴을 누른다. 문이 열리자 노인 2명이 타고 있었다. 10층 버턴이 눌러져 있었다. 경화가 재빠르게 12층 버턴을 누른다. 나는 모든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윽고 10층에서 멈추었고 두 사람이 내렸다. 엘리베이터는 12층에 멈추었고 다시 경화의 손은 지하 주차장 버턴을 누르고 있었다.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다. 지하층 까지 아무도 타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경화는 나의 손을 잡고 빠르게 자기의 차량까지 움직였다. 검은색 체어맨이었다. 나를 뒷좌석에 밀어 넣듯 문을 닫고는 금세 출발한다.

“혹시 모르니 바닥에 바짝 엎드려요.”

급한 김에 차안의 바닥에 엎드려 있자니 오른발의 통증이 왔다. 지하를 나와 아파트 정문까지 온 듯하다. 경화는 문을 약간 열고

“수고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미모의 선글라스를 착용한 외교관 차량에 검문하던 사람들은 순간 놀란 눈빛으로 말한다.

“오늘 새벽에 살인사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전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수고하세요.”

문을 닫으며 출발하는 차는 짙은 썬팅으로 안을 볼 수 없었다. 검문하던 사람들은 순간 어리둥절하고 경비원들은 경례를 붙이는 사이에 차는 쏜살같이 정문을 빠져 나갔다.

“이제 일어나세요.”

“어휴”

한숨이 절로 나왔다. 마치 첩보영화 같은 장면이었다.

그 시각 한양아파트 현장에는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하였다. 지상 주차장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방금 나간 차가 몇 호에서 나왔나”

“네 보고를 받은 것은 1라인 12층인데 입주자 명부에는 중년 부부인데 그들은 아침에 출근을 확인하였고 나간 차량은 5층에 사는 젊은 여자라고 합니다.”

“차량은 검문 하였나”

“예, 여자 한명 뿐이었습니다.”

“차안과 트렁크까지 확인해봤나?”

“외교관 차량이라 그것까지는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기랄…”

답변이 시원스럽지 못하자 책임자인 듯한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다.

“빨리 시내전역에 검문검색을 강화해, 이곳은 최소인원만 남고 철수한다.”

그리곤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일련의 차량들이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여기는 삼성그룹 비서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말쑥한 차림의 비서가 나를 안내하고 뒤 따르는 경화를 가볍게 제지하였다.

나를 안내한 비서는 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바람처럼 물러갔다.

“어서 오시오 정갑수 선생, 내가 삼성그룹 회장 이병호라 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데 깜짝 놀랐다.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음 말을 이었다.

“놀랄 것 없소. 앞으로 정 선생이 해야 할 일이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 해도 될 것ियो. 지금 저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말이요. 하하하…”

작은 키에 다부진 인상을 가진 회장은 어리둥절해 하는 나를 이끌고 한 개의 문을 지나 벽면으로 갔다. 손에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누르자 벽면이 스르륵 열렸다.

“이곳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청이 불가능한 곳ियो. 한민호 교수와는 이곳에서 자주 대화를 나눴지. 한 교수는 나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되었고 그 증거 자료를 찾는데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고 했소. 일본은 역사왜곡을 위해 우익집단에서 엄청난 자금과 그 실행을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만이라도 동참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소. 그리고 그 과정을 가끔 나에게 설명하여 주곤 하였지. 나에겐 모두가 소설 읽는 듯 한 내용이었어. 그러다가 한 달 전에 나타났어.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간다고…. 그런데 상당히 불안해 보였어. 그리고 자료를 주면서, 이진 병산의 일각이야. 앞으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날 젊은이가 찾아 올 것이라고 했어. 만일 안 온다면 우리의 잘못된 역사는 영원히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비통하게 말했다네.”

노회장의 눈엔 눈물이 글썽거렸다.

나의 머리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

“이제 한 사람과 통화 할 사람이 있소. 이 전화는 도청이 불가능한 위성전화이니 안심하여도 좋소.”

그러면서 버튼을 누른 후 전화기를 넘겨주었다.

“여보세요. 정갑수 선생. 수고가 많으셨소. 이제부터가 중요하오.

정 선생은 앞으로 이 전화를 가지고 다니시오. 위급할 때만 연락이 갈 것ियो. 주로 받기만 하시오. 그리고 회장님이 노트북 컴퓨터를 줄 것ियो. 위성파 연결되어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이 가능하오. 곧 바로 독도로 가시오. 그 곳에서 할 일이 있소. 이만 끊겠소.”

이번에도 일방적인 전화였다. 나의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더니 이 회장이 너털웃음을 지었다.

“이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군. 그리고 노트북과 충분한 현금이 있네. 움직일 때 쓰고, 혹시 한 교수가 남겨준 통장이 있나.”

마치 흠친 물건을 들통 난 듯 깜짝 놀라며 대답 했다.

“네 있습니다.”

“나에게 건네주게.”

그 말에 난 망설여졌다. 스승님이 남겨준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주춤거렸다.

“걱정 말게나. 그 통장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것이야. 이젠 그 통장도 위험해서 쓰기가 곤란할 수도 있어.”

그 말에 가방속의 통장을 내어 주었다.

통장을 받아든 이 회장은 거래내역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한 푼도 써보지도 못했네. 쭉쭉...”

탄식 비슷한 어조였다.

“여기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네. 나나 자네 이름으로도 곤란할 것 같아 우리 계열사 회사명의 통장과 현금카드이네.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나 추적은 없으리라 생각되네. 하지만 현금도 필요할 것 같아 충분이 넣어 두었네. 더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이만 하세. 참 밖에 있는 같이 온 여자 분은 누구인가?”

“예,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스승님의 아파트에 사는…”

대답을 끊으셨다.

“내 말은 여자를 조심하라는 뜻에서 말한 것뿐일세. 그리고 아무도 믿지를 말고.”

스승님이 항시 하던 말씀과 같았다.

방을 나오려다 보니 벽에 ‘천부경’ 경전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었다.

‘천부경, 천부경….이 천부경이 이곳에 왜 있지.’

혼자 중얼거렸다.

“아 자네 참, 이 천부경에 대하여 당연히 알고 있겠지?, 한 교수는 어느 날 천부경 액자를 벽에다 걸어 놓더군. 그리고 이곳을 올 때마다 천부경을 읽곤 했지. 그래서 나도 덕분에 천부경을 외우게 되었다네. 참으로 뜻이 깊은 내용이 들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경전이야.”

“一始無始一析三極無

盡本天一一地一二人

一三一積十鉅無?化

三天二三地二三人二

三大三合六生七八九

運三四成環五七一妙

衍萬往萬來用變不動

本本心本太陽昂明人

中天地一一終無終一”

나도 속으로 되뇌면서 그 뜻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병호 회장도 두 눈을 감고 천부경을 작은 소리로 읽고 있었다.

이곳에 천부경 액자를 두었다는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회장실을 나왔다. 그 때까지도 비서실에 있었던 차경화가 반갑게 맞아준다.

“잘 되었어요?”

“예.”

나도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몰라도 그냥 대답하였다.

차가 있는 지하층까지 내려가는 승강기 안에서 난 빠른 결정을 해야 했다. 독도로 가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긴 호흡을 다시며 나는 말문을 열었다.

“차경화씨. 나를 서울역에 내려줘요. 급히 갈 곳이 있거든요.”

“아니 발도 완쾌되지 않았는데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면 안 되나요?”

“아 안되요 급한 일이라서.”

둘은 말없이 서울역을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서울역을 마주보고 신호 대기할 때 차경화가 말을 꺼냈다.

“제가 아끼던 펜이에요. 제가 생각날 때 사용하세요. 그리고 제 연락처를 알려 드릴게요.”

하면서 파카 만년필과 메모지를 전해 주었다.

“고마워요. 은혜 잊지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고마웠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신세를 입어보기는 처음이었다.

“다 도착했어요. 몸조심 하세요.”

짧은 만남 속에서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이별이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차장에서 서울역을 걸어가면서 독도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그 때 차경화의 차가 출발하면서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서울역 매표소 앞에는 관광안내소가 있었다. 그곳에는 ‘울릉도 독도관광 2박3일 코스’ 라는 여행상품이 안내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초행길이니 패키지 상품으로 가는 것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상품으로 가면 독도에서도 하루 숙박하나요.”

나의 말에 안내하는 아가씨가 웃으며 대답한다.

“독도는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냥 배를 타고 독도에만 잠깐 내렸다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때마다 일기상황을 봐야 되고 37,500원이 추가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일정표를 참고하세요.”

하면서 일정을 포함한 안내가 자세히 있었다.

새마을호 이용하여 22시에 출발하는 특별 관광열차가 있었다. 지금이 오후 7시니까 세 시간이 남았다. 배가 고파왔다. 그리고 보니 오늘은 제대로 식사를 못한 것 같았다. 밥을 먹어도 될 충분한 시간이었다.

“오늘 갈수 있습니까?”

그 말에 아가씨가 다시 한 번 쳐다보며

“손님. 이 열차는 특별열차이기에 벌써 마감 되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급해서 그런데요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세요?”

내가 간곡히 부탁을 하니 아가씨가 어디론가 몇 군데 전화를 한다. 한참 통화를 하더니 밝게 웃으며 말한다.

“손님 이 열차가 대전에도 정차하는데 마침 그 곳에서 한 사람이 취

소를 하여 자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꾸벅이며 계산을 하고자 가방을 열었다. 아까 이병호 회장이 넣어준 돈이 신권으로 가득 있었다. 대충 잡아 아가씨에게 건네주었다. 여행안내소의 아가씨는 나를 또 다시 바라보다가 돈을 빠르게 세었다.

“7만원을 더 주셨습니다.”

하고는 나에게 건넸다.

“그 돈은 아가씨가 가지세요. 고마워세요.”

아가씨가 어떡해야 할지 망설이기에

“괜찮아요. 제가 꼭 오늘 가야 하는데 표를 구해 주셨잖아요.”

하고 안심시켜 주었다. 표는 이곳에서 출발지가 아니라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좌석문제도 있고 하여 1시간 정도 있다가 찾으러 오라고 했다.

나는 그곳을 떠나 식당가로 갔다. 무엇을 먹을까 한 참을 망설이며 돌아다니다가 스승님이 제일 좋아 하시던 설령탕이 생각나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식당 안은 저녁 시간대라 많은 손님들이 있었다. 바로 음식이 나왔다. 설령탕의 뜨거운 수증기가 안경을 가린다. 숟가락을 들어 입에 가져다 대니 스승님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린다. 공기 밥을 추가하여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열차 시간이 남았는데 이곳에서 있다가 가도 되나요?”

나의 물음에 친절하게도 있으라고 하였다. 일정표와 관광 안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서울역을 출발하여 포항역 까지 새마을호 열차

로 역에서 포항항 터미널까지 버스로 이동하고 울릉도 전역을 관광하고 독도를 살펴보는 코스로 되어 있었다.

그 시각. 관광안내소에는 검은 양복의 차림의 남자가 안내소의 아가씨와 한참동안 말을 나누고 있었다. 아가씨가 여러 곳에다 전화를 하고 있었고 다시 대화를 하더니 급히 사라졌다.

식사 후 표를 받으러 갔을 때, 아가씨는 아까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더 무슨 말을 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으나 나는 아까 사례비로 준 것을 말하려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구경 잘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아직도 시간은 2시간 정도가 남았다. 우연히 주변을 살펴보니 나를 감시하는 듯한 눈길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곳곳에 검은 양복 차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는 듯 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왔다. 출발시간도 남아 있어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서울역 앞의 택시를 황급히 탔다. 그리고 택시 안에서 밖을 감시하면서

“우선 급하게 출발해 주세요.”

나의 황급한 말에 택시는 ‘깍’ 소리를 내면서 출발했다. 순간 여기 저기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핸드폰을 꺼내는 사람 다른 택시를 찾는 사람들…. 그렇다. 이진 음모다.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지금 열차로 갈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울릉도, 독도를 간다는 것도 노출되었단 말인데…. 머리가 복잡해진다.

“대전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에게 말하곤 이제부터 정리를 해야겠다. 스승님과 이병호

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울릉도나 독도에서 뭔가를 찾아야 하는데 위치를 노출시켜 버렸으니 참담했다. 그러나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겠다. 어차피 스승님의 유언대로 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피곤한 몸에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스승님이 보인다.

“갑수야! 너의 행동에 따라 우리나라 국운이 달라진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참으로 무섭단다.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란다. 제발 내가 연구한 바가 잘 이어 갔으면 한다.”

“스승님 스승님…”

“손님 왜 이러세요.”

택시운전사가 깜짝 놀라 깨우면서 난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가 어디쯤 이죠?”

“천안을 지나 옥산 휴게소 근처입니다.”

“그럼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갑시다.”

라면서 난 현금으로 30만원을 주었다. 가끔 택시를 탄 손님이 휴게소에서 사라진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택시가 먼저 가버려도 할 수 없는데… 혼자 웃으면서 화장실을 찾았다.

갑자기 배가 아픈 듯하여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막상 앉으니까 배만 더부룩하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메모지와 펜을 찾다가 차경화가 준 파카 만년필을 꺼내어 써 내려갔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한 참을 쓰다가 만년필에 눈에 갔다. 마치 스승님이 알려주는 메시지처럼….

뭔가 이상했다. 잉크가 들어 있는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 작은 무엇

이 보였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만년필을 단번에 구둣발로 비볐다. 작은 침이 나왔다. 그랬구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서울역에서부터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며….

그렇다면 위치추적이 되어 나를 감시하던 그들도 여기까지도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칩 덩어리를 화장실 물과 함께 내리면서 나는 살며시 화장실을 나와 어두운 가로수 밑으로 들어갔다. 과연 내가 타고 온 택시 주변에 움직이는 몇 사람을 볼 수 있었고 일행 중 한사람이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약간 안면이 있는 듯 한 사람을 노려보면서 캔 커피 두개를 가지고 그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갑작스런 나의 행동에 그 사람이 도리어 놀라고 있었다.

캔 커피를 대기하고 있던 택시 기사에게 하나를 주고 출발하자고 하였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아무래도 대전역에 간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내 행선지가 노출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위치추적 만년필이 없어져서 당황할 것이고 대전에서 나를 찾겠지, 독도를 가려면 포항으로 가든지 해야 하는데… 동대구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탄다면 그들은 이미 포기를 하고 포항에서 기다리고 있겠지. 몇 시간이라도 벌어 볼까?’

“기사님 동대구역으로 가주세요. 국도로 가셔도 괜찮고요.”

하고는 또 다시 잠을 청하였으나 잠이 오질 않았다.

“아침 편지! 이런 스승님의 중요한 편지를 성경 속에서 꺼내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생각이 나다니.”

아무리 경황이 없다 하더라도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안주머니를 황급히 열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 갑수야 이 편지를 읽는 다면 아마도 내 생각대로 잘 되어가도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행동하는 곳에서 목적지에가면 어떤 영감이 떠오를 것이다. 오직 그 영감에 의지하여 마지막 나의 연구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만 잘있거라.” 또 다른 파일에는 다음과 같이 당부의 글이 있었다.

“이 자료에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전해줄 증거물이 되는 추가 자료를 합성하여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 제공하고 또한 반드시 발표할 언론사를 접촉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구체적 증거자료는 여러 가지 보안상 이 자료에서는 밝힐 수 없으니, 자네 스스로 찾아 보도록 하게. 만일 못 찾는다면 역사의 일부가 사라지는 일이야. 이일을 잘 마무리 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만 마치네.”

참으로 역사의 중대한 일을 하는 생각이 드니 한편으론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손님 동대구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동대구역에서 조금 있으니 열차를 타려고 나가는 일행들이 있었다. 요즘은 개찰을 별도로 안하는 자유 입장제도이기에 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갔다.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았다. 수상쩍은 사람도 나를 미행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일행 속에 과묵히 서울에서 출발한 특별열차를 기다리기로 했다. 당초 정차 역은 아니지만 관광열차는 정기노선 열차를 우선 운행시키다 보면 잠시 정차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여행을 통해 습득하였기 때문이다.

과연 30여분을 기다리니 관광열차 새마을호가 서행하더니 멈추고

일부 손님들이 홍익매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다. 표를 확인하고 5호차로 들어갔다. 거의 모든 손님들이 잠에 취해 있었다. 내자리는 어떤 노년의 할아버지가 넓게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깨우기도 곤란하여 기다리는 동안 열차가 ‘덜컹’ 하며 움직이면서 눈을 뜨셨다.

“여기가 젊은이 자리요.”

“네 할아버지.”

“덕분에 편히 잘 왔소. 그런데 웬 젊은 사람들이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고 출발부터 대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참으로 시끄럽게 굴더군…”

상황을 짐작할만 하였다. 휴게소에서부터 갑자기 위치 추적도 안 되면서 대전역에서 타야할 사람이 안 나타났으니 허둥지둥 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젊은이는 며칠 동안 가는 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열차는 2박3일 특별관광코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난 사실 표가 없어서 1박2일로 왔다네. 울릉도와 독도를 다 보고 와야 하는데…”

나는 2박3일 동안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예매한 일정과 다르다면 그들의 추적을 피할 수도 있으며 혼선을 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박2일 이면 부지런히 스승님의 발자취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제가 2박3일 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1박2일이면 되거든요 저랑 표를 바꿔요.”

“아니 젊은이 정말 그렇게 해주겠소.”

“그럼요 어르신한테 제가 헛소리를 하겠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연신 나에게 고맙다고 하였다. 동대구역을 출발하면서 난 잠에 빠져들었다. 피곤함과 안도가 한꺼번에 몰려왔으나 노트북은 꼭 안고 잤다.

포항역에 도착하여 관광버스로 이동하면서 울릉도행 배 출발시간이 남았다고 호미곶 관광을 한다고 하여 같이 움직였다. 그곳에서 제공하는 아침밥을 먹었다. 이제는 주위도 돌아보지 않았다. 호미곶 관광센터에서 점퍼와 모자 그리고 등산 양말 등 복장을 바꾸면서 선글라스도 하나 샀다. 이제 누가 보아도 새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시골동네에서 온 단체관광팀속에 섞여 편히 가고 싶었다.

아침 8시가 되니 승선이 시작되었고 단체별로 먹을 것을 먹고 일부는 화투놀이도 하고 있었다. 난 시골 관광객들이 누워있는 곳에 살짝 합류하여 자리를 차지하고 눈을 감고 있었다. 휴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다행이 날씨가 좋았다. 세시간정도 가니 울릉도에 도착하였다는 방송과 날씨가 쾌청하여 독도 승선자만 배를 이동하여 타라는 안내가 있었다. 나에게 2박3일 권을 할아버지한테서 주어서 표가 없었지만 현장에서 ‘울릉군수’가 발행하는 독도 승선권을 추가로 구매하여 탈 수 있었다.

드디어 독도를 향해 배가 출발했다. 연신 방송을 통하여 안내를 하지만 파도소리에 섞이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 배안에서 파는 책자가 있었다. 여러 가지 독도에 관한 책자와 독도 수비대에 대한 사진을 보았다.

여러 종류의 책이 있었다. ‘독도의 자연’ ‘우리 독도에서 온 편지’

‘강치야 독도야 동해바다야’ 그중에서도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김병렬 지음)의 책이 가슴을 울렸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 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이 노래처럼 독도는 멀리 동해 바다 한복판에 외롭게 서 있는 섬. 수많은 뱃길 갈매기들의 보름자리이기도 하다. 늘 안개가 끼어 있어 외로움을 더해 주면서, 섬 전체가 바위덩어리고 풍랑도 심하고 육지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살기에는 힘든 곳이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바위섬을 일본 사람들은 왜 지금도 탐만 나면 자기네 땅이라고 끈질기게 우길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일본 사람들이 그토록 억지 주장을 펴는 데에는 우리의 책임도 크다.

이 책을 보면 독도에 얹힌 안용복 장군과 홍순철 대장 이야기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마치 우리가 그 당시로 되돌아가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일본이 왜 지금까지 억지는 부려 왔는지 잘 알게 되면서 또 안용복 장군과 홍순철 대장이 독도를 지켜 낸 이야기를 읽고 나면 독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잘 알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탐독을 하고 나니 독도의 역사 독도수비대, 독도의 서식동물들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다. 그때 낮익은 사람 두 사람이 관광객들을 헤치며 다니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었다. 내가 독도로 간다는 것이 노출되었기에 끈질기게 찾아다는 것 같았다. 그땐 이미 난 넓은 모자에다 옷도 바뀌 입고 시골 팀 가운데 섞여 있기에 쉽사리 나를 찾기가 곤란했을 것이다.

“와 독도다.”

관광객들의 환호소리에 난 잠에서 깨어 갑판으로 갔다. 동도와 서도를 잇는 곳에 뽕이 갈매기들이 노닐며 관광객들을 반기고 있었다. 동도의 암벽에 “한국령 ‘이란 한국영토 표지를 음각한 것과 우리 경비대의 시설물이 보였다. 접안을 하고 30분간의 시간을 주었다.

“대체 스승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찾아보라는 것인가.”

답답도 했다. 경찰들이 지키는 곳과 접안시설이 있는 것뿐이었고 독도주민 1호라는 분이 산다는 작은 집도 보였다.

독도에서 울릉도로 돌아오는 길은 상쾌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날씨임에도 몇 편의 시를 쓰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놈들을 생각하니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힘이 솟아났다.

울릉도에 돌아오니 저녁때가 되었다. 일행별로 단체식사를 하여 정렬하는 틈에 난 살짝 빠져나와 가장 시설이 좋아 보이는 숙소로 가서 “하룻밤 잘 수 있는 방을 주세요.”

“단체손님 아니세요?” 묻는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조용한 방으로 주시고 방값은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반색을 하며 이층의 창가 조용한 방으로 안내를 한다.

“개업한지 한 달이 됐는데 특실이라 방값을 10만원은 줘야하는데요…….”

그 말에 5만원을 더 얻어 주었다. 반색을 한다.

“죄송하지만 식사는 간단히 방으로 갔다 주셨으면 하는데요.”

하며 2만원을 더 주었다.

“네네 맛있게 차려드리겠습니다.”

나를 허둥지둥 찾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식사를 하고 노트북을 충전기에 꽂아 놓고 핸드폰도 충전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 시건장치를 하고 불도 껐다. 이제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뱃고동소리와 관광객들의 놀이소리만 드리는 동해 울릉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가고 있었다.

“따릉 따릉 ……”

전화벨소리에 새벽에 잠이 깨었다

“정갑수 선생 참 잘하고 있소. 생각보다 당신은 뛰어난 사람ियो. 당신을 뒤쫓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인데도 헤매고 있으니 내가 통쾌하오. 날이 밝으면 즉시 울릉도 전역을 산책하시오. 그곳에서 스승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스승님이 피살되기 전 1주일, 이곳을 다녀가셨소.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스승님의 발자취를 찾으면 정 선생의 일은 마무리 되는 것이요 부디 건투를 비오. 그리고 숙소 안내 데스크에 새로운 등산복장과 장신구가 있을 것이요 또 다른 변장술로 활용하길 바라오. 이만 끊겠소.”

발 빠르게 움직였다. 여명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숙소 안내데스크에 부탁하여 물건을 갖다 달라고 하여 옷을 차려입고 나왔다. 노트북등 중요서류를 배낭에 잘 보관할 있도록 스펀지와 특수처리 되어 있었다. 가지고 있던 옷은 모두 옷장 깊숙이 넣어 두었다.

울릉도의 아침은 상쾌했다. 전날의 폭풍이 가라앉아 조용하고 뱃고동소리가 은은히 들리고 멀리서 오징어 배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손전등이 필요한 여명 이었다. 등산코스는 울릉도의 관광명소인 독

도 해돋이 전망대 케이블카 주변이었다. 이른 시간임에도 해돋이를 보려고 일찍 와 있었다. 사람들과 섞이어 전망대를 올라가니 그곳에 이런 푯말이 있었다.

“맞다. 스승님은 독도에다 자료를 숨겨 놓으셨을 지도 모른다.”

전망대를 내려와 숙소에 와서 급히 노트북을 켜다. 어제 독도에 관한 공부를 하였을 때 독도의 유일한 주민 김성도씨가 생각났다. 그리고 스승님이 신문자료 스크랩한 것을 보았다. 경상북도 도지사와 전화개통을 하였고 그 번호가 1693번이르는 것도 알았다. 이 전화는 경상북도와 독도의 정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KT대구 본부와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용 무선전화기에 장거리 통화가 가능하도록 특수 개조하여 본체는 동도에 1기는 서도에 비치하여 통화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부여된 번호 1693번은 숙종 19년인 1693년에 안용복이 1차로 일본에 건너간 해로 일본에 건너가 호키슈(지금의 일본 도토리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에도 막부로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문서를 받아낸 해를 의미하는 전화번호이기도 하였다.

“왜 이 생각을 못했지 ……”.

즉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다.

“김성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호 교수님 제자입니다. 아침 일찍 전화 드려 죄송합니다. 한민호교수님과 어떤 연락관계가 혹시 있었나요?.”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교수님이 제에게 어떤 자료를 주시면서 제자라는 사람 이외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십니까?

“아 저는 지금 울릉도의 숙소인데 10시배로 포항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곳 경찰순시선이 곧 나가는데 제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교수님이 전달을 조심스럽게 하시라 하여 오징어 선물세트로 위장하여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아는 척 하고 물건을 주고 받기로 하죠.”

이제야 뭔가가 풀리는 듯 했다. 시간이 빨리 갔으면 했다. 아침 해장국을 먹고 경찰순시선이 입항하기만을 기다렸다. 항구 주변은 역시 정막 속에서도 일부 경찰과 수상쩍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점점 눈에 띄게 늘어만 가고 있었다.

드디어 순시선이 도착하였다. 김성도씨로 보이는 사람이 오징어 선물세트인양 작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를 발견하면서

“어이 처남 이것 장모님께 잘 갔다 드리게”

주변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김성도씨는 울릉도, 독도에서는 VIP이었다. 경찰 한명이 대신 받아 나에게 친절히 전해 주었다. 덕분에 나는 김성도씨의 처남으로 신분이 바뀌어 그들의 에스코트를 받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서로 어색하지 않게 손을 흔들며

“매형 잘 가세요 안부 전해 드릴 게요.”

나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다.

경찰순시선은 접안도 않고 다시 되돌아갔다.

경찰 몇 명이 다가온다.

“이리오시죠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포항 가는 여객선의 개찰도 안했는데 승선시키며 승무원들에게 특별히 잘 모시라고 부탁하였다. 기관실 안에 선장실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곳으로 안내해 주었다.

“이곳에서 포항도착하실 때까지 편히 계십시오. 이곳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감시를 피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선 김성도씨가 준 자료를 펼쳐보았다. 실제 울릉도 오징어 몇 마리와 책 한권이 들어있었다. 포장을 뜯어보니 CD케이스 이었다. 이곳에 나머지 자료를 저장하셨을 것이다. 한참이나 CD를 가슴에 안고 스승님의 체취를 느껴보고자 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다.

여기에도 비밀번호가 있을 텐데 …….. 노트북을 꺼내어 부팅을 했다.

스승님과의 관계를 총정리하면서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보았다.

역사왜곡, 역사진실, 천부경, 일시무시 …….. 독도, 독도 김성도, 한민호, 이병호, 차경화 등 사람 이름까지 수없이 입력해 보았으나 모두 오류였다.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침착하자. 처음부터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여 보자
USB, 성경, 읍기, 삼성그룹, 천부경 …….. 아마도 이곳에 근접할 것이라는 영감이 들었다.

“영감으로 움직여라.”

스승님의 말씀대로 차례차례 입력과 조합을 계속해 나갔다. 2시간을 해도 진땀만 났다.

“부웅 ……..”

뱃고동소리가 들리며 배가 출발한다

“아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웬 검문검색이 심한지 배가 1시간이나 늦게 출항합니다. 이런 일은 좀처럼 없었는데요.”

묻지는 않는 말은 승무원이 나에게 친절히 해준다.

나를 찾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비밀리 있으리라곤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울릉도 2박3일 일정동안 계속 있으리라 추측하고 더욱 검문검색을 강화하겠지 …….

배가 출발하면서 줄음이 왔다. 긴장이 풀려서 인지 뱃고동 파도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면서 잠에 빠져 들었다. 그러면서도 노트북은 꼭 안고 잤다.

“손님 일어나세요. 포항항에 정박 중입니다. 매우 피곤하셨던 모양입니다. 잠꼬대도 많이 하시고 코도 고시고 …….”

포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잡아탔다.

“서울로 가주세요.”

노트북을 다시 연결하여 스승님이 주신 USB와 CD의 암호를 푸는 것이 급선무였다.

아무래도 숫자와 조합된 암호일 테니까 성경욥기8장21의 ‘욥기821’을 쳤다.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역시 쉽지 않았다.

욥기와 천부경이 조합된 모습이 갑자기 떠오른다.

“욥기821천부경”

아니다.

“천부경욥기821”에 문서가 작동되었다.

“와!”

저절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운전기사가 깜짝 놀란다.

첫 문장부터 스승님의 글이 나온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 갑수야. 암호를 풀었다면 즉시 먼저자료의 증빙내용이므로 자료를 보면서 재 편집하여 정리하길 바란다. 그리고 믿을 만한 언론사에 반드시 보도를 조건으로 자료를 넘겨줘라. 그러면 네 임무는 끝난다. 그리고 역사왜곡을 알리고 바로잡는 새로운 시작의 원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CD와 USB의 저장 자료는 같은 내용이다. 만일을 대비하여 백업하여 만든 것이다. 그동안 좀 혼란이 있었겠지만 말이다. 고맙다. 그럼 잘 있거라.”

생각보다는 간단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다 내가 확보하고 있으니 스승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았다.

우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친분이 있는 ‘대한일보’의 김정수 기자와 월간 ‘신세상’의 김현미 기자한테 연락하여 사태의 중요성과 반드시 특집화 시켜줄 것을 신신 당부하고 다짐을 받으면서 메일로 전송시켰다.

기다리는 시간이 한 없이 지루했다. 마침 극장가에서 ‘미안하다 독도야’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나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어 개봉되자마자 조조시간대로 예매를 하여 영화를 감상하였다. 을릉도에서 만난 김성도씨를 주인공으로 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 우리 한국인에게 독도는 가깝고도 먼 섬이다. 누구나 독도를 알고 그곳이 한국의 영토임을 알지만, 독도가 어떤 섬이며 왜 한국의 땅인지 설명하려면 그곳은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멀게 느껴진다.

〈미안하다 독도야〉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

터리다. 영화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90%가 넘는 세계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설명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했던 이 내용을 다큐멘터리가 굳이 다시 짚는 건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꼬집기 위함이 아니다. 정부에 의한 큰 변화가 어렵다면 작은 변화부터 추진하자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영화는 전국 곳곳에서 독도 수호를 위해 힘쓰는 이들의 작은 움직임을 카메라에 담는다. 즉, 〈미안하다 독도야〉는 개개인의 마음에 비친 독도를 조명해 결국 한국인에게 독도란 어떤 존재인지를 고찰하는 의도의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멘터리의 공적은 그야말로 ‘발품’이다. 〈미안하다 독도야〉는 장면마다 제작진의 고생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씨 부부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처럼 독도문제가 부상할 때마다 조명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독도 사랑을 외치는 프리허그 단체나 독도 앞바다에 6천명 한국인의 손도장 프린팅으로 만든 초대형 태극기를 띄운 동아리 ‘생존경쟁’ 처럼 낯선 이들의 기록 또한 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독도에 삼살개를 기증한 교수나 자신의 전시회에 언제나 독도 그림을 포함시키는 미술가 인터뷰에 이르면 ‘독도’라는 이름에 관련된 일반인은 모두 만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가 ‘발품’에 비해 얼마나 새로운 볼거리와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김장훈의 내레이션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경계하지만, 이 영화 역시 어느 정도는 한국인의 애국심에 호소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태극기와 <아리랑>, 애국가가 등장하지 않는 독도 영화를 기대하기란 역시 무리였을까. <미안하다 독도야>가 독도를 다룬 첫 번째 영화라는 점을 떠올리면,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지나친 욕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 관광객이 독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30분이다. 김성도 이장 부부와 등대지기, 독도관리소와 독도경비대 직원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독도에서 숙박할 수 없다. 독도에 홀로 살고 있는 김성도 씨 부부의 사람 냄새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와 초등학교부터 80대 노인까지 독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다.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가 쉬고 있다가 저녁 뉴스를 보자니 독도에 관하여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일본이 패전 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이 허구라는 사실이 일본 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이 1951년 6월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공포한 '대장성령 4호'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 제외한 내용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부령 24호'는 전후에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의 세 부 사항을 정한 것인데, 이 법령은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장성령 4호'는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 이 법령도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부속도서

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연금 지급을 위한 이 특별조치법은 일본인을 혼슈와 홋카이도를 비롯한 4개의 섬과 그 부속도서 등에 거주지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법령은 일본 정부가 직접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의 일본영토 제외 법령들은 한일회담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에 의해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한일회담 관련 문서 6만 쪽을 최 변호사에게 넘겨주면서 이 법령과 관련한 일부분을 검은 줄로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입수한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1951년 법령 2건(총리부령 24호, 대장성령 4호)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기쁜 날 스승님이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쉽게 생각되면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새벽 비상 핸드폰이 울려 곤히 자는 나를 깨웠다.

“정갑수선생 그동안 수고가 많았소. ‘대한일보’에서 특집으로 오늘 기사화 되었고 월간 ‘신세상’에서는 특별기사로 나온 것을 확인하였소. 내일 인천공항으로 가서 필리핀 세부에 가서 폭 쉬고 계시오. 돌아오면 다시 연락하겠소. 정말 수고했소.”

다음날 인천공항에서 출국준비를 하는 데 멀리서 차경화가 보였다. 갑작스런 출현에 나는 당황되었다.

“해외여행을 가시는 모양이죠?”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아! 예 경화씨도.”

“네 일본에 당분간 있을 겁니다. 전화도 안주시고 서운했어요. 핸드폰이 로밍 되었으니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충충히 가는 모습이 측은해 보였다.

그 시각 10시. 10월 3일 개천절이었다. 공항 출입국 로비에서는 개천절 행사가 생중계 되고 있었다. 경축식장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생중계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낭독이 이어졌다.

“오늘은 개천절 입니다.단군의 개국기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민족의 시조이신 단군 왕검께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신 날이며 올해는 그 사천삼백사십일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국가가 창시된 날이며 동시에 우리민족이 높은 정치적 이상과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거룩한 명절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민족의 통일국가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고, 현재 다방면으로 남북의 대화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맞이하는 감회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단군의 자손으로써 하나 된 민족공동체를 향하여 성큼 다가서면서 단군의 개국정신과 개국기원이 가진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의 개국기록은 고려후기의 일연선사가 지은 삼국유사와 이승휴가 지은 제왕운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제이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홍익인간의 큰 뜻을 품고 권위의 상징인 삼부인 3개를 가지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풍백, 우사, 운사 3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들 단군왕검은 다시 아사달에 도읍하고 조선을 개국하였는데 그 시기는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훗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와 옥저, 부여, 예, 맥 등이 모두 이 단군의 후예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단군의 개국사실을 전하는 기록은 고려시대 이후의 문헌에 남아 있지만 그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기억해왔고 구전해 내려오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재 고옥이라고 불리우는 문헌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의 위나라의 역사책인 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군의 사적은 단순히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찍이 황하문명의 발상지에 우리민족도 이미 국가를 세우고 발전하게 되었음을 전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군의 개국고사는 우리 민족에게 많은 교훈과 지혜를 주는 것이며, 우리의 민족정신에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환웅께서 제시하신 홍익인간의 이념은 우리의 역대 통치자들에게 인본주의와 인도주의를 깨우쳐 주었고 우리민족 모두에게 진정한 인간애와 인도의 정신, 인간존엄의 평등사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민의식과 자긍심을 심어 주었고, 단군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시조임을 천명함으로써 우리민족을 하나로 묶어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족사의 유구함과 민족정신의 긍지가 담겨있는 단군고사는 외세의 압력에 시달리는 고난에 처할 때마다 국난극복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찍이 몽고대국의 침입을 받았던 고려시대에는 이 단군 고사가 우리 민족에게 천신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민족의 대동단결의식을 깨우쳐 국난을 극복하는 힘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후 조선왕조가 개창된 후에도 단군 숭배사상은 더욱 고양되었습니다. 태종 때 문신 문계량은 우리 동방의 시조 단군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나라를 세운 것이지 중국의 천자가 분봉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중국과 대등한 독립국가임을 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에는 평양에 단군 사당을 마련하였고 세조 때에는 명나라 사신으로 하여금 단군 사당에 참배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대에 접어들던 20세기 초에 일제의 침략을 받아 우리민족이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 단군정신으로 민족을 지키자는 정신적 자주운동이 일어나 마침내 대종교가 창시되었습니다. 대종교는 일제로부터 갖은 시련을 받으면서 시종 단군 탄생을 기념하는 음력 10월3일에 제천일 행사를 거행해 왔습니다.

1919년3월1일 독립기념 만세운동 후 수립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개천절 행사를 국가의 공식적 행사로 거행하여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에 결연히 맞서 싸웠습니다. 1945년 광복절과 함께 개천절은 온 국민의 축제일이 되었고 1948년9월에는 단군기원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단군기원은 여러 학설 가운데서 당요 무진년 설을 취하여 기원전 2333년을 단군기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천절을 대한민국의 경축일로 경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국기원에는 민족의 얼과 정기가 배어 있으므로 개천절을 맞이하여 온 국민이 개국기원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단군의 후예인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개천정신을 깊이 체득하여 하루속히 민족통일을 이루고 화합과 단결 속에서 영광된 조국을 건설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개국기원의 유래와 그 정신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개천절 행사가 끝남을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국을 위해 국제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역사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일본의 일제 강점기와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일부 학자들이 동조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는 현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설 “독도”를 썼다. 이 독도를 통하여 역사에 대하여 우리민족의 우수성과 중국의 동국공정의 실체와 왜곡을 막았으면 한다. 그리고 일본의 만행에 대하여도 한층 더 경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 두 사람이 힘으로 안된다. 뭉쳐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역사를 찾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찾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부족한 글을 선정하여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예술성 진작에 도움을 주는 행안부 관계관에게 감사를 표한다.

밴댕이와 아퀴나스



경기 가좌초
기 은 영



선순은 뒤척이는 현우의 기척에 언뜻 눈을 떴다. 얇은 커튼 틈 사이
진한 코발트로 가라앉은 창이 보였다. 아직 색까지는 분간할 수 없
으나 커튼의 자잘한 무늬들이 섬세하게 떠오르는 걸 보면 머지않아
동이 틀 모양이었다.

‘잠을 더 자줘야 해. 봄은 못 건디게 피곤한 계절이니까.’

선순은 질끈 눈을 감았다. 이 때 침대가 다시 빼격대었다. 현우는
이제 완전히 잠에서 깬 모양으로 뒤척임도 숨소리도 명료했다. 곧이
어 함께 덮고 있던 극세사 이불이 소리없이 들추어지며 더운 기를
품은 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선순은 그 느낌 하나하나를 등뒤로 헤아리고 있었고 그 바람에 팔다리에는 소름이 돋았다.

예상했던 대로 그 손은 그녀의 등을 타넘어 양가슴을 더듬거렸다.

선순은 가슴에 느껴지는 집요하고도 몽클한 징그러움을 꼭 참고 잠든 채 하느라 감은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조금만 참으면 제 팔에 그만 두겠지. 무안해서라도. 입안에 가득 고인 욕지기를 가까스로 삼키느라 선순은 머릿속까지 근지러워 견딜 수 없었으나 그 손놀림은 좀체 멈출 생각을 았았다. 잠결에 뒤척이는 체하며 팔꿈치로 그의 손을 걷어 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녀의 귓바퀴에 뜨건 김을 불어넣으며 현우가 속삭였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

그의 입에선 졸아 붙은 침 냄새가 났다.

“미안해. 피곤해.”

아직 잠결인 듯 꾸미며 느릿느릿 말해 보았다. 그의 축축한 입김을 쐬 귓바퀴가 간지러워 견딜 수 없었다. 역시 잠결에 하는 양으로 자라처럼 목을 움츠려 어깨에 귀를 문지르며 그의 입김을 닦아내었다.

“잠깐이면 돼. 부탁이야.”

“정말 미안한데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내일.”

성마른 목소리를 간신히 지질러 낮게 말했으나 선순의 귀에도 자신의 목소리는 남의 것 같았다.

“맨날 내일 내일 한 지가 벌써 한달 켜야. 너무하네. 진짜.”

더 이상 잠자기는 틀린 모양이었다. 선순은 그게 무엇보다 분했다. 이제 곧 싫어도 일어나야 하는데, 겨울보다도 시린 봄바람을 맞으며 니 집 안에서 뒹굴며 지냈겠지, TV도 보고 낮잠도 자면서. 변변히

돈도 못버는 주제에 바치기는. 입을 조금만 달싹여도 이내 말로 되어 튀어나올 것 같은 생각에 선순은 치를 떨었다.

‘쿵’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미 거칠게 일어나 앉은 그가 주먹으로 방바닥을 쳤던 모양으로 애써 의연한 체하려 했으나 돌아누워 있는 그녀조차도 움찔거리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 주먹이 자신의 머리를 으깨버릴 것 같은 두려움으로 가슴이 줄아 붙었다. 선순은 태아처럼 몸을 달싹 웅크리고 두 눈을 꼭 감았다.

“마치 버리지 보는 듯 하는군.”

때려 부술 듯 문을 닫고 현우가 방을 나가자 그 바람에 헤집어진 공기가 갑자기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대체 좀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난리법석은 대체 무엇이었나? 문득 아연해진 기분이었으나 현우가 속삭이던 왼쪽 귀만은 아직도 ‘지잉’ 울리고 있었다.

‘버리지’ 선순은 정곡을 찔린 기분이었다. 한 번도 선순이 입에 올린 적은 없었으나 현우에게서 느껴지는 이 징그러움을 달리 무슨 말로 표현할 것인가? 온 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스멀스멀 기어올라 자신의 돌아오른 소름구멍을 매울 듯 파고만 들어오는 버리지. 조그만 틈입만 있어도 헤치고 들어와 온 몸을 살살이 뒤져내어 제 몸에 있는 축축하고 끈적이는 물기를 톱 토해놓고 가는 버리지. 현우가 그 걸 알고 있었던 말이지. 알면서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노릇을 그만두지 못했던 말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본능일 테지. 선순은 세상에 암컷과 수컷이라는 두 족속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인간의 몸 속에 심겨진 무자비한 동물적 본

능이 현우에게 이처럼 비참한 느낌마저 감내하며 한없이 비천하게
기어다니도록 한다면 그 또한 가련한 일이 아닐 수 없으리라.

‘어디서부터 잘못 된 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돼 버린 걸까?’

연애시절 현우는 곧잘 진정어린 말들로 그녀를 젖어들게 했다. 그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열어 제길 열쇠 같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

“오늘 밤은 같이 있어 줘요. 정말 부탁이에요.”

선순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돌아서자 현우는 목울대가 맺돌 같은
것에 몹시 지질러지거나 한 듯 가까스로 이렇게 말했다.

“내 전(全) 존재가 흔들릴 만치 이걸 갈급한 부탁이에요.”

그랬다. 현우는 ‘전 존재’ 라고 말했다. 얼마나 갈급한 것이기에 존
재가 다 흔들리는 걸까? 작달막한 키에 둥근 듯한 얼굴, 남자로서 몸
시 희고 매끄러운 피부, 현우는 그날 평소 푸른 빛이 돌 만큼 정갈해
보이던 흰자위를 붉히고 있었다. 그리곤 눈에 띄게 떨리는 손으로
성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순은 목마르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현우가 진심으로 가없어졌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
인가? 그 순간 가슴에서는 둔중하게 징이 울리며 그 진동으로 인해
그에게 잡혀있는 자신의 손끝까지, 디디고 섰던 발끝까지 핏줄기가
파도쳐 출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만약 현우가 또 다시 전 존재가 흔들릴
만치 갈급하다고 했더라면, 선순은 후후 웃고 말았다. 전 지구가 아
니, 전 우주가 흔들려 폭발할 만치 갈급하다 해도 끄떡이나 했을까
싶어서였다.

현우를 만난 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연인과 헤어지고, 다니던

은행에서마저 어이없이 해고된 직후였다. 이제껏 단단히 닫고 켜던
 곳이 허방이었음을 깨달은 후, 그녀는 한없이 추락하는 망상에 시달
 리곤 했다. 숨쉬고 먹고 자는 일조차 새삼스럽고도 기이한 일처럼
 낯설어 건디기 힘들던 시기였다. 한동안 열등감과 배신감이라는 질
 곡에서 선순은 스스로를 버텨낼 방어기제를 갖지 못했다. 두려움을
 우회할 만한 그 어떤 핑계거리도 갖지 못했으므로 선순은 고통 속에
 오히려 자신을 내던져 버리는 쪽을 택하기로 했다. 끊임없이 자신을
 고통과 직면하게 함으로써 자학적 쾌감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옛사랑과 그녀의 연적(戀敵)이 함께 거닐던 길을 홀로 걸어본
 다는지, 그들이 자주 가던 음식점에서 그들이 시켜 먹었을 법한 음
 식을 혼자서 꾸역꾸역 먹어본다든지, 그들이 서로를 만지고 보듬는
 장면을 몇 번이고 리와인드시켜 떠올려 본다든지 하는 것 말이다.
 마치 편타고행(鞭打苦行)하는 수도사처럼 스스로를 괴롭히고 고문
 하는 동안 만큼은 잠시 슬픔도 잊을 수 있었다. 그러한 순교자적인
 고양감은 그녀에게 짧은 구원이 되어 주었다. 현우를 만난 것은 그
 즈음이었다.

시간인가 보죠? 그리고 보니 책 읽은 지도 오래 됐네.

선순 자신에겐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그리움이 담긴 눈길, 진수
 는 그렇게 민지를 바라보았었지. 부신 빛살 저 너머 꿈결 같은 사랑
 을 찾아 안타까이 헤메이는 눈빛. 등땀기에 내리쬘히는 사나운 매질
 을 우명한 눈을 한 채 지그시 당해내며, 소태 같이 쓰디쓴 침을 게워
 내고 또 삼키는 늙은 암소의 얼굴로 선순은 진수와 민지가 준 아픈
 기억을 되새기기 시작했다. 피돌기가 빨라짐에 따라 심장도 빠르게

움직였다. 좋은 징조였다. 좋은 재질로 만든 채찍을 발견한 것이다.
밤고양이처럼 히번득거리는 눈으로 지체 없이 집을 나섰다.

“이렇게 큰 서점에 책이 없다니요?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성마른 다급함으로 목소리는 불불이 갈라져 나왔다. 선순은 기필코 그 책을 손에 넣고 싶었다. 그 책이야말로 그녀에게 순수한 아픔을 가져다 줄 것이기에. 하지만 동네 서점부터 시작해서 종로의 대형서점 Y문고까지 뒤졌는데도 그 책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J서적. 층마다 다른 종류의 책들이 진열되어 경우에 따라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같은 층에서도 구름다리를 건너야 하는 웅색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뭘지 믿어도 좋을 것 같은 신중한 분위기가 그 곳엔 있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선순은 끝까지 매달리고 싶었다. 선순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책을 손에 넣어야 했던 것이다.

“‘지극히 낮은 숨결’ 이라고 하셨죠?”

“네, 이인성의 ‘지극히 낮은 숨결’ 이요, 출판사는 기억나지 않지만요.”

여점원과 함께 국내 소설 서가를 몇 번이고 이 잡듯 뒤져보아도 그 책은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점의 자존심을 걸고 혹은, 인사고과에 반영될 고객만족도를 위해서도 여점원은 열심히 책을 찾는 모양이었지만 역시 허사였다.

“저, 혹시 ‘한없이 낮은 숨결’ 아닌가요? 그 책 제목 말예요.”

도무지 책은 찾아지질 않고 등 뒤에서 미친 개처럼 채근해 대는 여자에게 시달리느라 두 눈이 쾅하던 여점원은 구세주를 만난 듯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반짝 돌렸다.

“그 책이라면 여기 꽃혀 있는데. 이인성씨 작품이라니까 맞을 거예요.”

그 남자는 책을 직접 뽑아 선순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다.

“많이 알려진 작가가 아닌데, 문학 공부 하시는 모양이세요?”

‘문학 공부?’

어지러운 꿈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차리고 이제껏 제 손에 들려져 있던 피 묻은 채찍을 보며 선순은 주저앉을 듯 아연했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 내가 잠시 미쳤던 거로구나.’ 정수리에서부터 뜨건 물을 뒤집어 쓴 듯 얼굴이 화끈거리고 컷불까지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선순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다. ‘푹’ 맥없이 호리병의 마개 뿜히는 소리가 들렸다. 터질 듯 부풀기만 했던 풍수치곤 너무도 어이 없는 결말이었다.

“저도 그 분 소설을 몇 편 읽었는데 인상적이긴 해도 좀 어렵더라고요.”

웃는 눈이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하고 있다 말했다. 선순은 그와 헤어지며발음도 생경한 철학자의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토마스가 줄여서 톰이라고도 불리우는 흔하디 흔한 서양 이름이란 것쯤은 그녀도 알았다. 하지만 알파벳 철자야 어찌 되었든 한글로 바꾸어 적었을 때 도저히 친근해 질 수 없는 ‘퀴’ 자가 박혀 있다니 도무지 사람 이름 같게 느껴지질 않았다.

‘아퀴나스 아퀴나스’ 선순은 입술을 긴장시켜 양 옆으로 활처럼 당기듯 신중하게 또 한번 소리내어 보았다.

“왜 있잖아요?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교부 철학자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죠.” 무엇을 공부하고 있느냐는 말에 현우는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 답했고 그런 그에게 선순은 용기를 내어 중세 철학자가 누구예요 하고 물을 수는 없었다. 그 대신 선순

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커다란 눈을 한 번 꾸뚱뚱하고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마주보았더니 현우는 얼른 친절하게 덧붙였던 것이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탄력을 잃은 얼굴을 한 채 가까스로 ‘그렇군요.’ 하면서 선순은 동시에 그녀가 10년 전에 졸업한 여상의 교육과정을 떠올려 보았다. 상업과 주산, 부기, 회계, 타자. 물론 국어와 수학도 배웠다. 영어는 상업 영어라는 제한을 두긴 했지만 배우긴 했다. 하지만 그 당시 주요 과목으로 떠오른 정보처리 과목-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산용 단말기를 대체하는 pc가 보급되며 정보처리 과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목으로 급부상했다.-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더구나 현우가 말하는 세계사 같은 과목은 배워 본 적도 없었다. 요컨대 선순은 보다 실용적인 것, 막바로 배워 써먹을 수 있는 것을 배워 왔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실용적인 공부를 한 것-자랑거리라 생각해 본 기억도 그녀에겐 정녕 없었다.

‘아 그랬구나.’ 커피숍 문을 나서며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한없이’를 ‘지극히’로 착각할 수 밖에 없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건 그 부사의 지극히 비슷한 쓰임에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선순 개인적인 사연에 기인함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한없이 지루하고 지극히 의미없는 반복’ 그것은 여고시절 그녀의 주문이었다. 그녀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구분지으려는 안간힘.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가없이 여기며 헛바닥으로 활는 동물의 언어. 열등감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마지막으로 잡아보는 지푸라기. 그것은 그녀에겐 마법의 언어였던 것이다.

강화도 척박한 땅, 그것도 몇 뼘기 갖질 못한 빈농의 다섯째 딸로 태어나 고등학교일망정 서울 유학을 할 수 있었던 건 막내딸만은

변변한 고등학교를 보내고야 말리라는 어머니의 양다문 각오와 용돈푼은 댈 수 있어진 네 언니들의 의논 덕이었다. 그 무렵 어머니는 머릿속으로 읊내 새마을 금고 아가씨의 눈부신 유니폼을 막내딸에게 입혔다 벗겼다 하며 히죽대곤 했다. 그리곤 미친 여자 같은 신명으로 쑥쑥 맨손으로 갓을 뽑았었다.

온 가족의 응원을 등에 지고 서울의 명문 여상에 입학했건만 그녀는 한 학기도 못 되어 걸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35원이에요, 278원이에요 하면서 주판알 한 알을 떨어내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분명 널렸을 것이다, 가치 있는 일이 너무 거창하다면 말을 바꾸어도 좋다. 적어도 그런 일들이 내게 전혀,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는다. 내 마음을 울리지 않는다. 제 머릿속에서 자꾸만 비어져 나오는 이 엉뚱한 생각에 선순은 당황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한 번 든 생각은 어떻게 해도 바뀌질 않았다. 그게 또 너무나 괴로웠다.

그렇다고 그렇게 건방진 생각을 할 만큼 선순이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다. 상큼한 서울내기 틈바구니에서 그녀는 눈치 없는 데다 아둔하기까지한 시골아이일 뿐이었다. 졸업 후 취업해서 고객을 상대하는 최전선에 투입되어야 할 타이프로 여상 학생들은 꼼꼼한 서류 정리나 빠르고 틀림없는 타자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양증맞은 펜글씨 쓰기, 아기자기한 꽃꽂이, 고객을 맞이할 세련된 로비 꾸미기, 예쁘게 옷입기, 화사하게 화장하기. 고용주를 만족시킬 쓸모 있는 자격증과 고객을 감동시킬 예쁜 포장이 국영수 공부보다 몇 갑절 중요한 학교를 다니면서도 꼼꼼하질 못했고 손재주가 아물지 못한 것은 생각할 수록 그녀에겐 애석한 노릇이었다. ‘쓸모와 예쁨’ 다른 학생에 비해 그녀에게 턱없이 부족했던 걸 요약하자면

바로 그것이었다.

정지간에서 승냥 한사발을 떠오더라도 언니들보다 몇 갑절 요란한 소리를 냈고 어둑신한 구석에 올려 놓았던 찬그릇을 얹어놓기 일쑤이던 그녀.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년 또 깨박을 치는구만.’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갈퀴 같이 투박하고 모진 어머니의 애정을 느꼈을지언정 사람됨의 결격사유나 아둔함으로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무엇이든 빠르고 신속하고 틀림없으며 보기 좋고 예쁘게 꾸며야 하는 공부에 그녀는 점점 넋더리가 났고 그러다 슬슬 겁이 났으며 종당에는 참을 수 없이 서러워지기 시작했다.

“새끼 손가락에 힘을 쥐서 치란 말야. 쿨론과 물음표를 자꾸 놓치잖았.” 거 봐라 하는 표정을 지으며 스톱워치를 눈 앞에 들이대던 타자 선생을 그녀는 적어도 그리워 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00기업의 분개장(分介帳)과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이다. 0일 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자산·부채·소유자지분 등으로 나타내시오.’ 하는 문제는 ‘㉠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에서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마음은 어떠한지 쓰시오.’ 같은 문제와 전적으로 달라서 뜻이 통하면 다 맞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틀림이 없고 꼼꼼한 아이가 아니었던 선순은 종종 본래 생긴 것보다 훨씬 못나 보이곤 했었다.

마음만 먹었다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넉넉히 입학하여 제법 호령할 수도 있었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점점 뒤뚱맞고 얼빠진 학생이 되어갔다. 그렇다고 ‘솔모와 예뻐’ 을 두루 갖춘 아이들이 못견디게 부럽거나 눈부서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그녀가 생각해도 그건 참 신기한 노릇이었다. 그녀는 그때부터 자주 ‘한없이 지루하고 지극히

의미없는 반복'이란 주문을 되뇌었다. 그러면 얼마간은 좀 견딜 수 있어졌다.

어느 날 등교 준비를 하느라 곱슬기가 있는 머리를 빗어 내리며 거울을 보았을 때였다. 흰하고 높은 이마에 술검댕이 같은 눈썹, 술 많아 탐스런 속눈썹에 한번 감았다 뜨기만 해도 꾸웁 소리가 날 듯한 눈, 눈에 물을 대면서도 발에 비료를 뿌리면서도 작은 바람만 불면 어느 새 날아가 버리는 풀씨 같이 가뭇하지만 허전한 얼굴, 거울 앞에서 그녀가 본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일순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조롱조롱 다섯 딸과 후줄근한 마누라가 두런두런 모여 앉은 밥상 머리에서 찌개를 떠먹으면서도 아버지의 눈길은 언제나 머언 곳을 향해 있는 듯 아득했다. 모내기철이면 으레 논 주인이 내 오는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면서도 아버지는 불쾌한 얼굴로 걸쭉한 농담이나 해썰는 다른 집 아저씨 같질 않고 그저 색시같이 말개진 얼굴로 희미하게 웃음만 떨 뿐이었다. '사는 게 어찌면 이리도 허허로우냐.' 하듯 텅빈 눈길을 보이는 다음날이면 틀림없이 고치처럼 불룩한 빈 이부자리를 남기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곤 했다. 나비처럼 날개가 달린 듯 미련도 없이 빈 고치만 남기고.

선순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대학가요제에서 입상한 노래 한 곡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노래의 제목은 '내가'. 선순은 그 노래만큼 아버지를 잘 표현할 노래가 달리 없구나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이 세상에 슬픈 꿈 있으니'로 시작한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는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소. 내가 님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아버지가 품었던

것이 슬픈 꿈이었는지는 끝내 아리송했으나 말이 없는 방랑자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한없이 지루하고 지극히 의미없는 반복’. 그 주문이야말로 아버지가 자신의 몸 속에 떨구고 간 유전자의 속삭임일지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알량한 자부심일지도 모른다고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다. ‘한없이 지루하고 지극히 의미없는 반복’. 수없이 되뇌이다 보면 멀지 않은 곳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배웠던 공부는 지루하기는 할지언정 그녀에게 의미없는 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었다. 지그시 앓다문 잇새로 배어나는 걸쭉한 침을 뱉지 않고 삼키는 법. 갓잎썩이든 썸바귀든 자꾸 뿔아내다 보면 어느새 굳은살이 박혀 아픔도 느끼지 않게 되어있음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굳은살이 박힐 때까지는 어찌 되었든 참아내야 한다는 무자비한 참을성. 이는 반대로 어머니 쪽에서 물려 받은 피내림일 지 몰랐다.

내리 딸만 다섯을 낳은 어머니는 아들 못 낳은 죄값을 온전히 혼자서 떠맡기라도 하려는 듯 큰 소리 한 번 못치고 기죽어 지냈었다. 얼굴은 늘상 벌췌게 부르트고 차가운 바닷바람에 못 이겨 머리칼은 바스라졌었다. 강화나 김포 장에 푸성귀를 내다 팔던 어머니는 임질에 닳고 닳아 반질거리는 정수리에 밤이슬을 축축히 맞고 오는 때가 많았다.

“이놈의 기집년들 방안에 한 가득이구나.” 모로 세로 아무렇게나 뒤엎겨 한 방에 자고 있는 다섯 딸들을 내려다 보며 방문을 쥔고 한참을 서 있던 어머니. 문지방을 헤집고 들어온 서늘한 밤바람에 설핏 잠에서 깬 선순은 어머니의 그 말이, 당신이 곧잘 밭에서 뽑아

장에 내다 팔던 입가장귀 따끔거리는 갓잎씩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였음에도 갓을 뿌리째 뽑아 맨입으로 씹어대듯 아려 오는 어머니의 아픔을 언뜻 이해할 것 같았다.

그녀는 그녀의 꿈을 떠올리려 애썼다. 강화도 깡촌, 포구가 바싹 눈앞에 내려다 보이는 빈촌의 게딱지 같은 집을 떠나 서울로 유학을 오며 독하게 아로새긴 꿈. ‘잘 나가는 은행원’ 대학을 가지 않고 선순이 변변하게 독립할 수 있는 한의 가장 큰 꿈. 그녀는 조금씩 힘을 얻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힘으로 3년을 견뎌 내었다. 실로 눈물겨운 노력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는 별달리 긴장하지 않고 다만 무심히 한 알의 주판알도 허투루 올리거나 떨지 않는 방법을 피나게 갈고 닦았다. 눈은 서류에 둔 채로 전자계산기의 9와 6을, 혹은 1과 4를 헛갈리지 않고 누를 수 있었으며 백만원, 천만원 등 고액을 계산할 때 0을 연달아 세 개나 붙여 주는 숫자판으로 시간을 아낄 줄도 알게 되었다. 반짝반짝하는 서울내기들 등쌀을 견디고, 우직함을 그들과는 구별되는 그녀만의 무기로 삼았다. 얹혀 살게 된 언니네 집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형태의 크고작은 부부싸움에 귀를 틀어막으며 부기 연습을 한다든가 때때로 통보도 없이 들이닥치던 사돈 어른, 사장 마님의 눈을 피해 며칠 씩 친구네 결방잠을 자는 기지도 발휘했다. 밥상머리에서 구운 김 한 장 가지고도 유치원생 조카의 눈치를 보던 3년의 시간을 그녀는 마침내 견디어 내고 말았던 것이다.

‘아퀴나스, 그러면 나를 콜론과 물음표의 악몽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분개장이나 총계원장의 늪에서 나를 떠올리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말없는 방랑자’의 딸인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 모퉁이를 돌며 그녀는 어느새 미소를 떠올리고 있었다.

선순은 미용칼로 눈썹을 다듬다 문득 거울에 비친 현우의 얼굴에 눈을 돌렸다. 몰라보게 적어진 머리숱, 흰머리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많이 변했구나.’ 거울에 비친 탓일까 싶어 뒤돌아 맨눈으로 확인하고서야 선순은 남편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곤 몹시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아직 40대 초반일 뿐인데 흰으로 본대도 뭐랄 사람 없을 만큼 맥없고 거친 남편의 얼굴이 슬퍼서가 아니었다. 이제껏 남편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만큼 황폐하게 된 둘 사이가 놀라워서였다.

늙은 것으로 치자면 선순의 변화는 말할 것이 못된다. 칠순 환갑 넘은 할머니들도 성형수술에 피부관리를 받는 마당에 선순이야말로 그런 할머니들 피부보다 나은 게 없었다. 어찌된 일인지 아직 마흔도 안되어 벌써 검버섯이 생겨나고 있었다. 현우도 그 사실에 대해선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것이다. 서로의 얼굴을 찬찬히 살핀 기억은 그야말로 까마득했다.

“선순씨는 눈썹이 매력 있어요. 진하고 강렬하고.”

“네?”

선순은 화들짝 놀라며 눈썹에 손을 가져갔다. 억센 눈썹이 손가락에 까끌거렸다. 다듬은 지 두달이 넘었을 테지. 선순은 낭패한 듯한 표정을 떠올렸다.

“아니 정말 매력 있어요. 프리다 칼로가 생각날 만큼요.”

“프리다 칼로요?”

“어제 선순씨 주려고 산 책이에요.”

갈매기 모양으로 이어진, 현우 말마따나 진하고 강렬한 눈썹의 여자가 그려진 책을 내밀었다. 그 여자는 들어올린 검은 머리 위로 붉은 리본을 얹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불그죽죽한 배경과 강한 대비를 이루는 청록의 라운드 넥 드레스에는 뱀처럼 얹혀있는 덩굴 식물 무늬가 도드라져 보였다. 그리고 금새라도 찢렁 소리를 낼 듯 몹시 중량감이 느껴지는 금 귀고리와 금목걸이를 사슬처럼 매달고 있었다.

“멕시코 출신 화가인데 주로 여성의 삶을 초현실적으로 표현했대요. 넘겨 봐요.”

코 밑으로 곱슬곱슬한 수염까지 비쳐서인지 얼른 보면 여자로 보이지 않을 만큼 강한 인상의 얼굴에 한참을 뉘놓고 있던 선순은 시키는 대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기둥달린 침대 위에 해골 같은 여자가 누워 있고, 덮고 있는 이불 위에는 덩굴손이 뻗어가고 있었다.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쓰여진 제목은 ‘꿈’이었다.

다음 장은 모녀로 보이는 여자 둘이서 나란히 의자에 앉아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었다. 둘의 심장은 어떻게 된 일인지 옷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한 눈에도 핏줄처럼 보이는 관이 두 개의 심장을 연결하고 있는 형상이었다. 선순은 어머니와 딸의 인생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라 간신히 짐작해 보았다. 또 한 장을 넘겼다. 척박해 보이는 황무지에 화가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팔베개를 한 채 누워 있고 여자에게서 싹튼 듯 보이는 덩굴들이 역시 힘차게 뻗어오고 있었다.

“여성에게서 비롯된 강한 생명력을 표상하는 것이겠죠?”

현우는 낮은 소리로 속삭거렸다.

보다 충격적인 그림도 있었다. 흰 시트를 씌운 침대에 벌거벗은 여자가 누워 있고 엉덩이 부분에는 피가 낭자해 있는 그림이었다.

여섯 개의 붉은 실이 여자의 아랫배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실 각각에는 여섯 개의 물체가 매달려 등실 떠오르고 있었다. 여자에게서 잉태된 듯한 태아, 좌변기, 인체 모형, 골반 뼈, 보라색 난꽃과 거뭇한 달팽이였다. 다른 것들은 대체로 연상되어 이해되는 것들이었지만 달팽이만큼은 좀 의외라 생각되었다.

“선순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화가가 떠올랐어요. 어쩐지 강렬한 정열 같은 걸 품고 있는 사람이란 느낌도 들고”

“눈썹 때문이었겠죠. 직장 다닐 땐 열심히 다듬고 다녔는데 지저분해 보이죠?”

“아뇨, 참 이뻐요.”

“고등학교 때는 다들 절보고 강화 갈매기라고 불렀어요. 그건 확실히 흥이었어요. 여상 졸업반이 되었을 때 교장 선생님은 몸소 순서를 돌며 취업될 애와 안될 애를 골라내곤 했었거든요.”

선순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떴다. 3학년 겨울방학을 몇 주 앞두던 그날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마지막 가을비로도 혹은 청송맞은 겨울비로도 보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필시 눈치없이 고지식하기만 한 그 날 당번의 소행이었겠지만, 인조대리석 바닥에는 땀국물 자국이 마르지도 않은 채 번질거리고 있었다. 그런 을씨년스런 날씨에는 물걸레질 따위는 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일러줘야만 안단 말인가. 바닥의 물기 때문인지 엄지발가락부터 탕탕하게 얼어붙는 듯 역한 추위가 엄습하며 선순은 마치 바깥에 내리고 있는 비를 우산없이 하냥 맞고 있다는 이상한 실감에 치를 떨어야만 했다. 누군가 훌쩍

콧물 들이마시는 소리 외엔 땀국물에 전 마포걸레처럼 교실 안은 고요하고도 처연했다.

그 때 교실 앞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옆머리를 길러 넘겨 극구 번들거리는 알머리를 숨기던 교장과, 유난히 두텁고 불결한 입술이 인상적이던 교감이 들어왔다. 교장은 아무런 말없이 분단과 분단 사이를 오가며 학생들을 주욱 눈으로 훑고 지나갔다. 교장은 꽤 알아주는 눈썰미의 소유자로 척 한눈에도 취직될 애와 안될 애를 죽집게처럼 알아맞힌다는 소문을 선순도 들은 적이 있었다. 선순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니야, 아니야. 응 그래, 너는 됐다. 넌 또 뭐냐. 이 정도는 돼야잖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교장은 다문 입으로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교장이 바로 옆을 지나칠 때 선순은 본능적으로 교태로운 미소를 만들어 보였다. 1초, 2초 교장의 시선이 오래 머물수록 그녀의 미소에는 간절함을 넘어 처절함이 묻어났다. ‘됐나요? 나는 된 건가요? 선순은 입 가장귀가 덜덜 떨리도록 웃음을 만들어 보이며 교장의 눈을 맞받았지만 교장은 쉽사리 대답해 주질 못했다. ‘아니야, 아니, 아닌 게 아니야. 그렇지만 아닌 게 아닌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교장의 얼굴에도 점차 알쏭달쏭함을 넘어 당혹함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다 눈이 한 번 크게 열리는가 싶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학생, 학생은 눈썹을 좀 다듬어 봐. 요즘 미용실에선 머리만 깎질 않는다고.”

교실 여기저기에서 킁킁 새어나오던 웃음소리가 선순에겐 어제인 듯 생생했다.

“내 얼굴에서 눈썹이 문제였다는 걸 처음으로 지적해 준 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었던 거죠. 직장 그만 둔 후 눈썹 정리하는 것도 잊고 살았네요.”

현우는 선순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다.

“선순씨 앞으론 눈썹 깎지 말아요. 다시는 깎지 말아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미적대던 현우가 말문을 열었다.

“오늘 잠실에서 부부동반 모임이 있어. 난 학교에서 직접 갈 테니까 자기도 늦지 않게 와.”

잠실이라면 몇 년전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자리를 잡게 된 현우의 선배네를 말하는 것이다. 대학원 선배였던 그는 한 학기 공부를 마치자 돌연 경영학으로 전과했다고 했다. 외국 박사가 시글시글한 요즘도 S대 박사는 먹혔던 모양인지 시간강사 1,2년 하다 어렵지 않게 자리를 얻게 되었다 했다.

“또 누가 오는데?”

“정희네하고 석채네, 또 누군가 오겠지 뭐.”

“금감원 다닌다는 그 사람도 오나?”

현우의 눈썹이 조금 일그러졌다.

“왜 금감원에 찾아가서 보험 계약이라도 따내려고?”

농담을 못하는 현우, 지금하는 말도 필시 농담은 아닐 것이다. 하긴 요 몇 년 동안 현우가 하는 말은 그것이 설령 농담이라 할지라도 선순의 귀에는 비꼬는 말처럼 들리기 예사였다. 현우의 경우도 다르진 않았을 것이다. 탄력 잃은 삶에 내던져진 농담은 공처럼 경쾌하게 다시 떠오를 줄 모른다. 던져진 그 즉시 박살나 버리고 그 파편은

유리조각처럼 깊이 들어와 박힐 뿐이다. 농담은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현우와 선순은 웃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럼 보험상품 심사라도 받으러 가야 한단 말이야?”

씩 걸맞은 응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선순은 통쾌했다.

스르륵 기계가 토해내는 번호표에는 ‘기다리실 고객수 13명’이 찍혀 있었다. 앞으로 13명을 보내고서야 창구에 앉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돈도 좀 찾고 송금할 것도 있으니 ATM 기계앞에 기다리느니 차라리 느긋하게 잡지나 보며 번호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다. 기계 앞도 만원이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창구 중앙에는 꽤나 신경쓴 듯 보이는 꽃꽂이가 놓여 있었다. 기하학적인 구도를 띠고 있어 차칫 쓰러질 듯 위태롭기도 하고 어쩐지 자연스러운 맛이 없었다. 무엇보다 중심 소재로 사용한 극락조의 날카로운 꽃잎은 아무리 봐도 조화처럼 작위적으로만 보였다. 그건 여상 다닐 때 꽃꽂이를 배우며 처음 그 꽃을 대할 때부터 굳어진 생각이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월말만 되면 은행은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10여년이 흘렀건만 선순은 은행원이던 시절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교대로 잠을 내어 해치우는 점심 식사 후 5시 그때만 해도 5시에 폐점했다 까지는 화장실 한 번을 맘 놓고 갈 수 없었다.

근무여건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지금 창구 앞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텔러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대부분은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찌될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다. 뿐만 아니라 정직원 채용과는 전혀 다른 루트를 통해 입사하는 만치 그들이 받는 연봉은 정직원의 절반에 그치고 만다. 그렇다고

자격요건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대졸이 아니면 원서도 내 볼 수 없다. ‘그 많던 여상 졸업생은 어디로 갔을까? 직장을 새로 구하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텔러 취업을 알아보았지만 그녀에겐 택도 없는 일임을 알고 쓰게 웃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선순이 여상을 졸업하고 취업하던 90년대 초반 하더라도 창구직원은 거의 여자가 말다시피 했고 대개는 여상졸업생들이곤 했다. 그러나 입사 후 몇 년이 지나자 취업의 양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상이나 상고 졸업생 일색이던 은행에 대졸 여(女)행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남자 관리직은 예나 지금이나 변변한 대학 졸업생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취업의 바늘구멍이었지만 대졸 여자 행원의 입사는 놀라운 변화라 할 만했다. 그 변화의 물결은 서서히 파장을 넓혀 선순이 근무하던 M지점 J출장소에게까지 끼쳐오기 시작했다.

1기 신도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자 은행권에서는 지점을 확장하고 동네마다 출장소를 세우는 등 세(勢) 확장에 경쟁하듯 열을 올렸다. 그런 와중에 생겨나게 된 J출장소는 비교적 한적한 빌라촌에 자리를 잡았는데 예상 밖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본사에서조차 주목하는 알짜배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파트촌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던 것이 오히려 동네 출장소의 출입을 부추겼고 각 단지의 관리비를 도맡아 취급하게 된 것은 출장소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평수 넓은 부촌이었던 관계로 일인당 평균 예탁금의 규모는 본점에서도 입을 짝 벌릴 정도였던 것이다.

신이 난 소장은 인력 확충을 위한 건의 기안을 올렸고 두 달 뒤엔 그 작은 출장소에 뜻밖에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번듯한 여자 신입이

발령받아 오게 된 것이었다. 서민지. 전체적으로 단아한 인상이었으나 시원스레 웃음을 드러내며 웃는 입술이 생기와 건강함을 더하는 느낌이었다.

어쩌나 보자고 힐끗거리는 눈초리도 적지 않았지만 민지는 그런대로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물론 가끔 벌개진 얼굴로 선순에게 달려와 애걸하는 경우도 있었다. ‘계산기를 몇 번이고 눌러대도 도무지 합이 맞질 않아요.’ 선순이 찬찬히 검산하는 옆에서 민지는 간절히 애원하듯 두 손을 모으곤 했다. 끝까지 계산이 맞지 않을 경우, 종종 자기 돈을 끌어 놓아야하는 것도 그렇지만 은행원에겐 용납되지 않는 실수라는 점이 더욱 나빴다.

민지의 다급한 SOS를 받을 때마다 선순은 제 책상 위에 쌓여 있는 일거리를 제쳐 두고서라도 거절한 법이 없었다. 대개의 경우, 0을 하나 더 찍거나 덜 찍는 데서 생기는 착오였고 서류 2장이 겹쳐 있는 걸 찾지 못해 애가 달아하는 수도 종종 있었다. 이런 민지의 실수를 보며 선순은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야말로 대학 나온 후 배 길들일 약점을 잡아냈다는 생각에서가 아니었다. 대학 나와도 별 수 없구나 하는 마음하고도 달랐다.

그건 이룰테면 머나먼 이국 땅에서 동포를 만난 듯한 반가움이었다.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하는 몽클한 친근감과 함께 애잔한 느낌마저 갖게 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잊었던 자기다움, 은행 유니폼 속에 구겨져 있던 자신의 실체를 민지에게서 발견하게 된 느낌이었다.

이리저리 조아리고 갈리고 닳아서 이제는 제법 실용적이고 푹 부러지는 사람 흉내는 낼 수 있었지만 캐비닛에 유니폼을 걸고 은행문을

나설 때의 그 흥가분함이란. 오늘 하루도 죽을 힘까지 짜내 살아냈구나 싶은 마음. 흡사 털털거리는 탄광열차에 몸을 싣고 수백 미터 갱도에서 겨우 빠져 나온 듯, 어떻게 내가 견뎌냈던 걸까 뒤돌아보며 느끼는 아찔한 마음. 선순은 그래서 자신과 닮아 보이는 민지가 안쓰럽고 정이 갔다.

하지만 때론 민지가 한없이 이물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건 다른 은행 동료들에게서 느끼는 낯센과도 달랐다. 선순은 타자를 치는 민지의 매끄러운 손놀림을 보며 결국 그녀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아프게 깨달아야만 했다. 자판 위에 얹힌 민지의 손엔 무엇에 짓눌린 티가 나지 않았다. 섬세하게 어루만지는 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녀의 손놀림은 민지가 선순 자신과는 어떻게 해도 다른 종류의 사람이란 것을 세련되게 항변하는 것만 같았다.

민지의 부드러운 손놀림은 글쇠가 직접 종이에 날아가 글자를 박아대는, 그래서 왁살스러울 정도로 손가락에 힘을 주어야 하는 타자기에 억압된 적이 없다는 의미였다. 자판 위 물결치는 손놀림으로 풍부한 느낌과 정감을 길어 친구에게 연인에게 편지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아직도 부술 듯 사납게 자판을 두드려 대는 선순 자신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임을 뜻했던 것이다. 선순이 떡볶이나 사먹을 나이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타자 급수를 따고자 입안에 침이 마를 때 민지는 먼 도시의 소년과 컴퓨터 통신을 했을 지도 몰랐다.

남자 직원들이 민지를 대하는 태도 역시 달랐다. 그건 심하게 차별할래서 내는 표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들이었기에 선순에게는 더욱 아렸다.

“선순씨, 여기 차 줘.”

“여기 복사기가 말썽이라서 말이야. 손 좀 봐서 마저 복사해 줘.”

하던 직원들은 민지에게

“이거 부탁해도 되나?”

“와 뉘요. 이걸 힘 좋은 남자들이 하게.”

하고 말하는 식이었다.

아침 조회 시간 소장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근무 여건 개선, 거창한 말들 많이 하지만 실은 작은 것부터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직원들한테 생각없이 차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하는 일, 작은 것 같지만 당사자한테는 자존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구. 자기가 마실 차는 얼마든지 탕비실에서 타 마실 수 있는데도 말이야.”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말하고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대학 나온 민지에 대한 예우에서 나온 말이었음을 선순은 느꼈다. 소장은 또 내뱉은 말에 책임이라도 지려는 듯 당시 새로 출시되어 인기가 급상승 중이던 스틱형 커피믹스를 한 박스 쾌척하기도 했다. 성격이 호쾌하고 기분파인 소장다운 처사였다. 그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했고 특히 새로운 인물에 대한 호기심과 호의가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선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아프게 꽂힌 것은 무엇보다 진수의 태도 변화였다.

“시간인가 보죠? 그러고 보니 책 읽은 지도 오래 됐네.”

민지는 거의 매일 책을 바꾸어 가며 들고 다녔는데 그것에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진수였다. 캐비닛을 나눠 쓰면서, 함께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도 선순이나 다른 행원들은 그 사실을 여태

모르고 있었다.

“출퇴근길이 좀 길어서요. 지하철에선 눈 둘 곳도 없고…. 다 읽고 빌려 드릴까요?”

두 사람은 모두 그녀 책상 위에 놓인 책표지에 눈길을 주고 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아주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선순의 눈에 두 사람의 모습은 섬광처럼 반짝 빛을 내며 날아와 박혔다. 무심코 셔터를 눌렀을 뿐이었는데 폴라로이드 사진에선 빛과 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사진의 이름도 함께 등실 떠올랐다. ‘마침내 만남’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던진 듯 선순의 가슴엔 튼튼한 파문이 일었다. 울림은 이내 둔중한 아픔으로 변했다.

“민지씨 국문과 출신이라 했지? 피차 딱딱한 숫자놀음에 지친 사람들이니까 말랑말랑한 소설 같은 거 있음 추천하라구. 따지고 보면 그게 자기계발이지. 파먹은 거 계속 파먹으면 사람은 종당에 가선 피폐하게 돼 있거든.”

어느 새 끼어든 소장의 얼굴에선 유들유들한 기름기가 배어 나왔다. “아참, 이번에 말야. 우리 은행 홍보 팜플릿을 만드는데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는구만. 우리 출장소에서도 응모해 보잔 말이지, 마침 국문과 출신도 계시겠다.”

민지는 맑은 빛의 얼굴에 홍조를 떠올리며 살짝 웃었다. 부드러운 다갈색 머리카락이 풍부한 웨이브로 물결을 이루고 비스듬히 내리비치는 투광등 빛을 반사하며 온전히 빛나고 있었다. 민지가 내비친 그토록 은은한 빛은 선순의 눈에만은 가시처럼 따끔거렸다.

민지, 이름을 발음하고 나서도 뭔지 여운이 남는 듯하던 이름.

착하고 순하게 살라고 계집앤 자고로 그래야만 한다고 마구 붙여 준 자신의 이름과는 차원부터가 달랐던 이름. 선순은 알상한 허리를 다 소곳이 굽혀 고객에게 통장을 돌려주는 창구 직원에게 시선을 박으며 다시금 서걱이는 옛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면 종교영화인가? 몇 년 전에 왜 미션이란 영화 있었잖아? 주인공이 깡통하고 돌을 매달고 산에 오르다 나중엔 순교하는 영화 말야.”

“아, 이건 첩보 영화래요. 불가능한 지령을 수행하는 첩보원들 애긴 모양이던데요.”

영화정보를 훑고 왔던지 진수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다.

“그럼 그거 보자구, 오랜만에.”

“소장님 이번엔 한국영화 어떨까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고 작가영화라는 평이 있던데. 좋을 거 같아요.”

진수는 흘깃 민지쪽으로 눈길을 주며 말했다.

“실은 저도 전부터 보고 싶던 영화예요. 돼지에 한 표.”

생글 눈웃음을 치며 민지가 말했다.

“제목이 참 재미있네요. 저도 한 표 추가요.”

자기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나오는 것에 스스로도 좀 놀랐지만 선순은 어느새 오른 손까지 들어올리고 있었다.

“그럼 그러지 뭐. 젊은 사람 이야기 들어 손해보는 일 없다니까.”

호탕하게 말했으나 영화관 문을 빠져 나오며 소장의 입에선 참았던 불평부터 터져 나왔다.

“기분 참 드럽게 만드는 영화네. 도대체 뭘 어찌자는 영화냐구?”

평소 사람 종단 소리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여기던 소장. 남 듣기 좋은 말만 골라하느라 애써 누르고 있던 소장의 본심이 그제서야 유리알처럼 뻔히 드러나고 있었다. 옆에 섰던 선순도 침울한 표정을 짓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소장처럼 영화가 지루하고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선순은 여주인공이 안쓰러워서 건딜 수가 없던 거였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방울 안날 만큼 먹고 사는 일의 징그러움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여주인공은 어이없게도 대학을 나왔달 뿐 어느 일 하나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점점 배배 꼬여만 가는 룬펜에게 목을 메고 있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러워요.’ 하며. 한때는 학생 운동에 투신하며 순수하고 고양된 삶을 살았을지 모르나 어느 순간 그 어떤 명분도, 생활을 지탱할 경제력도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한 남자. 무엇보다 그는 여자를 말도 통하지 않는 무식쟁이라며 업신여기고 있었다. 언뜻 진수의 얼굴이 떠오르다 사라졌다. 선순은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입안이 썼다.

“자, 한잔 들 하시죠. 재미없는 영화 추천한 죄값으로 생맥주는 제가 사겠습니다.”

흑독한 영화평에 대해선 깨끗이 승복한 듯 진수가 목청을 높였다. 진수야말로 스펙터클과 환타지가 없으면 영화로도 안보는 헐리우드 영화광이었다. 그랬던 그가 소수 마니아층만이 관심을 가질 영화를 굳이 추천하며 술까지 내려는 속을 선순은 남몰래 짐작할 수 있었다. 선순은 저만치 앞서 걷고 있는 민지의 뒷모습을 훑었다. ‘뒤웅’ 가슴에 큰 돌덩이를 던져놓은 듯 한없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선순과 장래를 약속한 진수였다. 사내연애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007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출장소 직원은 물론 지점 사람들까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결혼발표는 시기의 문제였다. 결혼하게 된다면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그만두거나 자리를 옮겨야 했는데 그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만약 진수 쪽에서 저돌적으로 밀어붙였다면 그토록이나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으나 진수는 그러지 않았다. 결혼 전에 얼른 경제적으로 기반을 닦아 집장만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 미적지근하게 말하고는 있으나 선순이 짐작키로는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교육열은 높아 서울로 어찌어찌 유학까지 시키긴 했으나 거기까지가 진수의 본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모양이었다. 쥐어짜듯 사력을 다한 결과 졸업은 시켜놓았으나 결혼할 아들에게 집칸을 마련해 줄 능력이 있는 집도 아니었다. 다만 시골사람이라도 유학자 집안으로써 무지랭이 촌부와는 뭔가 달라도 다른 티를 내고 싶어하는 그 집안의 허영심이 문제였다. 아들 셋 있는 집안에 막내인 그는 형제 중 가장 영민하여 기대도 몹시 컸던 모양 같았다. 집안의 응원에 힘입어 사시공부를 했으나 몇 차례 미끄러지고 교육지책으로 들어온 게 은행이어서인지 그는 종종 마지못해 다니는 체해야 속시원해 했고 금새라도 때려치울 것처럼 으르렁거려야 직성이 풀리는 듯해 보였다. 그런 집안 분위기였으니 진수 입으로 직접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내 머느리 만큼은 번듯한 대학을 졸업한 규수이길 바라는 눈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바로 취업한 경우, 대체로 결혼과 함께 퇴사하는 것이 관례라고 볼 때 선순도 어쩔 수 없이 그 전철을 밟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선순은 진수네 본가에 내세울

대학생 머느리도, 변변한 직장여성도 못되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양가 상견례는 무한정 미뤄지고 있었고 선순에게 진수는 그럴싸한 변명도 하려 들지 않았다. 그걸 대놓고 따지지도 못하던 선순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한 남자를 깊이 아는 여자는 자신을 서서히 떠나려하는 남자의 눈빛을 단번에 알아보는 법이다. 선순도 마찬가지였다.

각 영업소 FP(financial planner)를 대상으로 한 무배당 의료실비 보험 마케팅 교육은 본사에서 진행된다고 했다.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는 개인에게나 사회적으로나 해결해야 할 크나큰 숙제가 되었다. 오래 사는 일은 어쩌면 무시무시한 일인지 몰랐다.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비해야 하다니.

‘자식에게 더 이상 효도만을 강요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아프기 전에, 능력이 되실 때 대비하시는 게 피차에 좋은 거죠. 병 나면 본인만 서러운 거예요. 대비하지 않으면 자식들에게도 못할 짓이구요.’

선순은 사무실을 돌며 중년직장인만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대비 없는 삶’, ‘갑작스런 불행’에 몸서리 치며 진심으로 보험을 권했다.

지하철 출구를 나와 큰 길을 따라가니 곧장 초현대식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본사 신축 건물이 보였다. 유리문으로 내비치는 로비는 다가올 새 봄을 알리듯 대형 꽃그림이 싱그럽고 성인키보다도 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봄의 환희를 분출하고 있었다. 하얗게 입김을 날리는 사람들이 두툼한 외투깃을 여미며 서둘러 걷고 있는 거리 풍경과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화단에는 성급하게 심겨진

노랑과 보라색 팬지들이 잔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오소소 떨고 있는 듯 했다. ‘고용안전 확보, 생존권 사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화단 난간에 걸린 플랭카드의 문구가 눈에 들어오자 선순은 코끝이 싸아했다.

“선순씨, 잠깐 나 좀 보지.”

은행 서터는 내려진 지 오래였지만 정리할 서류며 정산을 마쳐 봐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다. 선순은 뭔가 쏠이는 게 있던 듯, 무슨 일인지 되묻는 법 없이 소장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선순씨, 우리 은행이 조만간 합병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 상대 은행에서 인력 감축과 지점 축소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모양이야,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 출장소도 한두 달 안에 문을 닫게 될 거야. 월급이야 삭감되는 건 당연지사겠고, 뭐 어쩔 수 없잖아? IMF로 온 나라 안이 뒤숭숭한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참아야지, 별 도리 있겠어? 근데 내가 선순씨를 이렇게 부른 이유는…. 아이구 기분 참 드럽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소장은 출장소 식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던 그날의 그 표정을 다시 한 번 지어보였다. ‘기분 참 드럽네.’ 선순은 소장의 말을 따라 되뇌어 보았다. 선순은 픽 웃음이 나왔다. 20년 넘게 은행일을 하며 소장은 얼마나 자주 드러운 기분을 느껴야만 했을까? 그러나 은행일이란 자기 기분을 내키는 대로 드러내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다른 직장이라고 별반 다르지는 않겠지만 특히 은행은 돈을 만지는 곳이 아니던가? 돈을 맡기는 사람에게나 꾸러 온 사람에게나 신뢰를 주어야 하고 위엄도 갖추어야 한다.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싫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믿음직한 사람에게니까 돈을 꾸러 오는 것이다. 수시로 기분이 드러나는 얇고 투명한 얼굴을 하게 된다면 고객은 아마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슬퍼하는 은행원, 소스라치게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은행원, 분노에 치를 떠는 은행원, 뭔가 우스워 못견디겠다는 듯 낄낄대는 은행원에게 피 같은 돈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고를 나와 창구에서부터 잔뼈가 굵은 소장은 타고난 명랑함과, 그에 정확히 비례하는 경박스러움을 어떻게 순화시키며 지내왔을까? ‘기분 참 드럽네.’ 소장은 참으로 오랜만에 진정한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구나, 그다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구나, 선순은 어쩐지 애절한 마음이 되어 소장을 바라보았다. 선순의 시선이 난처했던지 소장은 한동안 어쩔 줄 모르다 갑자기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났다.

“아차차, 커피 한잔 마실까?”

땅딸막한 사람 특유의 걸음걸이로 소장은 몹시 허둥대며 종이컵과 봉지커피를 가져왔다. 살집 좋은 손은 침착성을 잃어 눈에 띄게 허둥대었고 종이컵이 기우뚱하더니 결국엔 컵 안의 커피가루를 모조리 쏟고 말았다.

“이런, 칠칠치 못하기는. 아니 이게... 찢득거려서 큰일이네. 카페트에까지 떨어졌잖아?”

하지만 이 작은 사고가 소장에게 실은 유일한 구원이었는지 몰랐다. 잠시 동안이라도 흘린 커피가루를 빌미 삼아 탄청을 부릴 수 있다는 건 소장에게 있어 뜻하지 않은 행운이었으리라.

티슈에 물을 묻혀 진득하게 달라붙은 커피와 설탕을 고개까지 가웃거리며 신중하게 닦는 모습은 희극배우의 촌극처럼 우스꽝스러웠

다. 그 모습을 지그시 지켜보고 있는 동안 선순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히 가라앉았다. 사내 연애는 연애하는 두 사람 모두의 아름다운 비밀일지 모르나 그 끝은 온전히 여자만의 몫이었다. 남아봤댔자 진수를 더 이상 볼 용기도 없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그렇게 할게요. 상황이 그런 걸 어찌겠어요.”

소장은 반짝 고개를 들고 순간 말개진 눈으로 선순을 바라보았다.

“결단내려 줘서 고마워. 선순씨 진짜 천사야. 이런 얘기 해서 좀 그렇지만 어차피 이대리하고 결혼하면 퇴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 시기가 좀 빨리 왔을 뿐이라고.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서로 맘 상할 일 뭐 있겠어.”

선순의 손을 덥석 잡는 소장의 두툼한 손 위로 후두둑 선순의 눈물이 떨어졌다.

“자자, 여기 주목, 오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한없이 착잡한 순간이겠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순씨를 위해 건배!”

사이키가 휘둘며 원색의 빗줄기를 흩뿌리고 있었다. 연달아 댄스곡이 흘러나오고 장내는 가지각색 현란한 몸놀림이 뒤섞여 출렁대었다. 빠르고 강한 비트에 몸을 싣듯 선순은 어느 새 리듬에 맞추어 어깨를 좌우로 들쭉였다. 한사람 한사람 따라주는 술을 사양도 없이 연거푸 마셔 금새 술이 올랐던 탓인지도 몰랐다.

“한잔 따를 게요. 많이 도와 주셨는데 정말 서운해요.”

어느 새 민지가 선순의 옆자리에 비집고 앉았다.

“도와 드린 게 뭐 있다고. 끄으윽.”

길게 트림을 하고도 별반 축쓰러워하는 기색 없이 픽 웃더니 선순은 민지가 앉기 편하라고 제 가방을 뒤쪽으로 옮겼다.

“민지씨, 72년 쥐띠죠? 난 73년 소띠. 이제 언니라고 불러야 하나? 그렇게 되죠, 촌수가? 하하.”

“농담 마세요. 한번 선배는 영원한 선배인 걸요.”

“선배는 무슨, 언니라고 부르겠어요. 언니가 배운 거로나 뭐로나 언니다우니까 언니라고 불러야지요. 안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씨, 민지썬 센스있고 똑똑하고 게다가 예쁜 여자예요. 난 그 애길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안그래요, 이대리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빗겨 앉아 있는 진수를 짓궂게 쳐다보며 선순이 급작스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아이고 우스워라. 미안해요. 근데, 민지씨는 멋진 사람인데, 난 한가지 꼭 말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해도 돼나? 난 민지씨 같이 대학 나와서 은행 들어온 여자들 보면 참 불쌍해요. 꿈도 있고, 희망도 있었을 텐데 기껏해야 여상 나온 애들 밑에서 생짜로 시작해야 하니. 대학이 뭐 별 건가요? 뭔가 쓸모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기껏 문학 공부해서 남의 돈이나 세고 있는 민지씨가 난 정말 한심해요.”

선순은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이 되어 한마디 한마디에 방점을 찍듯 힘주어 말했다. 누구도 아닌 선순 자신이 ‘쓸모’란 말을 입에 담고 있다는 건 삶이 주는 아이러니라 여기면서.

“민지씨 남자직원들이 존중해 주니까 스스로 근사한 사람인 줄 착

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예요. 남자직원들은 민지씨를 불편해 할 뿐인 거예요. 새로운 맛은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편하지 않은 옷은 안 입느니만 못해요. 대학 때 배운 공부 어디다 써먹을 생각이죠? 문학을 공부하셨다면 은행 일에 얼마나 도움을 받았나요?”

“선배 술이 과하신 거 같네요. 선배 마음도 이해하고 왈가왈부할 생각도 없어요.”

자신의 술잔을 들고 일어서려는 민지의 팔을 선순은 얼른 잡아채었다.

“아니, 더 좀 얘기해요. 그래 그 잘난 대학에서는 무엇을 배웠나요? 그래서 달라진 건 도대체 뭐죠?”

“이제 보니 선배는 참 꼬인 사람이군요. 사람이 꼭 쓸모만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돈세는 기계, 계산기 누르는 기계, 타자 치는 기계, 선배는 그런 기계 노릇으로도 정말 만족한다는 말인가요? 남자 직원들이 편하게 대하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 걸 가엾게도 인생의 전부라 믿고 있다니…”

“말이 좀 심하잖아요? 선순씨 기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맛은 편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진수가 불쑥 끼어들었다.

“내 맘을 알아 줄 사람은 이대리님 밖에 없다니까. 하하. 다 필요없어. 그렇죠, 진수씨?”

선순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닦을 엄도 않은 채 오열하고 있었다.

“노량진에서 직접 떠온 거니까 많이들 드세요. 아참, 선순씨 고향이

강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맞에는 일가견이 있으시겠네요.”

다른 여자들도 많은데 그렇듯 꼭집어 이야기하는 건 안주인의 자신에 대한 각별한 배려라고 선순은 느꼈다. 누군가의 익살스런 말에 흥없이 웃거나 할 뿐 모임 내내 줄곧 별다른 말도 없이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한 안주인으로서의 배려.

“마음 수양에 도움이 된다기에 시작한 것 뿐이에요. 지난 몇 년간 마음 수양 같은 거 없이 하룬들 살 수 있었는 줄 아세요? 까르르.”

초대된 누군가가 표구되어 벽에 걸린 조각보를 칭찬하자 안주인은 말했던 것이다. 그 웃음은 참으로 시원스럽고 거칠 것이 없었다. 한참을 웃다 그녀는 선순의 맥빠진 웃음을 보고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집주인이 시간강사이던 시절, 동병상련의 마음이었는지는 몰라도 현우와는 꽤 각별한 사이였다. 덕분에 선순도 안주인과 두런두런 이야기도 섞고 각자 남편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선순의 고향이 강화라는 사실도 여러 차례 만나면서 무슨 말끝에선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제법 잘나가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전임으로 임용된 후 선순은 이 집에 오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소리 없이 모이고 허물 없이 친해진다. 그러다 한 쪽이 깨끗이 낫게 되면 그 관계는 이내 깨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완쾌된 쪽은 아직 앓고 있는 사람을 두 가지 이유에서 몹시 만나고 싶어한다. 아픔을 겪는 사람에 대한 인간으로서 품어마땅한 동정심이 그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아픔을 이겨내었던가 하는 충만한 행복감과 새삼스레 밀려오는 안도감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병이 낫지 않은 사람은 또 두 가지 이유에서 완쾌된 사람을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함께 아팠던 사람이 보내는 동정에 대한 역겨움이 그것이고, 도대체 나의 무엇이 달라 상대처럼 낯지 못할까 하는, 결국 자신에게로 향하는 회의와 열등감이 그것이다.

“아뇨, 회 맛을 알긴요. 강화도가 고향이긴 하지만 고기 잡는 집도 아니었고 어부네 집에서도 큰 고기들은 대게 내다 파니까요.”

입 가장귀가 얼얼함을 느끼면서도 선순은 웃음을 떠올리려 애썼다.

회 맛을 알게 된 것도 어찌보면 사회 생활의 이력일지 몰랐다. 스무살 적 처음 먹던회는 달달한 초고추장의 맛으로 기억될 뿐이었다. 마흔이 다 된 지금 선순은 탱탱한 살점이 어금닛 사이로 썩어 갈리며 달고 비릿한 청량함으로 입안에 번지는 느낌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어찌보면 학습의 효과였던 건 아니었을까? 오늘회는 물이 참 좋구만, 살이 달구만 달아, 고깃 참 쫄쫄하다, 살이 좀 비었어, 물이 완전 갇구만, 함께 먹는 사람들 -대개는 윗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회의 맛을 기초부터 배웠다는 표현이 도리어 온당할지 모른다. 사실을 말하자면, 선순 자신이 아, 하고 감탄할만치 실감나는 회 맛은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저 남들이 그렇다니까, 또 자주 먹어보니까 그렇게 남들처럼 회 맛을 아는 흉내는 낼 수 있게 되었을 뿐이었다.

어린 시절 고향집에서 맛보던 밴딩이 무침이 생각난 건 바로 그 때였다.

“하지만 배타는 아저씨네 옆집에 살아서 잡고기는 좀 먹어봤죠.

밴댕이 같은 건 어스어스 썰어서 고춧가루 넣고 짹짹 무쳐 먹으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한참 뜸을 들이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TV에서 농촌 탐방이나 향토 음식 소개 프로그램이 흔해져서 그렇지 10년 전만 하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생선이었죠. 성질이 급해 금새 죽어 버리기 때문에 김포에만 가도 싱싱한 밴댕이회는 못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건 그러니까 진정한 강화도만의 별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살아있는 맛이란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설명도 못해요.”

밥상에 오른 봄나물을 먹으며 향그런 봄을 실감하듯 밴댕이 무침은 그녀에게 숨가쁘게 번져가는 푸르름의 계절을 알렸다. 그 해 첫 여름에 맛보는 수박, 베어물면 단 맛보다도 먼저 탄성(灘聲)처럼 순식간에 번지던 싱그러움, 밴댕이에선 그런 수박향이 났다. 뿐인가? 뼈까지 오도독오도독 씹으면 입안 가득 침을 적시고도 남는 잇몸 근지러운 고소함, 매워매워 콧등에 맺힌 땀을 소맷부리로 닦으며 정지로 물뜨러 가면 입안에 또 한번 새삼스레 끼쳐오는 향긋한 비린내음. 선순은 이 모든 생생함을 이야기할 수 없음이 갑자기 갑갑해졌다. 아무리 설명한대도 그건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리라. 그저 남들에게는 이름마저 우스운 ‘밴댕이’ 일 뿐인 것을.

불현듯 거대한 짐승이 숨을 고르듯 파도가 쉽없이 들고 나던 바다,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고향집 마당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해질녘이면 게으르게 평상에 드러누어 헤세 책에다 밑줄을 긋던 중학생 시절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다. 소녀를 위한 프랑스 시선집을 사서 잠기장에 베끼며 가슴 울렁거리던 기억, 상대도 없는 연애편지

같은 일기를 끄적이며 잠 못 이뤘, 못 이뤘 달이 흰한 밤이면 굼벵이 처럼 구르던 기억. 그것은 그녀만의 오묘한 놀이였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기가 좀 께찮은 사람 같이 여겨지고 그럴듯 하게 생각되곤 했었다. 여고시절 자신을 주눅들게 했던 서울내기들에게 이게 바로 나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 하지만 끝내 내보일 수 없던 자신 다움이 이런 것이었을까? 콜론과 물음표의 악몽에서 분개장이나 총계원장의 늪에서 가까스로 잡고자 허우적대던 지푸라기였을까? 언뜻 물살에 빗기어 파르르 지느러미를 떨며 헤엄치는 뱀뱀이를 본 듯 했다.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그녀의 볼을 갓잎썩 같은 손으로 썩썩 문대며 목메이게 중얼거리던 어머니. “엄마 왔는디 잠만 펴 자냐, 요년 아!” 그 옆에서 아버지가 웃으신다. 그저 색시같이 말개진 얼굴로. ‘사는 게 어찌면 이리도 허허로우냐.’ 선순은 문득 눈알이 아려왔다. ‘아버지 아무리해도 의료실비 보험은 팔리지를 앓는 걸요.’ 어느 새 무청 같이 푸르른 현우가 선순의 손을 그러쥔다. “선순씨 앞으론 눈썹 꺾지 말아요. 다시는 꺾지 말아요.” 선순은 또르르 구르는 눈물을 감추려 짐짓 헛기침을 했다.

“그게 농담이라구요? 선배는 그걸 농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를 두 갈래로 찢악 찢어내는 소리. 현우의 목소리였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있어 그동안 현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지 선순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또 다시 ‘농담’ 이 문제인가? 현우에게 더 이상 농담은 없는 것이다.

“선배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대학원 한학기 공부하고 때려치울 때

도 그랬고,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썸이면 영 다른 쪽으로 길을 바꾸고. 남아 있는 사람들 열패감만 부추겼을 뿐이라구요.”

“야, 임마. 대학원 전공 하나 바꾸면서 전향 각서라도 써야 된다는 거야, 뭐야?”

“아뇨, 선배는 전향수보다도 더 나빠요. 처음부터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으면서 위장하고 잠입해 들어와 빼먹을 거 다 빼먹었으니 이제 제 볼 속만 차리면 된다, 그건 스파이죠.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저 자식, 저거 뭐라는 거야?”

모임의 주최자이기도 했던 집주인은 벌개진 얼굴에 열이 빠져서는 현우를 외면한 채 아예 돌아앉아 버렸다.

“법대나 상경대 갈 점수가 안되니까 점수 맞춰 들어와 놓고는 교양 운운하며 인문학도입네 행세하더니. 이제 명문대 졸업장은 따 났으니 미련은 없었겠지. 돈많은 아버지가 예비해 둔 새로운 차를 사뿐히 바꿔 타고 간 거잖아. 잘 팔리는 공부했겠다, 든든한 뺨있겠다,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겠다, 씨발, 그렇게 부족한 거 없으면 인문학에 대해서 만큼은 아는 척이나 하지마. 역겨워. 인문학이 니들 손바닥이나 활아줄 이국종 강아지로 보이냐?”

“뭐라구? 이 새끼가 보자보자하니까. 아퀴나슨지 뭔지 팔리지도 않는 중세철학하라고 내가 시켰냐? 돈도 뺨도 없는 놈한테 전망없는 공부하라고 누가 부추겼느냐고? 제 마누라 등골이나 빼먹고 사는 주제에…, 아유…….”

작은 키에 왜소한 체구의 현우는 엉망으로 취해 있었고 왁살스럽게 잡힌 멧살을 풀 힘도 없이 허수아비처럼 이리저리로 휘둘리며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현우선 열등감 같은 거 없죠? 이를 테면 비참하게 죽정이나냥 떨어져 나가는 정리해고자의 비애 같은 거요. 대학 같은 거 같 엄두도 내지 못하고 기계 마냥 돈이나 세고 계산기나 두드려 대는 여상 졸업생도 아니고, 교양 있는 신입한테 애인을 빼앗겨 본 적도 없을 테니까요.”

응석이라도 부리는 듯 선순은 콧소리를 섞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웃이 괴었다.

“나라고 왜 없겠어요? 어쩌면 나란 놈이야말로 열등감 덩어리인지도 모르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닌 듯 현우는 정색을 했다.

“왜요? 난 현우씨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는데.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어렵다는 S대를 나와 박사 공부까지 하는 사람인데도 열등감이 있어요? 더구나 자기가 좋아서하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선순은 목마른 얼굴이 되어 현우를 쳐다보았다. 현우 만큼은 곱추처럼 평생을 열등감이란 혹을 매달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랐는데. 그의 충일감이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열등감을 모조리 빨아드려 가뱃해지기를 진정으로 바랐는데.

“대학 들어가고 같은 과 형들하고 술을 마셨어요. 무슨 이야기 끝에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한 선배가 우리 집은 기름집이야 했어요. 그러자 옆 자리에 있던 형은 우리 집은 야쿠르트 집이지. 저도 말했죠. 저희는 시계방을 해요. 알고 보니 기름집은 아버지가 Y정유 사장이란 얘기였고 야쿠르트 집이란 H야쿠르트 이사를 하고 계신단 얘기였어요. 저희 집은 정말 시계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석이나 금은불이를 취급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시계만을 취급하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는 추가 뚝 멈춰선 패종시계 같은 얼굴을 하고 잠시 머뭇거렸다.
“선순씨, 내가 속물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다고는 부인 못해요. 근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인문학이랑게 그래요. 권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큰 부자를 만들어 주는 공부도 아니거든요. 사실 나 같은 놈은 그런 욕심 없는 공부를 해서는 안되는 거라구요. 근데도 말이죠. 끝까지 남은 놈은 기름집 형도 야쿠르트 집 선배도 아닌 시계방 집 아들이란 말예요. 참 우스운 일이죠?”

도심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빠지는 좌석 버스 안에는 늦은 밤이라서인지 승객이 거의 없었다. 어찌면 막차인지도 몰랐다. 나른하게 풀린 눈으로 운전기사는 선순을 향해 말했다.

“음악 틀어도 괜찮겠쥬? 졸음이 와서요.”

선순이 대답하기도 전에 기사는 라디오를 켰다.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 보냈어요. 그 사랑이 이 밤 이렇게 저를 울리네요. 반디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감미로운 저음을 가진 DJ가 청취자 사연을 읽고 있었다.

버스가 모퉁이에서 커브를 틀자 현우의 상체가 차창 쪽으로 쏠리며 그 바람에 목이 심하게 젖혀진 듯 킁킁대며 잠시 숨이 막힌 듯 했다. 선순은 조바심 나는 손길로 현우의 고개를 바로 잡아 주었다. 이번에는 버스가 반대쪽으로 기울며 현우의 몸이 선순 쪽으로 기울었다. 선순은 그가 좀더 편하게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밀어 받쳤다. 약하게 코를 골고 있는 현우의 입에선 홍시 삭는 냄새가 났다.

한결 같은 빗속에 서서 젖는 나무를 보며
 눈부신 햇빛과 개인 하늘을 나는 잊었소
 누구 하나 나를 찾지도 기다리지도 않소

현우가 언젠가 불렀던 노래다. 김광석의 노래 ‘나무’ 비장한 듯 느껴지는 가사가 오히려 허허로움을 더하던 노래.

한결 같은 많은 날 속에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좋소
 나는 소리쳐 부르지 않아도 좋소
 시작도 끝도 없는 나의 침묵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오

그가 다니던 대학, 어두운 밤에도 저 혼자 허영게 떠오르던 자작나무 숲을 향해 외치던 노래. 술기운을 빌어 승냥이처럼 외치고 외치며 노래하던 현우, 그러나 주먹까지 부르쥘던 그가 선순의 눈에는 한없이 위태로워 보였다.

무서운 것이 내게는 없소
 누구에게 감사 받을 생각 없이
 나는 나에게 황홀을 느낄 뿐이오
 나는 하늘을 찌를 때까지 자라려고 하오
 무성한 가지와 그늘을 퍼려하오

선순은 그 때 어둠을 감사하며 마음껏 눈물을 흘렸다. 내리는 비와 바람을 온 몸으로 맞고 섰는 연약한 나무를 위해. 그 비와 바람을

대신 맞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리라. 그것이 사랑이라면.
10년 전 선순은 그렇게 마음에 새겼다. 선순은 그 밤을 기억한다.

모든 긴장을 풀고 어린아이처럼 잠든 현우의 옆 얼굴. 한없이 약하고 여린 가지로도 비바람을 이겨내리라 믿고 있는 가엾은 나무. 차창 밖으로 어둠에 잠긴 숲이 확확 지나갔다. 어디서 ‘쉐쉐쉐쉐 자작 나무 잎사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다.

별다른 취미도 특기도 없는 내가 그나마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기일 것이다. 그렇다고 체계가 잡혀서 규모가 알뜰한 책임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인식욕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읽어대는 축도 못된다. 그저 마음에 드는 글을 여러 차례 거듭 읽어대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내 책임기를 남편은 ‘퇴행적’이라고 나무란다. 백번 옳은 말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책임기였으니 치열한 주제의식이나 깊은 통찰이란 내게 있을리 없을 것이다. 다만 이를 무릅쓰고 난생 처음 소설이란 것을 써 볼 용기를 내었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놀랄 노릇이다. ‘보잘 것 없는 것’ 이나마 ‘자기다운 것’을 잃지 않으려는 누군가의 모습은 늘 내게 가슴 짙한 가엾음과 함께 몽클함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써 엮어 보고 싶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했지만 정작 자신의 글쓰기에는 게을렀던 것이 사실이었다. ‘한번 더 보고 한번 더 느끼고 한번 더 생각하기’ 글쓰기는 일상을 새롭게 보는 또다른 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글을 써보니 깨닫게 된다. 내가 말고 있는 1학년 예쁜솔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얼굴들을 할까?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시부문

금 상

내 통장 _ 심금섭

은 상

할아버지 나라 _ 민홍규

빨간 우체통 _ 최만호

동 상

내 짝 _ 박선애

배추 _ 임동학

살구꽃 _ 정재학

만들고 싶어요 _ 조숙현



내 통장



포항남부초
심금섭

내 날씨 통장에는 해님이 많다
잘했어
참 착하다
칭찬으로 받은 활짝 웃는 얼굴
차곡차곡 저축한 통장
내 맑음 통장

내 비밀 통장에는 구름이 많다
하지 마
왜 그랬어
꾸중으로 받은 찡그린 얼굴
몰래몰래 저축한 통장
내 흐림 통장



오늘은 맑음 통장에서 해님을 찾아서
오래 아픈 친구의 통장에 넣는다
활짝 웃는 내 짝 얼굴이
방실방실 웃는 스마일이 되어
내 맑음 통장에 다시 돌아온다

30여 년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그들을 이해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잘했다고 주는 해님스티커와
잘못을 지적하는 구름스티커를 주며,
그 얼굴들이 통장에 저장 될 때마다 그들의 표정을 읽습니다.

이때 읽은 이 표정들이 오늘 금상수상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의 제목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칭찬은 또 다른 칭찬을 불러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이유는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꾸중만 하던 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가끔은 친구들이 없는 복도를 다녀보고 싶고,
다른 반 공부 모습도 보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려 합니다.

성적처리를 하느라 바쁠 때에 들어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일상의 모든 피로가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칭찬의 말을 해서 그들의 꿈을 마음껏 담아내는 그릇이 되렵니다.
미운은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일깨우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광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할아버지 나라



전) 서울 우편집중국

민 홍 규

할아버지 호미가
작년 추석 그 흙벽에
그래도 걸려 있다
움츠리고 매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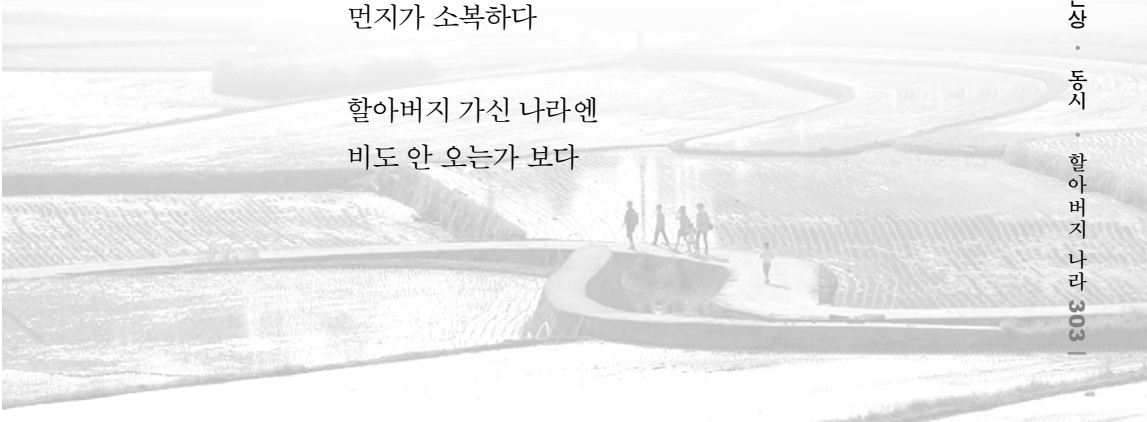
논두렁에 콩 심으시고
김매던 할아버지 호미

주인 잃은 구력도 처마 밑에
쭈글텅 걸려 있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처마 밑 흙벽에 기대 있으면
논둑길로 걸어오시던 할아버지
하얀 비옷

언제 개켜 놓았는지
틔마루 기둥 옆에
먼지가 소복하다

할아버지 가신 나라엔
비도 안 오는가 보다



동시 쓰는 재미를 요 근래에 알았다. 시와는 다르게 어린이들의 맑은 동심으로 돌아가 주위사물을 느끼고 볼 때 이제까지 내가 놓친 많은 이야기가 샘물처럼 고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 나라”는 내가 아는 이웃 어른신의 이야기다.

그분이 가꾸시던 논두렁의 콩포기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어른신이 참 깨끗하게 보관해 놓으신 농기구가 공간에서 녹슬고 있었다. 그것이 마음에 앙금처럼 남아 있었나 보다. 동시를 쓰려고 하자 그것이 떠올랐다. 그래서 작품으로 써 본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동시를 써야겠다.

빨간 우체통



청주교도소
최 만 호

숲속에
빨간 우체통
오는 편지
가는 편지
하나 없는데,
놀러온
아이들이
웃음을 넣고 가면
산새들이 날아와
배달하지요.



아이들을 데리고 미동산수목원으로 갔습니다. 산새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발걸음을 옮겨놓았죠. 아이들은 내내 깔깔거리며 수목원 길을 올라갔습니다. 갈참나무,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나무마다 이름표가 붙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닿을 듯한 높이에 빨간 우체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손이 닿지 않는다며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를 우체통 높이까지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는 우체통을 열어보더니 “어, 아무것도 없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체통이 매달린 그 나무 꼭대기에서 산새가 날아갔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입에 물고는 우체부 아저씨처럼 배달 가는 것처럼 말이죠.

요즘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아이들이 많아 거의 편지를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인터넷 메일보다, 핸드폰 문자보다 받았을 때 더 기쁘고 아름다운 건 바로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아무도 와서 편지를 넣고 가지 않는 수목원의 빨간 우체통엔 언제나 그곳을 찾아온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를 산새들이 날아와 숲속 이 곳 저 곳에 배달하기 때문에 엄마 품처럼 아늑하고 푸르게 숲은 빛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편지를 써서 빨간 우체통에 넣어보라고 해야겠어요. 여름이 가기 전예요. 산새가 물어다 준 수상소식이 너무 기쁩니다.

내 짝



경북 경산정평초
박 선 애

그냥 있는 줄 알았어.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네가 결석하니

자꾸 네 자리에 눈이 가.

그림을 그리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오늘 참 길다.



우리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얼굴 하나 야
손바닥 둘 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맘 호수 만 하니
살며시 눈 감을 밖에.’

짜이 결석한 날
염동이는 잘 지내다가
넋째시간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염동아 참 고맙다.
보고싶구나!

저의 부족한 글 뽑아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배 추



포항 효자초
임 동 학

너털너털한 잎
푸르딩딩 얼어터진 잎
벌레가 맘 놓고 갉아먹은 잎
한 잎
또 한 잎.....
다음에
그 다음에
너털너털 찢어지지 않은 잎
푸르딩딩 얼어붙지도 않은 잎
벌레가 손도 못 댄 잎
푸른빛이 싱싱 차오르는 참 맑고 고운 잎
누군가 온몸으로 감싸주었던 잎
저보다 어린잎을 꼭 껴안은 잎



김장을 하느라 배추를 다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렸다. 배추의 속잎이 그러하듯 우리는 앞선 세대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다. 그리고 배추의 속잎이 나중엔 또 겹잎이 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어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조금은 슬프고 그리운 순간이었다.



살구꽃

손을 뺀어도
달지 않은
높은
하늘에
꽃구름 한 점 올려놓았다.

몽게몽게 구름처럼
송이송이 활짝 핀 꽃

손을 쪽 뺀어도
달지 않은
높은
하늘에
꽃구름 한 점 그려 넣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정 재 학



평소 동시를 쓰는 아름답고 착한 마음을 부러워했다. 그리하여 시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꿈꾸던 일을 오늘에야 이루었다는 기쁨이 크다. 나는 이미 이 공무원 문예에 희곡과 동화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지만, 이번 동시 수상은 남다른 기쁨이다.

아, 내가 60을 바라보는 나이에야 이제 비로소 어린아이들의 착하고 아름답고 순진무구한 정서를 이루었구나. 그 청명하고 해맑은 웃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나는 시인으로서 그 기분을 이루었구나.

만들고 싶어요



충북 동광초
조 숙 현

만들고 싶어요

맑은 공기

반짝반짝 햇빛

깨끗한 물

좋은 흙

죽어가고 있다는데...

더 만들면 안 될까요?

아무도 만들지 못하는데요

지금 있는 것이 다래요

어른들도 알까요?

맑고 신선한 공기..
건강한 햇빛을 쏟아 부어 주는 태양..
마음의 갈증까지 풀어주는 깨끗한 물..
풀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생명을 주는 흙..

생각만 해도 마음까지 시리게 행복해 집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보여 지고 들려지는 환경파괴의 모습은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도 더 만들고 더 구할 수 없기에 더 소중한 자연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동시였습니다.

어른들은 더 잘 알고 지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
이 동시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유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좋은 상으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신 문예대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살아 숨쉬게 하는 멋진 자연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동화나무문

금 상

할머니의 초상 _ 이윤정

은 상

눈꽃 할아버지 _ 윤현진

동 상

반항아 수달의 친구만들기 _ 강화성

요술주머니와 도깨비 _ 김진우

엄마 단풍나무의 새 눈 _ 박재광

느림보 도서관 _ 이성희





경기 대원여자중
이 윤 정

할머니의 초상



며칠 전에 옆집 할머니께서 집 앞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많이 다치셨나 봐요. 엄마가 할머니 병문안 간다고 식당일 끝나고 늦게 오셨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시더니 표정이 안 좋으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라는 말씀만 하세요. 며칠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어제

집으로 오셔서 다 나온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엄마가 옆집에 갔다 오실 때만 기다리던 진원이가 실망이 큰가 봐요. 할머니가 좀 나오시면 놀러 가겠다고, 새로운 한글카드를 만들어 두고 기다렸거든요. 할머니가 좋아하실만한 그림들만 잡지에서 오려 두꺼운 종이에 붙이고, 뒷면 글씨는 저보고 써 달라고 해서 써줬거든요. ‘아기, 나무, 꽃, 수박, 사과, 할머니…

사실은 나도 할머니 나오면 드리려고, 저번에 그린 할머니 초상화에 액자 끼워 뒀는데… 아쉬워요. 전에 그린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생신날 드리려고 준비해 뒀는데….

며칠 있으면 할머니 생신이거든요. 할머니께서 아주 크게 웃고 계신 그림인데, 할머니는 이 그림을 보면 즐거워 보여서 좋으시대요.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엄마 따라 할머니 뵈러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는 아직 가볼 때가 아니라고 하세요. 할머니가 얼른 나오셔서 다시 우리들이랑 재미있게 놀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끝나면, 진원이를 데리러 공부방에 가는데, 진원이가 공부방에 없는 날은 옆집 할머니 댁으로 가요. 내가 학교 끝나는 대로 데리러 가는데도 진원이는 지루하대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맛있는 간식이라도 주는 날에는 기다리기도 하지만, 대개는 오후 낮잠 시간이 시작되면 지겨워서 싫대요. 어린이들은 낮잠을 자줘야 튼튼해진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 줘도 소용이 없어요. 자려고 노력을 해도 잠이 오지를 않는다면, 자기 싫은데 왜 자꾸 자라고 하냐고 화만 내고는 해요. 다른 아이들은 자는데 자기만 깨어 있으려니까 심심해서

공부방에 있기가 싫대요.

그래서 낮잠 시간에 심심하다고 자꾸 옆집 할머니 댁에 가요. 할머니께서 심심하시다고 우리들이 가면 무척 잘 해 주시거든요. 먹을 것도 이것저것 많이 챙겨 주시고요. 엄마가 집에 자주 안 계시니까 잘 먹어야 한다며, 과일을 많이 주세요. 진원이는 먹을 것 때문에 할머니 댁에 자주 가는 지도 몰라요.

요새는 진원이가 가면 보통은 할머니와 한글 카드 놀이를 하고 놀아요.

공부방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진원이는 ‘가방, 나비, 다람쥐...’ 정도를 눈치로 맞출 정도의 한글 실력이거든요.

저도 겨우 한글 공부를 시작한 주제에, 할머니의 발음이 웃기다면서,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 드린대요. 할머니는 진원이가 재미있으신지 매번 진원이가 하자는 대로 해 주세요.

할머니가 다치시기 전날도 학교 끝나고 가보니 진원이와 할머니가 역시나 한글 카드 놀이를 하고 있더라구요.

진원이가 염소 그림을 들어 보이면서

“할머니 이건 뭐야?”

하면, 할머니는

“염생이”

하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진원이는

“할머니 이건 염소야. 따라 해봐, 염소!”

다음에는 트럭 그림을 들고

“할머니 이건?”

하면, 할머니는

“도라꾸”

하세요. 그러면 또 진원이는

“이건 트럭이라니까, 어제도 가르쳐 줬잖아. 자꾸 틀리면 어떻게 해? 따라 해봐, 트럭!”

또, 다음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할머니 이진?”

그러면 할머니는

“아크림”

하세요. 진원이는 제법 진지하게 화까지 내는 척을 하면서

“아! 이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잖아. 어제는 잘 하더니.”

이쯤 되면 제가 참견을 좀 해줘야 해요. 이 녀석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할머니께 자꾸 반말이에요.

“진원아. 너 할머니께 반말 쓰지 말라고 누나가 몇 번 말했어.

어제 엄마도 말씀하고 가셨잖아. 너 자꾸 그러면, 할머니 댁에 보내지 말라고 하셨어.”

제가 야단을 치니까, 할머니 뒤로 쪽 숨어 버리고는 거기 앉아서 먹다만 수박만 축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또 진원이 편만 드시고요.

“괜찮다. 효원아. 내가 재미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냥 뒤라.”

“할머니, 진원이가 자꾸 그러면 할머니께서 혼 좀 내 주시라고, 엄마도 그러셨어요. 버릇없어질까봐 걱정되신다고요. 할머니께 꼭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진원이 너무 버릇없이 굴면 야단쳐 주시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 드려도, 할머니는 항상 진원이와 같은 반응이 십니다. 야단은커녕 그런 진원이를 오히려 재미있어 해 주시니까, 진원이가 신이 나서 더 버릇없이 구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엄마 다녀갔니? 맛있는 반찬 많이 해 놔줬네.”

“네. 좀 갖다 드릴까요? 엄마가 할머니 입맛에 맞는 거 있으면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엄마가 어제 식당이 늦게 끝나서 밤늦게 오셨다가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직접 못 드린다고. 저보고 갖다 드리랬어요. 무말랭이랑, 마늘종 장아찌랑, 깻잎 장아찌 있는데, 어떤 걸로 갖다 드릴까요?”

“됐다. 내가 네 고사리 손으로 뭘 얻어 먹냐? 됐으니까 앉아서 수박이나 먹어라.”

“할머니 드리라고 엄마가 많이 가져 왔어요. 할머니께서 진원이 봐주시는데,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저더러 꼭 가져다 드리랬어요. 제가 가서 조금씩 가져올게요.”

“너는 어떻게 쪼그만게 맨날 그리 어른 같은 말만 하나?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저녁 먹자. 우리집 식구들은 오늘도 다 늦게 온단다. 아침에 먹던 국 남았으니까, 가져다가 아버지상 차려 드리고 와. 오늘은 나도 니들이랑 둘러 앉아서 맛있게 먹어 보자.”

“네. 아빠가 할머니께서 하신 국 좋아하는데... 아빠 저녁 드리고 빨리 올게요. 진원이랑 조금만 놀고 계세요. 진원이가 반말하면 혼내주시고요.”

“아이구, 잔소리 좀 그만 해라. 녀석아. 어떻게 늙은 나보다 잔소리가 더 많냐? 우리 효원이는 좀 너무 많이 커서 탈이야. 참! 효원아, 올 때 할머니 그림 그려줄 거 가지고 와라. 어제 그리다 말았잖아.”

“아, 그거요? 별로 잘 그린 것도 아닌데...”

“할머니 보기에겐 잘만 그렸지만. 왜? 그려주기 싫으냐? 모텔이 좀 별로지?”

“아니예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고단하신데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할머니가 언제 그림에 모델을 서 보겠냐? 효원이 덕분에 그런 것도 다 해보지. 재미만 있더라. 꼭 가져와라.”

“네...”

할머니 댁은 사는 사람은 많지만, 다들 어른들이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와서 항상 할머니 혼자만 계시는 시간이 많아요. 하루 세끼 다 혼자 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같이 저녁 먹는 날이면 밥맛이 좋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먹게 되요.

할머니는 우리 엄마가 한 반찬을 좋아 하세요. 맛깔스럽다고 말씀 하세요. 엄마가 한 반찬을 맛있게 드시니까 더 기분이 좋아요. 엄마와 저의 꿈은 우리 동네에 반찬 가게를 내는 것이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엄마가 반찬 가게하면 잘 될 거라고, 할머니도 우리 가게에서 사다 드실 거라고 하세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의 응원단인 것 같아서 언제나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만 같거든요. 할머니가 응원해 주시니까 머지않아 우리 가게를 갖게 될 것도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살 수 있거든요. 엄마가 식당 일을 관두고 이제 집에서 일하실 테니까요. 그런 날이 어서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는 날이면, 일부러 진원이는 게으름을 피워요. 가자고 아무리 말해도, 보던 프로그램을 다 보겠다던가, 할머니랑 한글 카드 게임을 더 하겠다던가, 과일을 더 먹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일부러 그러는 거 다 알지만, 어차피 우리가 가면 할머니도 혼자 계시야 하니까 저도 일부러 저 주는 척 하고는 해요.

아빠도 혼자 계시기는 하지만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기 때문에 편찮으시대요. 누워서 컴퓨터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책도 읽으시고, 텔레비전도 보세요. 걸어서 밖에 나가는 거 말고, 집안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걸어 다니는 일은 하실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텔레비전도 재미가 없으시대요. 무슨 말인지 하 나도 알아 들을 수가 없대요. 노인정은 아랫동네에 있어서 너무 멀어 힘드시대요. 그냥 진원이랑 저랑 노시는 것이 제일 재미있으시대요. 저희도 엄마가 없을 때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좋아요. 저녁 때 진원이의 누장으로 시간이 나면 저는 주로 할머니 그림을 그려요. 할머니께서 내가 그린 그림을 좋아하시거든요. 할머니가 즐겁게 앉아서 기다려 주시니까, 할머니를 그리는 것이 저도 좋아요. 제가 그린 그림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저의 꿈이거든요. 저는 행복을 주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저의 첫 번째 손님이에요. 벌써 할머니 모습을 그린 것이 열 개가 넘어요. 할머니 얼굴만 그린 그림은 스무 개도 넘구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얼굴만 그린 그림은 초상화라고 한대요. 할머니는 특히 초상화를 좋아하세요. 자꾸 얼굴 그림만 그려달라고 하셔서 자꾸 그리게 됐어요. 할머니가 가끔은 이상한 표정을 지으셔서 웃긴 그림도 많아요. 그러면 그려 놓고서 할머니랑 같이 막 웃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저도 좋아요.

오늘밤에는 엄마가 오신 김에 자고 가신대요. 할머니가 편찮으신 덕분에 엄마랑 잘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역시 할머니는 내 편이세요.

엄마랑 자는 건 정말 좋아요. 다른 친구들이 부러운 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엄마랑 같이 자는 친구들은 부러워요. 우리 반 명훈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서 엄마랑 자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불평하지만, 나는 우리 반에서 명훈이가 제일로 부러워요. 엄마랑 같이 자다가 엄마 배에 파고들면 엄마가 나를 안아 주실 때가, 나는 정말로 제일 행복하거든요. 엄마를 사이에 두고 진원이와 내가 누워서 학교에서 있었던 얘거나, 동네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다가 잠이 드는 것도 좋아요. 속상했던 일들도 엄마가 위로해 주시면 마음이 풀리고 용기가 생기거든요. 오늘 이렇게 엄마랑 잘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이불 펴고 자려고 누워서 엄마와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진원이는 잠이 들고, 저도 잠이 솔솔 와서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중이었어요.

누가 현관문을 두드려서 엄마가 나가 보셨어요. 누구와 얘기를 하시더니 들어오셔서 저를 조용히 혼드세요. 무슨 일인지 겁이 나요. 전에 아빠가 사고 났을 때도, 이렇게 밤에 엄마가 조용히 저를 깨우셨거든요.

“효원아.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하신대. 진원이는 너무 어려서 좀 그렇고, 너는 괜찮다면 가봤으면 좋겠는데... 무서우면 안가도 돼.”

왜 무섭지? 할머니가 무서울 건 없죠. 얼마나 많이 봐왔던 할머니 인테요. 진원이가 나중에 안 데려 갔다고 화낼까봐 그게 더 무서운 데요.

“가요, 엄마. 같이 가 주실 거죠?”

할머니가 돌아가실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슬퍼져요. 둘

아가신다는 건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옷을 갈아 입다가 할머니께 드리고 싶었던, 우리 선물이 생각났습니다.

“참, 엄마. 진원이가 만든 한글 카드랑 제가 그린 할머니 초상화 좀 챙겨주세요. 할머니께 보여 드리고 싶어요.”

옷 입는 시간이 참 느리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5분도 안 걸렸는데, 오늘은 10분도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어서 가야지요.

할머니 댁은 온 집안에 다 불이 켜져 있어서 아주 환합니다. 어두운 데서 있다가 왔더니 눈이 부십니다. 할머니 방에도 불이 환합니다. 며칠 사이 할머니는 많이 마르신 것 같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할머니 머리맡에서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셔서 엄마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힘이 드신지 눈을 감고 있다가 뜨시고는 조금 웃으십니다. 제가 한글 카드와 할머니의 초상화를 보여 드리니까 조금 더 웃으십니다.

“할머니 나오시면 한다고 진원이가 만들었어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걸로만 만들었다고 진원이가 좋아했는데... 이걸 전에 할머니가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제가 할머니 생신에 드리려고 액자에 넣었어요.”

“고맙다...”

할머니가 웃어주시면서 눈짓으로 가져오라고 하셔서 가까이 가져다 옆에 놔 드렸습니다. 힘 없는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의 또 다른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거 가게 하는데 보태라....”

아저씨께서 할머니 머리맡에서 뭔가를 꺼내 주십니다. 통장이네

요. 저를 주셔서 받았더니, 엄마가 얼른 제 손에서 빼내 다시 아저씨께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저희 애들 봐 주셨는데... 제가 드려야죠.”

엄마가 할머니 손을 잡고 울먹입니다. 옆에서 아저씨가 다시 제 손에 통장을 쥐어 주십니다.

“어머니께서 적적하신데, 댁에 아이들이 친구가 되 주어서 고마웠어요. 저희 가족들은 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이 있어서 어머니가 심심치 않다고 이 통장은 꼭 애들 주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더라도 잊지 말고 챙기라고 얼마나 당부를 하셨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하지요. 아이들이 어머니께 드린 즐거움을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어요. 이 통장은 어머니께서 틈틈이 모으신 용돈이에요. 어머니께서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해 드린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이라도 마음 편하게 해 드려야죠. 댁의 아이들 행복해지는 거 보시는 것이 한 가지 남은 어머니의 소망이시래요. 부담 갖지 마세요. 어머니의 마지막 뜻이세요.”

엄마가 받지 않으니까 할머니께서 힘들게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효원 엄마... 내가 애들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에... 덜 심심했어... 애들 위해 뭐든 해 주고 싶어... 많지도 않아... 받아다구...”

“할머니... 그래도 어떻게 제가...”

“나 기운 없다... 내일 아침 보기 힘들것어. 효원이 그림은... 내 영정사진 옆에다... 봐 다구.”

할머니 말씀대로 할머니는 새벽이 오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할머니의 초상을 치르느라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다고 엄마가 선생님께 말씀해서 선생님께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3일 내내, 할머니의 사진 옆에 내가 그린 할머니의 초상화가 같이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할머니 사진 옆에 있는 할머니의 초상화를 보고 슬퍼하기보다는 웃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밤이 되어야 글을 쓰러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싫증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버티고 앉아 한 편을 완성해서 손에 질 수 있도록 채찍이 되어 준 공무원문예대전에 항상 감사합니다. 공모 마감일에 맞춰서 글을 완성해 내야 하는 억지 춘향이라도 되어서 한 편의 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갔던 길에서 좋은 결과를 보게 되니 감사하고 행복하면서도, 제 글의 가치보다 큰 상이 주어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 밤에도 아이들은 자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오늘은 이 시간이 여유롭고 편안합니다.

눈꽃 할아버지



경주 황성동주민센터

윤 현 진

사라락.. 사라락..

기나긴 겨울잠을 자던 다람쥐 가족 중 제일 막내인 콩순이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져 몸을 뒤척이다가,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쫑긋세웠다.

사라락.. 사라락..

‘앗, 누구지? 옆 나무에서 자고 계시던 부모님이 먼저 겨울잠에서 깨어난걸까?’

콩순이는 다시 한번 귀를 쫑긋 세운다.

사라락.. 사라락.. 사라락..

‘엄마 아빠가 벌써 깨어나셨나보다~!’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 생각에 신이 난 콩순이는 기지개를 쭉욱
펴고 힘차게 나무 밖으로 달려나갔다.

“아! 눈부서! 환한 햇살을 보니 눈이 부시구나~”

부비적 부비적 눈을 비비며, 여기저기 주위를 살피고 있던 콩순이
귀에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사라락.. 사라락..

소리가 나는 쪽으로 두 귀를 더 쫓긋 세우고 숨을 죽이니 어디선가
‘흑흑’ 하며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빠?.. 겨울잠에서 깨어나신 거예요??”

콩순이의 갑작스런 외침에 흐느끼던 울음소리가 딱 멈췄다.

목을 쪽 빼고 아까 소리가 나던 나무집 뒤쪽을 살펴보니 얼굴이 하
얇게 생긴 다람쥐 한 마리가 콩순이를 보며 흐르던 눈물을 급히 닦
아내고 있었다.

“누.. 누구?”

처음보는 낯선 다람쥐의 모습에 놀란 콩순이는 잠시 뒷걸음질을
쳤다가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넌 누구니? 왜 여기서 울고 있는거야?”

콩순이의 물음에 하얀 얼굴의 다람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난 콩순이라고 해.. 어릴적부터 콩을 무척 좋아해서 아빠가 콩순이
라고 지어주셨어. 넌 이름이 뭐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콩순이는 ‘하얀 얼굴의 다람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구나.’

다른 가족들이 깨어날 때까지 내가 하얀 얼굴의 다람쥐를 지켜줘야지'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하얀 얼굴의 다람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기... 난.. 조조라고 해. 나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렸다고? 어쩌다 길을 잃어버린 거니?” 라고 콩순이가 물었다.

“우리 집은 건너 마을에 있어. 겨울잠에서 깨어나 보니 숲 속 마을이 변해 있었어. 겨울잠을 자기 전 온통 초록나무로 가득했던 마을이 내가 잠에서 깨어난 후엔 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주변엔 커다란 건물들만 가득 생겨나 있었어..”

조조는 다시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가족들이 자고 있던 옆 나무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 하루 온종일 숲을 뒤졌지만 가족들을 찾을 수 없었어...”

“어쩐 그런 일이...” 놀란 콩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천둥같은 소리를 내는 기계들만 주변에 가득하고, 가족도 없이 혼자 된 나는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생각했지. ‘아, 눈꽃 할아버지를 찾아가야겠어’ 라고”

“눈꽃 할아버지? 눈꽃 할아버지가 누구야?” 콩순이는 궁금해졌다

“눈꽃 할아버지는 내가 사는 이 숲마을과 내가 살던 숲마을의 중간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 할아버지서~ 그 할아버진 나이가 백 살도 넘으셨어.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부터 그 자리에 있으셨는걸”

“와~ 대단하구나. 그런데 왜 이름이 눈꽃 할아버지야?”

콩순이는 신이 나서 물었다.

“할아버지의 진짜 이름은 ‘이팝나무’ 야. 그런데 할아버지 머리에 하얀 눈이 가득 쌓여 있어서 눈꽃 할아버지야”

“눈? 그게 뭔데?”

콩순이는 더욱 더 궁금해져 보채듯 물었다.

“나도 한번도 본적은 없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우리가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하는데 그건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때문이래.. 눈이 와서 하얗게 된 세상은 너무 너무 아름답대 ~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고 해.. 그런데 말이지.. 조금 더 따뜻해지면 신기하게도 할아버지의 머리가 하얗게.. 온통 하얗게 변해.” 조조는 눈을 감고 그 모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할아버진 말씀하셨어. ‘조조야, 내가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 눈이 내리면 지금 내 머리가 하얗게 변하듯이 세상이 온통 하얗게 된단다 ~ 신기하지 않니? 라고 말이야.’”

“와~ 신기해! 내가 자는 동안 그런 일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 조조의 말에 콩순이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난 생각했어.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겨울잠에서 깨어난 우리를 위해 할아버지의 머리위에 직접 눈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말이야.. 그 후로 난 이팝나무 할아버지를 눈꽃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숲속의 다른 다람쥐들과는 달리 얼굴이 하얗다는 이유로 늘 외톨이였던 나는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곳으로 놀러 가서 하루를 보내곤

했지. 가족들도 내가 보이지 않으면 눈꽃 할아버지에게 찾으러 오곤 했어.

지금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이 살아 있다면 나를 찾으러 눈꽃 할아버지에게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난 할아버지에게 가기로 결심한 거야.”

“그런데 말이야...”

조조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을 이어갔다.

“눈꽃 할아버지는 겨울동안 병이 깊어져 많이 아파하고 있었어. 더 이상 머리에 눈을 만들어 주지도 못하시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셨어. 가족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잠에서 깨어난 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찾아 헤매다가 이 숲속까지 오게 된 거야”

조조는 많이 굶주렸는지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내가 먹을 것을 좀 갖다 줄게. 겨울잠 자던 나무집 안에 먹을 것이 남아 있을 거야.”

콩순이가 도토리과 밤을 가져오자 조조는 허겁지겁 입안에 털어 넣었다. 그동안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었다.

한동안 열심히 먹이를 먹던 조조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는 “고마워.. 잘 먹었어. 난 이만 눈꽃 할아버지에게 가봐야해. 할아버지를 지켜드려야지.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픈 할아버지를 혼자 두고 멀리 나와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조조는 서둘러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넌 길을 모르잖아. 이 숲 속의 길은 내가
환하다구!”

“너희 가족들이 걱정 하실텐데..” 조조가 망설이며 대답했다.

“괜찮아. 가족들이 깨기 전에 빨리 다녀오면 아무도 모르실거야.”

“좋아.. 그럼 지금 출발하자!”

그렇게 하여 콩순이와 조조는 숲마을 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한번도 숲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던 콩순이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
기 시작했다.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보게
될 숲마을 바깥 세상이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푸른 숲이 걷히고 빛은 더욱 더 밝아지고 있었다.

얼마쯤 달렸을까?..

저 멀리 콩순이가 지금껏 한번도 보지 못했던 키가 아주 크고 몸집
이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조조가 크게 외쳤다.

“눈썹 할아버지!” 콩순이도 따라 외치며 나무를 향해 뛰었다.

가까이에서 본 눈썹 할아버지는 콩순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아파보였다.

“할아버지, 혼자만 남겨두고 멀리 갔다 와서 죄송해요.” 조조는 울
먹이며 할아버지의 몸에 올라탔다.

늘 따뜻했던 할아버지의 품이 오늘따라 너무나 차갑게 느껴져 조조
는 마음이 아파왔다

“천천히 오지 왜 이리도 급하게 뛰어왔니? 온 몸이 흠뻑 젖었구나.”
 눈꽃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며 조조를 꼭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숲속에서 만난 친구 콩순이에요.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콩순이가 저에게 먹을 것도 주고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조조가 콩순이를 소개하자 콩순이도 반갑게 인사를 하며 할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콩순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왜 이렇게 몸이 차가우세요? 지난 겨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조조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구나. 이 자리에서 백년 넘게 서 있으면서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왔지... 봄이 오면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푸른 잎들이 무성하며, 가을에는 시원한 바람 속에 흩날리는 낙엽소리도 들었고 겨울에는 우리 조조가 보고 싶어하는 진짜 눈도 실컷 구경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요즘 들어 이 주변에는 꽃도, 푸른 잎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 대신에 시끄럽고 냄새나는 자동차들이 땅위를 다 차지하고 있지. 할아버진 이제 기력이 다해서 맑은 공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단다... 겨울동안 병이 더 악화되어서 할아버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하구나...”

눈꽃 할아버지는 힘에 겨운 듯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다
 “안돼요, 할아버지! 죽으면 안돼요!” 조조가 울음을 터트리자 콩순이도 덩달아 눈물이 났다.

“울지마렴. 두 친구들...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는 법이란단.”

할아버지는 콩순이와 조조를 안아주며 말을 이었다.

“그나저나 우리 친구들에게 눈 구경을 시켜주지 못할 것 같아 섭섭하구나.”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져 먼 곳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아이들이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할텐데.....’

“조조! 조조야!!”

할아버지의 품에서 잠이 들었던 조조와 콩순이는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조조! 조조야!! 너 여기에 있니??”

엄마 목소리가 분명했다.

조조는 벌떡 일어나 나무 밑을 내려다 봤다.

저 멀리 조그맣게 엄마, 아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아빠!!” 조조는 미끌어지듯 나무에서 내려와 엄마, 아빠에게로 달려갔다.

“어디에 계셨던거예요? 난.. 난... 너무 걱정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널 찾아왔잖니. 우리도 네가 너무 걱정되고 보고 싶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보니 잠을 자고 있던 나무집은 온데 간데 없고, 사방이 커다란 돌로 가로막혀 있어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어. 다행히 네 아빠가 작은 동굴을 발견해서 그곳을 뚫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 밖으로 나온 뒤 널 찾았지만 너는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만약 네가 살아있다면 눈썹 할아버지를 찾아 왔을 것 같아

이리로 오게 된거란다. 우리 아들, 살아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다.”

조조의 세 식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눈꽃할아버지와 콩순이도 마음이 찡해왔다.

“눈꽃 할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우리 세 식구가 만날 수 있었던 건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눈도 내려주시고, 가족도 만나게 해주신 은인이세요.”

어느새 모두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다람쥐들은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품 속에 있던 다람쥐들은 할아버지의 몸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죠?.. 할아버지를 이대로 돌아가시게 놔둘 순 없어요.”

조조가 애타게 말했다.

“그래요. 할아버지. 이대로 있다간 위험해요.” 콩순이도 거들었다.

“괜찮다. 나는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오래 살았어.. 허허...”

할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전 괜찮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세상에 하나뿐인 내 친구였잖아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만 하시는 할아버지가 안쓰러워서 조조는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이제 친구가 생겼잖니. 이 할아버지가 보기에 콩순이는 참 좋은 친구가 될 것 같구나. 이 늙은 할아버지보단 네 또래와 노는 게 훨씬 더 재미있지 않겠니? 허허....”

할아버지는 또 힘없이 웃기만 하셨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와 평생 친구 할 거예요!!”

조조의 울부짖음에 할아버지는 힘없는 웃음을 멈추고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

그리곤 잠시 후 나즈막히 말씀하셨다.

“그럼,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니?”

“네.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네 마리 다람쥐는 동시에 대답했다.

“내가 지난해부터 조금씩 모아온 열매가 있단다. 이 열매들을 숲속으로 가져가서 땅에 심어다오.”라며 할아버진 나뭇가지 속에 간직하고 있던 열매들을 내보이셨다.

“알았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이 열매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숲속으로 가져가서 땅에 심을게요.”

“저두요.”

“저도 열심히 심을게요.”

“약속해요!”

조조의 아빠가 먼저 약속을 하자 나머지 다람쥐들도 차례로 약속을 했다.

“고맙다. 할아버지가 이것밖에 줄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눈꽃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신 뒤 또다시 먼 곳을 바라

보셨다..

할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네 다람쥐는 열심히 열매를 옮겼다.

얼굴 주머니에 열매를 하나씩을 넣고, 양손에 또 열매 하나씩을 들고, 숲속까지 몇 번이고 달려가 열매를 옮겨 심었다.

마지막 열매를 심고 나니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 서둘러 할아버지에게 가자꾸나. 오늘밤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잠을 자야겠다.”

조조의 아빠 말씀에 모두가 동의하며 숲을 빠져 나왔다.

숲에서 나온 다람쥐들이 눈꽃 할아버지 곁에 다 오도록 할아버지는 아무런 기척이 없으셨다.

“할아버지, 열매를 모두 다 심었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조조가 제일 먼저 할아버지에게 뛰어 안기며 씩씩하게 얘기했다. 이어 조조의 엄마 아빠도, 콩순이도 모두 할아버지에게 안겼다.

그런데, 네 다람쥐는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눈꽃 할아버지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조조는 할아버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옮겨 다니며 체온을 느껴봤지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얀 눈을 내려주시던 할아버지의 머리에도,

튼튼한 가지를 뺏어내던 몸통에도,

늘 따뜻하기만 했던 다리에도... 차가운 기운만이 느껴졌다.

네 다람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할아버지를

꼬옥 안고 껌껌한 밤을 흘려보냈다.

사라락... 사라락...

‘무슨 소리지?’

겨울잠을 자던 콩순이는 조그맣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라락... 사라락... 사라락...

소리가 점점 커져가더니

“콩순아! 나야 나. 조조! 아직도 자고 있니?”

겨울잠에서 먼저 깨어난 조조가 심심했는지 늦잠을 자는 콩순이를 깨우고 있었다.

“아이구,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나! 너, 나랑 놀고 싶어서 일찍 일어난거지?”

콩순이가 조조를 놀리며 나무 밖으로 얼굴을 빼꼼히 내밀어 보니 신이 나서 나무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는 조조의 모습이 보였다.

지난 봄 눈꽃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이 숲속에서 살게 된 조조는 콩순이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둘은 나무도 타고 도토리도 주우며 늘 하루종일 붙어 다니던 사이였으니, 겨울잠을 잤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오랜만에 만난 둘은 신이 나서 온 숲속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봄의 시작을 알리듯 두 다람쥐는 숲속의 모든 동물들을 깨우고 있었다.

“어... 이건 뭐지?”

앞서가던 조조가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거기 뭐가 있는거야?”

뒤따라 뛰어오던 콩순이는 조조 옆에 나란히 서며 물었다.

“여길봐... 여긴 지난 봄에 우리가 할아버지의 열매를 심었던 곳이야. 여기 새싹이 자라났어.”

조조가 손으로 가리키는 쪽을 보자 신기하게도 그 자리엔 초록의 새싹이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는게 보였다.

“와!! 신기하다.” 콩순이가 숨을 죽이고 가까이 들여다 보았다.

그때, 조그맣게 소리가 들려왔다.

“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봄의 눈을 선물해줄게.”

열매를 심었던 땅에서 자라난 새싹이 콩순이와 조조에게 작은 목소리로 봄의 눈을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몇 년 후, 따뜻한 어느 봄날 숲속 마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다..

겨울에 내린 함박눈보다도 더 하얀 봄 눈이.....

낮선 길로 한걸음 내딛기란 두려움과 설레임의 혼돈 상태가 아닐까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여전히 어린 마음이었던 나에게 우리 아기, 힘찬이가 찾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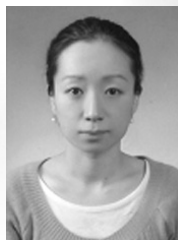
아직은 뱃속에서 꿈지락 꿈지락거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전부이지만
아기는 엄마에게 참 기쁨을 가르쳐주고, 매일 매일을 새로운 아침으로 밝혀주었지요.

축복같은 이 아기에게 세상 모든 아름다움과 사랑과 정의를 선물해주고 싶어
엄마는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부족함이 많은 글이지만, 엄마의 이 마음만은 남김없이 힘찬이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바쁜 생활속에서도 신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소소한 행복의 나날로 나의 삶을
채워주는 우리 신랑.. 고맙고 사랑합니다~

반항아 수달의 친구만들기



서울시 교육청
강 화 성



먼저, 물 위에 편안히 누워보세요. 흐르는 물살이 느껴지나요? 자, 중심을 잡고, 조심조심 조개를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한손은 조개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돌맹이를 꼭 잡으세요. 자, 조준합니다. 땡. 땡. 돌맹이로 조개입을 땡!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중심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아차차. 뽀그르르 뽀그르르. 객. 객. 수달군 또 실패하는군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네요. 보는 것만큼 쉽지가 않나 봐요.

혼자 남은 수달군은 투덜투덜 물가를 걷습니다.

‘강물에 누우면 물살은 등을 간질이고, 물고기들은 콧코 찍으며 장난을 건다구. 바람과 구름은 술래잡기를 하자며 왔다 갔다하구. 코 위에 나비마저 앉아 팔랑팔랑 놀자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수달군은 마음속으로 외쳤지요. 선생님은 왜 모르시는 걸까요? 수달군은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그래서, 반항아 수달군은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부터 나무위에서 살거야.”

수달군이 혼자 씩씩 대고 있는데, 부스럭부스럭. 훌쩍훌쩍. 나뭇잎 사이로 끔찍하는 큰 눈이 보입니다.

“누, 누구야?”

수달군은 처음 보는 큰 눈에 깜짝 놀랐어요.

“저, 나, 난 부엉이인데.”

부엉양 큰 눈에는 물이 참방참방해요.

“응? 하늘을 나는 부엉이? 너희들은 높은 나무에만 사는 거 아냐?”

“흥, 수달은 나무위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냐?”

부엉양은 팽! 뒤돌아 앉았어요.

“높은 곳은 무섭단 말이야.”

눈물이 달린 작은 목소리가 들리네요.

수달군은 아차 싶었어요. 나무위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를 이렇게 화가 나게 하다니요. 수달군은 신사답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나는 강에서 사는 수달이라고 해. 뭐, 지금은 나무위에서 살려고 하지만 말이야.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부엉양은 살짝 놀라 돌아봤어요.

“수달이, 왜 나무위에서 살려고?”

“첻”

수달군은 다시 생각해드 화가 났어요.

“하늘보는수영을 못한다고 혼났어. 선생님은 이유도 안물었다구. 첻. 수영을 안 해도 나무위에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 줄 거야!”

“수달군은 수영 못해?”

수달군은 당황하여 크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니야, 나 수영 잘 해. 그냥 하늘보는수영을 하면서, 조개 열기만 하라고 하잖아. 하늘에는 구름도 보이고, 바람은 간질이고, 나비도 놀자하는데 말이야.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화만 낸다구.”

“하늘을 보면서 수영을 해? 물 위에서는 기분이 어때?”

부엉양은 물었어요.

“엄청 근사해. 편안히 누우면 엄마가 안아주는 것처럼 강물이 안아 주거든. 발로 툭툭 물을 차면, 방울방울이 춤을 춘다. 너희들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는 물위를 나는 거야. 바람이 좋아하는 구름을 쫓아 다니는 것도 볼 수 있어.”

“멋지겠다.”

부엉양의 말에 수달군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무를 오르는 것보다는 수영이 더 재미있는데.....’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수달군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선생님에게 수달군이 화가 났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생각이거든요. 주먹을 불끈 쥐며 각오하는 수달군입니다.

“나, 나무위에 올라오는 수달도 처음 봤어. 수달군은 재주가 많은 가봐.”

“응. 나무위에 올라오는 건 나만 할 수 있어!”

부엉양의 칭찬에 수달군은 한껏 어깨가 으쓱했어요. 엄마는 나무 오르기는 수달답지 않은 행동이라며 꾸중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울고 있었던 거야?”

수달군은 물었지요.

부엉양 얼굴이 빨그레 지네요.

“아니, 부엉양 눈에 찰랑찰랑 물결이 보였거든.”

부엉양은 진짜 울 것처럼 더 발개졌어요.

“아니,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봐”

수달군은 귀여운 부엉양이 울까봐 안절부절 이에요.

부엉양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다른 부엉이친구들에게는 창피해 한 번도 말하지 못했거든요. 수달군이라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수달군이 다른 친구들에게 부엉양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까? 부엉양은 걱정이 됐어요.

“우리 친구하자. 나, 하늘을 나는 친구는 한명도 없거든. 하늘을 날 수 있다니, 엄청 멋진 거야. 너희들은 밤에도 멋지게 날아다니잖아. 그치?”

부엉양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달군은 부엉양을 만나 마냥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부엉이친구들은 이렇게 낮은 나무에는 내려오지 않으니, 수달군이 비밀을 말할 수는 없을 거야.’ 부엉양은 수달군의 동그랗고 까만 눈을 바라봤어요. 부엉양은 답답한 마음을 수달군에게 조심조심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응. 맞아. 우리는 밤에 하늘을 날아. 그래서, 어두운 밤에는 달님이 환하게 길을 비춰주지. 친구들은 달님에 가까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 노래도 부르는데, 달님은 귀찮아하지도 않고 매번 웃어주셔. 나도 달님이랑 친해지고 싶어.”

“그럼, 달님한테 친구하자고 하면 되잖아? 우리처럼 말이야.”
수달군은 씩씩하게 말했죠. 녀석도 좋은 수달군입니다.

“나는.....”

“높은 곳이 무서워서 달님한테 갈 수가 없어.”

부엉양 눈에 또 물이 차오르네요.

수달군은 조금 놀랐어요. 하늘을 나는 부엉양이 높은 곳을 무서워 하다니요. 하지만, 생각했죠. 부엉양은 수달군이 하늘보는수영을 못하는 이유를 들어줬는걸요. 그리고, 수영하는 게 멋지다고 이야기해줬어요. ‘부엉양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수달군은 작은 귀를 만지작거렸어요. 수달군이 열심히 고민할 때 나오는 습관이거든요. 귀를 너무 많이 만져서, 시험기간에는 반창고를 달고 다닐 때도 많아요. 그러면, 물살이, 물고기들이, 나비가, 바람이 반창고 사이를 간질이며 더 장난을 걸지요. 수달군은 차근차근 묻기로 했어요.

“달님이랑 무얼 하고 싶은데?”

부엉양은 살짝 얼굴을 붉히고, 펜스레 부리로 날개를 다듬습니다.

“나는 이야기도 재밌게 못하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가 나는 노래를 잘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드리면, 그러면, 달님이 날 기억해주지 않을까?”

부엉양은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에게 소리내어 말하니, 왠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응. 내 노래라면 달님이 나를 기억해줄거야.”

“그럼 말이지. 흠. 흠”

수달군이 점잔을 빼며 헛기침을 하는군요.

“나도 듣고 싶어! 응! 응!”

수달군은 부엉양에게 노래를 불러달라며 졸랐어요. 부끄러워하던 부엉양은 작지만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무들도 노래를 듣기 위해 잎의 방향을 바꾸고, 장난꾸러기 바람도 잔잔히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와. 부엉양 진짜 노래 잘하는구나.”

수달군은 감탄했어요. ‘내가 부엉양이랑 같이 가면 안 무서울 텐데. 부엉양에게 높은 곳이란 어느 정도일까?’

“부엉양, 지금 이 나무는 높지 않은 거지?”

부엉양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여기도 엄청 높은데, 그럼, 이 나무는?”

수달군은 바로 옆의 조금 더 큰 나무를 가리켰어요.

“별로 높지 않아.”

수달군은 다시, 끝이 잘 보이지 않는 나무를 가리켰어요.

“저기, 저 나무는?”

“그 나무도 무서울 만큼 높은 건 아니야.”

부엉양이 주저하며 말했죠.

“우와. 저렇게 높은 나무도 안 무서워?”

수달군은 나무 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질어질했거든요.

“달님은 더 높은 데에 계시거든.”

부엉양은 얼굴이 발개진 채 작게 말했어요.

수달군은 다시 귀를 조물거립니다. ‘나는 이 나무도 높은 걸. 저 나무는 근처에도 갈 수 없어. 어찌지? 저 나무보다 더 높은 곳에 부엉양이 가려면? 부엉양이 무섭지 않게 달님에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수달군은 계속 작은 귀를 만지작만지작했어요.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저러고 있을 건가보아요. 날은 벌써 어두워져 선선한 밤 바람이 부는데 말예요.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역시, 난 천재라니까.”

기쁨에 들떠 폴짝 폴짝.

나무위에 간신히 메달린 수달군은 부엉양을 향해 씨익 웃어줬어요.

“우리가 달님에게 갈 줄 수는 없다면, 달님이 우리한테 오면 되잖아!”

“어, 어떻게?”

수달군은 빙그레 웃었어요.

달님은 하늘에서 환히 웃고 있어요. 수달군이 바람에게 소곤소곤

부탁을 하네요.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불자, 부엉양은 바람에 노래를 실어요. 노래를 실은 바람이 구름의 도움을 받아 높이 높이 올라가지요. 곱고 아름다운 노래가 바람을 타고 달님에게 가고 있어요. 달님이랑 별님은 바람과 구름의 방문에 무슨 일일까 궁금했어요. 바람은 데려간 노래를 달님에게 펼쳐보이네요.

멀리서 달님이 빙긋 웃는 게 보여요.

수우욱.

달님이 갑자기 나무 위로 내려왔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나뭇잎들은 수줍게 반짝거리고, 강물은 반갑다며 찰랑찰랑 소리내지요. 달님을 따라 총총 따라온 별님들은 나뭇잎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까르르 웃고들 있네요.

“부엉양, 반가워요.”

부엉양 큰 눈이 더 동그래지며 꿈벅, 멈추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달님.”

수달군은 얼어버린 부엉양을 대신하여 멋지게 인사했지요.

“바람과 구름을 보낸 수달군이죠? 부엉양은 좋겠어요. 이렇게 멋진 친구를 두어서요.”

달님은 수달군을 빛으로 토닥토닥해주었어요. 수달군은 멍쩍었지만, 뿌듯하기도 했어요. 아름다운 달님이 칭찬을 하고, 부엉양의 소원도 들어주었으니까요. 비록, 부엉양은 여전히 얼음상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만요.

“부엉양이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친구들한테 듣고 있었어요. 수줍어 놀러 오지 못한다구요. 노래를 정말 잘한다고들 해서, 정말 듣고

싶었어요. 이렇게 바람에 실어 보내주다니, 고마워요. 이런 생각을 해준 수달군도 고마워요.”

달님은 쩡긋 수달군에게 눈인사를 했어요. 부엉양은 달님의 말에 놀라,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하는 수달군을 보지 못하네요. ‘다른 친구들이? 부엉양은 친구들이 높이 날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는 줄로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달님에게 부엉양이 노래를 잘한다고 말해주다니요. 부엉양은 꿈하고 숨어버렸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부엉양 노래에 모두들 즐거웠어요. 봐요. 별님들도 궁금하다며 따라왔잖아요. 자주 노래를 보내줄 수 있을까요?”

바람도 구름도 노래를 담은 것이 좋다며, 부드럽게 부엉양을 쓰다듬네요. 별님들도 기뻐 더욱 반짝반짝 빛났어요. 부엉양은 드디어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네, 열심히 연습해서 더 고운 노래를 부를게요.”

부엉양은 달님의 따사로운 빛에 오색빛으로 반짝였어요.

“부엉양, 수달군. 만나서 반가웠어요. 내가 너무 오래 내려와 있으면 세상이 너무 깜깜해져서 다들 어리둥절할거예요. 부엉양, 나랑 약속한거예요. 약속 잊지 말기예요.”

달님이 부지런히 하늘로 오르자 나무들도 아쉬운지 그들이 젖어요. 숨바꼭질에 이어, 물장구를 치며 놀던 별님들도 출랑출랑 달님을 따라 오르네요.

달님이 오르자, 부엉양은 정신을 차린 듯 수달군을 보았어요.

“수달군 덕분에야. 고마워.”

“내가 뭘. 부엉양이 노래를 잘해서인 걸.”

수달군은 멍쩍어 귀만 만지네요. 오늘 고생한 귀는 내일 또 반창고를 붙이겠어요.

“나, 계속 친구들을 오해하고 있었어. 내가 먼저 말을 해본적도 없으면서, 혼자 친구들이 비웃을 거라고만 생각했거든. 나, 친구들에게 사과하러 가야겠어. 수달군 고마워.”

부엉양은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오르네요.

혼자 남은 수달군은 조금 외로웠어요. ‘나도 선생님에게 물에 빠진 이유를 말해볼까? 나무위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수영하는 것도 좋은데..... 실은, 더 좋은데.....’

“수달군”

하늘을 오르던 부엉양이 고민하고 있는 수달군을 불렀어요.

“나무위에서 만나는 수달군도 좋지만, 수영하는 수달군도 멋진 거 같아. 나는 하늘보는수영을 할 수 없지만, 수달군이 얘기해주면 나도 수영하는 기분일거야. 고마운 바람이랑 놀 수도 있고, 하늘에서 노래하는 나도 볼 수 있고 말야. 그리고, 나도 수달군이 멋지게 수영하는 걸 보고 싶어.”

멀리서 보아도 발그래진 부엉양의 고백입니다.

고민하지 않아야겠어요. 수달군도 좋아하는 수영을 하고 싶으니까요. 수달군은 부엉양이 볼 수 있도록 크게 끄덕입니다.

이제,

수달군은 나무에 오른 후에는, 달님을 보며 강물에 누워 수영을 한답니다. 강물은 사랑사랑 수달군을 흔들어주고, 시원한 바람은 수달군의 땀을 식혀주지요. 부엉양은 고운 노래를 부르고, 달님은 이 어여쁜 친구들을 따사로이 비추어줍니다.

아빠가 좋아하시겠지. 매일 매일 힘든 치료가 이어지는 나날들. 퇴근 후 병원에 들러 하루를 조잘댔 때, 딸이 다시 시작한다고, 아빠에게 이야기가 안써진다며 투정도 하고, 그래도 차근차근 써나가고 있다고, 내심 멋진 결과를 기대해달라고, 내일을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써보자 결심했었습니다.

둘레 둘레 소재를 찾다, 나무위에 오른 귀여운 수달사진을 보았습니다. 수달을 주인공으로 삼아 병원을 오가며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 눈 앞에서 뛰어다니는 장난꾸러기 수달군을 글로 담지 못해 아쉬웠지만, 미숙하게나마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동상이지만, 이렇게 시작한다고. 조금은 부끄럽지만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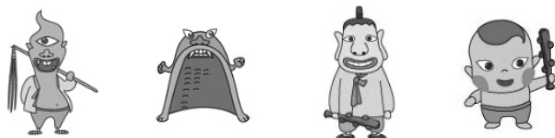
다음번엔 정말 근사하게 잘 쓸거니까. 내가 누구 딸인데. 큰소리 뽕뽕 치고 싶습니다. 많이 좋아하셨을 텐데. 빙그레 웃으셨을 텐데, 친구분들께 은근슬쩍 자랑도 하셨을 텐데. 조금만 일찍 발표가 났더라면, 아빠가 조금만 더 기달려주었더라면... ... 좋아하셨을 텐데... ...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 꿈꾸고 노력하겠습니다.

요술 주머니와 도깨비



천안 교도소
김진우



“할머니, 50원만 주세요. 네?”

“그래 우리 이쁜 새끼. 50원가지고 무얼 할려고 그러누?”

“구슬 사려구”

“구슬은 지난번에 사 주었는데”

“놀다가 친구들한테 저서 다 빼앗겼단 말이야”

“자꾸만 사달라고만 하면 할미가 어떻게 다 사줘”

“신기한 요술주머니 있잖아. 거기서 꺼내주면 되지”

“요술주머니도 아무 이유 없이 원하는 것을 다 주지는 않아.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만 들어 주는 거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다 봤어. 할머니가 요술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나왔잖아. 껌 먹고 싶으면 껌나오고, 사탕 먹고 싶으면 사탕 나오고, 구슬 나오고, 돈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돼. 할머니 미워!”

혁이의 떼쓰기가 좀체 그칠 것 같지 않자 잠시 생각을 하던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비단 주머니 속에 뭐 있는 줄 알어?”

“뭔데?”

실은 혁이도 주머니를 신기하게 여겨온 터라 할머니의 물음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도깨비가 살지?”

“도깨비!?”

“혁이가 원하는 게 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것도 주머니 안 요술 도깨비 때문이란다”

도깨비라는 말을 듣자 순간 혁이는 덜컥 무서움을 느끼며 할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에이 거짓말이지? 할머니 무서워”

“무섭기는. 우리 새끼. 겁쟁이었나 보네”

혁이는 할머니가 겁쟁이라고 말을 하자 제일 듣기 싫은 말을 들은 것에 뿔이 났습니다.

“아니야. 나 겁쟁이 아니야. 그냥.. 오늘은 구슬 안사도 된다고!”

혁이는 할머니의 품 밖으로 나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이쿠 놀래라. 할미 귀 떨어지겠다. 할미가 주머니 얘기를 더 들려 줄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싫어. 그럼 무섭잖아. 난 도깨비 무서워”

“에끼 녀석. 안 무섭다면서”

“내가 무서워서 그리는 게 아니래두. 치~ 나가서 놀고 올거야. 할머니 미워할꺼야!”

혁이는 오늘은 일단 한 발 물러나기로 하였습니다. 겁쟁이라고 놀림 받는 것은 싫었지만 도깨비는 혁이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혁이는 축구공을 들고서는 부리나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혁이의 뒷모습을 사랑스럽게 쳐다보시고는 요술주머니가 들어 있는 반질고리를 꺼내어 바느질을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다음 날.

혁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지만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문 앞에서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을 할머니도 보이지 않았 습니다.

“할머니! 엄마!”

방문을 모두 열어 보았지만 집에는 정말 아무도 없나 봅니다. 실망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할머니 방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옷장 위 반질 고리가 살며시 보였습니다. 혁이는 반질고리 안에 할머니의 요술 주머니가 들어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할머니가 요술 주머니 안에 도깨비가 산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주머니 안에 도깨비가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주머니 안에 정말로 도깨비가 들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섭 기도 했지만 도깨비가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작은 주머니 안에 있으니 자기 보다 훨씬 작을 것이 분명하고, 잘만하면 자신이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긴 혁이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자기 키만한 식탁의자를 힘겹게 들고 왔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섰지만 요술주머니가 들어

있는 반진고리는 두 손을 힘껏 뻗어 보아도 닿지를 았았습니다. 있는 힘껏 까치발도 떼어 보았지만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혁이의 눈에 책꽂이의 책들이 보였습니다. 혁이는 위험스럽게도 의자위에 여러 권의 책을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서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책 더미 위에 두발을 모두 올리는 순간 흔들거리던 책들이 무너져 내렸고, 혁이는 그만 방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혁이는 그대로 펄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오른 팔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두렵고 무서워진 혁이는 있는 힘껏 엉엉 울며 소리 내어 엄마, 아빠,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할머니가 혁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뛰어 오셨습니다.

“어이쿠. 내 새끼 무슨 일이야? 어딜 다친 게야?”

“할머니!”

혁이는 할머니를 보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지만 울음은 멈추질 았습니다. 오른쪽 팔도 움직일 수가 았었습니다. 떨어지면서 오른 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아마도 그때 팔을 다쳤나 봅니다.

그날 혁이는 연락을 받고 회사에서 급하게 돌아온 아빠와 병원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혁이의 팔뚝에 금이 가 한동안 팔을 사용할 수 았다며 다친 팔을 붕대로 꼼꼼 감아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동네 입구까지 나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혁이의 팔을 감싸고 있는 붕대를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아팠을꼬”

그날 저녁은 할머니가 밥도 먹여주고 치카치카 양치질도 시켜

주었습니다. 평소 하기 싫은 것들을 할머니가 다 해주니 혁이는 팔이 아픈 것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잘 시간이 되자 할머니가 혁이에게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자자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혼자 자기로 아빠와 약속을 한 혁이가 슬쩍 아빠의 눈치를 살피보았습니다. 아빠가 살짝 미소를 지어보이자 혁이는 너무 신이 나서 부리나케 베개를 챙겨 들고 할머니의 방으로 뛰어 들어 갔습니다. 할머니의 품은 언제나 따뜻하고, 혁이는 할머니의 가슴을 만지며 자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7살이 되었으니 꾸꾸는 안 만질 거라고 할머니에게 먼저 씩씩하게 말을 합니다.

“혁이, 오늘 할미 요술주머니 구경하고 싶어서 올라가려다 다친 게지?”

“응. 할머니. 나 도깨비 같은 거, 안 무서워하는 거 할머니한테 보여줄려고 그랬어”

“대견도 하지”

할머니는 연신 혁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이야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할미가 왜 요술주머니를 혁이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옷장 위에 두었는가 하면...”

“이제 괜찮아. 나 이제 복주머니 도깨비도 무섭지 않고, 안 궁금해”

“이리 온 내 새끼. 그래도 오늘은 할미가 요술주머니 얘기를 해주어야겠다.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자자꾸나. 그리고 다시는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는 안 된다. 알았지?”

“응. 할머니”

할머니는 혁이를 품에 안고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혁이 만큼 작았을 때의 오래된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혁이처럼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란다. 그때는 할머니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어. 할머니도 어렸을 때에는 혁이처럼 군것질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했지. 여자 아이였지만 위로 오라버니들만 있었기 때문인지 머슴아 같다는 소리를 아주 많이 들으며 컸단다.

할미의 아버지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박물장수였는데 한 달 이구 두 달이구, 한번 장사를 나가면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았단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시는 날이면 항상 신기한 물건이나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을 한가지씩은 꼭 선물로 주셨지.

어느 날 아버지가 허리춤에 형형색색 고운 비단으로 만든 예쁜 주머니를 차고 있기에 할머니가 물어보았다.

“아버지. 그 주머니는 무언가요?”

“이거 말이나. 아주 신기한 주머니란다.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주머니지.”

“정말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도 다 가질 수 있나요?”

“그럼 물론이지. 우리 연이 일전에 머리핀 갖고 싶다고 했지. 오늘은 어디 주머니에게 머리핀을 달라고 한번 해볼까?”

할미의 아버지는 호기심에 가득 찬 내 얼굴을 뵈히 들여다보시고는 빙긋 웃으시며 주머니 안을 향해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하듯 했다.

“우리 연이가 예쁜 머리핀을 오래 전부터 갖고 싶다고 했는데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그 때 할미는 너무나도 떨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단다. 말을 마친 아버지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자 놀랍게도 아버지의 손에는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머리핀이 들려 있지 뭐냐.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그 주머니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 안돼요?”

“그건 곤란하구나. 지금 줄 수는 없어. 대신 우리 연이가 이 담에 아
비처럼 큰 사람이 되면 그때 줄게.”

“왜 안돼요. 지금 주세요. 네?”

그날 할미도 혁이처럼 고집이라는 고집은 다 부리고 생때도 잔뜩
써보았지만 아버지는 결국 지금 주면 요술주머니는 그저 평범한 주
머니가 되고 만다면서 주시질 않았단다. 그러면서 주머니 안에 사는
도깨비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지.

아버지가 어느 절에 물건을 팔기 위하여 들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동자승이 저 신기한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는 엿과 바꾸어 먹자고 해
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게 누구의 물건이나 라고 물어 보았단다.
동자승은 “저희 큰스님이 주신 신기한 요술주머니예요. 내가 원하
는 것은 다 주는 신기한 주머니죠. 큰스님이 안에 도깨비가 산다고
그랬는데 열어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주인이 된 뒤로는 그냥
평범한 주머니가 되고 말았어요. 큰스님이 가지고 계실 때는 안 그
랬는데..”라고 말을 하고는 부리나케 엿을 들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고 하더구나.

아버지는 동전이나 넣고 다녀야겠다 싶어서 몇 개의 동전을 넣고
는 그 절을 나왔다. 그렇게 동전주머니로 사용을 하고 집에 돌아오
던 길이었는데 그만 나에게 줄 선물을 깜박하신 거야. 연이가 분명
실망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던 중, 일전에 동자승이 했던 말이 생각
나길래 재미삼아 주머니에게 “우리 연이 줄 단 사탕 좀 만들어 주겠
느냐”라고 묻고서는 안에 손을 넣어 보았더니 아 글썽 그 안에 맛있
는 사탕이 들어있단지 뭐냐.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요술주머니

도깨비는 아이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인이 되면 숨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싶었고, 그래서 주머니를 줄 수 없다고 하셨다.

며칠 후.

아버지는 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서는 다시 먼 장사 길을 떠나셨다. 이후에도 어김없이 장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내가 전에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을 꺼내 주셨고 나는 그저 그 신기한 복주머니를 한동안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지.

어느 날 저녁이었다. 오래 만에 장삿길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가 잠시 이웃 마을에 다녀오신다고 하시며 나가시길래 나도 같이 간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너는 집에 있거라.” 하고 서둘러 나가셨지. 그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아버지 몰래 아버지를 뒤 따라나섰다. 희미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따라 열심히 따라 가고 있는데 발에 무언가 치이더구나.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달빛 아래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는 것은 분명 비단으로 만든 아버지의 주머니가 틀림없어 보였다. 아마도 아버지의 허리춤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순간 무척이나 떨리고 설레었단다.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요술주머니가 내 손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떨렸겠니.

‘지금 열어볼까?’ 하며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새 아버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만 낯선 길에서 아버지를 잃어 버린게지.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때는 지금처럼 전기라는 것이 없어 그저 달님이 전부인지라 한 밤에 구름이라도 꺾어버리면 사방이 칠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였단다. 슬슬 무서운 생각이 들더구나.

‘분명 이 길로 온 것이 맞는데..’

길을 잃어 버렸다고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도 다리에 누가 매달려 있는 것 마냥 계속 무겁고, 숨쉬기도 힘들어지더구나. 양손을 휘휘 저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조심 나아갔지만 길은 점점 울퉁불퉁해지거나 급하게 경사지더니 급기야는 길도 아예 없어져 버렸단다. 얼마 안가서 따가운 가시들이 몸을 마구 핏키고 찌르고, 돌부리에도 넘어지고.. 무서운 산짐승의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하였다.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버리더구나.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엉엉 울면서 걷고 있는데 손에 들고 있던 북주머니 생각이 났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이 요술주머니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말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머니를 꼭 잡고 간절하게 “주머니야. 주머니야. 너무 무서워.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거라” 라고 소원을 빌고 몇 걸음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발밑에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들더니 공중으로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번쩍 빛이 보였고,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아주 잠시 동안 희미하게 눈앞에서 빛 같은 것이 아른 거리고, 무언가 나를 업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후로는 아무 기억이 나질 않더구나.

얼마동안 잠이 들었을까? 낯익은 냄새와 훈훈한 기운에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이니? 내가 우리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지 뭐냐. 그리고 내 옆으로 오빠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정신이 들었느냐. 큰일 날 뻔 했다. 그러게 집에 있으래두.

언제 따라와서는..”

“죄송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집에 왔지요?”

“누군가 너를 업고 오는 것을 감나무 집 아저씨가 보았는데, 아저씨가 가까이 다가서자 마을 어귀 숲에 내려놓고 사라졌다고 하더구나. 그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인사도 못 드렸다”

“아버지. 요술 주머니는요?”

“어디서 잃어버렸나 했더니 네 손에 들려 있더구나. 이 주머니 연이 그냥 줄까?”

“아니요. 이 답에 아버지처럼 큰 사람이 되면 그때 주세요.”

그리고, 그 후 나는 오랫동안 주머니에 대해 까마득히 잊고 살았다. 요술주머니는 항상 아버지의 허리춤에 달려 있었지만 나는 얻고 싶은 것을 꺼내어주는 그 주머니가 그냥 고맙고 좋았을 뿐, 갖고 싶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해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구해준 것이 주머니 속 도깨비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란다.

오늘도 혁이가 다쳤을 때 할머니는 옆집에 잠시 있었는데, 누군가 혁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알려 주는 듯한 소리가 들려 얼른 집으로 뛰어 와 본 것이란다. 그랬더니 혁이 네가 다쳐서 그렇게 울고 있었지 뭐냐. 할미의 생각이다마는 아마도 주머니 안 도깨비가 할미에게 알려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어찌되었든 평생 잊고 살 뻔 했던 그 주머니는 할미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이 할미에게 준 것이란다. 할미도 저 요술주머니는 이 답에 혁이가 아빠처럼 큰 사람이 되었을 때 줄 생각인데,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겠니?

하지만, 할머니의 물음에도 혁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다. 이미 오래전에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를 어디까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혁이는 할머니의 품속에서 오랜 만에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벌써 요술 주머니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갖고 싶은 것을 얻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죠.

나는 단 한번도 글공부를 해 본적이 없다. 글을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동화는 더더욱 써본 적도 없다. 그저 아이들이 더 커버리기 전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쓴 글이 이렇게 입상이 되어 버렸다. 동화라는 옷을 입었지만 아마도 엉터리로 입고 있을 게 분명하다. 동화라는 옷을 제대로 입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차림새는 정말이지 촌스럽고 바보스러울 게다. 그럼에도 이렇게 입상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른이 어른의 옷이 아닌 아이의 옷을 입어 보려고 애쓴 노력을 가상히 여긴 것은 아닌가 나를 생각해 보았다.

아이들을 위해 이야기를 썼지만 아직 아이들에게 들려주지 않았다. 수상집을 받은 날 아이들에게 읽어 줄 셈이다. 아빠가 쓴 글이 큰 상을 받게 되었다고 양껏 자랑도 할 생각이다. 이야기 주인공 혁이는 큰 아이의 이름에서 가져다 썼다. 이야기 속 혁이가 겪게 될 모험이야기를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떨린다. 평소보다 더 느낌을 살려서 읽어 줄 것이다. 이렇게 가슴 설레는 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으로 혁, 은우, 그리고 은주씨 사랑합니다.

엄마 단풍나무의 새 눈



수원 오목초
박재광



“이거 원 눈 씻고 봐도 개미새끼 한 마리 없으니…….”

금강소나무가 투덜거렸습니다. 가을이면 오색단풍으로 물든 산엔 사람들이 북적거렸지만, 소나무 발인 이곳엔 인적조차 없었습니다. 이곳은 가끔 약초꾼만이 오가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당신도 저 앞산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금강소나무가 아쉬운 듯 단풍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나무 발에 한 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단풍나무였습니다.

“필요. 사람들 외봐야 성가시거나 하지.”

단풍나무는 바람에 씨앗을 날리며 대답했습니다. 단풍나무에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잎을 붉게 물들여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씨앗을 띄워 날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조그만 씨앗을 두개씩 묶어 고운 날개를 달아 바람이 잘 부는 때를 골라 날려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휴우.”

며칠 동안 일을 마친 단풍나무가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양.”

단풍나무 몸 어디선가 조그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꼭대기 작은 가지 사이에 씨앗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이젠 늙었나보다. 지금까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단풍나무는 가지 사이에 걸린 씨앗이 안쓰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미안하구나. 잠깐만 기다려보렴.”

때마침 바람이 불어오자 엄마단풍나무는 씨앗이 매달린 가지를 살짝 흔들어봤습니다. 다행히 씨앗은 가지에서 빠져나왔지만 거꾸로 매달려 있던 탓에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다 엄마단풍나무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편히 쉬렴.”

씨앗이 잠들자 소나무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씨앗을 어찌려고 그래요?”

“왜요?”

엄마단풍나무가 되물었습니다.

“저 씨앗이 자라면 당신이 힘들어질 게 뻔한데.”

“그래도 어찌겠어요. 내 아이인데.”

“제가 다람쥐들에게 부탁해서 저 씨앗을…….”

“안돼요! 어떻게 다람쥐가 제 씨앗을 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란 말이예요.”

서슬 퍼런 엄마단풍나무의 대꾸에 소나무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엄마단풍나무도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바로 옆에 떨어진 씨앗 걱정에서 일부러 많은 잎을 주변에 떨어뜨려 덮어 주었습니다. 그런 엄마나무의 사랑으로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긴 씨앗은 땅의 얼음이 풀리자 연두 빛갈의 예쁜 싹을 틔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다른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작은 씨앗이었던 아기 단풍나무는 어느덧 자라 키가 엄마의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줄기도 제법 굵어져 아기의 팔뚝정도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나무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아기 단풍나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난 왜 이렇게 작아요?”

“아직 어리니까.”

“엄마 잎들을 좀 치워주면 안돼요?”

엄마 나무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엄마의 잎이 제게로 오는 햇빛을 다 가려요.”

“그, 그랬구나.”

“햇빛을 많이 받으면 빨리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나무는 며칠 동안 아이 나무가 있는 쪽의 잎을 모두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나무의 잎들이 사라지자 고스란히 쏟아져 내리는 환한 햇살을 받으며 아이 나무는 더욱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무는 빨리빨리 자라라고 아기 나무의 이름을 큰키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 덕분인지 새 봄이 올 때마다 큰키나무는 부쩍 자랐습니다. 하지만 큰키나무가 커갈수록 뿌리도 커져갔고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뿌리도 치워줄 수 있나요?”

“뿌리를 왜?”

“엄마 뿌리에 가려 제 뿌리들이 너무 답답해요.”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소나무가 참다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얘야, 네 엄마를 좀 봐봐. 네가 크는 것도 좋지만.”

소나무의 말에 큰키나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요? 어디 아파요?”

그 때 엄마 나무가 소나무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뒤로 엄마나무는 큰키나무가 있는 쪽 뿌리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뿌리가 서서히 말라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큰키나무는 맘껏 뿌리를 뻗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정말 편해요.”

“미안하구나, 진작 이렇게 해줄 걸.”

“괜찮아요. 근데 엄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죠?”

큰키나무가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걱정 말래도. 엄마 튼튼하니까.”

“네. 저도 건강하게 자랄 게요.”

자신의 말처럼 큰키나무는 해가 다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큰키나무는 엄마보다 더 예쁘고 풍성하게 단풍잎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큰키나무의 키가 자랄수록 엄마나무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잎도 덤성덤성 나 있고, 잔바람에도 가지가 뚝뚝 부러질 정도로 말랐습니다. 바짝 마른 엄마의 모습을 보며 큰키나무의 걱정도 커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 엄마단풍나무가 큰키나무의 목소리에 선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깜짝 놀란 엄마 단풍나무가 큰키나무를 살펴보니 산쥐 한 마리가 밑동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네, 이 놈!”

산쥐는 깜짝 놀라 엉거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거냐?”

“그, 그냥요.”

놀란 산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먹이도 아닌 나무를 왜 갉고 있느냐 말이다.”

“전, 그냥 소나무 아저씨 부탁으로…….”

말을 하다 말고 산쥐는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엄마 단풍나무의 눈길이 이번엔 금강소나무에게로 향했습니다. 소란에 잠에서 깬을 법도 하지만 소나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것이예요?”

소나무가 모른 척 눈을 뜨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알면서 모른 척 할래요?”

엄마단풍나무의 큰 소리에 소나무도 성이 났는지 같이 큰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거라고요.”

“뭐가 나를 위한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봐요. 지금 그 아이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놀란 엄마단풍나무가 대꾸를 하지 못하자 소나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 십 년간 함께 살아온 친구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건 진정으로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화가 조금 누그러진 엄마단풍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던 큰키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얘야, 괜찮니?”

“엄마, 나 때문이지?”

“뭐가 너 때문이라는 거야?”

큰키나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말라가는 거 나 때문이잖아!”

“아니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 때문에 잎도 떨어뜨리고, 나 때문에 뿌리도 말려서 엄마 죽는 거잖아!”

엄마단풍나무는 대답 대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나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맘껏 옳도 피우고, 뿌리도 뻗어. 알았지?”

“그래, 앞으로 엄마 건강해질게. 걱정 마 우리 아기.”

“엄마, 죽으면 안 돼.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 돼.”

“걱정 말래도.”

하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엄마는 하루하루 더 말라갔고, 큰키나무의 눈에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엄마나무는 많은 가지를 잃었습니다. 겨우내 엄마단풍나무는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모진 추위도 봄을 이겨내진 못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겨우내 얼어있던 땅을 녹였습니다. 씨앗과 뿌리들은 땅속에 고여 있는 물들을 찾아 힘껏 빨아들였습니다.

“엄마, 이제 봄이에요.”

“그래.”

엄마나무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기운 내세요.”

“그래. 근데 지금은 피곤해서 조금만 잘게.”

엄마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여러 번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마 나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 다음 날 큰키나무는 수 백 번 엄마를 불렀지만 엄마나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엄마 나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개나리가 꽃잎을 다 떨어뜨릴 때까지도 엄마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아저씨, 엄마는 영영 깨어나지 못하나요?”

울음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큰키나무가 물었습니다.

“글쎄다. 한 번 죽은…….”

울음기 섞인 소나무 아저씨의 말을 자르며 큰키나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예요! 엄마는 죽지 않았어요. 제가 꼭 엄마를 다시 깨울 거예요.”

큰키나무는 엄마나무에게 향해있는 가지들을 골라 물과 양분을 듬뿍 보냈습니다. 가지를 뺀어 엄마를 느끼고, 엄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단풍을 만드는 것도, 씨앗을 날려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엄마에게 물과 양분을 보내어 다시 깨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일 년 내내 큰키나무는 엄마를 살리는 일에만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듬 해 봄 혹시나 하고 엄마를 불러보아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매년 새 봄이 오는 것이 큰키나무에겐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네 정성이 대단하구나. 정말 흔치않은 일이야.”

또 한 번의 실망을 느낀 큰키나무를 소나무아저씨가 위로하였습니다.

“아무리 물과 양분을 엄마에게 보내도 깨어나지 않아요.”

“이제 포기하렴. 그러다 너도 탈이 날까 걱정이다.”

“엄마와 저는 이미 한 몸이 되었어요. 제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엄마도 살아날 거예요.”

“그도 그렇지만 난 오히려 네가…….”

소나무 아저씨의 걱정에도 큰키나무는 오로지 엄마를 살리는 일에만 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봄이 더 찾아와도 대답 없는

엄마의 모습에 큰키나무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큰키나무를 더욱 지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 야위는 것이 아니라 영영 엄마가 다시 깨어나지 못할 거란 두려움이었습니다. 큰키나무는 천천히 엄마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무언가 반짝이면 빛났습니다. 그리고 하도 오래 되어 기억이 가물거리는, 그러나 꿈에서라도 듣고 싶던 반가운 목소리가 큰키나무의 귀에 울렸습니다.

“애야, 왜 이렇게 야위었니?”

큰키나무는 혹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엄마 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래, 긴 잠을 잔 것 같구나.”

큰키나무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눈물만 흘리던 큰키나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앞으로 엄마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엄마나무와 큰키나무 사이엔 가지 하나가 연리지가 되어 붙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단풍나무의 가지에는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새 눈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작품을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수상소감을 쓰고 있는 지금 행복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행복할 것입니다.

동화를 쓰면서 재능 없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능도 없으면서 끈을 놓지 못하는 미움함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힘이 생겼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이마에 식은 땀 훔치고, 신발끈 고쳐 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먼 길.

불끈 일어서서 다시 발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까마득하게만 보이던 그 먼 길이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씩 내 딛는 그 발걸음이 행복이기에.

멀기만 한 그 길이 이젠 오히려 기쁨입니다.

느림보 도서관



전주 양지초
이 성 희

오늘은 숲속 마을 운동회날.
만국기가 펄럭이고 경쾌한 음
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숲속 동물들이 모두 모여 운동
회를 합니다.

동물들은 하나, 둘, 셋, 넷! 기
린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열심
히 체조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병아리들의 쫓쫓춤을 즐겁게
봅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달리기 시간!
출발선에는 사슴, 토끼, 여우,
너구리가 가슴을 두근거리며
서있습니다.

땅! 드디어 출발신호가 울리
고 모두 바람처럼 달려갑니다.
구경하는 동물들도 모두 목청
껏 응원합니다.

사슴과 여우가 앞서서 달리고 토끼도 바로 뒤를 쫓아갑니다. 너구리도 있는 힘껏 달리지만 점점 뒤로 처집니다.

어느새 사슴이 1등으로 결승점에 도착하자 동물들은 환호의 박수를 칩니다.

여우가 2등으로 도착하고 그다음으로 토끼가 3등을 합니다.

한참 후에 너구리가 숨을 헐떡이며 결승점에 겨우 도착합니다. 꼴찌로 들어온 너구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구경하던 동물들은 잘 했다고 박수를 쳐주었지만 너구리는 꼴찌를 한 것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다음으로 과자 따먹기, 큰 공굴리기, 풍선 터트리기 게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너구리는 하는 경기 마다 행동이 느려서 계속 꼴찌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구리와 함께 짝이 되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너구리는 운동회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운권추첨을 합니다. 너구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렸지만 역시나 행운은 너구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행운상은 다람쥐, 은상은 여우, 금상은 염소가 뽑혔습니다. 푸짐한 선물을 받은 다람쥐는 멋진 재주를 넘고 여우는 목청껏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염소는 펄쩍뛰기 묘기를 자랑합니다.

마침내 운동회가 끝나고 동물들은 운동회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너구리는 혼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느릿느릿 걸어갑니다. 운동회 생각만 하면 부끄러워서 꼭꼭 숨고 싶습니다.

어느새 붉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눈물로 눈앞이 가려진

너구리는 커다란 느티나무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친구들이 모두 가버린 숲속에서 너구리는 커다란 느티나무에 기대어 영영 큰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텅 빈 숲속에 너구리의 울음소리만 메아리가 되어 울려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애야! 왜 울고 있니?”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너구리는 깜짝 놀랐어요.

숲속에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너구리를 보고 있었나봅니다. 너구리는 울음을 그치고 여기저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세요?”

“난 네 앞에 있는 느티나무야!” 느티나무가 말을 합니다.

너구리는 깜짝 놀라 느티나무를 바라봅니다.

“나무가 말을 하네?”

“그래! 아까부터 너를 보고 있었는데 네가 너무 슬프게 울어서 너랑 이야기 하고 싶었어! 예전에 나도 너처럼 슬플 때가 있었거든.”

느티나무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구리는 눈물을 닦으며 느티나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구리아! 왜 그렇게 울고 있었던 거니?”

느티나무는 상냥하게 물어봅니다.

“난 느림보이고 잘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은 내가 느리다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아요! 오늘도 운동회에서 꼴찌만 했어요!”

너구리가 콧물을 흘쩍이며 말합니다.

“그랬구나!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느림보였지!” “뭐라고요? 나처럼

느림보였다고요?”

너구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느티나무를 올려 다 봅니다.

“그래! 다른 나무들은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자라서 잎사귀가 무성해졌어. 그런데 나만 싹이 하나도 나지 않아서 모두 죽은 나무라고 잘라버려야 한다고 했지! 그런데 봄이 다 갈 때쯤에서야 새싹이 나고 이렇게 푸른 잎이 가득하게 되었단다. 난 다른 나무들보다 조금 느린 것뿐이었어! 그래서 내 이름도 늦게 싹을 틔우니까 느티나무지!”
느티나무는 초록 잎사귀를 사랑거리며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이에요? 느티나무님도 나처럼 느림보였다고요?”

“그럼! 비록 지금은 모든 게 힘들 테지만 너도 언젠가는 멋진 네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느티나무는 너구리를 달래주듯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정말 나도 당신처럼 조금 느린 것 뿐 일까요? 나도 언젠가는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걸까요?”

너구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울지 말고 힘을 내렴!”

느티나무는 부드러운 잎사귀로 너구리를 만져 줍니다.

너구리는 커다란 느티나무를 꼭 안습니다. 어느새 슬펐던 마음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너구리는 느티나무와 작별을 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느티나무는 너구리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가라고 초록 잎사귀를 흔들며 줍니다.

다음날, 친구들은 술래잡기하면서 신나게 놀지만 너구리는 친구들

을 바라만 봅니다. 느림보 너구리를 아무도 같이 놀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구리는 어제처럼 느티나무에게 다가갑니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누군가 읽다 만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너구리는 무심코 책을 집어 들고 읽어 봅니다. 책에는 동물들이 모험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너구리는 한참이나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마지막 장까지 책을 다 읽은 너구리의 얼굴에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혼자서 방실방실 웃습니다.

너구리는 책속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너구리는 책을 바라보며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신이 나서 하늘로 뛰어 오를 것 같습니다. 드디어 멋진 친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너구리는 열심히 책을 봅니다.

숲속학교에는 책이 많지 않았지만 한번 본 책을 또 보고 또 보아도 재미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지 못해도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이제 너구리는 더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책속에서 많은 친구를 만나고 신비한 세계로 마음대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너구리는 더 많은 책을 보고 싶었지만 숲속학교에서는 새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던 너구리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열매나 약초를 시장에서 파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구리는 낮에도 어두워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귀한 열매나 약초를 캐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그것들을 팔아서 새 책을 삽니다.

너구리는 맘새도록 새 책을 봅니다.

그 뒤로 너구리는 매일 열심히 일해서 책을 삽니다.

한 권 두 권 사온 책들이 모여 이제 너구리는 제법 많은 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책이 점점 늘어날수록 너구리의 마음은 부자가 된 것처럼 뿌듯합니다.

햇별이 쨍쨍 비추는 더운 여름날. 너구리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숲속으로 버섯을 따러 갑니다.

“너구리야! 아침 일찍 어디 가니?”

옆집에 사는 토끼가 물어봅니다.

“안녕! 토끼야! 숲속에 버섯 따러가! 며칠 전에 내린 비로 버섯이 많이 자랐을 거야.”

너구리가 수줍은 듯이 대답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냇가에 수영하러 가자! 넌 매일 일만 하니까 힘들지 않니?” 토끼가 두 귀를 쫑긋거리며 말합니다.

“응! 힘들긴 하지만 버섯을 팔아서 책을 살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 너구리가 웃으며 말합니다.

“킷! 그깃 책은 뭐 하러 자꾸만 사는 거니? 차라리 맛있는 것이나 사 먹지!”

토끼는 콧방귀를 뀌며 말합니다. 토끼는 너구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구리는 토끼와 헤어져 숲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갑니다.

숲속엔 버섯들이 많이 피어있습니다. 너구리는 신이 나서 열심히 버섯을 따니다. 금세 바구니에 버섯이 가득 찹니다.

한참 버섯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집니다. 하늘가득 새까만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너구리는 아침에 창문을 모두 열어놓은 것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래서 버섯바구니도 던져놓고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갑니다.

빗속을 달려서 겨우 집에 도착한 너구리는 얼른 집안에 들어갑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빗물에 책들이 젖어 있습니다.

“안돼! 이럴 수가! 내 책들이 다 젖다니!”

너구리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책들이 소나기에 몽땅 젖어 버린 것입니다.

“엉엉! 엉엉!”

너구리가 큰소리로 울고 있는데 어느새 비는 그치고 해님이 방긋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너구리의 울음소리에 토끼와 여우가 놀라서 쫓아왔습니다.

집안의 책들이 몽땅 젖은 것을 보고 토끼와 여우는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너구리가 얼마나 열심히 모은 책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슴, 다람쥐, 염소도 너구리 울음소리에 놀라서 달려옵니다. 모두 너구리가 너무나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너구리야! 울지 마! 햇볕에 책을 말리면 될 거야!”

토끼가 슬며시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너구리는 큰소리로 엉엉 울기만 합니다.

“애들아! 우리가 책을 말려주자!”

토끼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떡입니다.

친구들은 젖은 책들을 마당으로 가져가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책장을 넘기며 물기를 닦아 줍니다.

한참 울던 너구리는 친구들이 마당 가득 펼쳐진 책들을 열심히 말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구리는 슬펐던 마음이 사라지고 친구들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책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젖은 책이 많아서 물기를 닦고 말리는 것은 힘들었지만 해님도 도와주려는 듯이 뜨거운 햇볕을 쨍쨍 비추어주고 솔바람도 솔솔 불어와 점점 책들이 말라갑니다.

“이게 뭐야!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사슴이 말리던 책속의 그림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어디? 정말이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여우가 덩달아 그림을 살펴보며 말합니다.

“응! 사냥꾼이 나타나서 할머니와 빨간모자를 구해줘!”

너구리가 말합니다.

“애들아! 이것 봐! 마귀할멈이 과자로 된 집에서 나오고 있어!”

토끼도 신기한 듯 말합니다.

“그래! 마귀할멈은 헨젤과 그레텔을 잡아먹으려고 과자집에서 사는 거야!” 너구리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구리아! 어떻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잘 알아?”

여우가 궁금해 하며 물어봅니다.

“너희가 말리고 있는 책에서 읽었지!”

너구리는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책속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너구리는 좋겠다.”

여우가 부러운 듯이 말합니다.

“그럼! 너도 책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

너구리가 여우에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정말이야? 와! 신난다!”

여우가 말합니다.

“너구리야! 나도 네 책을 봐도 돼?”

사슴이 슬그머니 말합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책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너구리가 큰소리로 말합니다.

뜨거운 햇볕에 책들은 금세 마르고 책갈피에는 누런 얼룩만 남았습니다. 친구들과 너구리는 잘 마른 책들을 전처럼 책꽂이에 잘 꽂아줍니다. 너구리는 책꽂이에 잘 정리된 책들을 보고 싱글벙글 웃으며 기뻐합니다.

“애들아 정말 고마워!”

너구리의 기뻐하는 모습에 친구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희 모두 힘들었지! 내가 만든 시원한 나뭇잎 주스와 달콤한 산딸기 쿠기 좀 먹어볼래?” 너구리는 친구들에게 주스와 과자를 대접합니다.

여우와 사슴은 주스를 마시고 염소는 쿠기를 와작와작 씹어 먹습니다.

“너구리야! 정말 맛있어!”

친구들의 말에 너구리는 부끄러운 듯 얼굴이 붉어집니다.

친구들은 너구리네 집안에 처음 들어와서인지 신기한 듯 집안을 둘러봅니다. 이렇게 책이 가득한 집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기심 많은 토끼는 어느 틈에 책을 꺼내어 봅니다. 그러자 다람쥐와 여우도 책을 펼쳐 봅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사슴과 염소도 슬그머니 책을 꺼내어 봅니다.

어느새 너구리의 집안은 책을 보는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모두 약속을 한 듯이 책을 보는 모습을 보며 너구리는 싱글벙글 미소를 짓습니다.

너구리는 아직 어려서 글을 모르는 다람쥐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다람쥐는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으로 그림책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너구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구리는 자기가 아끼는 책들을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책을 보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왜 친구들과 함께 볼 생각을 하지 못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라도 친구들과 함께 책을 보아야겠다고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너구리는 커다란 나무판에 무언가를 정성껏 쓰더니 대문에 팽팡! 못을 박아 붙여 놓습니다. 나무판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 느림보 도서관 -

흐뭇한 미소로 나무판에 쓰인 느림보 도서관을 바라보고 있는 너구리의 얼굴을 사랑바람이 부드럽게 만져줍니다.

바람결에 어디선가 날아온 느티나무 잎사귀가 팔랑거리며 춤을 춥니다. 느티나무 잎사귀를 보며 너구리는 미소를 짓습니다. 느리기만

하고 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너구리는 이제 느리지만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어느 틈에 다람쥐형제가 쪼르르 너구리네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너구리는 신이 나서 첫 번째 손님을 맞이하러 느림보 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책상 서랍 속에 꽃씨 봉지 하나가 서류 사이를 숨바꼭질 하듯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화단에 심어야지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일상사의 복잡다단함에 정신 없이 세월만 보내다보니 그 씨앗이 아직도 살아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꽃씨를 꺼내어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다리다가 서서히 지치기 시작할 즈음 땅을 뚫고 작은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랜 세월 서랍 속에서 묵었지만 새싹은 쑥쑥 자라 작지만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감감한 서랍 속 비닐봉지에 갇혀 나만의 꿈으로만 자리하던 꽃씨가 누군가에게 예쁜 꽃으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설 수 있게 되어 매우 설레고 기쁩니다.

이 꽃이 씨앗으로 영글어서 더 많은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을 그래서 내 삶의 꽃밭이 풍성해지고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게 될 것을 예감해봅니다.



의 국 사 문

대 상

사막같은 오아시스 _ 김수형

은 상

큰고니, 우비집사 _ 이완호

동 상

동학농민혁명 3걸 _ 은종민





상주 중앙초
김 수 형

사막 같은 오아시스



나오는 사람들

남자(아빠)

여자(엄마)

아들





사막같은 오아시스

층암절벽의 바닷가. 파도 소리는 아득하고 해안 초소의 경계등만 간헐적으로 무대를 훑고 간다. 별이 가득한 하늘, 바람은 잘고 무대 뒤 쪽으로 나무가 들성하다.

조명이 들어오면 삼십대 후반의 여자가 바위에 앉아 있다. 육감적인 몸매가 시원하게 드러난다. 특히, 가슴 부위는 더 도드라져 보일 필요가 있다.

여자는 신발을 조심스럽게 벗어 한쪽에 놓아둔다.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모은다. 주먹을 쥐어 내리면 갑자기 남자가 달려온다.

남자 저기요.

남자는 이십대 중반으로 꾸밀 줄 모르는 타입이다. 마르고 눈은 켕하며 키는 크다. 남자의 손엔 굵은 줄이 들려져 있다.

여자 누, 누구야.

남자 아무도 아닙니다. 부탁이 있어서요.

여자 무슨 부탁이요?

남자 이 끈 매듭 좀 묶어 줄래요?

여자 (사이) 누군데 따라온 거예요?

남자 따라온 거 아니에요.

여자 따라온 거 아니면 이 야밤에 그쪽이 왜 여기 있어?

남자 (지도를 꺼내며) 여기가 지도에서 보면요.

꼭 낙타 등에 있는 혹처럼 생겨서요.

여자 낙타 혹이랑 여기랑 무슨 상관인데?

남자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매듭 만 좀 묶어주면 당장 갈게요.

여자 (의심이 조금 사라지고, 사이) 매듭을 왜?

남자 나무에 매달려 죽으려면 튼튼하게 묶어야 되잖아요.
실수로 풀리면, 다시 죽을 용기 없어요.

여자 죽으시게?

남자 네.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 낙타가 한 마리 살아요.
얘가 걸으면 나도 걸으면서 살아왔는데
더 이상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여자 일단 앉아요. 목 굽기 재 봐야 되겠는데.
나도 줄은 처음이라 잘 될지 모르겠네.
목이 얇으시네?
(재 본 다음 매듭을 지으면서) 낙타를 키운다고?
내 가슴에는 뭐가 있을까?
이십 년 넘게 술 만 마시고 살았으니까
술고래 한 마리 살겠다.
나도 그쪽처럼 고래 풀어주려고 왔어.
(바다가 잘 보이는 쪽으로 움직이며) 오늘 블라디보스톡
가라 고래야.

남자 그쪽이 블라디보스톡?

여자 보이지도 않아 사실.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블라디보스톡 이쁘게 소리나지?
소리 나는 것보다 더 예쁜 곳이야.
흰 눈이 테트리스처럼 쌓여서

밟으면 보스톡 보스톡하면서 부서지겠지?

(줄을 주며) 써봐.

남자 (써보고 나서)이거 많이 큰데요. 블라디보스톡엔 왜 가요?

여자 엄마의 할머니 고향이니까.

(사이. 남자의 가슴을 가리키며) 개는 왜 목 매 죽어?

낙타는 모래만 걸다가 또 모래로 가는 거야?

(전화벨이 울리면 받았다가 끊으며. 사이.) 손님 전화야.

나 새벽 열 두 시에 모텔 들어갔다

열 두 시 십 분에 나왔어.

칠 십 다된 할아버지 샤워하러 들어가고 기다리면서 거울 보는데
나도 칠 십 넘은 할머니더라.

오늘이 내 생일인데 우리 엄마 몸 팔아 먹고 살라고 나 낳은 거 아닐
건데, 엄마 미안해 하다가 내가 엄마라면 이해하겠는 거 있지.
내가 그렇게 밋고, 죽어라 이년아 하다가. 블라디보스톡 가야겠다고
생각했지.

여자 야, 이거 안 빠진다.

남자 줄 그거 밖인데.

여자 모래 지거울 건데 깨끗하게 바다로 가.

어디 잡지 보니까 고래랑 낙타랑 조상이 같다더라.

고래 등에서 물 나오는 거 봤지?

원래 그게 낙타 등에 있는 혹이랑 같은 거래.

남자 목매야 화장 할 수 있는데.

여자 죽으면 다 똑같지. 화장해서 뭐 하게.
 남자 알마티 근처에 뿌려지고 싶어요.
 여자 알마티가 어딘데?
 남자 카자흐스탄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거기 살았어요.
 할아버지부턴 한국에 와서 살았지만.
 (사이) 알마티 근처에 노래하는 사막이 있어요.
 노래하는 사막에다 뿌려 주면 해서요.
 여자 사막이 노래해?
 남자 거기에서 카페를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여자 사막에다가?
 남자 사막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거든요.
 모래 폭풍 분 날은
 사막이 노래 심하게 부른 것처럼
 바람불면 쉼 소리 난대요.
 주름도 평소보다 더 심하고.
 여자 너 별로 안 죽고 싶지?
 내가 말려 줄까?
 죽기 전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매일 하던 생각 해야지.
 너 아직 죽을 마음이 없으니까 가서 살아.
 남자 (초코렛을 꺼내 먹는다) 싫어요. 죽도록 죽고 싶어요.
 먹을래요?
 여자 이 씹어.
 남자 저 가요.

여자 정말 가?

남자 따라오지 마세요. 요것만 다 먹으면 죽을 거예요.

여자 이걸 풀어주고 가. 나 목매는 거 싫어. 야.

남자 퇴장. 여자는 남자를 계속 부르다 따라 퇴장한다. 간헐적으로 비추던 경계등이 사방을 비추고 사이렌 혼란스럽게 무대에 비추면 이삿짐이 널브러져 있는 낡은 연립 주택으로 전환된다.

그 날로부터 정확하게 16년 후, 여자는 엄마가 되었고, 가슴이 훌쩍 해 저 있다. 머리숱은 적어졌으며 짧게 잘려져 있다. 아들과 엄마는 이삿짐을 싸고 있다.

아들 엄마, 큰 비닐에 막 쳐 넣으면 안돼?

이사 할 때 마다 언제 일일이 다 포장 하고 있냐.

엄마 나중에 네가 정리 할 거야?

아들 정리해 놓으면 더 자주 뒤킨단 말이야.

엄마 이젠 안 그러잖아.

아들 엄마 몰라서 그래. 내가 학교 안 가고서부터는 더 한 거 같단 말이야.

내가 서랍 앞에 두루마리 휴지를 왜 두는 줄 알아?

두루마리 위에 볼펜을 올려놓는다고.

그걸 치워야 내 서랍을 뒤질 수 있으니까.

아빠가 서랍 뒤지고 나면 볼펜 방향이 달라져 있단 말이야.

엄마는 내가 방향감각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

엄마 몰라.

아들 날 어디다 떨어뜨려 놓아 봐라. 다 찾아오지.
 위성사진 보고 찾는 것 보다 더 잘 찾아.

엄마 길 잃어버릴까봐 마트도 안 따라오면서.

아들 초등학생도 아니고 마트 따라다니면 쪽팔리니까 그렇지.

엄마 어릴 때도 그랬잖아.

아들 아, 됐어.

엄마 아빠한테 좀 잘 해봐라. 아빠가 네 물건 뒤지나.

아들 내가 뭘 못하는데.

엄마 하지 마라는 건 안 해야 되는데
 네 고집대로 하니까 매일 싸우지.

아들 내가 뭘 해도 싫어할 걸.

엄마 이런 거 없애 봐라.

아들 뭔데?

엄마 콩나물 대가리 그려진 거.

아들 악보? 이리 줘. 아빠나 러시아 책 버리라 그래 .
 카자흐스탄 간다면서 무슨 러시아 책을 사냐.
 사막에다 무슨 카페를 차린다고
 아, 악보 빨리 내놓으라고.

엄마 자

아들 아, 왜 던져? 구겨졌잖아.
 아무리 내 어머니지만 참 인정머리 없다.
 엄마, 악보는 생명이야. 살아있는 걸 막 대하면 어찌냐고.
 살아있다는 게 뭔지 몰라? 내 가르쳐 주께.
 죽여서 속살 다 빼고 껍데기만 걸쳐 놓은 독수리 알지?

엄마 본 적도 없으면서
 아들 본 적 있어. 엄마 마담으로 있던 술집
 제일 작은 방에 있었잖아.
 엄마 이야기 그만 하고 빨리 해.
 아들 아니, 누나 둘 있잖아. 개들이 독수리라고 가르쳐줬어.
 내가 독수리 얼마나 좋아했는데.
 엄마 알았으니까 짐이나 싸! 빨리.
 아들 그 독수리 눈 얼마나 무섭냐. 그래도 그건 가짜야.
 악보는 작아도, 살아있고, 어딘가에서 연주되고
 누가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봐.
 살아 있다는 건 그런 거지.
 엄마 아, 입 닫고 빨리 짐이나 싸라.
 아들 에이, 엄마. 왜 짜증을 내십니까?
 엄마 이거 언제 다 할 건데?
 아들 화난 이유를 내가 알지.
 엄마 뭔데?

사이.

아들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엄마 그래, 뭔데?
 아들 자꾸 내가 노래하러 다닌다니까 화났지?
 엄마 그거뿐인 줄 알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맘에 안 들어.

아들 에이,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내가 네 살 때 일도 하나 안 빼고 다 기억하는 데
 엄마 생일을 잊어먹겠어?

엄마 기억하는 놈이 그래? 네 아빠도 똑같아.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니?
 그 인간은 생일인 줄도 모를 걸?
 그러니까 생일에 이사 날 잡지.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이랑 왜 결혼 해 가지고.

아들 그러게. 진짜 궁금한데 왜 아빠랑 했어?
 아빠가 더 어려서 한 거야?

엄마 몰라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아빠라도 결혼 안한다.
 둘 다 똑같아 가지고.

아들 내가 어디 봐서. 기분 나빠.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낙타처럼 생겼어?
 아빠처럼 초콜릿을 좋아해?
 그런데 아빠는 왜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해?

엄마 몰라. 궁금하면 물어봐.

문 밖에서 ‘여보 나 왔어 하는 소리 들린다. 아빠 등장. 아까보다 훨씬 늙은 모습이다. 한 손엔 케이크 상자를 다른 손엔 선물 봉투를 들고 있다. 엄마는 박스를 몇 개 겹쳐 세운다음 케이크를 받아 거기에 올려 둔다.

아빠 벌써 이 만큼 정리했어? 여보, 당신 생일에 이사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 그거 뭐야? 선물이지?

아빠 (봉투를 바닥에 놓으며) 선물만은 아니지.

이 안에 알라딘도 있어.

불러내서 이 선물이 당신 맘에 꼭 들게 해달라고 빌 거야.

아들 웬일이야. 아버지께서.

아빠는 주문을 외우는 시늉을 한다.

엄마 여보, 고마워. 사랑해. 사랑할 거야. 영원히. 쫘다?

엄마는 천천히 선물을 꺼내고 들어본다. 가슴이 드러나는 붉은 드레스이다. 아빠가 엄마보다 더 놀란다.

아빠 야. 잘 못 들고 왔나 보다. 바뀌었나봐.

엄마 됐어.

아빠 사실 내가 산거 아냐.

엄마 요즘은 밤에 귀찮게도 안 하는 게 영 수상 하던 참인데
다른 년이 안받아서 나한테 들고 온 거야?

아들 왜 그래, 엄마? 뭔데?

엄마 괜찮아. 잘 입을게.

아들 옷이야? 그럼, 입어봐. 옷 선물은 원래 사준 사람 앞에서
입어 줘야지.

엄마 알았어. 입어 볼게.

사이. 아빠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엄마 여보, 이 옷.

아빠 미안 포장도 못 뜯어 봤어. 김양이 대신 사줬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런 옷을 선물 할지 몰랐다.

아들 마음에 완전 들었어?

엄마 엄마 욕하는 거 들어봤어?

아들 어. 주점에서 마담 할 때 하루 종일 달고 살았잖아.

 뺨 때리면서 하는 욕이 제일 살벌했어.

엄마 그때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어쨌든, 그건 화나서 하는 거고.

 너무 맘에 들어도 욕 나오거든.

 이 옷, 아 눈물 나오고 지랄이네. 맘에 들어 여보.

 김혜수 정도는 돼야 입겠는데?

 여보, 이 옷 나 뽕 세 개 넣어 서라도 입을게.

사이.

아들 뭐야? 가슴 나오는 옷 사왔어? 왜 그 땀 걸 사왔어?

아빠 내가 산거 아냐.

 내가 뭐 여자들 취향을 아냐. 부탁했는데.

아들 엄마 수술한 거 말 안했어?

아빠 그걸 어떻게 말 해?

아들 왜 말 못해. 뭐가 부끄럽다고.

아빠 저런 걸 살 줄 몰랐다니까.

엄마 왜들 그래. 좋은 날.
 아빠 그럼 네가 사지.
 아들 아빠 눈 빌려 줘. 내가 사올게.
 엄마 막말 하지 마. 누구 탓 도 아냐.
 아들 그냥 잘 못했으면 잘 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걸.
 아빠 내가 일부러 사왔냐? 어?
 엄마 얘. 뭐가 문젠데? 나 아직 가슴 많이 남아 있어.
 뽕 안 넣어도 되겠다. 자, 이제 그만 해.

사이.

아빠 오케이. 여보, 아들
 용서해. 내 머리가 오늘 제정신 아니다.
 야, 내가 박 사장한테 연결 해준 태국 애 알지?
 아들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빠 왜, 태국에서 온 여자 애 알잖아.
 박사장이 너무 괴롭힌다고 도망갔어.
 비자도 가짜데, 좀 시끄러웠어.
 생일 선물 뜯어보고 줘야 되는데.
 아들이랑 골랐으면 괜찮은 걸 샀을 텐데.
 엄마 됐어. 애가 골랐으면 더 이상한 걸로 샀을 거야.
 아빠 에이, 아냐. 아들이 샀으면 정말 잘 샀을 거야.
 아무도 생각 못 한 걸 가져왔겠지.
 엄마 하긴 앤 알 수 없는 애야. 뭘 생각하는 지 알 수가 없어.

레코드 가게 위에 살 때
혼자서 노래 만들어 가지고 생일 선물이라고 불러줬잖아.
그거 한 번 불러줘.

아들 지금 그걸 어떻게 기억해.

아빠 난 애가 천젠 줄 알았어. 여덟 살짜리가
음악가 이름 줄줄 외우고 다녔잖아.
얼마나 들었는지 나도 외웠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루트비히 반 베토벤

엄마 맞아. 모차르트. 이름이 그렇게 긴 것도 있다고
얼마나 자랑하던지. 남 이름 안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아빠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냐. 7년 전이냐 8년 전이냐.

아들 차이코프스키 우울한 세레나데 B 단조 작품 26번이랑
슈만의 어린이의 정경 중에 외로운 꽃이라고 있는데
정말 많이 들었어. 뽕짝도 듣고 가요도 듣고,
안 들은 게 없었어.

엄마가 나 컸다고 집에 두고 주점 나갔잖아.

혼자서 뭐해. 레코드 가게 내려가면

하루 종일 음악 속에 파묻혀 살았는데.

가게 사장이 나 되게 좋아했잖아. 악보도 주고.

악보를 손으로 만져 보면 지금도 그 음악이 들려.

그 때 이사만 안 갔으면

아빠 맞다. 그때 이사 안 갔어야 됐는데. 다 내 탓이다.

사이. 동의를 나타내는 침묵.

여보, 앤 독특해. 십 년 가까이 된 일을 다 기억하냐.
학교가 어찌면 안 맞았을 수도 있지. 천재는 맞아, 학교에 적응을
안 하더라고.

아들 왜 또 그 애길 하나.

엄마 그래 그 애긴 이제 그만. 충분히 했잖아.

아빠 아냐, 멋있어서 그래. 정말이야.

아들 엄마, 우리 케이크 먹자. 접시 좀.

엄마 그럴까? 보자, 접시 좀 가져 올 게. 어디 있더라?
맞다 다 썼다. 좀 기다려.

엄마 퇴장하고, 사이.

아들 일부러 꺼내는 거지?

아빠 뭘? 학교? 내가 왜?

아들 그게 아빠니까. 웃으면서 남 욕하잖아.
퇴학당한 줄 뻔히 알면서
천재는 학교에 적응 안 한다고?
잘렸을 때 나 위로해줬지?
남자는 해볼 거, 못 해볼 거, 다 해봐야 된다고.
그래놓고 나 집에 없을 때 물건들 뒤지세요?

아빠 뭐 떳떳한 짓 했다고 큰 소리야.
왜 몰래 뒤졌잖나.
됐다. 말 해봤자 넌 또 알아들은 척은 하겠지.

속으로는 씨발씨발 거리면서

아들 아빠도 마찬가지로잖아.

내가 뭘 해도 이상한 눈으로 볼 거 아냐.

난 아빠가 사람을 죽여도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우린 가족이니까.

근데 아버진 안 그래.

아빠 나도 할 말 많다.

오늘 엄마 생일이야.

엄마 수술 한지도 얼마 안 됐어.

참아. 어? 남자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들 아빠나 잘 하세요.

아빠 (엄지손가락을 내밀며)찍어.

아들 아빠는 꼭 그렇게 다짐을 받아야 믿어?

아빠와 아들이 손가락을 걸어 약속할 때 엄마가 접시를 들고 등장한다.

엄마 나 빼고 뭘 그렇게 굳게 맹세하는 거야?

아들 맹세 아닌데?

아빠 아니 당신 결혼 전에 무용수였다니까 안 믿잖아.

그래서 내기 했어. 당신이 말해 줘.

아들 진짜?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잖아.

아빠 당신 같은 명품 몸매는 만들어 지는 거잖아.

아들 그 이야기 좀 해줘.

스포츠라이트 막 받고 그랬어?

엄마 얼마 못 했어. 다릴 다쳐서.

아들 아. 공연하다가? 언젠데? 나, 낱고?

엄마 훨씬 전이지. 아빠도 만나기 전인데 뭘. 너 만 할 때 다.

아들 엄마도 꿈이 있었구나.

나는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가

그냥 아줌만 줄로만 알았는데.

(사이) 엄마, 내가 돈 많이 벌면 무용할 수 있도록

다리 고쳐 줄게.

엄마 다리 안 아파.

아들 그럼 뭐 해줄까?

엄마 십년 뒤에?

아들 응, 십년 뒤 오늘.

엄마 (사이) 늙어서 춤은 됐고.

블라디보스톡이나 보내주라.

아빠 나도 같이 보내줘라. 블라디보스톡! 난 이 발음이 좋아.

블라디 보스토크. 눈 밟는 소리 같다.

아들 십 년까지 걸릴까?

엄마 딸 만 이라도 고마워. 그런데 정말 가고 싶다.

거기서 눈 밟아 보는 게 내 소원이야.

아들 저기, 엄마, 미스 박 누나 알지?

엄마 갠 왜?

아들 그 누나 가게서 일하면 몇 년 안에,

엄마 블라디보스톡 보내 줄 수 있는데.

손님들 숨 돌릴 때 들어가서 한 곡 부르면
팁 삼만 원 정도는 받을 걸?

사이.

아빠 비행기 타려고 자식 앵벌이 시키냐?

아들 예술 서비스야 이걸.

엄마 어린 애 데려다가 장사하자는 거야?

아들 왜 이렇게 심각해져?

엄마 주점에서 일 하는 거 뻔하지.

아들 바퀴벌레처럼 사는 것 보단 낫잖아.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지.

엄마 여자 젖 주무르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노는 놈들 사람 아냐.

인간도 아닌 놈들 앞에서 내 아들이 노래 불러?

아들 왜 그 사람들 욕해.

사람은 누구나 돈 있으면 그러고 살아.

아버진 안 그래?

아빠 난 안 그래.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아들 아빠가 뭘데. 내 꿈을 끊어내.

엄마도 꿈 있었다며.

연습하다 다칠 정도로 했으면 내 맘 알잖아.

엄마 발 목 힘줄, 잘린 게 아니라 자른 거야.

자를 용기도 없어서 끊지도 못하고 끊었다고.

왜 그랬겠어? 너 네가 정말 바라는 게 노래가 아니고

돈이었다고 생각되면 너 목줄 끊고 싶어지는 거야.
 아무리 후회해도, 그땐 늦었어.
 그럼 너도 엄마처럼 사는 거야.
 내 아들은 그렇게 안 살아야 돼.

아들 걱정 안 해 줘도 돼.

아빠 케이크 먹자 여보. 먼지 다 앉겠다.

아들 죄책감 때문에 그래?

아빠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책감을 느껴?

아들 그래, 매 달 나 때문에 오 만원 씩 받아쓰면서도
 미안한 맘 안 들었다 이거지?

아빠 그 돈 줄 까?

줄 테니까 네가 벌어 올래?

아들 벌어 올게. 노래방 보내 줘.

아빠 또 했냐?

아들 안 했는데 이 갑갑한 집구석에 하루 종일 있으려면
 이제 해야 될 거 같아.
 검은 봉지에 끈적하게 짜서 머릴 박고 나면
 베토벤도 나오고 모차르트도 나오겠지.
 기타 없어도 연주 할 수 있고
 내 노래 들으면 사람들 창문으로 뛰어 내려

엄마 더 크면 주점 가서 노래 해.
 그땐 안 말릴게.

아들 더 큰다는 게 뭔데?
 시계 안 올리면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모르는데

시간만 계속 가면 뭐 하냐고.

엄마 아빠 돈 벌고 있으니까 고쳐 줄 거야.

아들 신경 이미 다 죽었는데

그걸 무슨 수로 살려.

기다리다간 기회도 잃어버려, 엄마.

엄마 여보. 빨리, 짐이나 싸자.

(아들에게) 넌, 우리 말 안 들어.

네 말 만 하잖아. 말하기 싫어.

사이.

아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빠 누구 때문인데?

엄마 됐어. 그만 해.

아빠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누구 때문인데?

아들 몰라서 물어?

사이.

아빠가 직업학교 억지로 보냈지?

거기서 만들기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

아빠 만들기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하다가 그렇게 됐다 쳐.

의사가 손 댔을 때가 여덟 살인가 아홉 살인데
직업학교 보낸 게 열세 살 때야.
내가 여덟 살 전에 직업학교 보냈으면
내 탓이라서 눈알 뽑아 주겠다 이 놈아.
얼마나 붙어 댔으면 너가 다 녹았냐?
생각할 머리도 없어?

사이.

아들 하긴 아빠는 나랑 몇 년 안 살았지?
가끔 왔다 갔으니까, 아빠 탓은 아니네.
그리고 참.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어.
네 살 때 처음 했으니까.

사이.

(조용히)그래, 엄마 때문이야.
엄마, 왜 모른 채 했어?

엄마 너 무슨 말 하는데?

아들 엄마 마담으로 일 할 때,
누나 둘이 나한테 뭘 가르쳤는지 알고 있었잖아.

엄마 무슨 말하니.

아들 연기하지 마.

사이.

그 누나들 담배 갑에 넣어 다니던 거 몰라?

엄마 돈 만원 없어졌다고

누나들 벌거 벗겨놓고 다 뒤졌지?

말보로 레드 안에서 나온 거 담배 말고 뭔지 기억 안나?

다 벗은 누나들 어디까지 뒤졌는지 말해 주면 기억해?

엄마 의사가 원래 네 눈은

아들 의사들은 책에 나온 것 밖에 몰라.

책에 없는 건 다 희귀병이야.

네 살짜리가 본드 분다고 생각이나 했겠어?

엄마 그게 왜 나 때문인데?

아들 매상 못 올린다고 누나들 때리고

욕하니까 나한테 복수한 거야.

독수리 달린 맨 끝 방으로

데리고 가서 가르쳤어.

내 멍한 눈 보고 누나들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알아?

엄마는, 내가 독수리 타고 이 방 저 방 날아다니면

귀찮은 일 하나 줄어서 그저 좋았던 거야.

엄마 말 잘 했다. 너 뭐 먹고 자랐어?

칼로 도려낸 가슴 물어 키웠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내 인생 다 빨아먹었어.

너 아니었으면 내가 왜 술집 나갔는데?

내가 왜 만원 아쉬워서 미친년처럼 살았는데?

아들 배운 거 없고 기술 없으면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런 거도 하기 싫으면서 왜 낳았어?
장님 만들려고 낳았어?

아빠 넌 쓰레기야 나쁜 새끼야.
오직 너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발정난 개새끼야

아들 아빠가 더 쓰레기야.
나 같은 애들 한국 오면 큰 돈 번다고 꼬셔서
이상한 공장에 팔아 돈 벌잖아.
누가 더 쓰레기야?

아빠 그래 내가 더 쓰레기다.
내가 쓰레기면 내 돈도 쓰레기고.
내 돈으로 너 키웠으니까 너도 쓰레기고
네 꿈도 쓰레기야.
네 음악이고 뭐고. 악보?

아빠는 악보를 찾는다.

아들 뭐해.

아빠 (악보를 집어 들고) 이것도 쓰레기야.

아들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마.

아빠 이걸 없애야 쓰레기 같은 꿈을 안 꾸지.

아빠는 악보를 찢어서 아들에게 던진다.

아들 두고 봐. 똑 같이 해줄 거야.
가위로 팔 다리 다 잘라서
이 종이처럼 만들어 줄 거야.
두고 보라고.

아빠 팔 다릴 다 잘라?
죽여 봐. 자르던지 찢르던지.
본드 안마시면 못 하나

아들 가위 찾아줘.

아빠는 가위를 찾아서 주려고 한다.

엄마 주지 마.

아들 줘. 내가 못 할까봐.
나도 용기 있는 놈이야.
왜 안 줘. 피 보기 싫어서?
마트에다 그냥 버리시게?

사이.

왜? 또 찾아 올까봐 겁나?

의사가 이 눈꺼풀이 완전 갔다고 하니까 덜컥 겁났지?

학교 갈 나이는 넘었고 키우기는 버거우니까 버렸어.

주머니에 만원짜리 넣어주면서 금방 올 거니까 여기 있으라고?

이사하고 버리지, 왜? 그 돈으로 택시타고 집에 오면 어찌려고?
쪽팔려서 엄마 잃어버렸다고 말도 못하고 혹시나 또 버릴까 싶어서
외워 가면서 왔어. 여기가 어딘지 일일이 다 물어보면서 왔다고.

엄마 여태껏. 아니 오늘까지 참고,
너 버린 사람들이랑 가족이라고 같이 살았어?
저 케이크 잘라놓고 생일 축하 하자고?

아들 오늘 만큼은 참자고 약속했어.
왜 그래야 돼? 웃으면서 의심 받고
내 꿈은 버려지는데 왜 나는 약속까지 해 가면서 참아야 돼?
왜 우린 자길 위해 살면 안 되냐고.
나는 노래 부르고 엄마는 블라디보스톡 가고
아버진 카자흐스탄 가서 카페 차려.
이 집 전세 빼서 각자 하고 싶은 거 해.

엄마 그래. 여보. 전세금 빼자. 재 말대로 해줘.
가슴에 있던 거 다른 데로 도망갔을 거야.
좀 있다간 위도 잘라내고 간도 잘라내고,
나중엔 고생만 하다 죽을 거야.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잘 못 끼운 단추 때문에 옷 모양이 우습게 됐어.
우리 그냥 죽자.

아빠 억울해서 못 죽어.
당신이 재 다 키웠어.
내가 도망 다니고 싶어서 다녔어?

남 안 속이고 큰 돈을 어떻게 만져?
나 쓰레기처럼 살았지만,
어떤 인간이 쓰레기처럼 살고 싶어?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안 그래?

엄마 그냥 죽자.

아빠 고조할아버지 묘에 가서
한국에서 결국은 성공해 돌아 왔다고 자랑할 거야.
사막에도 카페 하나 만들고.

엄마 뭘 위해서? 나랑 재를 위해서?
재는 꿈 찾아 떠난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재 버렸으니까 이제 우릴 버린다잖아.
우린 늘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지만 한 순간도
행복했던 적 없어.
생각해봐.

사이.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 했어? 살다보니까 행복해지고 싶었던 거겠지.
우린 우연히 만났고 죽으려다가 살게 된 거잖아. 따지고 보면 불행
이 우릴 묶어 준거야.

그것 때문에 재도 낳은 거고. 언제부터 우리가 남 생각하게 됐을까?
재 말처럼, 우린 우리 목숨도 마음대로 할 만큼 이기적이었는데.
차라리 서로를 미워하려고 했으면 지금 썸 저 케이크에 촛불 켜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느끼진 않았을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해를 했더라면 서로를 지금쯤은 많이 사랑
하게 됐을 지도 모르겠지.

사이. 첫 장면에서 사용한 줄을 꺼내온다.

이줄 기억나? 다시 한 번 죽어 볼 수 있을까?
여보랑 나랑, 화장해서 카자흐스탄 사막에 뿌려지면 좋겠지? 낙타가
밟고 가는 모래썸은 될 수 있게.
혹시 오아시스 근처에 뿌려주면 물기 때문에 오래도록 낙타 발굽에
붙어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을 거야. 매듭이 어떻게 되더라.

아들 엄마, 그 줄 줘. 내가 죽을게.
엄마 싫어. 넌 우리가 죽어도 네 길을 가.
 나처럼 살지 마.
 엄마가 무용수였다는 건 순 거짓말이야.
 나 같은 년이 어떻게 그런 걸 해.
 무용수는 꿈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꿈은 없고 욕심만 있어서
 가슴도 덜 자랐는데
 남자들 주는 티п 가슴 사이에 끼우고,
 지랄 부르스 추다 결국 이렇게 죽잖아.
 절대로 남들이 치는 박수나 돈에 한 눈 팔지 마.
 자, 여보 죽자. 나부터 죽을까?

아빠는 초코 케이크를 아귀처럼 먹는다.

아빠 (먹으면서) 재 보다 좀 어렸지?

어떤 전도사가 초콜릿 주면서 교활 나오래.

자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 하다 아내를 잃었는데,

아내를 노래하는 사막에다 화장해서 뿌렸대.

자기도 죽으면 화장해서 거기 뿌려주면 좋겠다는 거야.

초콜릿이 입안에서 녹고 있는데

뭔지는, 몰라도 슬프더라. 슬프면서 달달한 그 맛

여보, 나도 솔직히 말해서. 재 눈 고쳐준다는 핑계로

돈 쉽게 벌었잖아. 못 고치는 줄 알면서

아들 눈 팔아서 살았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면 자꾸 이 단 맛이 생각나.

엄마 여보, 오늘은 조금 남겨. 나 만났을 때 생각 안 나?

다 먹으면 욕심 생겨.

아들 내가 죽는다고 그 줄 줘.

엄마 내 가슴도 너한테 바치고

내 피도 너한테 바쳤는데

넌 살아야 돼.

엄마가 목에 줄을 감고 얼굴이 붉어지면 아빠는 반은 입주위에 묻혀
떨어지듯 심하게 먹는다.

아들 줄 풀어 제발.

엄마, 내가 바라는 건 박수도 아니고 돈도 아니야.
 노래 부르는 거
 그거 보여주고 싶었어.
 나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누가 날 봐도,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
 엄마, 아빠는 내 눈이니까
 나대신 봐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오늘 죽으면 나 누가 봐줘?
 이제 영원히 어두울 거야.
 내가 노래 할 때 누군가 봐주고
 누군가 봐주는 걸 엄마 아빠가 꼭 봐야 돼.
 그래야 내 눈 때문에 더 이상 맘 안 아파 할 거야.
 그 생각 할 때는 눈이 안 보여서 참 행복했어.
 그러니까 죽지 마.

아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암전. 울음소리가 길었으면 좋겠다. 며칠
 후 이사 간 집이다. 박스는 물건을 꺼내는 듯이 보이게 배치한다. 조
 명 들어오면 물건을 꺼내고 있는 아빠와 엄마.

엄마 이삿짐 푸는 것도 지겹다 이제.
아빠 나도 이사하기 싫어.
 한국에 돈 벌러 오는 애들은 몸 하나만 가지고 오는데
 잘 못 돼봐.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갈 때도 없으니까 완전 막가는 거란 말이야.

자주 이사 안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진짜 일 그만 두고 싶다.

그만 한 별이가 있으면 당장 그만 두겠는데.

엄마 (문득 생각난 듯이 시계를 보며) 여보. 나갔다 올게.

아빠 이거 나 혼자 어떻게 다 정리 하라고.

엄마 애, 공연 끝나기 전에 가서 앵콜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빠 지하철에 앵콜 하는 사람 하나 없을라고.

엄마 지하철 퇴근길에 누가 한참 보고 있나?

참, 저 박스에 있는 건 그릇들이니까 저것부터 정리해.

엄마가 퇴장한다. 아빠 혼자서 정리하고 있는 중에 고개 들어서 한 숨 쉬면 차이코프스키 우울한 세레나데 들리면서 서서히 암전.

-막-

수상 소식을 접한 그날 저녁에 아내의 어깨를 살포시 안고 울었습니다. 학교 정문 옆에는 제 이름을 알리는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도 붙어 이젠 어딜 가나 플랜카드에 쓰인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어이없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아내랑 아이랑 늦은 밤 사진기를 들고 나와 플랜카드 옆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누구나 만나면 축하한다는 말 한 마디씩 해 주었습니다. 혹 몰라 그냥 가는 사람에게 섭섭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토록 상이 제게 절실했던 것이었을 까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닐까봐 두려웠을 까요. 상 받는다고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칭찬이 말라 갈라진 허를 적셔주는 물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구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상이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 한 방울에도 감사 할 수 있는 땅에 이렇게 큰 비를 주신 것은 누구인지. 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이 완 호

큰고니, 우비짐샤

나오는 사람들

촌로 광씨(전직 을숙도 어민)

환경감시원 정씨

강나루구청 환경보전과 이계장

강나루경찰서 조형사, 최순경

상리경찰서 김경위

야생동물치료센터 수의사

낙동일보 서기자 (여자)

시공간

온갖 겨울 철새들의 정거장으로 알려진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을숙도 하단부 어느 하중도에 강 상류에서 떠내려 온 맥주병, 빨간 고무다라이, 스티로폼 등이 비스듬히 파묻혀 있고 갈대를 비롯한 세모고랭이, 소리쟁이와 같은 모래톱 식생들이 시린 강바람에 하늘거린다.

왼쪽 폐 가구 옆에는 150센티 가량 크기의 죽은 큰고니 3마리가 쓰러져 있어 을씨년스럽고 사체 주변에는 범씨가 들성들성 길게 흩어져있다. 모래 톱 가장자리 옆으로 은빛 강물이 스치고 추운 강물위로 고깃배와 전복 양식부이 멀리쯤에는 어슴프레 공단과 배후도시가 보인다.

2008년 2월말 경 어느 추운 날

(모래톱에 작업복 차림의 두 사람이 죽은 큰고니를 들여다보며 소근 그리고 건너편 갈대밭에서 먹이 찾아 솟아오른 맹금류 울음소리가 이따금씩 적막을 깨운다.)

촌로 구청하고 경찰서에 따로 신고 됐다는데 온다던 사람들이 안 오네? 동물 죽은 데는 관심이 없나보지.

환경감시원 쫓쫓 한동안 뜸하더니만 올 겨울 고질병이 도진거야.

촌로 나쁜 놈들! 청둥오리 잡으려하다 애 굶은 큰고니만 팽 당한 꼴이네.

환경감시원 그러게 말입니다. 아침에 신고했더니 구청에서 팔짝

뛰데 예.

촌로 니 아나? 예전에는 청둥오리만 전문으로 잡아 파는
 꾼들 정말 많았제!

환경감시원 예, 그런 애기 많이 하되 예.

촌로 그거 한 마리만 먹어도 겨울철 고뿔은 저리 가라한다카데.

환경감시원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오리 먹고 싶으면 집오리 처
 먹으면 되지, 수만리 날아온 고니에게 해코지 할 게 뭐람!

환경감시원 청둥오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멸종되어가는 귀한 큰
 고니까지...

촌로 이 사람아! 찾는 사람이 있길래 그라지 무단히 그라졌
 노. 큰고니고기 그거 말이다. 이성계가 유난히 좋아해
 종묘 제사 음식으로 썼다 카더라.

환경감시원 (눈가를 만지작거리며 코를 찔룩거린다.)나 원...천연
 기념물 수난은 국가적으로 창피스러운 일 아님니꺼.

촌로 그라고... 몸이 백옥 같고 목이 길쭉한 그새가 큰고니
 맛제?

환경감시원 예, 애들 동화책에 많이 나오는 그 새 모르능교? 일본
 식 이름으로 백조라 부르기도 함니더.

촌로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대략 몇 마리쯤 날라 오노?

환경감시원 시월 말부터 가족 단위로 하구에 도착해 월동하는데
 개체수는 어림잡아 3천 마리 정도라 보면 되지요.

촌로 많이 줄었다 카데.

환경감시원 맞아 예. 하구 쪽에 그놈들 먹잇감 ‘새섬매자기’ 군락
 이 점점 줄어들어 흑한기나 먹이가 부족해지면 저 건너

- 창원 주남저수지 쪽으로 떼 지어 옮겨 가기도해요.
- 촌로** 큰고니가 여기 낙동강 하구에 서식하는 대표 철새로 보면 되나?
- 환경감시원** 그럼요. 그 자태 얼마나 우아하고 낭만적인데요. 해뜰 때나 해질녘 애미가 새끼 데리고 헤엄치며 장난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난 온갖 시름을 잊습니다.
- 촌로** 그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오리 족속 가까이 하려 했었노! 갈대밭이나 창공을 나는 오리를 동양화 한 폭에다 멋 드러지게 그려 놓았제.
- 환경감시원** 나도 그런 그림 동네 표구사에서 더러 봤어 예.
- 촌로** 그걸 ‘노안도’(蘆雁圖)라 카는 데 늘그막에 편히 지낸다는 뜻이라 카데.
- 환경감시원** 성님, 정말 유식 하네 예.
- 촌로** 비행기 태우지 마라. 니, 철새 감시원 된 지 좀 됐제?
- 환경감시원** 한 5년 돼가죠. 전에는 겨울 한철만 감시했는데, 몇 년 전부터 여름 철새까지 돌보고 있죠. 이제 취미가 직업이 된 셈이지 예.
- 환경감시원** 소문에 여기 철새들 이름까지 꿰 차고 있어 철새박 사라 소문났더라.
- 환경감시원** 박사는 무슨, 하다보니 아는 거지요.
- 촌로** 니는 겨울 철새 아버지 아이가! 맨날 조석으로 눈이오나 비 오나 먹이 챙겨주는 자식 같은 놈 일꾼데 이번, 고니 급사건 땀새 땀 고생 많이 하제?
- 환경감시원** 이런 일 있을라꼬 그랬나. 난 한 사흘 전에 이상한

꿈꿨어 예.

촌로 뭐...어떤 꿈인데?

환경감시원 생사와 꼭 같더라고요.

촌로 이상타. 그 꿈 애기 쪽 해봐라.

환경감시원 그 날은 갯벌에 못 갔어 예. 구청에서 오후 늦게 감시원들 불러 철새 개체 수 파악하는 요령 교육 받느라 저녁 늦게 서야 집에 왔지 예. 모처럼 소주 한 병 마시고 잤는데 새벽녘 큰고니 나오는 꿈 꿔습니다.

촌로 니, 평소에도 새 꿈 자주 꾸나?

환경감시원 아입니다. 본래 꿈은 잘 안 꾸는데...

촌로 내도 좀 알자. 개들이 니 보고 뭐라 카데?

환경감시원 어디냐면 시에서 낙동강 하구에 짓고 있는 에코센터 말입니다.

촌로 그래, 내도 안다.

환경감시원 (기억을 더듬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에 붉은 낙조가 보였으니 늦은 오후쯤 되겠지 예. 센터 2층 홀에 혼자서 유리창 밖 인공 호수에 노는 오리 떼를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네요.

촌로 공사할 때 그기에 가봤다. 바깥 습지에 서식하는 철새를 탐조할 수 있도록 벽 대신 만든 유리창 그거... 정말 크데!

환경감시원 예, 맞아요. 내가 안에 서 있는데 그때 큰고니 한마리가 내 서있는 쪽으로 쏜살같이 날라 왔지 예.

촌로 뭐시라! 받히면 우짤라고.

환경감시원 (한 걸음 뒤로 가며 몸을 가볍게 흔드는 시늉을 한다.)

내가 피하려하자, 큰고니 그만 유리창 박고 ‘쿵’ ...
소리 나며 건물 외벽을 미끄러져 떨어지네 예.

촌로 그라든, 죽어 빠릿나!

환경감시원 그 속도로 날라 와 받히면 죽는 게 당연하지 예.

촌로 큰고니 녀석 덩치 오죽 크냐! 그 충격 엄청 날 꺾다.

환경감시원 내가 응급 결에 놀라 센터 바깥으로 뛰어나가 신음
하고 있는 큰고니 그놈 세계 흔들었어 예. 그때 꿈속
기억...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촌로 영영 죽은 기제?

환경감시원 예, 한참을 울었죠. 그 녀석 왜 스스로 목숨 끊었는지,
묻고 또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고...

촌로 니가 돌보든 철새들에게 무슨 일 생길라꼬 일찌감치
감이 온 거다 그쟈?

환경감시원 그날부터 뭔가 찼찼해서 평소보다 더 일찍 갯벌에
나와 철새들 탈이 없나? 부지런히 지켜봤는데, 이런 일
이 생기다니...

촌로 큰고니 애미 새끼들하고 같이 사나?

환경감시원 우리하고 똑 같지 예. 한번 부부 연 맺으면 죽을 때
까지 해로하고 새끼는 짝 만나면 그때서야 부모에게서
떠나지요.

촌로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구나.

환경감시원 아마, 그놈들 천년만년 전 아득한 시절부터 여기 낙동
강 물길을 운명적으로 좋아했던 족속일 겁니다.

- 촌로** 큰고니 그 녀석 중독되어 정신이 가물가물 하면서
도 지 새끼 깡깡대는 모습보고 애간장 다 탔을까다!
- 환경감시원** 인간이란 동물은 정말 잔혹한 것 같아 예.
- 촌로** 큰고니는 얼마나 사니?
- 환경감시원** 잘 살면 한 20년 산다네요.
- 촌로** 요즘음, 인간들이 감기약까지 지어 받치는 애완견보다
오래 사는거네.
- 환경감시원** 그럼요, 적당히 먹고 욕심이 없는 동물이니까요. 어찌
보면 선비와 같은 족속으로 보면 되지 예.
- 촌로** 신문에서 봤는데 외국서 수입한 어떤 고양이는 은
목걸이에 향수까지 뿌린다카더라.
- 환경감시원** 사람대접 보다 낫네요.
- 촌로** 그에 비하면 야생 동물의 세계는 비극이제!
- 환경감시원** 오래 전 이 곳은 철새공화국이라 했는데 이 말은 옛말
이 되어 버렸지 예.
- 촌로** 철새들이 남쪽 따신 곳에 와 잘 있다 돌아가면 우리 모
두에게 축복인데 총 쏘 죽이고 어망에 걸려죽고...
인간의 헛된 욕망은 끝이 안 보이는 기라.
- 환경감시원** 성님! 요새 내 맘이 편치 않아요. 꽤 오랫동안 을숙도
에서 철새 지킴이로 밥 벌어 먹었는데, 죽은 큰고니도
아마 날 알고 있었겠지 예?
- 촌로** 안 그렇겠나.
- 환경감시원** 이 심정을 큰고니 가족이 알기나 할까 예?
- 촌로** 내는 알제, 니가 개들한테 얼마나 정성을 쏟았노!

추운 겨울날 먹이 줄 새라 항시 강변에 나와 호호…
손 불어가매 잘게 썬 고구마를 이 길고 긴 갯벌 바닥에
많이도 뿌렸제.

환경감시원 그라든 뭐 합니꺼! 어린 새끼마저 죽이려 덤비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요새는 철새먹이도 부족해져 그런
지 철새 울음소리마저 한 옥타브가 높아진 것 같아 난
슬픔니다.
- 암전 -

(모래톱에 통선이 도착하고 인기척이 들린다. 서서히 주위가 밝아지
고 푸른색 수첩을 옆구리 끼고 신문을 든 구청계장과 흰 가운을 걸
치고 왕진 가방을 든 수 의사가 함께 들어선다.)

구청 환경계장 (환경감시원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정씨, 우찌 이리됐소?

환경감시원 강변에서 모래톱까지 몰래 배 타고 들어가 이처럼 망
령된 짓을 할 줄이야! 누가 생각이야 했겠습니까?

환경계장 허구 헌 날 잘해라 이르고 잔소리했는데 또 얼마 전,
인력도 증원해 주었잖아!

환경감시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심니다.

촌로 계장님! 너무 뭐라 카지 마소.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
한 놈 못 막는다는 옛말도 있잖소.

환경계장 요새, 잘 나가다가… 내참… 아침부터 열 받아서, 그라
고 보고를 하려면 일찍 해야지, 조간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온 다음에야 보고하면 우짜자는 기요!

촌로 아따, 이런 일은 옛날에 비하면 새발에 피제.

환경계장 여기는 생태계보전지역 아닝교? 천연기념물 죽으면
경찰이나 환경청에서 조사 나올 긴데 주변 정리 좀 하
소. 그라고 죽은 큰고니 흉하지 않게 뭐 아무거나 덮어
주소.

환경감시원 예, 안 그래도 준비 했심더. 계장님이 현장 한번 보
시고 나면 조치할라고 기다렸심더.

(환경감시원, 가져 온 배낭에서 회색 비닐 조각을 주섬
주섬 꺼내 큰고니 사체위에 덮는다.)

환경계장 도대체 구청에서도 쉬쉬했는데 도대체 어느 놈이 신문
사에 알린 거요?

환경감시원 어제 밤 재첩 양식하는 어민이 발견해 알렸다 하데 예.

환경계장 등신! (혼잣말로) 옆 동네는 람사 총회 유치한다고 떠
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꼬! 허 참...

남사스러워서...

(야생동물치료센터 수의사, 비닐장갑을 끼고 큰고니의
주둥이를 벌려보고 큰고니 날개와 딱딱해진 몸통 근육
을 이리저리 만진다.)

환경계장 (수의사 옆에 바짝 다가앉으며) 노형, 사인이 뭔교?

수의사 글썄요, 총포류는 아니고 아마도 독극물에 의한 게
사인 같아요. 더 자세한 것은 부검해 봐야 알겠어요.
아... 그게 언제고? 저 건너 개벌에서 비슷한 사건 난
걸로 기억납니다.

- 환경계장** (감시원을 가리키며) 정씨! 법씨 같은 거 못 봤나?
- 환경감시원** 예, 구청 강주사에게 동향보고 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대략 120미터까지 드문드문 보라색 띠 법씨 늘려 있었지 예. 저 위쪽으로 더 많이 보입니다. 여기 짝꿍, 담아 왔으니 보이소.
- (비닐 지퍼 백에 담긴 법씨를 본인의 손바닥에 올리고 조심스레 수의사에게 건넨다.)
- 수의사** 농약에 절인 법씨를 큰고니 가족들이 급히 먹은 것 같 아요.
- 환경계장** 우리구청에서 철새 먹이 주는데 혹한기나 개체 수 늘 때는 먹이 부족이 심각해지죠. 나쁜 놈들이 마침, 배고플 때 맞춰 독이 배인 곡식 낱알을 큰고니들이 먹게끔 뿌려 유인에 성공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 (밖에서 통선이 도착하자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며 조형사 들어오고 이어서 생머리를 컷한 큰 키에 스 마트한 인상의 서기자 함께 들어선다.)
- 조형사** (들어오면서 소리친다)사람도 아닌 풀란 새 몇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웬 난리법석이람. 현장이 어디요?
- 환경계장** 어서 오이소 예! 구청 환경계장 이 수성 입니다. 바쁘신데 우리 일 때문에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형사** 수년전에 우리 경찰서에서 이 일대 거점으로 철새를 전문적으로 잡아가는 일당들 소탕해 이런 일 없을

긴데, 통 이해가 안가네.

환경계장 저도 그래요. 우리 구청도 혹시, 밀렵꾼들이 나타날까 봐, 철새 감시하는 인력도 늘렸는데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조형사 여기 철새보호구역은 치안센터 순찰코스고 낮에 감시원 여럿이 배치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곳 사정을 잘 아는 놈들 짓이라 볼 수 밖에 없어요!

환경계장 우리도 감시원들에게 물어봤죠.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다고 하데요.

조형사 이 지역 철새 감시원 중에 고참 한 명 불러줘 보소.

환경계장 멀리 갈 필요 있능교?
(환경감시원 정씨를 가리키며)저기 있네요.

조형사 아재, 이리와 보소.

환경감시원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조형사 곁으로 다가간다)저 말 입니까?

조형사 그래요. 우리는 아무래도 이 쪽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 소행으로 보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감시원 글썄요. 감이 잘 안 재피네요.

조형사 아니 철새 지키라고 봉급을 주지 않소. 천연기념물인 철새가 관리 소홀로 죽으면 그건 직무유기 아닝교?

환경감시원 …(고개를 아래로 떨구며 아무런 말이 없다.)

조형사 (환경감시원 정씨 위아래를 번갈아 찌려보며) 당신네들 아무래도 수상해!

환경계장 조형사님, 좀 봐주소. 우리 감시원 중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보증할게요.

조형사 계장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못 들어 봤소.
경찰서로 비번 조부터 보내주소. 한 사람씩 집중적
으로 행적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아시겠죠?

환경계장 경찰서에서 오라카른 가야지 예. 우리 감시원들이
순진해 놀랄건데...

조형사 윗사람 방침이니 나도 어쩔 수 없지. 다행히 범인이 잡
히면 몰라도... 과거에 자연보호활동 한답시고 찢락 거
리다가 밀렵꾼과 내통해서 일 저지른 게 어디 한두
건이요. 그걸 모르능교?

환경계장 설마, 그럴리가요.

조형사 캄캄 무소식이네. 이래 몰라서야, (가볍게 웃으며)
계장님 공부 좀 하이소!

사이

(서기자, 도착한 후 한동안 큰고니 사체 가까이서 관찰하며 생태 전
문기자답게 디카 샷터를 눌러대며 분주하다.)

서기자 조형사님, 구청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조형사 저어기, 구청 환경과 이계장 왔네요.

서기자 (환경계장에게 다가서며) 계장님! 고생하시죠. 강나루
경찰서 출입하는 낙동일보 서나영입니다. 서에서 천연
기념물 철새 독극물 사건수사 한다고 해서 한번 나와

봤어요.

환경계장 아, 전에 환경담당 하셨지요? 안면이 많네요.(웃으며)
제보가 있으면 구청에 귀 톱 좀 해주시지, 신문에 크게
나서 야단맞고 혼 꾸녕 났어요.

서기자 (웃으니 덧니가 보인다) 조건 생명은 속보 아닙니까!
잘 아시면서, 우짜 댔던 미안하네요. 계장님, 저 생각
에 말입니다, 앞으로 철새 해치는 사람 신고하면 포상
금 주는 그런 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계장 (땀 적은 표정을 지으며)예, 그런 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서기자 왜, 행정력만으로 안 되면 주민 참여가 필요하잖아요.
왜, 시 당국에 불법 하도급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 주
던데, 철새 보호에도 접목해보시죠! 효과 있을 거 예요.

환경계장 그러든 한번 연구해 보죠.

서기자 아! 참, 중독된 큰고니 새끼 응급 치료해 지금 회복중
이라고 들었는데 상태가 어떤가요?

환경계장 예, 새벽녘 야생동물치료센터로 긴급 후송해 치료
중인데 살아 날 가망이 있다고 하네요.

서기자 상세한 건 나중에 알려 주실거죠?

환경계장 물론이죠.

서기자 큰고니 죽인 범인 잡혔나요?

환경계장 안 그래도 경찰에 수사 협조 했어요. 야생동물보호협
회 박회장에게도 연락해 두루 수소문하고 있고요.

서기자 사건이 터지면 비로소 움직이는 게 행정의 난맥상

아닌가요? 안타까와요.

환경계장 휴우… (한숨을 쉬고) 허 허…

(주변 정막을 깨고 핸드폰 소리 요란스럽게 울리자 조형사 재빠르게 핸드폰을 받는다.)

조형사 뭐라고 용의자 검거했다고, 잘했어! 상리경찰서에서 그 놈 데리고 이리 온다고… 그래, 그래 기다리지 뭐… 환경계장 뭐라 하던가요?

조형사 경북 산골에서 용의자를 잡았데요.(풀이 죽은 얼굴 표정을 지으며) 현장 검증과 채증을 위해 우리서 직원하고 같이 이리 온답니다.

서기자 (슬며시 웃으며)회사 갈려고 했더니 속보거리 생겼네.

환경계장 인자 됐다. (환경감시원을 부드럽게 부른다.) 정씨, 전화해서 구청 감시선 여기로 올 때 캔 맥주 대여섯 개사오라 해요. (만원권 지폐 세장을 건네주며) 여기 있소.

환경감시원 예. (지폐 건네받는다.)

조형사 미제 사건도 많은 데 오늘은 구청장 일만 도와준 셈이네.

환경계장 구청, 경찰서 일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서로 도우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거죠.

조형사 (통명스럽게)보소! 우리는 강력범 잡는 게 일이지. 실제, 이런 잡건에는 흥미 없어요.

환경계장 아따, 되게 그라시네. 이번 건 마무리 잘 되면 술 한 잔

진하게 살게요. 큰고니 한마리만 죽어도 문화재청에
조치사항 보고해야 하고 ... 우리도 정말 싫습니다.

서기자 조형사님, 범행 동기는 밝혀졌나요?

조형사 그건 못 물어 봤는데... 와 봐야 알겠지요.

사이

(철새 감시선에서 구수한 뱃고동 소리 들리자 일행들이 보인다.
형사 한사람과 정복차림 경찰관이 범인으로 보이는 청바지 차림의
수감 찬 청년을 곁에 끼고 들어선다. 까맣게 탄 얼굴의 사내, 안절부
절못한다.)

조형사 어이, 최순경, 여기야.

최순경 배가 늦게 와서 좀 늦었지 예.

조형사 뭐, 괜찮아. 여기 구청 환경계장, 그리고 이분 알제,
우리서 출입하는 낙동일보 서기자님.

최순경 반갑습니다. (서기자에게 만 손을 내민다.) 아참, 조형
사님, 용의자 검거해서 우리서로 데리고 온 상리경찰
서 김경위님 여기 오셨어요. 인사하시지요.

조형사 김경위님, 원로에 수고 많습니다. (반갑게 서로 악수
한다.)

김경위 반갑습니다. 궁금 하실테니까, 대충 검거 상황을 말씀
드리지요. 이 애와 친구사이인 또 한 놈이 용의자인
데 그놈은 튀었어요.

조형사 아깝네!

김경위 이놈들이 달포 전 낙동강 상류 고령 쪽 지류에서 청산가리 넣은 법씨를 강변에 뿌려 고니 두 마리 불법 포획하고 몰래 충포사에서 박제용으로 팔려고 흥정하다 밀렵단속 중인 우리서 직원에게 딱 붙잡혔지요.

조형사 그라든, 이 놈들이 우리지역 큰고니도 싹 해치운 겁니까?

김경위 그렇습니다. 우리 서에서 여죄를 추궁하자, 영남권 뉴스에 크게 보도된 을숙도 큰고니 독극물 사건 역시 이 놈들 소행이라고 몽땅 자백했답니다.

조형사 기왕, 오신 김에 현장 한번 둘러 보이소.

김경위 예, 그러지요.
(준비된 장갑을 끼고 큰고니 사체를 이리 저리 살피고 주변에 흩어진 법씨 흔적을 따라 움직이는데 솜씨가 예상롭지 않다.)

김경위 (청년을 가리키며) 야, 임마! 여기가 너거 들 범행 현장 틀림 없제?

범인 예... (기어 들어가는 작은 소리로)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김경위 옆에 있던 환경감시원 정씨가 느닷없이 용의자 겉으로 다가와 서너 차례 따귀를 올린다. 철썩, 철썩... 순식간이다.)

환경감시원 야 이놈! 니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천만리 그 먼 길을 날아 찾아온 큰고니를 이렇게 무참히 독살하다니,

그것도 어린 새끼들까지...

(용의자 청년의 먹살을 잡고 흔드는 환경감시원 정씨를 촌로가 뜯어 말리나 역부족이다. 촌로가 팔을 잡자 헛발질하고 분에 겨워 자기 가슴을 내리치는 모습이 안쓰럽다.)

사이

조형사 자! 그만하소. 평소에 잘하지. 지나간 버스 손들면 뭐해!
(환경감시원에게 손짓하며) 아제 보이소, 이 놈 알아 보겠능교?

환경감시원 (빠히 청년의 얼굴을 쳐다본다) 알다마다요. 행동거지가 수상했던 그 애들 중 한 놈 맞네요. 달포 전부터 사진기 메고 자주 어설렁 거렸던 딱 그놈이네요. 이 자식들 신분증 보자니까, 저거들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생태 사진작가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나네요.

환경계장 나 원 참...순진한 게 탈이야!

촌로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지. 우짜겠노.

김경위 조형사님! 이 애가 뿌린 법씨를 증거물로 저에게 좀 싸주시지요. 그리고 큰고니 부검 결과도 제 메일로 보내 주실 수 있겠지요?

조형사 (다소 들뜬 표정으로) 물론이지요. 그럼, 메일 주소 주시죠. (김경위, 조형사에게 명암 주고 조형사는 최순경 도움을 받으며 죽은 큰고니와 주변 배경을 디카에

담는다.)

김경위 요새, 일이 바빠서 모레쯤 오려고 했는데 이 곳 현장 보존이 어찌될지 불안해서 단숨에 달려 왔지요. 이래 조사를 마치니 깨운 하네요.

조형사 범인! 대한민국 경찰 누가 잡아도 잡아야죠. 오히려, 잘 됐어요. 우린 사건 하나 해결하고요. 구청장하고 우리과장 고등학교 동기라 어찌 챙기는지, 정말 머리에 찌 내렸어요.

서기자 (용의자 청년의 얼굴을 뺨히 쳐다보며) 한번 물어볼까요. 왜 그랬나요?

용의자 …(입장 곤란한 표정으로 김경위 눈치를 슬금슬금 본다.)

김경위 임마! 이야기해도 돼.

용의자 휴우……(긴 한숨) 요즈음 전국 여기저기서 철새 많이 오는 곳마다 탐조관광객 유치하려고 철새보호센터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기에 전시할 철새 박제 공급이 딸려요. 총 맞은 큰고니 좋은 가격이 안 되고 … 훼손이 덜 된 철새 사체는 없어서 못 팔지요.

서기자 그 동안 얼마나 잡아 처분했습니까?

용의자 ……

환경계장 왜, 우리시에서도 낙동강 하구에 에코센터 지었잖아요. 하구에 찾아오는 철새 종류는 많은데 박제는 태부족하죠. 그래서 목공예가 들이 동원돼 철새 모형을 나무로 깎고 색칠해 전시물로 만들고 있지요. 일본도 마찬가지 지랍니다.

서기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환경계장 문화재청 승인 없이 박제용으로 철새를 못 잡고 환경 단속도 심하니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또, 대학 조류관 마다 희귀종 박제가 있어도 선뜻 기증 안 해요. 귀한 것 일수록 출처가 캐기기 때문이죠.

수의사 계장님! 사체가지고 해부하러 내 먼저 갈 랍니다.

환경계장 예, 그럼 수고 좀 해주시고 나중에 연락 주세요.

수의사 저는 이만…

(수의사, 동물치료센터에서 가져 온 들것에 죽은 큰고니들을 실고 흰 천을 덮은 다음 환경감시원 도움으로 통선이 있는 곳을 향하여 들고 간다.)

사이

김경위 잘 몰라서 그라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내륙에 서만 오래 살아서… (씩 웃으며) 무리에 뒤쳐진 처량한 신세를 낙동강 오리알로 비유하는데 여기에 낙동강 오리알 진짜 있나요?

환경계장 있다마다요. 여러 설이 있는데… 낙동강 오리알은 원래 강 하구나 갯벌에 사는 텃새 ‘검은 뺨 청둥오리’ 알을 말 한데요.

촌로 그 알 말 이제. 홍수 나서 강물이 불으면 둥둥… 떠다니지 예.

김경위 아하 그렇군요.

환경계장 여기,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모래섬이나 갈대밭에서 쇠제비갈매기 같은 여름 철새들 알 낳고 어미새 보호 아래 새 생명으로 커지죠. 그런데, 큰고니 여기서 지낼 때는 알을 안 낳는 겁니다.

김경위 그라운 시베리아로 돌아가 거기서 알 낳는 겁지요?

환경계장 예, 5,6월경 산란 합니다.

김경위 그라고 또 의문 나는 건... 이 야생오리들 손 데면 저 놈처럼 문화재보호법 위반 안 되능교!
(김경위를 제외하고 모두 함께 웃는다.)

환경계장 걱정 마이소. 집에서 기른 청둥오리는 괜찮아요. 지금 한창 기름이 올라 맛이 기칩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저희들과 소주 한잔에 낙동강 오리, 시식 한번 해봅시다.

김경위 계장님, 말만 들어도 고맙네요.

조형사 그라운, 계장님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전화주세요. 우린, 서에 가서 저 녀석, 유치부터 해 놓고 경위님 모시고 갈게요.

환경계장 그럼, 하단에 가서 전화 드리지요. 수고!
(최순경 혼자 용의자를 옆에 끼고 조형사, 서기자, 나머지 사람들은 통선이 정박된 쪽으로 하나 둘 사라진다.)

- 암전 -

(서서히 멀리 가덕도 너머로 해가 넘어갈 무렵, 주변에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다. 낙조를 배경삼아 모래톱에 촌로와 환경감시원이 다시 나타난다.

촌로 (담배를 한 개 피 꺼내 피우는데 입을 오픈려 둥그란 담배 연기를 연신 토해낸다.) 담배 맛 죽이네. 여기 경치는 바로 이때가 최고야!

(환경감시원 정씨 나타난다. 모래톱 중앙으로 여러 개의 라면 박스를 옮겨 하나 둘 풀어 해쳐 무언가 끄집어 내는데 가만히 보니 잘게 채 썰은 고구마 절편이다. 그것을 이리저리 갯벌과 주변의 수면위에 능숙하게 뿌린다)

환경감시원 (멍한 표정으로 멀리 하늘을 쳐다보면서) 큰고니야!
이거 먹고 내년에도 꼭 돌아와...

촌로 이 애들은 어디로 날라 가는지 아냐?

환경감시원 긴 여정을 떠날 때가 다 되어 가네요. 4월쯤 날이 풀리면 큰고니 가족들은 무리를 지어 북쪽으로 떠 납니다. 조류연구소 홍박사가 그라던데 큰고니는 여기서 평양 대동강 거쳐 몽골로 거기서 러시아 캄차카 반도까지 무려 2천 킬로미터나 날아 간대요.

촌로 그라든, 이 애들이 내년에 여기에 다시오나?

환경감시원 장담 못해요. 러시아까지 탈 없이 도착하면 몰라도... 도중에 낙오하는 녀석도 꽤 많다고 그러니까.

촌로 정씨, 봐라. 을숙도 가로지르는 저 다리 한 동안 공사 스톱했더니만 가만 보니 한창 맨들고 있네?

환경감시원 저 다리 공사하면 소음 많고 철새 서식에 지장 준다고 환경단체에서 못 짓게 소송 걸었지 예.

촌로 우찌 됐는데?

- 환경감시원** 재판에서 환경단체가 졌다하데 예.
- 촌로** 내 소시 적에 여기 겨울철새들 새까맣게 몰려 왔었지! 하구 개발한답시고 매립하고 다리 세우고 강물도 더러워져 인제 해가 갈수록 철새들이 자꾸 피해간다 카더라.
- 환경감시원** 철새처럼 주변 환경에 예민한 동물도 없지 예! 그러나 저러나, 저 다리 세워져야 공장 제품이 부산항으로 빨리 옮겨져 지역 경제가 산 데요. 철새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아닌가 베요.
- 촌로** 그런데, 철새들 힘들게 그 먼데까지 되돌아가지 말고 계속 여기서 살면 안 되나?
- 환경감시원** 그 녀석들은 회기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 갈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난답니다. 누가 말리겠어요. 자연의 섭리라 여겨야지!
- 촌로** 병든 큰고니는 대장이 안 데리고 간다더라. 종족을 위해...
- 환경감시원** 어디에서나 낙오자는 있게 마련이지요. 간혹, 초봄 갈 대밭이나 갯벌에 시베리아로 못 간 병들거나 어린 큰고니 몇 마리 종종 보입니다.
- 촌로** 못 돌아간 그 고니 말이다. 한 일년 버티면 다음 해 가 족들과 상봉도 되겠네?
- 환경감시원** 그럼요. 축복의 땅에는 항시 기회는 찾아오지요. 내년에 다시 만나고 머물다 그 이듬해 가족 모두 함께 떠날 수 있고말고요.

사이

촌로 (핸드폰 소리 울리자마자 전화 받는다) 정씨, 철새 감시선 문선장우리 데리러 온다고 연락 왔다. 펄떡 갈 준비 하거래이. 뱀이 아프지만 오늘은 그만 하고 가자. 울적하니 구포나루로 나가 소주 한잔 사 주꾸마.

환경감시원 안 됩니다.

촌로 와! 또 뭘 일 있나?

환경감시원 에코센터 가서 큰고니 새끼들 어찌 됐나 보러 가야지 예.

촌로 저녁나절인데 그쪽 직원들 퇴근 했을 텐데?

환경감시원 가면 됩니다. 당직자에게 부탁해 새끼들 어찌됐는지? 얼굴 한번 봐야 잠이 올 것 같네요.
(환경감시원 정씨, 폐 가구 위에 걸터앉아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한다.)

사이

(환경감시원, 툭툭 털고 일어나 배낭 하나 올려 메고 촌로와 함께 감시선을 타기위해 어둠속 갯벌 저편으로 사라진다.)

나레이션

멀리 모래 톱 너머 해수면위로 희미하게 떠 있는 섬 사이 해가 막 넘어가려한다. 때마침, 가창오리 수천 마리, 코로 코로…울며 수면 위

검은 그림자 드리우고 두 사람 머리 위를 난다. 한참 군무에 지친 무리, 다시 왼쪽 물운대 석양을 향하여 힘차게 날개 짓 하고...

이윽고 깊은 밤 긴 갯벌 곳곳 큰고니 가족들 강물에 몸을 실고 오순도순 모여 잠을 청한다. 훗 훗 훗... 조만간 떠나야 할 긴 여정을 생각하며... 차가운 별빛 아래, 강바람 스치니 갈대 줄기와 잎사귀 서로 부딪혀 소리 내 울고.

우비집샤(У в и д н м с я) 큰고니! 또 봐요 큰고니!

막상, 수상 소감을 쓰려고 하니 한때 연극이 좋아 소극장을 많이 다녔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큰고니 우비짐샤는 나의 경험의 소산으로 과거 시청에서 생태업무를 담당하면서 얻은 기억의 편린들을 하나 둘 되살려 희곡으로 구성해 본 것입니다. 해마다 10월말이 되면 철새들의 대이동은 시작됩니다. 수많은 낙오자를 뒤로하고 철새들의 위대한 비상은 낙동강 하구 갯벌, 모래톱에 안착하면 일 막이 내리고 천년 진객 큰고니 가족은 갈대와 함께 웅기종기 모여 겨울을 지냅니다. 글로벌시대에 만약, 이들이 인간이라면 환영식은 제법 그럴듯하게 열리겠지만 정작 기다리는 사람은 철새 먹이를 책임지고 말없이 소통하는 몇몇 철새감시원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큰고니의 머나먼 비행은 수 천 년을 거쳐 온 자연의 섭리이자 숙명이라 생각해 봅니다. 우비짐우비짐샤는 러시아어로 또 봐요 라는 뜻으로 겨울을 나고 시베리아로 떠나는 큰고니 날개 짓은 다시 오겠노라는 시그널 아닐 런지요? 우리가 그냥 스쳐버리는 자연생태의 경이로움에 한번쯤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커져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글 뽑아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북 정읍시청
은 중 민



나오는 사람들

전봉준 : 41세, 훈장, 태인 산외면 동곡리 농민혁명 주도자

김개남 : 42세, 전봉준 손화중 등과 함께 동학혁명을 주도

손화중 : 35세, 농부 전봉준 김개남 등과 동학혁명을 주도,

최경선 : 37세, 손화중, 김개남 등과 동학혁명을 도움

이용태 : 안핵사 2차 봉기의 주원인을 제공함

유성녀 : 39세, 손화중의 처

전창혁 : 전봉준의 아버지

조병갑 : 고부군수로 탐관오리의 전형

주 모 : 40세 전봉준을 구출하는데 은밀히 협력한다.

농민군 : 1,2,3,4... : 농민 혁명가들

이도재 : 전라관찰사

이서구 : 전라감사

낭자1,2,3 : 소녀, 과부댁, 태인댁, 연화, 포도대장,

포졸들 1,2,3,4,5...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다게시타

이외 구경꾼들과 노래하는 아이, 소녀, 엄마, 할머니,

기생들, 일본군, 손님들, 주민들, 아줌마 등

제 1 장

선운사 마애석불이 무대배경으로 크게 그려진 앞에 소나무와 바위 주위에 숲이 우거져 있고 손화중 농부들 한가운데 고뇌에 찬 표정으로 서있다.

농부들 왼편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상한 빛을 따라 이서구 천천히 들어 온다.

대사에 맞추어 마애석불 비기를 열다가 벼락이 떨어지자 놀래서 도망간다.

농부1 (호기심어린 표정과 동작으로) 저 마애석불 배꼽 안에 비결이 있다고라?

농부2 췌! 조용히 혀! 이 사람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속삭이듯이) 근디 저 배꼽을 열면 시상이 바뀌고 한양이 망헌디야!

농부3 무슨 비밀스런 말이 써 있간디 근디야?

농부4 천삼백년전 검단대사님이 써넣었는디 아! 요전에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었다가 마른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바로 닫혔단디, 글시 책 표지만 봤는디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 것이다 그렇게 써있었다야!

농부5 (눈을 크게 뜨고 놀라며)시상으 천년전의 배꼽 열사람, 이름을 어찌코 알아 맞췄디야?

농부1 근디! 마른하늘에 벼락이 왜 꼭 그 순간에 떨어졌디야?

농부2 내용은 보먼 안 되는 사람인게 벼락이 떨어 졌겠지 그야!

- 농부3 누가 우연히 산위에서 바위나 하나 떨어졌슬랑가도 모를 일 아닌가벼?
- 농부4 아! 명색이 전라감산디 진짜 날벼락 허고, 바위 떨어진 소리 허고 구별을 못했것는감?
- 농부5 그러고 말고 궁게 사람들이 무사서 궁금허기는 히도 압도 함부로 열 생각을 못허제?
- 농부1 근디 검단대사님이 어떤 사람이시디야?
- 농부2 선운사를 창건허셨다고도 허고 최치원 선상님허고 바둑도 두시고 자우튼가나 도력이 높으신 신통허신 도사님인가 벼!
- 농부3 손화중 선상님 정도 부자이면 여실 췌대(열쇠)가 있으실 것 같은디!
- 농부4 압! 그렇고 말고 그 양반은 췌대 없어도 끌르실(여실) 양반여!
- 농부5 근디 사람들이 그렇게나 조까 끌리(열어) 보시라히도 저 양반도 조까 무선가 선뜻 땡기덜 안는가 안끌르신(여신) 당께!
- 농부1 아! 그런 것은 사또님이나 지체 높은 양반님들이 히야 되는 것 아닌가?
- 농부2 (옷소매를 걷어 부치며 익살스런 동작과 함께)아따! 씨글놈으것 내가 한번 열어봐 빠릴까나 어찌끄나?
- 농부3 (말리는 손짓과 함께) 때끼 이사람아 전라감사가 열어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판에 자네 같은 사람은 벼락을 맞아도 골백번도 더 받을 걸세!

농부4 궁계잉! 그런 것을 볼짜시면 꼭 비슬(벼슬)이 높은 사람 보다는 좋은 일을 많이 현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히야 될 짝 싶은디잉?

농부5 아! 궁계 그말이 맞을 것가 통게 무시나 우리가 손화중 선상님헌티 부탁 허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라 잉?

농부1 아! 손선상님이사 진즉에 과거를 보기만 했으면 급제 히서 감사보다도 더 높이 되셨을 양반여!

농부2 왜! 그럼 과거를 안보셨디야?

농부3 아 원래가 선비는 실력이 있어도 그렇게 벼슬을 탐허는 게 아니라고 헌디야!

농부4 아! 거시기 매관매직 허고 몹쓸 짓만 허는 높은 놈들이 많헌게 그런놈들 속에 끼고 잡들 안허시것지 잉?

농부5 아! 근디 시상의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만탐서(많다 하면서)죽을지도 모르는 일을 까놓고 말히서 자네들도 열라허면 쉽게 허건는가 허것서?

농부1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그러 ! 그분 덕에 굶어죽을 목숨 들이 산사람이 한둘이 아닌게! 그런분이 돌아시몬 안되 기도 허는디!

농부2 우리가 글도 그 양반이, 큰 비밀 언덕은 언덕이제잉?

전봉준 등장하며 손화중에게 다가와 서로 인사를 나눈다.

전봉준 (주먹을 쥐며 형형한 목소리로)손선생님 언제까지 이 난세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제발 좀 도와주소.

손화중 우리와 뜻을 함께 허것다는 사람들이 뜻있는 양반과 선비는 적고, 양아치 깡패 등 저질들도 있어 선뜻 나서기가 두렵고만이라우.

전봉준 지금 나라를 구하는데 신분의 귀천이 무슨 상관이요? 뜻만 있고 행동이 없는 선비만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백성을 구하는 게 우선 급선무 아니요?

손화중 암만 뜻이 좋아도 따르는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일어났다가, 나중에 탄 몸쓸 짓을 할지 걱정되고 그들 땀시(때문에) 선량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까 염려도 되이라우.

전봉준 구더기 무서워 된장 못 담그것소? 크게 보시고 멀리 보십시오.

손화중 잠깐 더 시기를 보고 생각할 여유를 주시기라우?

전봉준 (퇴장하며)제발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부1 (손화중에게 다가서며) 손선상님 저 비결을 한번 열어보고 결정을 하면 어찌것소?

농부2 그냥 어찌코 끝론단가 준비를 히야제!

농부3 그러 먼일을 부탁하는 마당에 준비를 우선 잘 히야제 잉?

농부2 아! 뒤틀험가? 싸게 싸게(빨리) 제단을 만들세나.

농부4 선운사 주지 스님도 모시고, 굿 잘하는 당골래도 부르고, 천도교인들도 좀 부르세.

사람들 제단을 준비하는 동안 손화중 무대 앞으로 나오며 노래한다.
노래 마지막에 유성녀 노래하며 등장한다.

손화중 왜? 한울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
세상에는 굶어죽는 사람 천지인데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유성녀 서방님 비결을 기어이 꺼내기로 하셨어요.
딴 사람들도 많은디 왜 꼭 서방님이 짐을 지셔야 하나요?

농부1 시상 사람들이 다그령만요. 손선상님이 여시면 하늘이
절대로 벼락을 치시지 않을 것이라고라우.

농부2 그럼요! 손선상님이 벼락을 맞는다면야 하나님이 노망
드신 것 이지라우!

유성녀 아녀라우! 여러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 이시지라우?
다른 좋은 분 좀 찾아서 대신 열개 히주시기라우?

농부1 손선상님보다 착하고 인품 좋고 허신 양반이 조선 팔도
에는 없어라우!

농부3 (맞장구치며) 그렇고 말고 맞당께! 맞아 너무 걱정 마
시기라우.

말하는 사이 신령님께 작은 제단을 차리고 산신제를 먼저 올린 후
큰 제단에 사람들이 술을 따르고 재배를 올리고 재배 할 때 마다 사
람들 모두 같이 재배를 하고 마지막 손화중이 절을 한 후 제문을 읽
고, 스님은 반야 심경을 외고 무당이 굿을 한다. 몇 사람은 칼과 창
을 들고 주위를 경계한다. 일동은 모두 엎드려있고 곁눈으로 손화중
의 행동을 기다린다. 긴장감 있는 음악 흐르고 조명 손화중만 스포

트라이트를 비친다.

유성녀 (간절한 목소리로) 누가 좀 같이 가주시면 안될랑가요.

농민들 (서로 눈치만 살피다가 조심스레 말한다.) 우리같이 무지렁이들이 같이 모시고 갈디있고 안갈디가 있지라잉!
죄송 허지만 가고 쟁파도(싫어도) 녀들이 못 가게 허는 고만이라우.

유성녀 글도 위험한 일이담선(일이다 하면서) 저양반만 혼자 보내시면 어찌코현대 라우? 한 두어 양반이 같이 좀 가주셨으면 조켓고만이라우?(좋겠는데요)

말하는 사이 배꼽에 가까이 갈수록 걸음이 느려지고 있는데 점점 바람이 거세지며 조명 어두워지고 긴장감 있는 음악 흐르면서 마애석 불 배꼽 문을 손화중 떨리는 손으로 잡아서 천천히 열자 묵직히 열리면서도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걸 본 사람들 “아!” 하는 탄성을 울리는 가운데 손화중 떨리는 손으로 비기를 꺼내 한 장 두장 넘겨 읽자 었드려 있던 사람들 고개를 들고 보려는 순간, 갑자기 천둥소리가 들리자 모두다 열린 고개를 숙이며 바들바들 떠다.

농부들 아이고! 잘못했구만이라우! 용서히 주시기라우?

대충 읽고 책을 품속에 넣고 내려오자, 조명 밝아지고 농부들 조심

스레 일어나며 손화중에게 다가선다.

농부1 (내려오는 손화중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레) 먼 말이 써 있는 가라우?

농부2 머시라고 써 있어라우?

농부3 예끼! 이 사람들아 우리들은 알면 안될 내용인 게 아무 말 안하시것지잉?

농부4 맞어! 아무헌티나 헐 말 같으면 감취 놓으셨겠는가?

손화중 (떨면서 다가오는 유성녀 손을 잡으며) 나중에 말씀드리 겠소.

농부3 손선상님은 역시 참 장헌일 을 허셨습니다.

농부5 우리들 생각이 틀림 없지라우잉?

스님 (합장하며) 관세음보살 수고 하셨습니다.

손화중 예! 감사합니다. 모두들 곁에서 염려해주신 덕택에 제가 큰 힘이 되었고 만이라우. 저 혼자 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힘이 지라우.

무당 손선생님이 제일 큰 힘이 지라우.

유성녀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농부3 근디 뭐시라고 써 있었는가라우. 우리가 판디가서는 절대 말 안 헐 텅께 찌깨만 갈켜주시면 조컷고만요 잉?

농부5 아따 선상님 도 조까 쉬셔야지 식은 땀 나신 것 좀 보 소 우리 모다 다음 기회에 물어보기로 허고 조께 좀 참드 라고잉 담에 물어보게.

농부들 그러 그러세.

그때 포졸 두 명을 거느리고 전라감사 이서구 힘찬 걸음으로 나타난다.

이서구 (당당하게) 내가 전라감사요 그래 그 비기를 보았다면서
뭐라 써있었소?

손화중 내가 보자마자 햇빛에 글씨가 녹아 버렸소.

이서구 글도 된 내용인가 보기는 했을 것 아니요?

손화중 너무 긴장하고 놀라서 숨이 가빠 읽고도 기억이 잘 나질
않소.

이서구 (큰소리로) 그래도 기억나는 대로 대충만 말해 보시오.

손화중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써 있었소.

이서구 (눈을 번쩍 뜨며) 흠! 이제 생각이 나는 모양이구나 더 말
해 보시오.

손화중 말 할 수 없소.

이서구 (호통을 치며) 이봐요! 내가 전라감사인데 나에게도 말을
못한단 말이오?

손화중 (미소 지으며) 정히 그렇게 알고 싶소?

포졸1 어르신을 놀리지 말고 빨리 고하십시오!

손화중 (비장한 표정으로) 이 지방에서 혁명이 일어나 못된 관리
들은 다 죽는다고 써 있었소!

이서구 (금세 사시나무 떨듯 떨며) 뭣이라고! 분명 그제 사실이렀다!

손화중 (비장한 목소리로) 그렇소.

귀를 기울이며 같이 듯던 농부들 “아!” 하는 탄성소리를 뒤로 하고
당당하게 올 때와 달리 떨면서 휘청거리며 세 사람 퇴장한다.

- 암 전 -

제 2 장

1894년 고부군 동헌.

전통 기와집 대청 배경의 마당 양 옆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다.
대청마루 위에는 잔칫상이 놓여 있고, 포졸들이 주위에 서 있는 가운데 잔칫상 중앙에 조병갑, 그 곁으로 이방, 호방, 예방, 병방 등의 아전들 사이에 기생들이 끼어 있다.

수제천 음악이 잔잔히 흐르며 막이 오르면 조병갑 주안상을 받고 떠들썩하다.

이어 기생들 춤판이 벌어지면 조병갑 비틀거리며 일어나 말한다.

조병갑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 기름진 땅 옥토 넓은 평야.
고부에서는 내가 왕, 내가 천자라.(이때 좌중은 박수를 친다.) 으하하하, (익살스럽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기생들과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앉는다).다음은 호방 당신 차례요.

호방 (주위에 인사하고 일어서서 노래한다.)홍진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상춘곡 하략) 다음에는 고부 최고 명기 연화가 정읍사로
사또님 간장을 녹여 빠리라.

예방 호방이 헌 노래는 불우현 정극인 선생께서 벼슬을 사양
하시고 태인에 내려 오셔서 만든 가사문학의 첫 작품
으로 봄 경치를 보며 안빈낙도(安貧樂道)를 그린 이 고장의

자랑인 노래지라우.

조병갑 (안빈낙도(安貧樂道)라는 말이 귀에 거슬린다) 그렇게 유능한 분이 정치를 잘해서, 국가에 더 공헌 하시는 게 더 좋았을 걸 그랬소. 나처럼 말이요? 허허허

몇 사람이 아침조로 같이 웃는 사이에 연화 나와서 노래한다.

연화 달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 강도리 아으다롱디리. 전 저재 내려신고요 어귀야 대를 디디올세라 (정읍사 하략)

조병갑 (음흉한 미소 지으며) 아니 저 노래 뜻은 저 애가 상(喪) 중인 나에게 오늘밤 내 수청을 들겠다는 것 아니요? 허허허 철없는 것 같으니!

호방 (가벼운 미소 지으며)아니랑께요! 행상인의 아내가 전주에 간 남편을 기다림서 부른 한글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가요로 저것도 우리 고을의 자랑인 노래이지라우.

조병갑 허허허!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겉뜻은 그렇지만, 속뜻은 나보고 저를 좀 안아 달라는 뜻 아니요? 허허허...

병방 (미소 지으면서도 짐짓 정색하며)그러코롬 알고 있는 사람들도 몇 있지만 점잖으신 사또어른께서 탄디 가서는 그런 말씀 마시기라우.

예방 정읍사라는 이 노래가 궁중으로 가서는 수제천이라 하여 궁중음악으로 연주되었서라우.

조병갑 고맙소! 이런 좋은 곡을 들려 줘서, 그런데! 이 좋은 노래

가 왜! 그렇게 나쁜 해석이 따라다닐꼬? 아니? 그런 해석이 따라다니니까 생명력이 긴 것 아니겠소?

(음흉한 미소 지으며)

이방 정읍사는 망한 백제를 그리워하며 백제가 부흥하기를 바라며 불렀다는 설도 있습지요.

조병갑 허허 처음 듣는 소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방 백제가 망할 무렵 일본이 백제를 도와줄라고 오려는 시도가 있었답디다. 그 일본 원군이 어서 와서 백제 부흥을 도와 달라는, 기원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지요.

조병갑 백제가 왜? 꼭 왜놈들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기분이 썩 좋지 않구려.

이방 꼭 언짢게 해석할 필요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백제가 일본을 가르치던 때이니께라우.

조병갑 음! 듣고 보니 그럴 법도 하오.

형방 지금도 물 좋아 음식 맛 좋은 시암골(井邑)에 가면 망제동과 망제봉이 있습죠, 망헌 백제를 그리워 허는 지명으로 볼 수 있고, 노래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으께 생명력이 질(길)었을랑가도 모르지라우.

조병갑 좋은 말씀 많이 들었소! (이윽고 좌우를 둘러보며 아전들에게 명한다). 지금도 불안한 시국이니, 이를 지키려면 국가 재정이 튼실해야 하므로, 지금보다 세금을 조금 더 걷는 방법들을 토의해 봅시다.

이방 곡식을 걷어 두면, 쥐가 먹는 양이 일년이면 술찬허니, 그걸 생각해서 쪼개(조금) 더 걷어야 될 것 같터라우.

- 조병갑** 뭐라고? 아하! 그거 좋소.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내보시오.
- 호방** 곡식을 옮기다 보면 흘리는 양도 (말하기 조금 쑥스러운 듯) 거시기 현계 두(斗)당 한 홉씩은, 더 걸어야 할 것 같은디요잉?
- 조병갑** 뭐라고, 오호! 그것도 괜찮겠네. 그리 하시오.
- 예방** 불효죄, 불목죄, 음행죄, 잡기죄 등으로 잡아 가두시기라우, 글면 죄를 모면 하기 위해 세금을 잘 낼 것이고, 풍기 문란도 잡힐 것인 게, 일거양득일 것 아닌 가라우?
- 조병갑** (아주 흐뭇한 미소 지으며) 그렇지 그래. 그것 아주 좋은 생각이요. 그리 하시오.
- 병방** 족정1), 인정2), 백골징포3), 황구침정4) 등은 우리한테 내놓고 말들은 못 하지만 불만들이 많은디, 그런 죄목으로 걸으면, 잡소리들이 안 들리고 괜찮을 것 같고 만이라우. (맞장구를 친다.)
- 조병갑** 그렇게 생각들을 잘 하면 좋은 수가 있는 법이요, 그러니 집에 가서도 잘 생각해 오시기 바라오.
- 예방** 자! 그만하고 노래 한곡 조 또 들읍시다, 우리 태인 댁이 분위기 한번 살려 보거라.
- 태인댁**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펄펄 나고요 이내 가슴 타는 제 연기도 김도 안 나네”! (사발가. 하략 노래를 마치고 조병갑 옆으로 앉는다.)
- 조병갑** 아따! 고년 입술이 어쩜 순창 고추장같이 빨강게 맛있게 생겼다냐! 이리 오너라! 맛 좀 보자.
- 병방** 태인이 유상곡수도있고 단종 왕비 정순왕후가 태어나셨

고, 또 영조를 낳으신 최숙빈이 태어나 왕후가 두 분이나 태어나신, 전국에서도 풍수가 유명 헌터입니다.

조병갑 유상곡수라! 경주 포석정처럼 물길을 잡아 시를 읊던 그 곳에 가서, 나도 언제 왕비 같은 미인들과 시를 한수 읊고 싶구려. 그럼 그곳 터 기를 받아 빨리 궁궐로 갈지 모르겠구려! 허허허.

태인택 저도 흠! 최숙빈 맵기로(처럼) 될 줄 모르오니, 사또어른 궁궐로 가실 때 꼭 댕꼬가 주시면 좋겠는디라우?
(아양을 떤다)

조병갑 허허허! 최숙빈처럼 천민에서 최고 신분으로 출세를 하고 싶다고, 허허허 맞다 노력만 하면, 사람이란 신분이 바뀔 수도 있지, 헌데 그곳에 동학도 들은 없는고? 도대체 왜 그리 요즘 동학도들이 많아, 나라가 어수선해지는 거요?

호방 동학도들은 양반 상놈 구별이 없다니까, 무지렁이 상놈들이 굶파 가도 그 소리만 들으면 배가 부른 듯 흘린디끼 가입 헌다고 허고만이라우.

조병갑 아니! 반상의 법도로 이 나라가 기강을 잡아 다스려 왔거늘, 어찌 양반 상놈 신분 차별이 없을 수 있단 말인가, 말세로다! 말세로다!

태인택 (의아한 표정으로 조병갑을 바라보며) 사또나리 아까 막시(조금 전에) 사람은 노력만 하면 신분이 바뀔 수도 있따고 허지 안 허셨사옵니까?

조병갑 (얼른 대답하기 곤혹스러운 듯 인상을 찌푸리다가) 어허

그건 여자들이야 남자만 잘 만나면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게지.(얼렁뚱땅 넘긴다)

공 방 (태인택을 보며)허허 태인 떡(택) 사또님 심기를 불편 허시게 허덜 말랑께.

조병갑 허허 그런데 누가 그런 사교를 만들어 순박한 민중들을 선동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고?

병방 최제우라는 사람이 천도교라 처음 맹글고, 서양학의 천주교가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 나왔다 히서 동학이라고 헌단 디요!

조병갑 천도교와 천주교 말은 비슷한데 무엇이 다른고?

호방 둘 다 신분차별이 없다고 허는 것 허고, 똑같이 한울님 찾는 것은 비슷 헌가빈디 뵈이 조께 다르기도 헌다고 헌디, 종교란 게 다 비슷한 것 아닙니껴?

이방 삼천년 전 검단대사가 5) 선운사 마애석불 배꼽에다 비기를 넣었다디 그것을 손화중이란 사람이 꺼낸 후, 어떤 내용이 써 있었는가 말은 잘 안 히도 동학교 가입자가 부쩍 늘었다만요.

조병갑 허허 그 비기에 뭐라 써 있었답니까.

예방 누가 말은 잘 안 히도 전설에 의허면 그것이 열리는 날 한양이 망헌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당만요. 뭇 난리가 나기는 날랑가 시상이 요즘은 왜국 놈들도 와서 수선을 떨어쐈꼬….

조병갑 허허 한양이 망한다. 누가 왜 그런 이상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여 민심을 소란케 할꼬?

이방 뭐신가! 농민들 헛티 심(힘)을 주는 그런 말이 써 있었던 것 아닌가 허는 추측이 가능 험디다.

조병갑 허나! 그 동학도들이 무지한 백성들을 전국적으로 선동 하여 세금을 내려 달라고 한다는 등 국가 기강을 어지럽 히니, 인내천 어찌고 하는 동학은 조정에서도 금하라 하였으니, 동학도들은 모두 잡아 들이 도록 하시오.

이방 예- 이 그러도록 허것 고만이라우.

조병갑 만석보가 부실 허니, 그 아래에 정읍천과 태인 천이 합류 되는 지점에, 보를 높이 새로 튼튼히 막아야 헐 것 같은 대, 어찌들 생각하시요?

이방 (사또 눈치를 살피며 심각하니 말한다.) 지가 보기에 만 석보는 아직 튼튼합니다. 더 높이 쌓으면, 홍수 때 물 이 너무 차, 그 위의 논들이 수해를 입게 될 것이요. 지금 높이가 가장 적합 허니께, 그 예산은 아껴서 판디다 쓰든 좋을 터디요 잉?

조병갑 (자기 말에 동조하지 않자 표정이 금세 확 바뀌며) 대 홍 수가 나서, 만석보가 무너지면 어찌겠소? 새로 높이 막아 야 물을 넉넉히 가두어, 물세도 좀 더 걷을 수 있지 않겠소?

조병갑의 불같이 화를 내는 기세에 이방, 고개를 숙이고 딴 곳을 보 자 호방 잼싸게 끼어든다.

호방 이방은 하나만 알고, 어찌 둘은 모르시오? 사또님이 다 깊은 생각 끝에, 허시는 말씀 잉께 그렇게 허도록 허십시다.

- 조병갑** 내가 사대강(四大江)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삼십년 후면 미국 루스벨트도 나를 본받아서 테네시 강 토목공사를 해서 공황을 탈출 할 것ियो.
- 예방** (아침하는 표정을 지으며)대붕(大鵬)의 깊은 뜻을, 뱀새가 어찌 알 것 능가라우?
- 병방** 그나저나 사또어른이 모친상을 당하셨으께, 부의금조로, 약소 허니 천 냥 정도만 걸으면 으쩌긋소?

조병갑이 그 소리를 듣고는 표정이 굳어 버린다.

- 호방** (얼른 끼어들며 사또 눈치를 살피고, 병방 쪽을 보고 말 한다.) 천 냥이 머쇼? 자주 있는 일도 아닌께,(시선은 병방을 보지만, 조병갑 눈치를 보며) 마을 규모로 보아 한 이천 냥은, 걸어야 헐 것 아니것소 잉?

그제야 조병갑의 표정이, 조금 미소로 번지며 슬그머니,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 먼 산을 본다.

- 병방** (포졸들에게 명한다) 자네들은 각 마을 순찰을 돌다 동학도들을 보면 모두 잡아들이고, 마을 별로 할당하여, 사또 어른의 모친상 당하셨 썻께, 부의금 조로 세금 걷을 때 같이, 약소허니 한 이 천 냥만 걷어 오게나.
- 포졸들** 예 - 이 (하고 돌아 나간다.)

이때 사령 들어와 허리를 굽히며 말한다. 그 뒤 전봉준을 앞세우고 주민들 등장한다.

사령 나으리, 주민들이 진정을 올린다고 몰려왔습지요.

조병갑 지금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오라일러라.

전봉준 (사령을 밀치며)내 음악 소리가 들려, 회의 중은 아닌 성 싶어 들어왔소.

조병갑 (짜증스럽게 노려보며)아니! 저놈이 무엄하게 그러 무슨 일로 왔느냐?

전봉준 북쪽 네 개 면은 가뭄이 들면 재결(災結)로 전세(田稅)를 면제히 왔거늘, 굶어 죽는 백성이 많은 지금 당연히 면세(免稅)히 주심이 옳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3배나 더 전세를 부과한 천부당만부당 하다는, 민심임을 헤아려 주 십사 아뢰오.

조병갑 내 그리잖아도 감영에 가서 부탁을 해봤지만, 사정은 딱 허나 요즘 시국이 하 수상하니, 곡창지대인 우리 호남이 세금을 조금 더 내어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할 것 같으니, 올해는 좀 참고 세금을 더 내도록 하라는 분부가 내리 시었소.

전봉준 제가 직접 전라감영에 가서 진정 허는 과정에, 면세(免稅)히 주신 걸로 알고 왔소?

조병갑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네 하는 표정을 짓고)아니! 어디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고, 양민들을 선동 한다느냐? 이번에 다시 번복 되었으니 그리 알고 가거라.

전봉준 황무지도 개간 하면 세금 안받는 다 히서, 죽도록 개간
히 놓으면 세금을 부과하꼬, 농민들 원성이 자자 헌디
요.(언성이 높아진다.)

조병갑 아까 말하지 않았는가? 시국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는 일
이었다고? 허허 요즘 동학교도들이 세금을 자꾸 내려야
한다더니, 너희들 혹 동학교도 놈들이 아니디냐?

농민들 전세를 감해주시오!(작은 소리로 말한다) 체! 지애비
비각세우고, 지놈 첩년 집지어 줄라고 돈을 쓰면서 나라
가 어려워? 글고! 궁색 하면 동학교도로 몰아 부칠라고
헌당께. 쳇!

조병갑 (포졸들을 향해)무엇들 하는고? 어서 물러가지 않으면
하옥 하렸다.

포졸들 예 - 이! 자! 나가라. 나가. (전봉준과 농민들을 육모방망이
로 치다시피 밀어 낸다.)

전봉준 (포졸들에게 밀려나오며, 농민들에게) 도저히 말로만
진정을 올려서는 안 되겠소.

농민들 감영에서 감혔다가 번복 히도, 세배로 내라고 헐리는 만
무리요. 새빨간 거짓말여라우, 우리가 먼 수를 내기는
내알랑 가비요.

조병갑 (고개를 흔들며)에이! 저놈들이! 술맛 다 떨어졌다.

태인택 아이! 노여움을 푸시고 한잔 드시와요.

조병갑 (못이긴 체 술잔을 받으며) 요즘 꿈자리가 사납더라니 에잉!

무용수들은 술상 끝날 때까지 계속, 조용한 음악 속에 무용을 한다.

- 암전

제 3 장

다음날 초라한 초가 3칸 집.

좌측에 우물이 있고, 그 뒤에는 돼지우리 옆으로는 밭이 있다.

밭에는 채소가 조금 심어져 있고, 벼꽃이 한창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무대 밝아지면 전봉준 가족 등 농민들이 어두운 불빛 아래, 누더기에 빈 그릇만 있는 초라한 밥상을 놓고 빈 그릇을 손가락으로 두드린다.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아빠 배고파 밥”, “엄마 배고파 밥 줘” 하면 어른들은 괴로워한다.

그곳에 거지 몰골로 임신한 모습에 배개를 아기처럼 등에 업은, 미친 여자 과부댁이 나타난다.

과부댁 열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와빠린네. 호호호호 (간드러지게 절하며)안녕하셔는가라우? 한푼만 주시기라우? 호호.

아줌마 (손을 흔들며)어휴! 술 냄새 이것아 임신헌년이, 애를 생각히야지 술은 자그만치 쳐먹어야혀!

과부댁 아글씨! 웬수것들이 밥은 안주고 술만 퍼먹인다, 어찌 히 불 재간이 있어 야지라우? 말나온 김에 된밥이라도 한 술 슈? 없으면 고구마 깎은 껍딱(껍질) 이라도 한입 주시기라우? 댁들도 먹을 것 없겠지만! 하하 하하하.

주민 1 임신까지 히가꼬 배개는 왜 업고 땡긴 당가?

아줌마 저것이 서방도 죽고 없이 애기를 낳고, 굶기를 밥 먹득끼
헌개 젖이 안나와 애도 죽어서, 저렇게 실성을 히 비뤘다
요. 애고 불쌍헌 것 (눈물을 흘리며 치마 끝을 잡아 코를
풀며) 근디 저는 애기가 끝내 안 죽었다고, 저렇게 배개
를 애기다고 항상 업고 땡긴당께.

주민2 근디 임신헌 애기는 누구 애기 디야?

아줌마 몰라! 고리대금업자 일본 놈 다께시탄가 다께 시쳐 었을
놈인가가 빌린 돈 못 갚는다고, 서방은 때려죽이고 굶는
저년한테 밥맥이 준다고 꼬여 갓고, 책임지도 못 헐 짓을
히 놓았는가비여, 으잉 못된 것, 그런 놈들은 그 연장 대
가리를 작두로 작신 분질러 버리야 허 쫓쫓쫓 (과부댁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말을 마친다.)

주민1 (주먹을 불끈 쥐며) 그런 처 죽일 놈을 봤나! 어이 그놈
잡으러 가세!

주민2 그러! 그런 놈은 진짜 잘러 버려야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허지.

주민1, 2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나간다.

과부댁 (아줌마를 바라보며) 쫓쫓쫓! 허허허허 뭘 그리 불쌍
헌 듯 바라보우? 같이 배끓는 처지에 나는 글도 배라도
부르고 등짝은 항상 따듯헌게 내가 제일 행복헌 사람이
라우, 행복이 뭐 별거 아니라우, 나맹키로 등짝 따습
고 항상 배때지 부르면 행복이제 호호 호호호...

아줌마 (헛주먹을 날리며) 정신 챙기고 몸 간수 잘 혀 이것아, 흘
몸도 아닌 것이, 잠이라도 우리 집 와서 따습게 자거라!
불쌍히서 못 보것다! 쫓! 쫓! 쫓!

과부댁 허허허 나도-오 불쌍히서 못 보것어, 가느디 마다 굶어서
피똥 싸는 사람 천진디 나 같은 거지가 밥 한 술 동냥질
히 먹을 수가 있어야지-이! 허허허허! ‘인간이별 만사 중
에 독수공방이 상사난이란다 좋구나 매화로구나

나 돌아가네! 나 돌아가네!”(매화타령 하랴, 흐느적거리듯 노래하며
춤을 춘다)

아줌마 (측은하게 바라보며) 아직 서방도 살았는중 아는 갑네!
참말로 안 돌고는 못 배기재 못 배겨 그 관국에 춤이
나오냐 이것아! 지발 정신 좀 챙겨 이것아! 그러! 춤이라
도 취라 춤이라도 취! 쫓쫓쫓!

이때 떠들썩한 소리 들리더니 주민들에게 다게시타가 아랫도리가
벗겨진 채 대물을 내놓고 끌려 오자. 여자들은 서로 무리지어 고개
를 돌리고 얼굴을 들지 못한다.

다게시타 (울상이 되어 두 손을 빌며) 살려 주시기 라요! 저는 절대
로 안그랬스므니다.

주민 1 (다게시타 먹살을 끌고 오며)이리와 이 새끼 저 가난한 조
선 여자를 범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돈 몇 푼 때문

에 저 지경을 만들고 모른 척 혀 이런 놈은 벌을 받아야
혀! 어이 작두 가져와.

다께시타 (무릎 꿇고 앉아서 두 손으로 빌며)살려주시기 라요!
저는 절대로 아니 그랬스므니다. 조선 사람이 그랬스므 니다.

주민2 (작두를 가져온다)이자식이 거짓말 허는 것 봐라 다 본
사람이 있는디, 이놈아 안 땀 굴뚝에서 연기 나냐 연장
거기다 올려라.

다께시타 아이고! 잘라도 내씨라도 받고 잘라야 할 것 아니겠스므
니까.

주민1 씨는 이미 뿌렸잖녀 새끼야 너 같은 녀석 씨받아서 너 같
은 자식 또 나오게, 너 같은 놈은 앞으로 더 씨를 뿌리지
마라.

주민3 (황급히 주민1, 2를 말리며) 이! 사람들아 일본 헌병에게
걸리면 총 마자 죽어.

주민2 나중에는 삼수갑산을 갈망정 요런 싹아지 없는 놈은 본
보기를 봐야혀. 에이 요런 더런 놈의 것 없어져라!
(작두를 힘차게 내린다)

다께시타 으-아아악 (빨간 피가 나는 대물을 잡고 뛰어 무대를 한
바퀴 돌고, 퇴장한다)

주민3 큰일 났다 빨리 도망혀 이 사람들아.

주민1 내가 무슨 잘못 했소? 나 잘못 헨 것 하나도 없소.

아줌마들 에구머니나 망측히라 글도 그렇지 히도 너무 히 뺏빠네!
쫓쫓 내 이놈의 주둥아리가(자기 입을 손으로 치며) 방정
이네 근다고 진짜로 찰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쫓쫓! 아!

근다고 진짜로 찢르면 어떡하-여!

몸을 돌렸던 아줌마들 수렁거리고 주민 남자들 격앙되어 있을 때 포졸1, 2 들어선다.

포졸1 모두들 여기 계셨군요.

전창혁 무슨 일이요? 또 뭇 땀시(무엇 때문에) 온 것이요?

포졸2 이번에 신설된 서용세와, 부의금 땀시 온 것이라우.

주민1 서용세는 또 무시다요.(무엇이요)?

포졸1 쥐가 창고에서 먹는 양을 감안해서, 찌깨(조금) 더 내는 세금이요.

전창혁 맹글다. 맹글다 이젠 별 희안헌 세목을 다 맹글었구려?

포졸2 하역하고 운반 할 때 흘리는 것도 있웅께, 그것도 조깨(조금) 더 생각해서 내주고, 또 사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각 마을별로 이십 냥씩 걷기로 했웅께 그리들 알고 내주쇼.

과부댁 오호라 초상났어? 모처럼 오지게 배부르게 먹것네! 호호 아이고 좋아라!

전창혁 지금 삼년 흉년에, 다들 배를 굶주리고 있소, 부의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 성의껏 하는 것이지, 억지로 부과 하서는 안 되지 않소? 고것은 못 내것소.

포졸2 (화를 내며) 아니 뭐시라고라? 이건 사또나리의 명령인다. 사또명령을 어기면 반역이란것 잘 알지라우?

전창혁 아니 글고(그리고) 쥐가 있으면, 고양이를 키우던가!

때려잡던가! 허먼 되고, 쌀 나를 때 조까(좁) 조심조심 히서 나르고, 흘리면 쓸어 담으면 될 것이지, 그걸 전부 농부들 한티만 부담시키는 건, 너무 어저지 아니요?(언성이 점점 높아진다)

주민1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하며 동조하는 사람)

주민2 (작은 목소리로) 쥐새끼가 먹는 것 보다, 지 놈들 처먹는 것이 더 많을 께!

주민3 (삿대질하며)참말로 보자 보자 헛개, 별 개 같은 소리를 다 듣것네 잉.

전창혁 글고 날마다 굶어 죽는 사람 천진디, 그 주민들 부의금은 안 걷어 주고 뭐 허쇼?

과부덕 (반색하며)누가? 또 죽었어? 아이고! 한날 많이 죽으면 어쩐 디야? (울면서) 띄엄띄엄 날짜를 띠어서 죽어야 내가 가서 날마다 얻어먹지! 그나저나(포졸1을 잡으며) 어디 라우 그 집이?

포졸1 (각설이를 넘어지게 세게 뿌리치며) 아니! 이년이! 지금 공무집행 중인디 재수 없게 저리 안가! 안가면 그냥 콧죽여 벌팅게.

과부덕 (배를 잡고 쓰러진다) 아이고! 배야 나죽네.

전창혁 (목소리를 높이며 포졸의 멱살을 잡는다.) 아니 니놈들은 임신헌 여자도 세상에 그렇게 함부로 허냐, 참으로 무지 막지헌 놈들 같으니 새 생명은 하늘이 주신 것이거늘?

포졸1 아니 뭐라고? 요것들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는 그 인내

천 허는 것을 본게, 전부 동학도당이 틀림없다. 처! 잡아라!(육모 방망이로 들어 전창혁과 주민들을 후려친다.)

전창혁 으악!(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엎어진다.)

쓰러지는 전창혁을 보고, 포졸들 놀라며 안 되겠다는 듯, 급히 밖으로 사라진다.

잠시 후 얻어맞은 전창혁이 꿈틀거린다. 전봉준이 밖에서 들어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달려들어 부축한다.

전봉준 아버지! 무슨 일이쇼. 정신 차리시기 라우.

전창혁 (겨우 눈뜨며) 기생년 죽었는디 무슨 놈의 부의금이나? 죽어도 그런 돈은 못 낸다. 봉준아! 아범아! (말을 다 못 끝내고 고개를 푹 떨어뜨린다.)

전봉준 아버지!(하고 붙잡아 일으키려다. 풀려버린 전창혁의 눈동자를 다시 보고, 통곡을 한다.) 전창혁 ….

전봉준 (큰소리로)아버님! 아버지! 아버지-임! 흐으으으으

아내 아버님이 돌아가시겠으라우? 아이고오! (모두 소리 내어 통곡한다.)

전봉준 (갑자기 통곡을 그치고 일어서며)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각오한 듯 강하게)손화 중 선생에게 알리고 사발통문 6)을 각 마을에 돌려라.

아들 예!-에?(놀라는 듯 눈을 크게 뜬다)

가족들, 사발통문 글씨를, 관중석 있는 쪽으로 퍼 보이면서 노래한다.

아이들 무대 양쪽으로 나간다.

일동(합창) 났네 났서 난리가 났서, 에이참 잘 되얏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 있겠나? ...
(하락)

합창하는 동안 남자 한사람이 검무를 추고 나중에 여자 과부댁도 검
무를 같이 추고 춤이 끝날 무렵 손화중 제일 먼저 달려오고, 이어 김
개남이 등장한다. 무대 좌우, 뒤 쪽에서 죽창과 낫, 팽이 등 연장을
든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온다. 제폭구민, 척양척왜, 인내천 등의
깃발을 든 사람들도 보인다. 그들을 보고 전봉준이, 형형한 눈빛으
로 변한다.

전봉준 조병갑의 폭정을 더 이상, 눈뜨고는 볼 수가 없소. 피가
끓는 자는, 나와 같이 조병갑을 없애 버립시다.

일동 와 - 아 ! 진즉 부텀 이런 날이 올 중(줄) 내가 알았다.
(합성을 지른다.)

최경선 (와 -아 합성을 지르는 농민군에게) 조병갑이부텀 때려
죽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죄다 풀어 줘
버립시다.

손화중 창고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식량도 나눠 줘
버립시다.

김개남 무기고를 열어, 농민들에게 무기를 나눠주어, 무장을
시켜야 안(아시다시피) 쓰것소.

- 전봉준** 이중에 병든 자 노약자 여자를 빼고, 도망가는 자는 죽일 것인데, 한명도 대열에서 이탈 허덜 마시오.
- 손화중** 혁명군과 잡군의 차이는 기율의 있고 없고의 차이요. 우리가 잡군이 아닌 이상 규율을 정하고 기율을 꼭 지킴으로써, 혁명군임을 보여줍시다.
- 농민군** 자! 우리 기율이 열두 가진디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자진 모리로 맹글어서 내가 몬차(먼저)선창을 헐 텅께 모다들 (모두) 따라서들 하시기라우 잉.
(자진모리타령조로 부른다)
1. 항복한 자는 대접을 받고, 2. 곤궁한자는 구제한다.
 3. 탐학한 자는 추방하고, 4. 순종한 자는 경복한다.
 5. 도망가는 놈은 쫓지 말고, 6. 배고픈 자는 밥을 준다.
 7. 간교한 자는 그치게 하고, 8. 가난한 자는 진휼한다.
 9. 불충한 자는 제거 하고, 10. 거역한 놈은 호유한다.
 11. 병든 자는 약을 주고, 12. 불효자는 죽인다.
- 농민군** (한 구절마다 따라 부른 후) 참으로 꼭 필요한 말들이고 만이라우 잉?
- 김개남** (걱정스런 표정으로)적들이 항복헌 티끼(척) 히 놓고, 첩자 노릇 헐 놈들도 있을 틴디요 잉?
- 전봉준** 그리도! 사람목숨은 곧 하늘 잉께 서로 안 다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본께 그런 심리 전술이 필요 헐것 같아서, 일번 항목으로 넣었응게 적잖은 효과를 볼 것잉만오요.
- 김개남** (놀란 표정으로)와! 그런 심리전까지 준비를 했단 말ियो?

대단 하요 잉?

손화중 우리는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거사를 준비 현 것이요.

전봉준 자! 우리 기율들을 맘속으로 잘 새기면서 조병갑이를
치러 갑시다!

농민군(합창) 예 이! 났네! 났네! 난리가 났서. (하락).

의기양양하게 진군하는 농민군의 힘찬 행진곡 높아지며

-암전 -

제 4 장

다음날 다시 조병갑의 집 대청.

무대 밝아지면 중앙에 기생들의 춤판이 벌어지고 있다.

조병갑과 아전들은 사이사이 기생들을 앉히고 술잔을 주고받고 한다.

연 화 영산홍록 봉접비하니, 흑가 흑무하는구나 우줄우줄 진달
화며 웃고 피는 모란화라. 낙화는 점점홍이요, 나는 언제
죽어 꽃피며 우리 님은 어느 시절에 죽어 나비 될 거나
헤헤 이요(자진육자백이 하락)

연화 노래를 마치고 웃으며 조병갑 품에 안긴다.

호방 고년 참 목소리도 좋은디다, 이빠게도 생긴네.

조병갑 내가 오늘밤 죽여 줄 테니 꽃 한번 피워 보거라. 허허허허

연화 사또 나리는 언제 나비가 되실 것인지요?

조병갑 나는 항상 나비가 될 수 있느니라 허허허!

이때 병방이 다급히 뛰어 들어온다.

병방 (숨을 몰아쉬며)사또님 날리(큰일). 났어라우.

조병갑 (게슴츠레하게 취한 눈으로, 여유 있게)무슨 일이냐?

병방 농민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어라우.

조병갑 (놀라서 눈빛이 달라지며) 도대체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

병방 겁나게 많아서 셀 수가 없어라우.

조병갑 (입이 동그래지고 벌떡 일어서며)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병방 (손짓을 하며) 벌써 이 앞에까지 왔어라우.

조병갑 (허둥지둥 퇴장하며)그럼 왜 이제야 보고를 하느냐?

아이고 큰일 났다. 여봐라! 말 가져오너라.

연화 (안절부절 하며)지들은 어찌코 히안당가라우?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병갑 내 코가 석자다. 도망가든 말든 각자들 알 어서들 해라.
난 모르겠다.

조병갑 우측으로 나가자 말발굽 소리 급히 달려 멀어진다. 아전들 뿔뿔이 도망가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때 농민군들 “와 - 아” 하는 함성과 함께 들이닥치자 잔칫상에 있던 사람들은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가기 바쁘다. 농민군들 그 꿈무늬 빼는 이들을 대창으로 찌르고 때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전봉준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는 마시오.

농민군1 와 -아, 요놈의 새끼들 모가지를 작두로 작신 분질러서 툇장군 마개로 쓸 놈들, 이 호랭이 열두 번 물어갈 놈들이 어딜 도망가?(등 심한 욕지거리를 한다)

농민군들 (농민군들 찌르고 때리던 욕하던 일을 중단하고.)만 -세! 만 -세! 권불심년이라고 니기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중 알았냐?(소리를 지르는 사람, 흐느껴 우는 사람, 덩실 덩실 춤을 추는 사람도 보인다.)

전봉준 자, 인자 우리 뜻을 이뤘승께, 돌아들 가셔서 가업에들 충실 허쇼.

농민군2 예 - 이 장군님. 안녕히 계세요. 편히 계시오! 잉?

전봉준 예, 예 수고들 많이 허췌소. 안녕히 가시오.

농민군3 요러코름 좋은날 안 놀른 언제 또 논 디야! 우리 한번 신 명나게 한바탕 놀아 보드라고 잉?

상모를 돌리며, 사물놀이패가 나와 한바탕 어우른다.

그동안 죽창 등 무기들은 치워지고, 모두 빈손으로 춤을 춘다.

사람들 서로 인사를 정답게 나누고, 헤어지며 어깨를 두드려 주는

사람,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등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 된다. 흥겨운 춤마당이 끝나고, 조병갑 군수 대신 박원명(朴源明) 군수가 새로 발령받아 농민들과 화해하고 술과 고기를 대접하자 농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한다.

박원명 제가 새로 온 군수요. 그동안 고생들이 많았소, 이제는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농민1 아이고, 신임 사또께서는 저희 같은 무지렁이 농민들을 이렇게 따뜻이 대해 주실게 몸 둘 바를 모르겠 내라우 잉?

농민2 (눈물을 흘리며)참말로 사또님 같은 분만 기심사 우리가 뭇을 더 바래겠소?

이때 갑자기 큰 북소리, 징소리 등이 울리며, 좌측으로 안핵사 이용태가 포졸들을 거느리고 등장 한다.

이용태 (장비처럼 수염이 많은 모습, 거드름을 피우며 큰소리로) 고부 군에 동학도들이 나타나서 난을 일으켰다고. 여봐라! 이 중에서 동학도들을 색출히서 영광굴비 엮듯이 줄줄이 잡아 엮도록 히라.

박원명 아니 나으리 제가 이곳에 새로 부임해온 군수 박원명이요. 이제 제가 농부들을 잘 설득히서 생업에만 종사하도록 했으니, 다시는 난을 일으킬 염려는 없을 것 같은디라우?

이용태 무슨 소리요? 그렇게 만만하게 백성들을 다루면 또 언제 난을 일으킬지 모르오. 빨리 동학 난동 자들을 색출히

내시오.

포졸들 예 - 이

박원명 저! 그러지 마시고 말씀으로 잘 달래야 할 것 같은디
라우? (말리는 손짓을 하려다, 서슬이 퍼런 이용태를
보고 난감해하며 안절부절못한다.)

농민들, 기세에 놀라 도망가자, 포졸들 무작위로 잡아, 줄줄이 굴비
엮듯 포박하여 앓혀 놓는다.

그중 농민, 2 조심스레 이용태 앞으로 다가간다. 포졸들 객석으로 내
려가 “당신들도 동학교인이지” 하며 관중들도 몇 사람 굴비 엮듯이
묶는다.

배경 화면에는 불타는 초가집과 사람들 비명과 아우성소리 들린다.

농민1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저 사람은 동학교도가 아닌디라우?

이용태 (단칼에 목을 베며, 놀라서 서 있는 사람을) 이놈들도
동학반란군이다. 잡아라.

포졸들 예 - 이!(서둘러 포박하여 앓힌다.)

농민2 (울상이 되어 두 손을 비비며) 저는 동학교도가 아니라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농민이어라우.

이용태 허어 참! 말이 많은 녀석이로구나.

농민3 (이용태 뒷주머니에 무얼 넣어주며)저 사람은 내 동생
인데 동학교도가 아니라우.

이용태 (뒷돈을 의식하고, 음흉한 표정으로 바뀌며) 그래?
여봐 라! 저 사람은 풀어 줘라. 동학교도가 아니란다.

포졸들 예 이!(한사람 풀어준다.)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보고, 몇 사람이 빨리 알아차리고, 이용태 뒤로 돈을 주고받을 때마다, 사람을 풀어준다.

이용태 (관중을 향하여) 자! 하나씩 사지 말고 열 마리 사면 아니 열사람 사면 하나 더 준게 열 마리에 아니 열 사람에 이백냥 싸요! 싸! 욕하지 마쇼! 나도 밀친 돈 거 뽑아야 헛게.

이때 농민들 중에 예쁜 남자가 무심코 이용태 앞을 지나가자, 이용태 눈을 번쩍 뜨며, 따라가서 남자를 붙잡는다.

이용태 (장난기 있고 음흉하게) 너 누구한테 허락 받고, 요러콤 이빠게 생겼냐? 이렇게 이쁜디 야밤에 혼자 땡기는 걸 본께, 너 동학 반란군의 첩자가 틀림없으렸다.

남자 (깜짝 놀라 흠칫하며) 아녀라우.

이용태 아니긴 뭐가 아녀. 여봐라! 내가 몸수색을 히야것응께, 여기 쪼까 둘러막아라.

포졸들 대여섯 명이 창을 들고 둘러싼다. 남자의 비명소리 옷 찢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용태(소리) 호호호 괜찮다, 몸수색만 조까허고 보내주마.

남자(소리) 으악! 살려주시기라우. 잘못 했구만이라우.

으악! 살려주시기 라우.

이용태(소리) 누가 너를 죽인다 했느냐? 몸수색 중이니 조금만 참아라.

남자(소리) 으악! 으악!(계속 들리는 비명소리)

남자, 굴레에서 벗어나, 옷매무새를 단장하며 뛰쳐나간다. 여자 관객 몇 명 에게도 손짓하며 “너도 동학군 첩자지” 하여 흥을 돋운다. 잠시 후 이용태 앞으로, 어느 젊은 부부가 지나가자 이용태 또 눈을 번쩍 뜬다.

이용태 요것들도 난을 일으킨 동학교도다. 잡아라.

포졸들 예-이! (남자를 포박하고 여자도 포박하려 한다)

이용태 잠깐 이 여자도 첩자일지 몰롱께, 내가 몸수색을 쪼까 해야겠다.

남자 (뭉친 채 온몸으로 저항하며 큰소리로) 그 여자는 내 아내요! 동학 첩자가 아니란 말요, 죄 없는 생사람 잡지마쇼잉?

여자 (몸부림을 치며) 여보! 살려 주시기라우! 살려 주시기라우!

이용태 누가 죽인다고 했느냐? 몸수색만 쪼까 허고 돌려보내 주마.

이 광경을 한쪽에서 지켜보던 전봉준, 뛰쳐나가려는데, 손화중이 한 사코 막는다. 손화중 잠시 관망하다가 조용히 옆 사람에게, 사발통문을 돌리도록 명하자, 아이들 사발통문을 관중석에만 살짝 보이며 무대 양쪽으로 퇴장한 후, 죽창과 무기로 무장한 농민군들이, 큰 북과 징소리를 울리며 「와아」하는 함성과 함께 몰려든다.

전봉준 (화려한 택견 발차기 기술을 보이며) 워매! 이 싸가지 없는 자식들 좀 보소.

손화중 눈뜨고는 못 볼 짓거리를 허느것 봉께, 사람이기를 포기한 놈들이고만.

농민군 유도의 업어치기 등, 화려한 우리 고유 무술을 보여 준다. 포졸들과 이용태, 일전을 벌이나 전봉준 과 농민군들의 숫자에 밀리어 도망간다.

이용태 아쿠쿠크 잘못 헛소. 나 좀 살꿔 주그래. 아쿠쿠크 잘못 헛소. 나 좀 살꿔 주그래.

농민들 (합창, 검무와 함께 자진모리 타령조로) 앓으면 죽산! 서머는 백산!

니기미 헐 놈의 세상 굶어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어차피 죽기는 매일반 잘되면 후천개벽 시상이 와서, 내 새끼들이라도 잘 살 것이요, 못되어도 어차피 굶어 죽을 놈의 팔자.

전봉준 자 모두들 수고들 헛소.

우리가 고부백성들만 구혀고, 가만히 있을라고 헛소. 그러나 우리만 되었다고, 여기 고부에 편안히 앉아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요?

손화중 맞습니다. 우리가 이 기세로 밀고 가면, 전주성은 물론, 전국에 있는 농민들을 다 구혈 수 있소, 서울로 진군하여 농민들도 사람이고, 사람은 곧 하늘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 줍시다.(除暴救民, 輔國安民, 人乃天, 斥洋斥倭 등

깃발을 함성과 함께 흔든다)

전봉준 쇠뿔도 단검에 빼랏드라고, 이참에 아조 전주성도 치고,
서울꺼정 가브릅시다.

농민군1 곧바로 전주성으로 돌격히 빠리자.

농민군들 와-아 갑시다!

의기양양한 농민군의 모습. 이때 힘찬 행진곡 풍의 음악이 흐르고,
농민군이 전봉준에게 다가와 연신 허리를 굽힌다.

손화중 그 전주성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들께, 우리들
의 목표를 분명히 하야 곳소.

손화중이 종이를 펼치며, 다음과 같이 또박또박 말한다.

손화중 우리의 강령!

농민일동 (합창하듯 따라한다)우리의 강령!

손화중 (큰소리로)첫째, 도인7) 과 정부 사이는 오랜 감정을
없애고, 서정에 협력할 것.

손화중 둘째,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일일이 엄징할 것.

손화중 셋째, 횡포한 부호들을 엄징할 것

손화중 (더 큰소리로)넷째, 불량한 유림과 양반들을 엄징할 것.

농민군 3 그렇지! 그래! 쳇! 양반 놈들 똥은 갓 쓰고 나온 디야?

손화중 다섯째 노비 문서는 불태워 버릴 것.
(노비들이 환성을 지르며 춤을 춘다.)

- 손화중** 여섯째,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의 머리에 쓰는 평량립을 벗게 할 것.(백정이 평량립을 벗고 “우리도 양반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춘다)
- 손화중** 일곱째,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할 것.(한 남자가 과부에게 “만세! 그럼 우리 터놓고 결혼 히 버립시다.”하며 청혼한다.)
- 손화중** 여덟째, 무명잡세를 거두지 말 것
- 손화중** 아홉째, 관리의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 손화중** 열 번째, 외적(外賊)과 내통하는 자는 엄정할 것.
- 손화중** 열한 번째, 공사채(公社債)는 물론이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할 것.
- 농민일동** (농민들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공사채는 물론이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할 것
- 손화중** 열두 번째, 토지는 평균하게 나누어 경작케 할 것.
- 농민일동** 토지는 평균하게 나누어 경작케 할 것.
- 손화중** 이상입니다.

일동 모두 “와 -아” 소리와 함께 박수를 친다.

- 전봉준** (두 손을 굳게 잡아 높이 세우며) 여러분 잠시만 조개 조용히 히보쇼.
- 손화중**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 전봉준** 우리의 목표는 이상 열두 가지를 분명히 히서, 집강소8)를 설치히가꼬 우리 농민들이 직접 운영히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히야 허것소.

농민일동 (와! 하고 박수를 치며 땀을 뿜으며) 마저라우 (동감이요)예이.
손화중 그럼 집강소를 운영 할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주를 우리 손아귀에 넣어야 곳소.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결의9)(폐정개혁안)가 다 되었응께 진격을 서두릅시다.
농민군 와 - 아

이때 장사군 차림으로 변장한 관군 첩자들이 모여들었다. 행동과 복장이 어색한 것을 전봉준이 날카롭게 주시하더니 그들을 손짓하여 불러 세운다.

전봉준 여보쇼! 당신들 그 짐을 받아보쇼.
관군1.2 (유들유들하게) 나는 담배 장사꾼인디. 짐 속에 담배밖에 더 있것소.
전봉준 (수행하던 농민군에게) 저짐을 벗겨 열어보게.
농민군 (짐을 벗기자 예리한 칼이 나온다) 이놈! 너 관군첩자가 틀림없지.
관군1.2 (사색이 되어 엎드려 빌며) 살려 주십시오.
전봉준 (두 손을 잡아 일으키며)일어나게! 나는 다 알고 있었네.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짓이 아니지 않는가? 이제 부텨선한 사람이 되게.
관군1.2 (눈물을 흘리며) 감사 합니다요.
김개남 살려 두면 우리 사정을 관군한테 다 고히 바칠 톤디라우?
전봉준 행복하는 자는 살려 주기로 허지 았앗소? 착한 사람이 될

것이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변장한 관군들도 슬금슬금 도망간다. 농민군들은 변장한 관군을 수많은 사람 중에 가려내는 전봉준 장군을 보고 자기를 끼리 소곤거린다.

농민군1 녹두장군님은 보통사람이 아닌 가비네 (아닌가 보이네)

농민군2 최제우 선생님한테 도술을 배워, 칼과 창을 맞지 않고 총구멍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농민군3 나도 들었네! 정말 보통분이 아니신 감네.(아닌가 보이네)

농민군1 궁계 전 장군님을 사람들이 민옹께 이렇코롬 사람들이 많이 모이제?

총소리, 구령소리, 함성 거세 지는 가운데 노랫소리 높아진다.
「앉으면 죽산! 일어서면 백산…」

- 암전 -

제 5 장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후 몇 달 뒤.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집.

시골 농사 집을 배경으로, 토방 위에는 신발 두어 켤레가 놓여있고, 부엌 문 앞에 절구통이 놓여있다. 벽에는 소쿠리가 두어 개 걸려있고, 마루 끝에는 삽, 팽이 등 농기구가 걸쳐있다.

무대 밝아지면 앞치마를 두른 엄마와 소녀가 토방에서 나물을 다듬고 있다.

마당에서 김개남 칼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주위를 압도하는 위엄과 기가 넘친다.

김개남 “시호(時乎)시호 이내 시호 부재래지(不再來之)시호로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 하리? 무수장삼 떨쳐입고 이 칼…. {최제우의 검결(劍訣) 하략}

춤을 춘 뒤 칼을 마루에 놓고, 한숨을 ‘휴’ 하고 쉬 후, 먼 산을 시름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던 김개남 장군, 두 모녀(母女)와 잠시 얘기하다 화장실로 들어간다.

이때 포졸들이 들이 닥친다. 마을 사람들도 따라와 구경한다. 포졸들이 들어와 화장실을 포위한다.

대장 역적동비 김개남 게 있으면, 썩 나와서 오라를 받으라.

김개남 (겹겹겹 웃으며)너그들 왔냐? 쪼깨만(조금만) 기다리 그라. 나 곧 나가마.

잠시 후 허리춤을 묶으면서 김개남 나온다.

김개남 오래 기다렸냐? (다정스런 친구를 대하듯 웃는다)

대장 (두 눈을 크게 뜨고 언성을 높이며) 역적 동비는 어서 썩
무릎을 꿇고 오라를 받으라.

김개남 뭘 고로콤 서두냐? 나 기냥 내 발로 걸어가마.

대장 (포졸들을 향해 소리친다)똥들 하느냐? 어서 당장 저놈을
묶지 않고.

김개남 내가 무슨 죄인이냐? 욕보게 묶을 것 없다. (말투에 체념
이 묻어있다)그냥 내가 순순히 걸어가 줄팅게 가서 얘기
허자.

대장 네 이놈! 니가 다시 반역을 꿈꾸고, 아까도 반역의 노
래를 부르고 칼춤을 추었잖다.

김개남 그저 동학교인들이 자기 수양하라고 수운 최제우 선생님
께서 가르쳐 주셔서 동학도인들은 거개가 부르는 노래고
춤이다.

포졸1 예잇! (빈틈을 노리다가 김개남이 거의 무방비 상태임을
확인하고 욱모 방망이로 뒤에서 김개남 다리를 세게 친다.)

김개남 (신음 소리를 내며 쓰러진다.) 으 - 으

주인집 모녀(母女),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서로 부둥켜안으며 같이
비명을 지르고, 담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탄성을 지르며
안타까워한다. 포졸들, 서둘러 손을 뒤로하여 묶는다.

대장 이자는 힘이 장사이니 견정혈(肩井穴)과, 발에 대침을
박아 힘을 못 쓰게 하라.

- 아이** 왜 그래 엄마? 동네방네 아그들 다 부르는데 재밌잖니?
- 엄마** 다시는 그런 노래하면 혼난다. 지랄 하고 어디서 염병 물어가게, 누가 그런 노래를 다 맹글었어? (중얼거리듯 말끝을 흐린다).
- 아이** ... 왜? 안 된다는 거야?
- 포졸1** (심드렁하게 묻는다) 왜! 좋은 노래를 못 부르게 허쇼?
- 포졸2** (시조풍 영탄조 진양조로) 개남아 개남아 김개~남아 어찌다가 잡혔냐? 수많은 사람들 죽게~ 허고 편히 살 줄 알았니?
- 구경꾼1** (빈정거리듯)개남아 개남아 김개남아 어찌다가 잡혔니? 수많은 부하들은 다 어디 가고 홀 - 홀로 있다 잡혔냐?
- 구경꾼2** 사또 발령 난 우리 아버님 죽이고서 너는 살 줄 알았냐?

계속 노래 부르면서 따라가고, 4부 합창으로 노랫소리 점점 커진다. 구경꾼 중에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노래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며 혀를 차며 고개를 내두르는 사람, 울먹이며 바라보는 사람 등 여러 부류다. 이때 갑자기 구경꾼 중 무리를 헤치며 어느 노파 지팡이를 휘두르며 나타난다.

- 할머니** 시끄럽다 이놈들! 시끄러워 이놈들아~아 (창 형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주 애절하게) 개남아 개남아 김개남아 어찌 ~ 다가 잡혔냐?

모두 숙연해진다. 조명 저녁으로 변한다. 구경꾼들은 사라지고 복면을 쓴 자객이 나타나서, 현란한 칼 숨씨로 선두의 포졸 한 명을 제압한다.

포도대장 아니 웬 놈이다냐? 웬 놈이기에 길을 막는 디야?

자객 김개남 장군님을 구하러 왔응게, 목숨이 아깝거든 썩 물러들 가라 잉.

포도대장 뭇 들 허느냐? 칼 숨씨가 좋은 녀석인가 빙게(보이니까), 한꺼번에 쳐브러라!

포졸들 에잇!

한꺼번에 네 명이 사방에서 동시에 협공하여 보지만, 전광석화 같은 칼 숨씨에 순식간에 포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며 네 사람 모두 제압 당한다. 포도대장 일대일 상황 허나 단 삼합에 칼을 놓친다.

자객 (칼을 다시집어 대장에게 주며) 실수 같으면! 다시 히볼꺼?

포도대장 신중히 다시 겨루나 오합 만에 다시 칼을 놓치고 손목을 잡고 비명을 지른다.

포도대장 아니 요로코롬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니가 무사할 성 싶으냐?

자객 칼등으로 찼응게 조깨(조금) 있으면 깰 거쇼.
장군님은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사허신 거시 아니라, 만백성을 위해서 일어선 분 잉께, 나가 모시고 갈 것임만 길을 비키드라고 잉. (장군을 바라보며) 장군님 가십시다.

포도대장, 기세에 눌려 아무 소리도 못하고 손목을 주무르며 떨면서 바라본다.

- 김개남** 누구신지 참말로 고맙지만! 나는 인자 걸을 수가 없는 몸
이요, 서운 허지만 별 수 없응께. 그냥 가시오.
- 자객** (비장한 목소리로)아니! 장군님 전혀 걸을 수 가 없으신
그라우?
- 김개남** (고개를 끄덕이며)고맙소만 그냥 가쇼. 나를 구히 준거나
다름없소. 내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것소.
- 자객** 장군님! 너그들은 장군님을 편안히 모시덜 않으면,
내 가만히 있덜 않을것잉께 잘 모시야 험다잉.(고개를
돌려 포도대장을 무섭게 노려보며) 알긔냐?
- 포도대장** (겁에 질려 연신 고개를 꾸벅인다) 예! 예! 잘 알아
모시겠소.
- 자객** (울먹이며)장군님, 안녕히 가시오! 잉. 어허이 참 이일을
어찌코 히얀 다냐!(퇴장)

반대편에서 이도재 포졸 두 사람과 등장하자 포도대장 인사하고,
쓰러진 포졸들 비틀거리며 신음 소리와 함께 겨우 일어선다.

- 이도재** 어찌된 일이요? 이자가 김개남 이요?
- 포도대장** 예 동학당들이 이자를 구출하러 와서, 제가 혼을 내서 거
시기 히갔고 보냈고만이라우.(뒤가 개운치 않은 듯, 말끝
을 흐린 후 눈치를 살핀다)
- 이도재** 욱봤소! 니가 동학난을 일으킨 거두 김개남이 틀림없으렷다.
- 김개남** (미소 지으며) 어 - 이 그러네!(다정하게 대답한다)
- 포졸** 이놈! 역적죄인 김개남은 관찰사님께 존댓말을 써라.

이도재 반역도중 남원부사 이용헌과 고부군수 양필환을 참수했으니, 너도 참수 당히도 억울함이 없으렸다.

김개남 (눈을 부릅뜨고 큰소리로)대원군의 명을 받고 일어선 우린 디 어찌 반역이라 말할 수 있냐? 글고 니기들이 폭정을 히서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으께, 그 사람들도 억울함이 없이 죽었을 것이다.

대원군의 명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일순간에 사색이 된다.

이도재 (대원군의 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물려서면 안되지! 더큰 목소리로) 네! 이놈 반역죄를 범하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 목을 쳐라!

포도대장 (놀란 표정으로)아니? 정토대나 조정으로 보내셔야지라우?

김개남 정토대라면 일본군 아니냐? 나를 왜 일본군한테 넘길라고 허냐?

일본군한테 보낼라면 차라리 여기서 나를 죽여라. (화를 낸다)

이도재 이자를 조정에 보내는 과정에서, 또 동학군이 나타나 빼앗기면 우리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 아니요?

포도대장 이 자리에서 참수를 한다 히도, 조정에서 큰 징계가 내려오고 또 이 근방 동학도들이 쳐들어 와서, 난동을 부릴지도 모를 튜디요잉?

이도재 (점점 사색이 되면서)그런다고 살려두자니 화근을 키우고, 죽이기도 두렵고, 한양 가는 도중에도 동학도들 땀시 겹쩍지근 허고 어찌코 히야 좋을꼬?

포도대장 (떨면서)신중히 경비히서 한양이나 정토대로 압송하셔야 헐 겁니다.

김개남 (일본군에 보낸다는 것은 정말 치욕스런 일이니, 일부러 비위를 건들어서 차라리 여기서 죽자 생각하고) 허허 죽을 놈은 웃고 있는디, 죽일라고 칼자루 잡은 놈들이 떨고 자빠졌네. 조선 사람을 조선조정에 보내야지 일본군에게 보내다니 에이 못난 놈들! 국록이 아깝다 이 멍청한 놈들아 쫓쫓쫓!

포도대장 아니!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시오.

이도재 저놈이! 에이!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포졸들 에이!

김개남 (명령인 듯 부탁인 듯 한 말투로 말한다)나는 죽어도 좋은께, 다음에 혹 우리 맥 없는 백성을 또 잡걸랑, 일본군에게는 보내지 말라.

포졸1 다가와 에이 기합소리와 함께 김개남 목을 친다.

이 때 창 형식으로 「개남아 개남아 김개남아 어찌다가 잡혔냐?」 전설적 여운으로 노래 소리 점점 커지며 여성독창.

- 암전 -

제 6 장

저녁 무렵 빨간 단풍숲속의 잔디밭 빈터. 멀리서 뺨꾸기 소리 들려 온다, 차츰 고조되면서

무대 밝아지면, 달빛아래 고심에 찬 손화중 허리에 주머니가 세 개 찬 복장으로 서있다.

숨어서 손화중을 멀리서 훑모하는 낭자들 소곤거리는 모습 보인다.

배경음악 여인들의 합창

수많은 여심 손화중님 사모하며 애태워 오색단풍 낙엽 되어 벌써지기 시작하는데 선생님만 아직 모르시는지 이젠 별도 지네!

낭자1 내 눈에는 왜 저분만 고이는 걸까.

낭자2 무슨 시름 있으시간디(있기에) 항상 수심에 찬 모습이실까?

낭자1 아직도 혁명만 생각하시는 모양이야.

낭자3 나도 왜 임자 있는 저분만 마음에 있는 걸까.

낭자2 주머니 달아 드리러 가고 싶은디, 부인 유씨가 알면 우리 혼나지 않을까? 투기하시지 않을까? 투기하실 분은 아니겠지만 가슴만 두근거리네!

낭자1 내 모습 조금만 더 나이 들면 미워질 틈디, 더 늦기 전에 유혹해 버릴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혁명만 생각하시고 내 생각은 안하시니….

낭자2 우리 같이 주머니 달아 드리러 가자.

남자3 나는 떨어져 지금은 못가겠어.

두 남자가 왼쪽에서 나타난다. 한 남자가 정중히 거절하는 몸짓을 하는 손화중에게 비단주머니를 달아주자 이윽고 다른 남자가 손화중 허리춤에 비단 주머니를 달아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두 남자 합창 소프라노 알토 이중주)

두남자 내 사랑 받아주세요 혁명도 시기를 놓쳐서 실패했으니,
사랑도 시기를 놓치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제애 ~발 제발 내 사랑 받아 주세요.
화무십일홍 우리 청춘도 기다려 주지 않잖아요?

손화중 (제지하듯) 날 난처하게 맹글지 마시요, 난 지금 사랑 같은걸 생각할 겨를이 없소, 약속이 있으께 이곳을 떠나 주시오.

이때 유성녀가 한쪽에서 나타나자, 두 남자는 조용히 퇴장한다.
유성녀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손화중 허리춤에 다홍색 비단 주머니를 달아준다.

유성녀 (체념과 원망 간절함이 뒤섞인 음성) 그 분들은 누구여라우?

손화중 우리 동학의 심부름꾼들이요.

유성녀 동학은 이제 그만 잊어버려요. 서방님 뜻은 그만하면 세상에 충분히 알렸어라우.

손화중 나도 모든 걸 잊고, 그저 조용히 당신과 오순도순 살고 싶은 마음뿐이요. 허나 동지들이 잡혀가는 마당에, 나 혼자만 살것다고 의리를 저 버릴 순 없소.

유성녀 서방님도! 관군들이 찾고 있는 것, 잘 아시잖으라우? 우리 둘이서만 멀리 도망가서 같이 살아라우. 잘못하면 서방님까지…. 그러면 전 그때 어떻게 살으라우? (흐느낀다)

손화중 (탄식하듯 말한다) 천운이 우리를, 다 지나간 듯 하오…. 김개남 장군을 구하려다 실패했으께, 우리가 전봉준 장군님만은, 꼭 구히야 하오, 그때까지만 조께(좁) 기다려 주시구려.

유성녀 전봉준 장군님은 부하도 많으께, 딴 사람들이 구히 주시겠지라우. 제발 서방님만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쇼, 서방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으라우?

손화중 다들 나말고도 딴 사람이 허겠지 허는 생각 땀시, 우리가 큰 힘을 쓸 수 없는 거쇼. 정말 미안허오. 조까만 더 기다려 주시겄소?

유성녀 기다리기에 너무 지치고 불안히 라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험당가라우?

유성녀 목 놓아 울면서 원망스레 퇴장한다. 손화중 그 모습을 등 뒤로 느끼면서 괴로워한다. 이때 손화중 앞으로 소란스럽게 각설이 등장한다.

- 과부댁**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아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호호 호호 존경 허는 선생님 한 분만 주시와요. 아니! 오매불망 허던 내님! 어찌면 이리도 고우실까, 내님과 열흘만 같이 살다 죽어도 나는 너무 행복 헐 꺼서(것이야) 호호호호
- 손화중** 어서 오시오.(품에 안기는 각설이를, 가볍게 포용하며 주머니를 한개 준다.) 약소하지만 이걸로 당분간 생활 허시오.
- 과부댁** 호호호호 선생님이 최고세요 부처님이 살아오셨나봐. 호호호 호호흑 (웃음이 울음으로 변하며) 어찌면 이렇게 모습도 마음씨도 고우실까? 이승에서는 못 맺었으니 저승에서는 우리 꼭 만나서 같이 살게라우! 꼭 그렇게 히 주실꺼 지라우?
- 남자3** (숨어서 보다가) 어머니! 저 각설이를 안어랑 주시네! 나 도 저렇게 미친 척 히버릴까? 아이! 그럴 수도 없고. 각설 이가 정말! 정말! 부럽네! 아니 그럼 흑 저 애기가 손 선생님 애기?
- 손화중** 그러! 그러시다. 자 어서 가쇼.
- 과부댁** 호호호호 고마워라우. 진짜로 고마워라우 꼭 성불(成佛) 허시기라우. 호호호호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뛰어가다 배를 안고 쓰러진다) 으-악 아구 머니 업니! 아이쿠! 으-으흑! 아 아-파! 애가 진통이 와요!
- 손화중** (뛰어온다) 무슨 일이시오?
- 남자1,2,3** (우르르 뛰어나온다) 애기가 나올랑가 빈디요?
- 손화중** 빨리 의원을 불러오시오. 그리고 더운 물을 준비 허시오.

- 남자1 (뛰어 나가려다 다시오며)이 밤중에 어디서 모셔 와라우?
선상님이 어치코 기냥 히 보셔라우?
- 과부댁 (배를 움켜잡고 누워서 계속 소리 지른다) 으-악 엄마!
으악!
- 손화중 난 이런 건 경험이 없소 이거 참 큰일 났네. 순산히알틴다.
- 남자2 일본놈 다게시타 아이다는데 누가 키워알랑가?
- 남자1 조선사람 아이일지도 모르잖아? 일본 엘까? 조선 엘까?
- 손화중 (나무라는 투로)사람의 목숨은 다 하늘처럼 소중한 것이라 안했소 누구애기든 새 생명은 고귀한 것이요.
- 남자3 동냥하는 처지에 애기꺼정 낳았으니, 누가 보살펴 줘
알 틴디?
- 손화중 새 생명은 한울님이 주신 선물이자 우리 국력이요. 우리
가 같이 잘 보살펴 키우도록 협시다.
- 남자1 맞아요! 모두 한울님이 주신 새 생명이고, 아이는 곧 국력
이라 하셨지라우. 우리가 서로 잘 키우게라우. 힘내쇼! 힘
내쇼! 조금만 참아요!
- 과부댁 흐으윽 (마지막 힘을 주는 순간 아기울음소리가 들린다)
- 남자2 고추 여라우. 고추!
- 남자3 고추가 머셔?(뭐야) 사내애기라고 히야지.
- 남자1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선생님?
- 손화중 갑오년에 태어 낳 썩게 갑오동이라 하면 어떻컷소?
- 남자1,2 갑오동이 이름 참 좋네요. 부르기도 좋고 좋은 뜻도 되고.
- 남자3 (얼른 자기 치마를 벗어 아기를 감싸 과부댁에게 건네준
다) 참 이뻐게도 생긴네라우!

남자1,2 (새 생명 탄생의 신비감에, 아기를 서로 받으려고 손을 내밀며) 축하하라우!
과부덕 (벌떡 일어나 남자1,2의 손을 동시에 걷어내고 아기를 받으며) 내 애기여라우.
남자1 어마! 이 배냇짓 허는 조동치(아기 입모양) 이뻐것봐!
손화중 (주머니 하나를 여인1에 건네주며) 자! 이걸로 미역 사다 국 끓여 맥이고 당분간 돌아감서 잘 들 조까 보살피 주시구려.
남자1,2,3 예! 예! 염려마시기라우 (웃으면서 과부덕을 부축하며 퇴장한다)
과부덕 선생님 고마워라우!
손화중 애기 추울까선게(추울까 무서우니) 빨리 집으로 돌아 들 가쇼.
남자1,2,3 예! 예! 선생님 안녕히 기세요.

각설이 신음소리와 함께 퇴장한 후 이때 반대편에서 삿갓 쓴 자객이 나타난다. 손화중 인기척에 놀라 돌아선다. 자객 한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하라고 손짓한다.

그리고 다가서며 손화중에게 절을 하고 컷속말을 하자, 손화중 컷속말로 손짓과 함께 뭐라고 지시하고 말이 끝나자, 허리춤에 있던 비단 주머니 두 개를 풀러 자객에게 준다. 정중히 인사 후 자객이 사라지자 다른 쪽에서, 어느 소녀가 등장한다. 그리고 손화중에게 안긴다.

소녀 (간절하게) 선생님(손화중 등 허리춤에 비단 주머니를

몰래 달아맨다).

손화중 네가 어쩐 일이냐?

소녀 선생님. 화내시면 안되라우! 안녕히 계셔라우.

소녀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자, 손화중은 등 뒤에서 흔들리는 주머니를 인식하자, 조금 놀란 듯 얼른 풀어 주려고 손을 등 뒤로 돌려서 힘들게 풀어들고는

손화중 아니 애야?

하고 부르며, 비단주머니를 들고 따라 나서려는데. 그 뒤에 어느 남자가 또 주머니를 들고 쫓아 가며 퇴장하려는 손화중 허리에 주머니를 껌싸게 묶고 반대쪽으로 퇴장한다. 손화중 소녀를 쫓다 포기하고, 남자가 매단 것을 풀러 양손에 들고 무대 중앙에 와서 지친 듯 앉는다. 이때 노래 소리 가냘프게 들려온다.(여성솔로) “내 사랑 받아 주세요!” 혁명도 시기를 (하락) 노래 소리 높아지며

- 압전 -

제 7 장

허름한 초가 3칸 주막. 마당 한쪽에 명석이 깔려있고, 중앙에 평상에 손님들이 앉아 술잔을 돌린다.

왁자지껄한 가운데 무대 밝아지면, 손님들 술잔을 놓고 일어서서 무대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다.

주모 (마지막 가는 손님에게 큰소리로)손님! 술값 주세야지요!

손님 (거만하게 나가며) 동학혁명하서 우리가 돈이 없응께 올 가을에 낼 것 이고만. 가을 내기! 외상! 가을 내기당께 잉?

주모 (관중을 보며)체! 동학혁명은 허지도 안 헨 건달 새들이 혁명 했다고 맨날 맨날 외상! 외상! 가다가 돌이나 걸려 푸악 자빠져나 버리라! 에이! 뭐!

이때 가마에 전봉준 장군을 태우고, 포졸들이 주막에 나타나자 주모 금방 표정을 바꿔 반갑게 맞이한다.

주모 (비음을 넣어서 간드러지게 인사하고,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서라우!

이때 어떤 암시 같은 노래 소리 (소프라노) “새야 새야 파랑새야” 멀리서 가늘게 들린다. 일행은 전봉준 장군을 평상위에 앉히고, 자기들도 평상에 같이 앉는다.

- 대장** 자! 여그서 오늘 하루 밤 쉬고 가세. 저녁을 든든히 먹고, 피곤들 혈 텅게 일찍 자고 내일 아침 가드라고.
- 포졸1** 예 - 이!, 어이 이리 안거(앉아) 아이고 피곤타. (하며 팔 다리와 어깨를 주무른다)
- 대장** 주모, 여기 밥 한 상 주시고. (전장군 쪽을 보며)저기도 밥 한상 따로 주시기라우.
- 주모** (비음을 넣어 애교 있게 대답한다)예. 예. 췌깨만 기다리 시기라우. 고닥새(금방)나간께.
- 대장** 자 동학도들이 나타날지 모룽게 (포졸 1에게)자네가 자시까지 불침번서고 (포졸2에게) 축시까지는 자네가, (포졸3 지명하며) 인시까지는 자네가,(포졸4에게) 묘시까지 자네가 보게나, 알 것 능가?
- 포졸들** 예- 이!
- 대 장** 피곤하다고 졸지 덜 말고, 정신 똑바로 챙기고 서야 허네!잉.
- 포졸들** 예이!
- 주모** (밥상을 내오며) 시장들 허시지라우?(곰살궂게 웃는다)
- 포졸1** (상위 술병을 바라보며) 어! 술은 안시켰는디?
- 주모** 아이 귀하신분들 잉께, 자가 기냥반주로 드리는 것이여라우.

저희 집에서 담근 복분자 술여라우,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한잔들 허서라우. (눈을 곱게 흘리면서 애교를 부린다)

- 포졸1** 고맙수. (한잔 맛을 보더니), 대치나(정말) 기가 막히요. 잉? 이게 그 오강이 뒤집힌다는 그 복분자 술 맞으요? .

포졸2 빈 오강이 기울여져 있었겠지 -잉. (음식 맛을 보고)
어-매 살로 가는 것!(맛있다는 표현) 잉? 여보게 자네도
한잔 찌크러 번지소. 아! 참! 대장님도 한잔 허실랑 가라우?

대장 (못마땅한 듯)사양 허것소. 불침번 서는디 졸릴지 모르게
쪼끔씩만 드쇼 잉.

주모 (교태를 부리며 대장 잔에 술을 따른다.)아이 대장님도
한잔 드서라우. 오매 벌써 술이 다 떨어져뺏전네. 가서 한
병만 더 가져오끄라우? (하며 대장 눈치를 살피자 대장,
미간을 조금 찌프릴 뿐 긍정도부정도 안한다.)

주모 (재빨리 술 한 병을 더 가져오며) 아이 맛있게 드싱게
정말 고마워라우 많이들 드서라우.

포졸 고맙소. 주모 복 많이 받아 불고 나중에 극락 가쇼. 잉.

주모 고마워요. 나리님들도 극락 가시와요.

주모, 상을 치우고 포졸들도 잠자리에 들기 위해 움직인다. 포도대
장은 마루, 포졸들은 명석위에 자리를 편다, 전봉준 장군이 누워 있
는 평상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 잔다.

포졸 1만 평상 다리에 등을 기대앉고 졸면서 불침번을 선다.

포졸1 아니! 대장님도 방애가 주무시기라우?

포졸2 아 이 사람아, 남녀칠세부동석도 모룻가? 한방에서
어떻게 같이 자냐?

포졸3 (은근한 미소 지으며)방이 하나뿐 인가비네.

포졸1 아이 잘 먹었다. 커억! (트림을 하고 눈을 부빈다. 이윽고

줄기 시작하다 바로 포졸 2를 흔들어 깨운다)

포졸 1 어이!(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자)거시기, 춘삼이 아범, 자네 차렷게 인나게.

포졸2 벌써 내 차렷야? 알았어.(하품을 하며 일어나서, 곧바로 줄기 시작하다, 포졸 3을 흔들어 깨운다.)

포졸2 여보게 인나! 인나아 자네 그 무시냐 불침번 차렷네. (이때 하얀 옷 빨래 5개를, 빨랫줄에 널고 있다.) 밤중에 웬, 빨래를 널어라우?

주모 내일 입을 게 없어서라우. (별일 아니란 듯 대답한다)

포졸3 벌써 나야? 시계가 없으께 몇 신지, 알 수 가 있어야지, 별도 잘 안비네 애쨌네. 내가 설 텅께 자게!

포졸3, 입을 찻찻거리며 개운치 않다는 듯 일어선다. 곧바로 줄기 시작하다 포졸 4를 깨운다는 게 포졸 1을 깨운다.

포졸3 자 인나게. 자네 차렷야. 미안 허지만...(불침번이라는 말이 빨리 안 떠오르자) 무시냐? 거시기 스소! 어서 인나게.

포졸1 (짜증스런 목소리로)헤이참. 니기미 나는 초번 켜는디, 왜 또 깨우는거?

포졸 3 아참 그러나? 내가 실수 했네. 미안 하이. 어서 자게.

포졸3, 얼굴을 자세히 살피더니 포졸 4를 흔들어 깨운다.

포졸3 인나게! 자. 인나 자네 불침번 차랜 개비네.(차례 인가 보이네)

포졸4 벌써 내 차랜가? 거시기가(시간이) 지금 그 무시냐! 축시나 된 것 같은디?

포졸3 그럼 잘 서잉!(눕자마자 코를 골며 쿡아떨어진다.)

포졸4 아-함, 졸려.

포졸4, 눈을 비비더니 곧바로 졸기 시작한다. 이때 노래(소프라노)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조금 가까이서 들린다. 노랫소리 끝나자 검은 복면에 장검을 찬 자객이, 주위를 살피다가 발꿈치를 들고 조용히 나타난다.

자객 (전봉준 장군을 조용히 흔들며 깨우며 속삭이듯) 장군님, 장군님 (자다가 깜짝 놀라는 표정은 짓지만 아무 말이 없자.) 제가 구해 드리겠소. 업히시오. 장군님.

조용히 엎고 나오다가 늘어진 칼집 끝이, 포졸 1의 머리에 걸려 잠을 깨게 한다.

포졸1 니기미 씨이- 팔. (아주 짜증난 표정으로 큰소리로 성질을 내며)나는 초번 근무 섰단 말여, 왜 또 깨우는 거여? 하이 참! 씨팔!

소란한 소리에 대장이 잠을 깨고, 포졸 2, 3, 4도 부스스 일어난다.

대장 웬 소란이요? (둘러보다 전봉준이 사라진 걸 금방 깨닫고, 저 멀리 사라지고 있는 전봉준을 발견하고 큰소리로) 뭇들 하느냐? 전봉준이 도망간다. 빨리 쫓아라!

포졸들 예- 이!

장군을 내려놓고 길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서 포졸 1을 맞추자, “으윽” 소리를 내며 쓰러진다.

두 번째 돌멩이도 정확히 포졸 2를 맞추자, 비명을 지르고 역시 쓰러진다. 그 순간에 칼을 뽑아든다. 1대 3 상황에도 선불리 덤비지 못하고, 대장은 주위를 보며 어떤 신호인 듯 호각을 분다.

대장 자 처라!

포졸 에잇! (자객의 실력을 아는 듯 험공은 하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한다)

자객 자 내 칼 숨씨는 소문을 들었을 종 아오, 순순히 기릴 (길을) 비키쇼.

대장 당신 소문은 들었소, 허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임만.

말이 끝나자마자 수명의 무사들이 어둠속에서 또 나타나, 자객 주위를 에워싼다.

자객 (긴장한 듯 자세를 고치고 기합소리와 함께 번개처럼 대여섯 명을 제압 한 후) 너그들 다, 덤벼도 나를 당하지 못 할 것이다.

놀라운 숨씨에 포졸들 기세가 한풀 꺾이나, 자객 주위로 포위망을 점점 좁힌다. 바닥에 나뒹구는 포졸들은, 신음소리를 내며 괴로워한다. 또 한 번의 기합소리에 칼바람이 인다. 공중에 두세 자루의 칼이 날고, 세 명의 무사가 쓰러진다.

잠시 후 관군은 대여섯밖에 남지 않는다. 자객도 다친 듯 피를 흘리며 지친 숨을 헉헉거린다.

대장 안되굿다 모두 비켜라. 조총을 사용히라.

한발씩 물리서는 포졸 중에, 신식 군복에 조총을 겨누는 자가 한사람 나타난다.

자객, 흠칫 놀라는 표정으로 자세가 굳어지다. 번개처럼 몸을 날려 칼집으로 대장의 손목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한다. 그리고 등 뒤로 가서 왼손으로 팔을 비틀고, 목에는 칼을 대며 인질로 삼자. 일순간 모두 흠칫 놀라며 정적이 흐른다.

전봉준 (죽 앓아서 사태만 지켜보다 손을 들고 큰소리로) 잠깐만, 내 말 조까 들으시오. 더 이상 내 민족, 내 형제들끼리 피 흘리는 걸 보고 싶덜 앓소. 누구신지 모르지만 인자 시절이 나를 버렸응게 다 끝난 일이요. 뜻은 고맙지만 내 한

목숨 살리자고, 여러 사람 피를 보는 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뜻도 아닌 상 싫소. 그냥 돌아가시오.

자객 (그냥 가라는 말이 의외라는 듯 묻고, 흐느껴 운다.) 네? 장군니-임! 호호흑!

이때 멀리서 노래 “새야 새야”. 들려온다. 관군들, 전봉준의 말에 동감한 듯 긴장이 풀리면서 칼과 총 끝을 내리고 긴장이 다소 풀어진 동작으로 변한다.

대장 내 그 숨씨가 아까서 목숨은 살려 주것쑹께, 어서 썩 물러서시기 라우.

전봉준 (대장을 바라보며) 고맙소.

자객 (장군을 바라보고) 장군님! 안녕히 가셔라우 장군님! (비통하게 울먹이다 퇴장한다)

이때 노래 소리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노랫말과 동작을 일치시킨다.

- 암전 -

제 8 장

이틀 후. 인가에서 떨어진 제각(祭閣).

손화중이 홀로 숨어 지내는 곳으로 사용된다.

(남녀 혼성4부 합창) ‘갑오’ 세 가보세 ‘을미’ 적 을미적 ‘병신’ 되면 못가리! (‘갑오’ 년 1894년, ‘을미’ 년 1895, ‘병신’ 년 1896년은 때가 늦음을 노래함) (하락)

무대 밝아지면 이봉우(李鳳宇) 주위를 살피다가, 급히 뛰어 들어온다.

이봉우 (헉헉거리며) 선생님, 전봉준 장군님 구하는 일도 실패했단디요.

손화중 (깜짝 놀라며)아 - 니, 전 장군님마저 실패했단 말요?

이봉우 (비통한 표정으로) 예.

손화중 아 - 조까만 더 힘을 쓸 수 있었다면, 구할 수 있었을랑가도(런지도) 몰랐을 틔디... 참, (이봉우를 보며)구허러 가신 최장군님은 무사하시답디까?

이봉우 예, 조금 부상당하셨습니다, 며칠만 치료하면 암시랑 안컷당만요. 워낙 무예가 뛰어난 분이랴, 그만하길 다행이지라우. 허지만 전장군님은 곧 한양에 도착 할 것이 답디다.

손화중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서성거리며)아! 벌써 한양에 도착 허신다면, 이제 더 이상 손쓰기에는 틀려 버렸고,(왔다 갔다 하며) 아! 어쩐 디야, 아! 어찌코 히얀 다냐. 손화중 주위를 돌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한자리에 우뚝

선다. 고개를 숙인채 이봉우 쪽으로 몸을 돌린다.

손화중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연다)나도…. 나를….
인자 관가에 고발하시오.

이봉우 (깜짝 놀라 손화중을 바라보며)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
시 당가라우?

손화중 김개남 장군도 쥘히가고, 전봉준 장군도 구하지 못했오.
내가 무슨 낯으로 혼자 구차하게 숨어 살것소? 저승에 가
서 동지덜을 만나서, 나가 떳떳하게 보이고 싶소.
나를 지금 고발히 주쇼.

이봉우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아니? 지가 선상님을 편히 모시질
못한 것도 죄스러운디, 지보고 선상님을 고발허라니요?
천부당 만부당허신 말씀 잉게, 농담이라도 당췌 그런
말씀 마시기라우.

손화중 아니, 그동안 죽음을 두려워 안코, 이만큼 나를 편히
지내게 히준 것만으로도 그 은혜가 하늘갈소. 나를 도와
준다 생각 허고, 어서 나를 고발 허쇼.

이봉우 아니? 선상님을 뻔히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어찌케 선상
님을 도와드리는 일이 된 당가라우?

손화중 나를 고발하면 큰 상과 사또벼슬을 내린다 합디다. 그동
안 목숨 걸고 나를 보살피준 은혜를 난 그것으로 조금이
나마 갚고 싶소.

이봉우 (눈물을 글썽이며) 아따! 내가 선상님께 해드린 일이
뭘시가 있다고 그리 싸쇼? 허이 참, 자다가 봉창 뚜드린
다더니, (하며 눈물을 글썽인다.)

- 손화중** 글고 부탁이 있소.(말마디 마디에 비장감과, 애절함이 실려 있다) 내게 따듯이 대히주고 깊은 정을 준 고마운 분들헌티 내가 그 보답을 못허고 죽어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안부나 전해 주실랑가요?
- 이봉우** 그런 건 걱정 마쇼. 저도 그분들을 대충 알고 있웅께. 지가 선상님을 봐서라도 힘 닿는디 꺼정(까지)은 보살펴드리 것 고만이라우.
- 손화중** 자 고맙소. 내 뜻을 알아줘서, 그분들을 도와주실 라고 히도 힘이 있어야 헌게, 어서 나를 고발 허쇼.
- 이봉우**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못히요, 지는 죽어도 못 헌게, 딴 사람보고 허라고 허쇼. 인간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허라 허쇼? 못히요. 못혀...(고개를 숙인 채 좌우로 흔들면서 울먹인다)
- 손화중** 내 마지막 부탁인 게. 한번만 더 내 부탁을 들어주쇼. 그 리야 내가 당신한테도 얼굴이서고, 여러 사람을 도와준다 생각허고 빨리 가쇼.
- 이봉우** (목매여 울며) . 인두깍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허라고 나한테 시키시오. 딴 것은 다 히도 그것만은 못히요. (울며 길을 떠난다)허허이….
- 손화중** (영탄조 베이스독창)
 허황된 줄 알면서 그려본 영롱한 혁명의 꿈
 한울님 주신 태초의 정착지, 발견한 기쁨도 잠시
 버릇처럼 뿌린 씨앗 황톳빛 노을이 되어갈 즈음
 아쉬운 보람 수용하는 우리 한계를 확인했다.

피리와 기타소리가 섞인 반주로 손화중 독창 끝나자.
멀리서 유성녀, 숨이 턱이 차서 헉헉거리며 뛰어 든다.

유성녀 (말을 더듬는다) 서서방님, 서방님 빠 빨리 피히세요,
도망가셔야 해요.

손화중 어서 오시오.

유성녀 빨리 도망가세요. 관군들이 잡으러 오고 있어요.
(옷소매를 잡아끈다.)

손화중 (끌려가지 않고 태연히 그 자리에 서서) 알고 있었소.

유성녀 (눈을 크게 뜨고 묻는다.) 네-에? 암시령 (알면서) 이렇게
기서라우?

손화중 나없는 동안 아그들을 잘 조까 부탁허오.

유성녀 무슨 말요? 시방 육남매나 되는 아그들을... 지발
빨리 도망가쇼.(목 놓아 울면서)

손화중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고, 나 또한 무슨 잘못이 있겠소?
다만 시절이 그러할 뿐... 죄 없이 죽는 사람이 어찌 나뿐
이겠소? 당신도 화를 당할지 모르게 어서 피히쇼. (하며
돌아선다)

유성녀 도대체 검단대사(黔丹大師)의 비결 록에 뫼이 써 있었는
가라우?

이 젊은 나이에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꼭 가야만 험다고 써
있던 가라우?

손화중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뭐라 히도 더 헐 말이 없소. 미안
 하요, 나는 지금은 죽어도 아주 죽는 것이 아니요. 우리
 동학과 함께,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요.(말끝을 흐린다)

유성녀 (등 뒤에다 원망스럽게 울먹이며 말한다.) 서방님, 다 끝
 난 일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말고, 나중에 군사들을 모아
 재기 허실 수도 있잖너라우? (말을 마치고 엉엉 목매
 여 운다)

이때 포졸들 7- 8명이 손에 창검을 들고 뛰어 들어온다. 유성녀 소스
 라치게 놀란다.

대 장 주변에 다른 동비가 더 있을지 모르게 살살이 찾아봐라.

포졸들 예 - 이!

유성녀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분은 암궤도(아무것도)
 안혔어라우?

대 장 후딱(빨리) 손화중을 묶어라.

포졸1 예 - 잇!(손화중, 아무 저항 없이 두 손을 맡기자 묶는다.)

유성녀 (대장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빌면서) 나를 대신 잡아
 가 주시면 안 됩가라우. 지발(제발) 저분은 그럴 분이
 아니시고, (목 놓아 울면서 애원한다)

대장 (정중히) 부인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라우.

포졸2 주변에 암도(아무도) 없고만이라우.

대장 음! 그러 글먼 가자.(순순히 따라가는 손화중과 함께 퇴장)

유성녀 (손화중을 울면서 잡으려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다.)

살려주소! 살려주소! 제발 쪼깨만(조금만) 쪼깨 살려주소!

유성녀 큰소리로 나간 방향을 보고 외치다가, 그 자리에서 실신한다.

이때 유성녀 창형식의 독창 “하느님! 부처님! 신령님! 누구라도 좋으니, 서방님 좀 제발 살려주세요. 허허이, 허허이”

조명 어두워지고 하얀 치마 입은 무용수 살풀이 비슷한 독무를 추고
배경음악

“갑오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리 병신되면 못 가리
우리가 만드세 새 세상을”(4부 합창)

-암전-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정읍)에서 태어난 후손으로서, 조상님들이 피
땀 흘려 지킨신 이 나라에서, 유엔사무총장 배출국, OECD 의장국으로 성장시켜주신 선배님들
의 후덕에, 아무런 답례도 할 수 없어 부끄러운 마음에, 조상님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가신
님들의 업적을 추모하며, 지금 우리는 그분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고
뒤돌아 볼 기회도 없이 살았던 거 같습니다.

사건의 발상지에서 사는 장점으로 가장 근접한 사투리와, 그 후손들의 증언을 토대로 미력한
추리력을 발휘하여, 픽션보다 나은 실화를 가급적 도입하여 님 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독자들
에게 그때를 보여주는 노력이 직계 후손들에게, 그분들의 조상님을 잘못 그리지는 않을까 걱
정도 되지만, 그때는 작품성을 위한 픽션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줄작을 선정하여 주신 심사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어해설

- 1) 족징(族徵): 일가친척에게 대징(代徵) 시키는 것
- 2) 인징(隣徵): 이웃사람이 대신 무는 것
- 3) 백골징포(白骨徵布):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것
- 4) 황구첨징: 아이에게 부과하는 것
- 5) 검단대사(黔丹大師): 선운사를 창건했다는 전설적인 명승(1천년 전 인물) 선운사도솔암 마애석불 배꼽에 비결을 숨겨놓은 인물, 그 비결이 나오는 날에 한양이 멸망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 6) 사발통문원문: 닢네 닢네 난리 ㄹ 닢서, 에이참 줄 되얏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혼 사
틀이느 어데 늑머 잇겟느? 흐며 기일이 오기문 기다리더르 닢네 닢네 난리가 닢서... 이때에 도인드
른 선후책을 토의 결정흐기 위흐야 고부서부면 죽산리 송두호가에 도소를 정흐고 매일 운집흐야 차
서(次序)를 결정흐니 그 결의된 내용은 좌와 여흐드
 1.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 효수 흘 사(事)
 1.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 흘 사
 1. 군수에게 아첨하야 인민을 침어(侵魚)흐 탐리를 격징(擊徵) 흘 사
 1.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京師)로 직향(直向) 흘사. (이하생략) 이와 같이 결의가 되었다.
- 사발통문이란: 동그란 그릇을 놓고 사람 이름을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써서 주모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
게 하려는 지혜가 담긴 전달 문.
- 7) 도인(道人): 동학교인을 말함
- 8) 집강소(執綱所) 동학 농민군이 전라도 지방에 설치한 자치적 개혁 기구, 한명의 집강과 몇 명의
의사원이 행정 사무를 맡아 관리의 문서를 검열하고, 동학의 전도에 힘썼다.
- 9) 폐정개혁안: 개혁안으로 제출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로서는 상상키 어
려운 사회개혁을 의미 하는 것임.

심
사
경





심 · 사 · 위 · 원

<<< 시

오세영 | 서울대 명예교수 · 전) 한국시인협회 회장
홍신선 | 시인 · 전) 동국대 예술대학원장

<<< 시 조

이일향 | 시조시인 · 여성문학인회 자문위원
민병도 | 시조시인 · 한국문인협회 지부장

<<< 수 필

고동주 | 수필가 · 한국문인협회 이사
손광성 | 수필가 · 한국문인협회 이사

<<< 단 편 소 설

오인문 | 소설가 · 한국문인협회 이사
정영자 | 문학평론가 ·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 등 시

이상현 | 아동문학가 · 한국문인협회 이사
오순택 | 아동문학가 · 한국문인협회 이사

<<< 등 화

이상배 | 아동문학가 · 한국문인협회 이사
정대연 | 아동문학가 ·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 희 곡

최명희 | 극작가 · 여성연극인협의회 부회장
이강렬 |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시우문

대략 3000편 가까운 작품들을 통독하면서 느낀 소감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응모작의 전반적인 작품수준이 양극화 되어 있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특정화된 시적 제재로 상당수 작품들이 편향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면 양극화된 작품수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부 응모작들의 경우 상당 수준에 올라 있는 반면 일부 응모작들은 너무 소박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 입상한 작품들은 개별 작품 평으로 돌리고 여기서는 일단 소박한 수준의 작품들에 국한한 한두 가지 점만 얘기 해보자. 여기서 소박한 수준이란 우선 작품들이 지나치게 관습화돼지 관용적 표현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 시적 제재를 역시 대다수 작품들이 대동소이한 점 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선 시적 제재들을 살펴보자. 그 제재로는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의 온갖 신산한 삶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달랐던 자식사랑에 대한 사연들이 많았다. 그런가하면 상당수 작품들은 고향에 대한 추억과 그 정서를 한결같이 노래하고 있었다. 그도 아니면 자기 업무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작품화되, 지나치게 도식성을 띤 경우들도 있었다. 이 특정화된 제재로의 편향은 일단 식상한 느낌을 주었다. 시적 표현 역시 기존의 관습화된 낡은 조사(措辭)들을 탈피하지 못해 아쉬웠다. 시의 힘은 자기 나름의 개성적인 표현을 찾고 구사하는 데서, 또 시적 대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서 온다. 시적 대상은 우리들 둘레나 일상생활 속에 무수히 많다. 거대한 말이지만, 그 대상들을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상상적 해석을 하는 일이 시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오랜 시적 수련, 혹은 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일임도 적어둔다. 앞으로 시에 관심을 둔 많은 분들의 분발을 기대하며 아울러 공무원 문예대전의 시적 성과가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드높아지기를 기원한다.

오세영, 홍신선



매화

이 작품은 상당히 능숙한 솜씨를 보여준다. 매화란 시적 대상을 언술하는 화자의 말투가 우선 거침이 없다. 그런가 하면 ‘작은 것들에게서 뜻을 보고 마음을 읽는’ 매화에 대한 상상적 해석 또한 뛰어났다. 이 같은 당당한 시적 솜씨 때문에 금상으로 올리는 데 우리는 쉽게 합의했다.



청초한 신맛

뜻밖의 한파에 열매 맺기가 부실한 매실나무의 정황을 잘 그려낸 작품이다. 또한 그 매실을 매개로 ‘어미’의 본능적 사랑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다. 결말부분의 시각을 미각으로 전환하는 이미지 변주도 돋보인다.



죽변, 아침바다

동해의 대게 잡이를 선명한 수채화처럼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묘사에 있어 대상의 세부를 잘 파악하고 그려낸 시적 조사가 남다르다. 그러나 출어에서 경매까지의 이야기 전개가 평면적인 것이 흠이다. 좀 더 극적인 전환이 있었으면 시의 울림이 컸을 터이다.



의자의 슬픔

낡은 의자에서 ‘제 슬픔을 몸속으로 웅크린 모습’을 발견하는 화자의 시선이 범상치 않다. 그 범상치 않은 시선이 의자를 ‘한낱 도구’에서 나와 남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또다른 나 자신임을 발견토록 만든다. 그러나 작품에서 무난함이 왜 때로는 시적울림을 약화시키는가도 작자는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대나무

작품의 틀로만 따지자면 흠 없이 꼭 짜인 짜임새를 보여준다. 또한 마디와 바람소리를 지닌 대나무를 매개로 ‘나’를 새삼 성찰하는 태도도 가히 모범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단순한 소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쉽다.



금강 하구둑

금강 하구둑의 지배적 세부를 병치해 놓고 있는 작품이다. 곧, 농어떼, 철새떼 등이 등가 병렬형식으로 제시되면서 이 공간이 자연생태의 낙원임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진술이 피상적인 느낌만을 주고 있어 좀 더 깊이 있는 대상의 해석이 필요한 작품이다



재개발구역

변두리로 떠도는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자한 작품이다. 그러나 묘사가 선명치 못하고 사람들의 ‘아물지 않는 근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모호한 느낌이 강하다. 그동안 시적 제재로 많이 사용된 글감인 만큼 작품의 완성도에 좀 더 유념했어야 할 것이다.

3월

봄비에 ‘불어지기 시작한’ 홍매화를 통하여 계절적 정서를 짧고 간결한 표현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너무 소품이어서 아쉽다. 생략이 시적 표현의 주요기법인 것은 사실이나 행간의 여운을 깊이 있게 살리지 못하면 시적 완성도를 높일 수 없다. 이 작자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부산역에서

눈이 드문 부산역에 도착한 눈은 어떤 눈일까. 이 작품은 그 눈을 ‘열차를 타고 온’ 여행객들에 유추하면서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곧, 역 광장, 건물 귀퉁이, 산복도로 등등에 내리는 눈들의 다양한 모습을 여행객들의 정황과 오버랩 시켜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유추적 상상이 이 시의 한 매력을 이루고 있다.

양화대교

봄꽃 만발한 날 양화대교에 나온 화자는 깨닫는다. ‘모든 죽음’이나 ‘견디지 못할 사랑이’ 바닥으로만 떨어지는(투신하는) 것은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화자는 흐린 정오의 먹물 같은 노래를 만난다. 그러나 모호한 표현들이 군데군데 있어 시의 초점이 흐리다. 지나치게 시적인 표현을 의식한 작자의 태도 때문일 터이다. 그리고 이는 시 습작에서 지양해야 할 태도의 하나임도 강조하고 싶다.

동백

화자는 거제도 해금강 가는 길에서 무시로 지는 동백꽃들을 본다. 그 지는 꽃들의 시각적 이미지들을 우리 가락의 청각적 이미지로 바꿔 듣는 능력도 일단 남다른 바 있다. 이쯤 여느 시들에 비해 비교적 깔끔한 터치의 서정시라고 할 것이다.



저 부추전처럼

여러 식재료들로 부침개질하는 부추전을 통하여 화자는 우리네 삶이 왜 아름다운가를 새삼 생각한다. 그것은 화자에 따르자면 우리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천천히 익어가기’ 때문에 아름답다. 부추전을 부치는 과정도 비교적 잘 제시되고 있고 그 부침개의 함축적 의미도 웅숭깊게 살려내고 있어 좋았다.



시조속문

시조는 민족문학의 본류이자 종가요, 종손이다. 오랜 세월동안 우리민족의 보편적 정서안에서 검증되고 걸려진 문학장르이다. 그런 만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진부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형식이라는 그릇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라 그릇 속에 담겨질 내용물에 의미와 비중이 맞춰진다는 점에서 보면 언제나 시간상의 제약에서 자유롭다.

따라서 시조는 시조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이야말로 다른 문학장르와의 차별성이자 고유성이다. 더욱이 세계가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바뀌어 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차별성과 고유성이야말로 우리 민족문학이 지닌 독자적 가치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조의 이 독자적인 가치를 따르되 현대인들의 정서를 잘 아우르고 있는 작품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고 응모작품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시조의 형식을 이해하지 못한 출품자들도 상당 수 있었지만 대체로 기대 이상이였다. 의외로 교사들의 작품 수준이 기대에 미흡하였으나 공무원 문예대전이라기보다 기성문인들의 수준에 근접한 작품들도 상당 수 눈에 띄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만만치 않은 시력(詩歷)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감각적인 시어 선택과 묘사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물론 크게 뛰어난 압도적인 작품은 없었지만 입상권에 든 작품들의 경우 제각기 개성있는 색깔과 호소력을 지니고 있어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작품은 「겨울 우시장」과 「숯」, 그리고 「올레길」 등이었는데 제각기 일정한 서정성과 묘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올레길」은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관심을 끌었으나 평이한 정황묘사에 그치고만 마무리가 부담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숯」과 「겨울 우시장」을 두고는 장고를 거듭한 끝에 농경사회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소'에 대한 연민이 격조 있게 그려진 「겨울 우시장」을 최고상인 금상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아주 쉬운 시어와 평이한 문장 구조 속에 깊은 은유를 담아낸 「숯」에도 쉽게 눈을 뗄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이 일 향, 민 병 도



겨울 우시장에서

겨울 우시장에서 삶의 마감을 기다리는 소들의 행방을 잘 추적해내어 사라져 가는 농경문화의 한 단면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누렁소 붉은 울음이 바뀌마다 감긴다’와 같은 가구(佳句)의 종장처리도 돋보인다. 앞으로는 지나치게 묘사에 의존하기보다 사유와 통찰에 초점을 맞추어 공감대를 넓혀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숯

숯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길을 발견하고 자기 삶의 길라잡이로 일체화시킨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아주 평이한 시어들임에도 깊은 은유를 담았고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명사형 종결한 점도 개성으로 읽힌다. 다만 전체적으로 산문화의 흐름을 지적할 수 있으나 장차 개성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멈춰버린 기차

기차처럼 쉬지 않고 달려온 한 생애를 마감하고 멈춰 서버린 한 생애가 남긴 빈방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적절히 잘 조화되어 있다. 함께 보낸 작품들도 고르고 일정한 수준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기대할만한 시적 동기를 포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황묘사와 리듬에 치중한 나머지 차별화된 사유에 접근하지는 못하였다.



가을비

지극히 평범한 소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형상화시켜내는 솜씨가 각별한 작품이다. 쉽게 풀어 쓰면서도 많은 상상의 공간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오랜 시력을 읽을 수 있었으나 다만 신인으로서의 패기가 부족하고 단상에 그쳤다는 점이 아쉽다.



청자압형연적

진부한 소재로 인한 참신성은 부족하였으나 힘있는 시상의 전개와 오랜 시력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응모한 5편 모두 4수로 상상력이나 수사의 기교가 돋보이지만 이 작품 마지막 종장의 ‘피안에 이르렀다’에서 보여주듯 관념적인 처리가 여러 곳에서 눈에 띄었다.



지하도 풍경



제목 그대로 흔히 도심의 지하도에서 목격되는 구걸현장의 모습을 세심하게 관찰한 스냅사진과 같은 작품이다. 사실적인 묘사가 지닌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묘사에 치우친 나머지 희망적인 대안제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레길



올레길을 통해 지난한 삶을 살아온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끈끈하게 그려져 있다. 아울러 섬사람의 끈기와 애환 또한 행간마다 애잔하게 묻어있다. 그럼에도 바람과 파도를 이겨낸 삶의 의지가 희망적으로 마무리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수필은 가치 있는 체험(직접 또는 간접)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느낌을 조리 있게 가미하여 감동을 만들어 내는 글이라 할 수 있다. 감동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진지한 사색과 인간답기 위한 새로운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제가 문학의 체로 걸러지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형상화되고 의미화 되어 독자에게 부드럽게 전달될 때, 좋은 수필의 범주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수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 수단도 내용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응모 작품 중에는 글쓰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문단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작품이 많아 안타까웠다. 쓸 만한 자료는 더러 있는데 제대로 된 집을 짓지 못했다는 결과가 된 셈이다.

앞으로 응모 희망자께서는 본격수필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문장의 기초부터 익히면서 주체 측에서 요구하는 작품의 분량도(3천자 내외)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고 동 주, 손 광 성



옥이언니 별

구성이 자연스럽게 문장이 완벽하고 대상에 대한 깊은 통찰이 탁월하며 잔잔한 울림을 주는 수작이다.



아내! 한복입고 외출하다.

서사 구조가 완벽하며 문체가 활달하고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게 뛰어나다. 반전의 장치를 통해서 감동을 극대화한 작품이다.



누룽지

누룽지에서 어머니 시대의 겸허한 희생과 세속의 욕망을 초월한 구도자적 정신을 발견하고 그 누룽지의 덕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잘 접목시키고 있다. 본인의 체험이 가미되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으나 세련된 문장력으로 형상화한 솜씨는 좋았다.



아버지의 뒷모습



필자는 자신의 아버지의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뒷모습을 통해서 읽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쓸쓸한 모습에서 생의 허무와 공허와 슬픔을 잘 표현하고 있다. 흠이 있다면 시제(時制)가 일치 않는 점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돌아온 엄마



외모가 깨끗한 친구의 엄마와 그렇지 못한 필자의 엄마를 대비하면서 소탈하고 모성이 넘치는 필자의 엄마에 대한 사랑이 잘 표현 되었다.

어머니의 초상



팔순이 넘은 노모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에서 자식으로서 안도와 행복을 맛본다는 건강한 시각이 잘 표현된 글이다.

선택



급박한 선택의 기로에서도 선(善)한 쪽으로 기울였던 자랑스러운 체험을 형상화한 글이다. 진솔한 체험에서 느껴지게 하는 감동은 좋았으나 주제를 살리는데 절실하지 않는 문장의 군더더기가 옥에 티였다.

황룡사에서



경주를 지나가다가 “황룡사지”라는 간판 앞에차를 세우고 황룡사 9층탑에 대한 역사를 헤아리다가 “선덕여왕” 능 쪽으로 발길을 옮긴다. 그 시절 그분의 간절한 비원(悲願)이 현실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역사적 과업인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모습을 담았다.

예상치 못한 눈빛과 미소



상습절도범이면서도 항상 미소가 열게 배어있는 천진난만한 피고를 발견하고 그럴만한 배경까지 살펴보면서 상습범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지적한 좋은 글이다. 그러나 문장의 어미(語尾)가 중복되는 등 잘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흠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작들이 많았다. 그래서 대상(大賞) 수상작도 소설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대에 한번도 수상 못한 장르에도 기회를 주자”는 중론에 밀려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사람이 여러 편의 응모작을 보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전체 응모작 편수 계산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입상에는 별로 참고가 되지 않았다. 결국은 작품 수준으로 한편씩이 최후심에 돌러지고, 이 경우에는 편수보다 ‘작품 수준’만을 보기 때문이다. 한 편이라도 보다 완벽하게 다듬으려는 노력을 더 기울였으면 좋을 것 같다.

최후심에는 「사막」을 비롯하여 「천년의 영광」, 「독도」, 「아내의 유언」, 「벤댕이와 아퀴나스」, 「맑음 그리고 한때 비」 등이 올랐다.

이 중 「천년의 영광」은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벌이는 면장의 투쟁담을 극화한 작품인데 이곳이 「신의 사자」를 상징하는 거북을 내세운 옛 대구제국의 유적지였음이 밝혀져 주민들의 현지 보존노력이 승리로 끝난다는 이야기다. 일지를 중심으로 엮어나가는 스토리에 힘이 있으나 문장이 약간 거칠고 현실감이 부족하여 금상은 놓쳤다. 「독도」는 댄 브라운의 소설 「천사와 악마」의 틀을 떠올려주는 작품이었고 「맑음 그리고 한때 비」는 마마 보이인 첫사랑 남성과 결혼하여 시대 식구와 겪는 정주의 갈등을 곁에서 바라보는 친구 정주의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이민 가서의 통신을 통해서 보다 높은 ‘자신의 성찰’을 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부부가 장애아를 만나러 가며 주고 받는 이야기로 대화체로 잔잔히 풀어나간 「아내의 유언」, 출신이 다른 선순과 현우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벤댕이와 아퀴나스」는 모두 한 가지 이상의 결함이 지적되어 뒤로 밀렸다.

마지막에 「사막」을 금상으로 결정했다. <그곳은 과연 어느 나라쯤일까. 당신은 언젠가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 모래 언덕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황량한 사막과 시뻘썩게 달아오른 태양. 또 그 풍경을 가로지르는 낙타 한 마리.>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당신’과 ‘나’ 두 인물의 이야기다.

벌써 반년째 부재중인 ‘당신’은 <금방이라도 텅텅한 목소리로 그림 얘기를 꺼낼 것만 같다.>, <방법틀 사이로 무던히도 눈이 내린다. 하나 둘 낙하하는 눈송이처럼 도서관의 일상들도 눈 앞으로 떨어져 내린다. 그곳에도 눈발이 흐드러지게 내리고 있겠지. 사막같은 그곳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를 또박 또박 견뎌낼 것이다. 당신의 모사화들도 아른거린다. 수많은 집의 거실에 눈요 기감으로 벽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 당신의 모사화.

당신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터번을 두른 영락없는 아랍인이 되어 뜨거운 사막을 헤치고 있진 않을까. 나는 홀연히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연다. 훑날리는 눈송이들이 당신의 그림처럼 투명하다.>로 끝나는 이 소설에서 사막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생존을 위해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노릇을 하며 버둥거리고 있는 ‘나’가 일상을 탈출하여 ‘뜨거운 태양’과 사막 위에서 ‘도전’을 계속하고 있을 ‘당신’을 향해 띄우는 처절한 자기 참회록과 같다. 도서관 속에 갇혀 지내는 현재의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그저 하루 하루를 생존해 가는 무의미한 삶>이고, 당신이 헤매고 있을 그 사막은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가득찬 세계>다. 그 새로운 세계로의 간망을 그린 소설. 문장이 세련되었고, 작품에 군더더기도 없다. 다만 일부 ‘예술가 소설’의 분위기와 작품이 너무 가깝게 느껴진다는게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 인 문, 정 영 자



동시부문

동시는 서정적인 미감을 중시해야 함은 물론 품격있는 시어로 내재율을 살려 한 편의 작품 속에 시(時)와 동(童)이 함께 녹아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율격과 음률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순수한 동심이 담겨야 좋은 동시라고 할 수 있다. 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동시는 특히 첫 연과 마지막 연이 신선해야하고 힘이 실려야 한다.

첫 연은 독자의 마음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야하고 마지막 연은 은은한 여운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제13회 공무원문예대전에 응모한 동시는 450편 이었다. 이 많은 작품 중에서 7편만을 입상작으로 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학작품은 수학처럼 정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응모된 동시를 읽고 느낀 것은 동시는 쉽게 쓴 시, 어린이만 읽는 시로 잘못알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동시에 첫째 독자는 어린이이다.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것이 동시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른들에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동심을 일깨워 주는 역할도 동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번의 숙독을 거쳐 마지막으로 20여 편을 뽑아 놓고 우리 두 사람의 심사위원은 입상작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다.

그 결과 금상엔 〈내 통장〉을, 은상엔 〈빨간 우체통〉과 〈할아버지 나라〉를, 그리고 동상엔 〈내 짝〉 〈살구꽃〉 〈배추〉 〈만들고 싶어요〉 등 7편을 뽑았다.

이 상현, 오 순택



내 통장

내 마음 속의 두 개의 통장, 해님이 들어 있는 맑음 통장과 구름이 들어있는 흐림 통장. 맑음 통장을 아픈 친구의 마음속에 넣어준다는 발상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친구 통장에 넣어준 해님이 내 맑은 통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끝 행이 아름답다.



빨간 우체통



함께 응모한 5편이 간결하고 동시의 맛을 잘 살리고 있다. 독자의 마음을 작품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그리고 우체통에 아이들의 웃음을 넣어 놓으면 산새들이 배달한다는 마무리가 산뜻하다.

할아버지 나라



흙벽에 걸려있는 호미를 보며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는 다분히 회고적인 작품인데도 거기에 현실감각이 가미되어 가슴이 뭉클해진다. <처마 끝 흙벽에 기대있으면, 논둑길로 걸어오시던 할아버지, 하얀비옷에서 드러나듯 작품에서의 비는 어쩌면 회상의 눈물인지도 모른다.

내 짝



3연 8행의 짧은 작품인데도 내 짝을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동시가 너무 길어지다 보면 중심생각이 흩어지게 되고 너무 압축하면 중심생각이 어설피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이 작품은 단시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

살구꽃



간단 명료한 동시이다. 때로는 이런 작품이 우리(독자)를 즐겁게 해준다. 내 키보다 큰 살구나무, 그 살구나무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은 하늘에 꽃구름 한 점 올려놓았다는 어쩌면 대수롭지 않은 표현이 독자를 영원으로 이끈다.

배추



작품의 구성이 단조로운듯하지만 초록 배춧잎에서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는 작자의 눈이 선명하게 드러난 동시이다. 기존 동시인들의 작품에선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신선함이 이 동시의 힘이다.

만들고 싶어요



맑은 공기, 반짝반짝 햇빛, 깨끗한 물, 좋은 흙.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다. 이제 자연이 준 그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환경문제를 다룬 동시가 많았으면 한다.



아동문학은 수요자(독자)가 주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아동발달사와 심리학까지 해야 되고, 시적인 경향성도 겸비해야 쓸 수 있는 전문분야이다.

응모작들 중에 「할머니의 초상」은 앞의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췄을 뿐만 아니라 감동과 교훈도 뛰어난 작품이다. 진원이와 초원이는 엄마가 식당일 다니는 처지라 옆집 할머니와 서로 같이 놀아주면서 글도 읽어주고 가르쳐 주는 선생님 격이 되어 재미나게 지낸다. 그리고, 언니가(애기꾼) 할머니께 초상화를 그려드리면 그리 좋아하셨다. 그러다가 임종 무렵엔 할머니가 두 아이들을 부르는데 같이 재밌게 놀아 주어서 고맙다고 사은금까지 아들 내외에게 시켜 전해준다. 그리고는 초상화는 진짜 실물 초상화 옆에 놓아달라고 말하는 경로효친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보의 관계에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간 사회의 전범 같은 동화였다.

이상배, 정대연



할머니의 초상

모두들 일 나가고 혼자 집을 지키는 옆집의 할머니와 역시 엄마가 일 나가고 집을 지키는 진원이와 초원이가 할머니의 벗이 되어 이웃간, 세대간의 벽을 넘어 사람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야기이다. 초원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할머니의 초상을 영정으로 쓰는 마지막이 감동적이며, 할머니의 말투와 대화체가 동화의 맛을 한껏 살려주고 있다.



눈꽃 할아버지

겨울잠에서 깨어난 다람쥐 조조가 쿡순이라는 친구를 만나 가족을 찾기 위해 늙은 눈꽃나무를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한 그루 나무가 동물에게 이익을 주고, 그 동물은 나무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돕는가를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느림보 도서관

세상엔 모두가 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못하는 것이 있으면 좌절하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의기양양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너구리는 그럴 때 느티나무에 위로를 받고, 자기의 특기를 계발해 돈을 모으고, 책을 좋아해서 그걸 많이 샀다가 져어버리는 낭패를 보았다. 하지만 숲속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책을 모두 좋아하게 만들고, 느림보 도서관을 만들어 성공한다는 반전이 아름답다. 우의적인 판타지.

반항아 수달의 친구 만들기

선생님한테 수영을 못한다고 꾸지람만 듣는 수달과 노래 못하고 부끄럼 많은 부엉이가 친구가 되어 서로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달님의 친구도 되고, 자신감을 찾는 이야기이다.

엄마 단풍나무의 새 눈

금강소나무밭에 한 그루의 오색단풍은 늦갈엔 씨앗을 멀리 날려 왔다. 그러다가 씨앗 하나는 곁에 떨어져 엄마를 괴롭혀가며 산다. 그러자 소나무가 쥐를 시켜 죽여 버리려 해도 엄마단풍은 온갖 수난을 겪으면서도 끝내 어른이 다 된 나무를 보살피 가면서 살자 마치 연리지 나무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우의적 판타지 작품으로 재미와 교훈을 고루 갖추고 있음

요술 주머니와 도깨비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도깨비 주머니는 요술주머니이다. 혁이는 그 주머니는 뭐든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할머니의 유년시절의 한 이야기를 통하여 친숙한 도깨비 신앙에 대한 믿음과 대를 잇는 내리사랑의 정을 느끼게 한다



〈다이아몬드〉

무대공간 활용은 좁은데 사건 전개가 일상적 진부함에 그친 감이 있다.

〈꿈〉

정부의 통제, 만연한 부패, 기계화로 경직된 사회 속에서 언감생심 작가가 되고 싶은 소망을 지닌 강호, 끝내 위험을 무릅쓰고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결말이 꽤기 넘치나, 상황이 구체화되지 못한 큰 약점이 있다.

〈진실, 권력 뒤에 숨다〉

사건이 진행돼 가면서 드러나야 할 핵심 내용이 너무 일찍 쉽게 드러나버리는 큰 약점이 있다.

〈donation〉

장면전환은 매끄러우나 주변인물들 거의 모두가 각자 나름의 사정으로 살의를 품는다는 설정,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피살자 아들의 대응방식이 작위적임.

〈양심치유〉

발상은 의미있으나 줄거리에 그친 감이 있다.

〈주몽을 살린 여인〉

역사의식이 매우 피상적이고 인물들 내면 갈등이 미미하다.

〈어떤 만남〉

겨울 철새 이야기를 설득력있게 전개한 작가의 또 다른 응모작, 인간에 대한 애정 또한 풍부한 작가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지나치게 길면서 사건의 단순기록에 그친 〈그날!〉, 또 너무 짧고 내용 또한 특별하달 것이 없는 두 편이 있었다. 이상, 총 13편 중 10편의 선외(選外) 작품들을 훑어 보았다. 전반적으로 응모자들의 창작에의 깊은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강렬, 최명희



사막같은 오아시스



간결한 대사 속에 간헐적으로 우중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무대 공간 사용은 단순하면서 효율적임, 죽음까지도 일상이 돼버린 막다른 골목, 그 너머까지 배반당한 꿈을 털어내지 못하는 처절함이 눈물겹다 섬짓하도록 단순화된 비관이 인상적이다.

큰 고니 우비짐샤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마당이니 소재부터가 큰 강점이다. 전환없이 한 무대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매력적이고, 무엇보다도 작가는 큰 고니에의 깊은 애정을 간직한 듯 보인다.

동학 농민 혁명 3걸



너무도 진부하게 느껴지는 소재였다. 그러나 읽어갈 수록 주제가 선명하게 포착되고 세부 묘사며 호남 사투리가 정겨웠다. 그러나 권장 길이의 두 배 이상 되는 길이, 자주 바뀌줘야하는 무대 세트, 엄청난 수의 등장인물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 심사평

매화 _ 정성수

이 작품은 상당히 능숙한 솜씨를 보여준다. 매화란 시적 대상을 언술하는 화자의 말투가 우선 거침이 없다. 그런가 하면 ‘작은 것들에 게서 뜻을 보고 마음을 읽는’ 매화에 대한 상상적 해석 또한 뛰어나다. 이 같은 당당한 시적 솜씨 때문에 금상으로 올리는 데 우리는 쉽게 합의했다.

겨울 우시장에서 _ 노희석

겨울 우시장에서 삶의 마감을 기다리는 소들의 행방을 잘 추적해내어 사라져 가는 농경문화의 한 단면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누렁소 붉은 울음이 바뀌마다 감긴다’ 와 같은 가구(佳句)의 종장처리도 돋보인다. 앞으로는 지나치게 묘사에 의존하기보다 사유와 통찰에 초점을 맞추어 공감대를 넓혀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옥이언니 별 _ 정명애

구성이 자연스럽게 문장이 완벽하고 대상에 대한 깊은 통찰이 탁월하며 잔잔한 울림을 주는 수작이다.

사막 _ 황인용

도서관 속에 갇혀 지내는 현재의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그저 하루 하루를 생존해 가는 무의미한 삶〉이고, 당신이 해매고 있을 그 사막은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가득찬 세계〉다. 그 새로운 세계로의 갈망을 그린 소설. 문장이 세련되었고, 작품에 군더더기도 없다.

내 통장 _ 심금섭

내 마음 속의 두 개의 통장, 해님이 들어 있는 맑음 통장과 구름이 들어있는 흐림 통장. 맑음 통장을 아픈 친구의 마음속에 넣어준다는 발상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친구 통장에 넣어준 해님이 내 맑음 통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끝 행이 아름답다.

할머니의 초상 _ 이윤정

모두들 일 나가고 혼자 집을 지키는 옆집의 할머니와 역시 엄마가 일 나가고 집을 지키는 친원이와 초원이가 할머니의 벗이 되어 이웃 간, 세대간의 벽을 넘어 사람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야기이다. 초원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할머니의 초상을 영정으로 쓰는 마지막이 감동적이며, 할머니의 말투와 대화체가 동화의 맛을 한껏 살려주고 있다.

사막같은 오아시스 _ 김수형

간결한 대사 속에 간헐적으로 우중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무대 공간 사용은 단순하면서 효율적임, 죽음까지도 일상이 돼버린 막다른 골목, 그 너머까지 배반당한 꿈을 털어내지 못하는 처절함이 눈물겹다 심기하도록 단순화된 비관이 인상적이다.

